언론사: 한국일보-1-1.txt

제목: 강원ㆍ경남ㆍ전북ㆍ전남ㆍ충남 지역개발 청사진 완성…10년간 21조 원 투자  
날짜: 20171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28050821002  
ID: 01101101.20171228050821002  
카테고리: 지역>충남  
본문: 강원 지역 동굴과 탄광 등이 고원 산악관광 거점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경남은 산삼ㆍ온천ㆍ약초 등 지역 특산물을 바탕으로 항노화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충남은 고속화철도(KTX) 공주역 인근을 지역 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br/>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원ㆍ경남ㆍ전북ㆍ전남ㆍ충남 발전촉진형ㆍ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별(경기ㆍ제주 제외) 낙후ㆍ거점지역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지난해 충북ㆍ경북에 이어, 이번에 나머지 5개도의 지역개발계획이 확정됐다. <br/>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해 5개도에서 총 436건, 약 20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최종 반영됐다. 민간투자가 13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66.4% 차지하고, 국비 3조4,000억원(16.4%), 지방비 3조6,000억원(17.2%)이 투입된다. <br/>‘약동하는 행복강원’을 앞세운 강원은 8조4,000억원(87건)을 들여 속초항ㆍ낙산사ㆍ오죽헌 등 강원 동해안의 관광자원을 정비한다. 또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도로 개설ㆍDMZ 생태관광지 조성ㆍ주문진-옥계 관광탐방로 설치ㆍ문암진리 선사유적 공원화 등을 추진한다. <br/>‘더불어 성장하는 웰니스’를 내세운 경남은 2조2,000억원(74건)을 투자해 함양산삼 휴양밸리와 로봇비즈니스벨트ㆍ한방 항노화 휴양체험지구를 만든다. 우포늪 주변 지역 관광활성화와 황매산 관광벨트 기반시설 구축 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br/>전북은 ‘환황해 거점’이란 사업추진 목적에 맞게 군산ㆍ부안 일대를 해양ㆍ레저관광으로, 진안ㆍ장수ㆍ무주는 산악ㆍ청정관광 지역으로 키우기로 했다. 여기에 고창고인돌 생태공원, 무주 태권마을, 순창 장류밸리 등이 조성되고, 고군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섬 지역 간 연결도로도 개설된다. 45개 사업에 1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br/>‘활기가 넘치는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내세운 전남은 4조8,000억원(131건)을 들여 KTX 목포역 역세권을 개발하고, 신안 인근 도덕도ㆍ굴도 등에 해양리조트ㆍ펜션 단지 등을 만든다. <br/>충남은 ‘행복한 성장지대’를 개발 목표(4조3,000억원ㆍ99건)로 잡고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이 몰려 있는 아산만권 일대를 전략산업지역으로 키울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KTX 공주 역세권 등 발전 잠재력이 큰 곳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손덕환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span class='quot0'>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개발 효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br/>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2.txt

제목: [북 리뷰] "진화에 대한 오해가 낳은 구석기 시대의 환상을 버려라"  
날짜: 20171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28050808001  
ID: 01101101.20171228050808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섹스, 다이어트 그리고 아파트 원시인<br/>매를린 주크 지음ㆍ김홍표 옮김 <br/>위즈덤하우스ㆍ464쪽ㆍ1만8,000원 <br/><br/>진정한 것과 진정하지 않은 것. 이를 논할 때 우리의 기준은 자주 시간이 된다. 오래된 것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진정한 취급을 받고, 새로 나온 건 그 이유만으로 진정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는다. 가장 최신의 생물종 중 하나인 인간이 이토록 텃세를 부린다는 건 이상한 일이지만, 여전히 화학조미료에 얼굴을 찌푸리고 파스타에 고개를 저으며 알몸으로 산의 정기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br/>미국의 진화생물학자 매를린 주크의 ‘섹스, 다이어트 그리고 아파트 원시인’은 이 같은 텃세에 보내는 코웃음이다. 그의 상대는 구석기를 이상적인 시대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조미료도, 농경도, 도구도, 일부일처제도 없었던 구석기의 생활환경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이들을 향해 저자는 단호히 답한다. 구석기 시대는 진정한 시대가 아니라 춥고 불편하고 극복해야 할 시대였다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인간은 진화했으며 그 진화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라고.<br/>“구석기 환상은 부분적으로 우리 인간 또는 인간 이전의 사람속 구성원이 그들의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다는 가정에 바탕을 둔 ‘환상’이다. 우리는 진화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을 인간뿐 아니라 다른 생명체에도 적용한다. (…) 인간과 마찬가지로 어떤 종도 환경과 무난히 부합한 적은 없었다. 설령 자연선택이 현생인류에게 강제하는 절충안이 지금은 없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진화의 역사를 거쳐온 타협 또는 ‘그럴싸한’ 해법의 산물이다.” <br/>‘나는 자연인이다’ 류를 비롯해 한국의 구석기 환상도 뿌리가 깊지만, 서구에서는 좀 더 진지하게 이런 생활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었다. 2010년 뉴욕타임스,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은 ‘도시 원시인들’을 조명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가공된 음식을 피하고 주로 육식을 하며, 마치 포식자를 피해 달아나듯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가끔 헌혈도 한다. 원시인들이 사냥할 때 일어났던 출혈을 재현하기 위해서다. <br/>이들은 극소수의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메간 폭스, 케이트 허드슨 등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도 자신의 건강 비결로 ‘구석기 다이어트’를 언급한 적이 있다. 곡물의 녹말은 비만과 성인병을 유발하며, 유제품과 가공식품은 진정한 인간은 소화할 수 없는 진정하지 않은 음식이란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우유를 소화하기 위해 인류가 차근차근 진화했다는 것, 녹말섭취가 농경에서 시작됐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점, 구석기 시대의 과일과 채소가 결코 지금의 맛과 같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한다. <br/>그러나 그보다 더 큰 틀의 문제가 있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진화의 속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진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구석기 시대처럼 특정 시기 이후로 뚝 끊겨버리는 것도 아니다. 동물행동 연구가 주종목인 저자는 자신의 눈 앞에서 일어난 귀뚜라미의 진화에 대해 들려준다. <br/>그는 하와이에 최소 150년 전 유입된 한 귀뚜라미 종에 대해 연구 중이었다. 다른 귀뚜라미들처럼 이들도 시끄럽게 노래했고, 이는 번식에 필수라는 점에서 유전자의 명령이었다. 그러나 섬에는 귀뚜라미의 울음 소리를 듣고 그들의 몸에 유충을 떨어뜨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기생파리가 있었다. 5년 뒤 다시 찾은 섬은 적막했다. 주크는 귀뚜라미가 멸종했다고 생각했지만 곧 바닥에서 펄쩍이는, 노래하지 않는 귀뚜라미와 마주했다. 살기 위해 번식을 포기한 변종 귀뚜라미가 탄생한 것이다. 5년이란 시간은 귀뚜라미 세계에서 약 20세대에 해당한다. 이는 인간세상으로 치면 겨우 수세기에 불과하다. <br/>인간은 몇 백 년 만에 다른 인간이 될 수 있을까. 41세기의 인간은 21세기의 인간과 체질부터 다를까. 저자에 따르면 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바뀔지는 이 책의 주제가 아니다. 저자는 다만 암, 비만, 거북목으로 고통 받는 현대인들이 과거 미화로 향해버리는 걸 막고자 한다. <br/>“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허우적대는 인간을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재미있다. 그렇지만 커다란 맥락에서 간혹 우리는 모두 물을 박차고 나온 물고기 같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는 살아가는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이다. 과연 그런 환경이 있기는 했던가?” <br/>황수현 기자 sooh@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3.txt

제목: 내 세금은? 혜택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밑줄긋기  
날짜: 20171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27050958001  
ID: 01101101.20171227050958001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세금 <br/>▲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br/>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br/>▲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환원 <br/>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넘는 구간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다. <br/>▲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br/>2주택 보유자가 서울ㆍ세종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3주택 이상이면 20％포인트) 가산한다.<br/>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상은 내년 4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된다.<br/>▲근로 장려금 지급 확대 <br/>가구당 산정액 최고 금액이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장애인 단독가구 신청 연령 제한을 없앤다.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의 신청도 허용한다. <br/>▲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br/>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br/>▲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br/>내년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ㆍ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내년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br/>▲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br/>신설 어업인이 8년간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은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br/>▲자경 산지 양도세 감면 신설 <br/>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해서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50％ 감면한다. <br/>▲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확대 <br/>증여자ㆍ수증자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어업용 토지(4만㎡ 이내), 어선(20톤 이하), 어업권(10만㎡ 이내)에 대해서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한다. <br/>▲주식 양도세 누진세율 적용 <br/>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년 유예해 2019년부터 적용한다. <br/>▲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br/>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출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3,000만원 이하 구간은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70％, 5,000만원 초과 구간은 3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현행은 1,500만원 이하는 100％, 1,500만∼3,000만원은 50％, 5,000만원 초과는 30％로 돼 있다. <br/>▲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br/>조세회피 목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br/>▲양도세 감면 한도 정비 <br/>비과세ㆍ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br/>▲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 시 양도세 감면기한 연장 <br/>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이 2020년 말까지 기존보다 3년 연장된다. <br/>▲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br/>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br/>▲해외카드 사용ㆍ인출 내역 제출대상 확대 <br/>지금까지는 '물품구매액+인출금액'의 분기별 총액이 5,000달러 이상이면 매 분기 다음 달 말일에 사용 내역이 관세청장에게 제출됐지만, 내년 2월부터 물품구매액 또는 인출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실시간으로 제출된다. <br/>▲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br/>올해까지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세액공제해줬지만, 내년에는 공제율이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br/>▲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 <br/>체납액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공개대상 기준 체납액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다. <br/>▲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br/>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br/>▲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br/>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 교차ㆍ삼각 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의제를 계산하는 방법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의 공제율을 줄여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br/>▲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br/>중소기업, 매출액 3,000만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조정한다. 기존 300억원 한도의 영위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500억원은 2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한다. 연부 납부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연장한다. <br/>▲국외전출세 신설 <br/>국외 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해외로 나가게 돼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면 국내 주식을 국외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평가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한다. <br/><br/>◇금융 <br/>▲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br/>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br/>▲ISA 제도 개선 <br/>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어민의 경우 이자소득 기준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제 혜택 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는다. <br/>▲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 <br/>내년 1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br/>▲신혼부부 대출 금리 우대 <br/>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으로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도 기존 우대금리(0.7％ 포인트)에 더해 최대 0.4％ 포인트 추가로 인하한다. <br/>▲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 <br/>지금까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000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br/>▲청년대상 월세자금 지원 확대 <br/>월 대출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을 할 때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 <br/>▲두 자녀 가구 버팀목 전세 우대금리 신설 <br/>부부합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가구에 대해서 0.2％포인트의 전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br/><br/>◇주거ㆍ교통 <br/>▲빈집 정비 활성화 <br/>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월 시행된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빈집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빈집이 밀집한 지역에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을 임대주택과 주차장 등 공용 이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도 간소화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br/>▲항공사진 해상도 25㎝급 전국 공개 <br/>25㎝ 크기의 물건도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의 항공사진 공개 대상 지역이 내달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국가보안을 위해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25㎝급 해상도 항공사진이 일반에 제공됐다.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가 열리는 지역은 행사 기간 25㎝보다 정밀한 사진도 공개된다. <br/>▲지적 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br/>지적 재조사에 의한 조정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가 기존 6개월, 3회에서 1년, 4회로 늘어난다. <br/><br/>◇보건복지ㆍ식품<br/>▲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br/>소득분위 하위계층(50%이하)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br/>▲재난적의료비 지원, 모든 질환에 적용 <br/>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br/>▲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br/>공중화장실에서 미관을 해치고 해충을 들끓게 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완전히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br/>▲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확대 <br/>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 직군에만 의무화돼 있던 '신고의무 교육'이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br/>▲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제한 <br/>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다. 2017년 12월 23일 전면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하는 수련을 받을 수 없게 된다. <br/>▲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br/>내년 4월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된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포장된 물티슈, 일회용 컵과 숟가락, 젓가락, 포크, 기저귀 등 총 17개 종류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br/><br/>◇노동 <br/>▲최저시급 7,530원 <br/>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ㆍ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br/>▲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br/>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서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1인당 13만원을 매달 지원한다. <br/>▲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br/>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는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br/>▲통상 출ㆍ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br/>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ㆍ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br/> <br/>◇여성 <br/>▲이혼 후 300일 낳은 아이, 소송 없이 생부 아이로 출생신고 가능 <br/>내년 2월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소송 없이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야 한다. <br/>▲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등 서비스 지원 <br/>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원기관을 통해 유포 영상물 삭제, 경찰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 사후 모니터링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된다. <br/>▲여성 고위공무원단ㆍ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도입 <br/>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 고위직의 여성 진출을 늘리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6.1%였던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을 내년 10%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은 11.8%에서 20%로 높일 계획이다. <br/><br/>◇교육 <br/>▲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br/>올해 1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집 소요액의 58.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면서 예산 논란은 계속돼 왔다. 정부는 국가책임을 확대해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반영한다. <br/>▲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예산확대 <br/>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재해특별교부금에서 매년 1,000억원씩 추가 지원해 경북, 경남 등 지진 위험 지역은 2024년까지, 그 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학교시설내진설계지준에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방법을 신설해 적합한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천장조명, 피난계단 등 비구조부위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br/>▲초ㆍ중ㆍ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br/>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생(중위 소득 50% 이하ㆍ 2018년 기준 4인가구 225만원)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ㆍ수업료, 교과서)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지금까지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8년 3월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원을 연 1회 지원하고 4만1,200원이던 부교재비도 6만6,000원으로 인상한다. 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ㆍ부교재비 지원금액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br/>▲고교 문ㆍ이과 통합교육,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실시 <br/>고등학교에서는 통합사회ㆍ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도입해 1학년 때 배우게 된다. 토론, 프로젝트, 탐구활동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도 확대한다. 중학교에서는 정보교과를 필수교과로 해 모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br/><br/>◇행안ㆍ인사<br/>▲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 가능 <br/>내년 3월20일부터 등록 외국인이나 국내 거주지 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 중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된다.<br/>지금까지는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경우 배우자를 동반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br/>▲‘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제’ 시행 <br/>유학생, 주재원 등 장기간 해외 체류자들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일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제를 시행함에 따라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은 부모 등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 주소로,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기재해 국내 주소로 관리토록 했다.<br/><br/>◇교통<br/>▲주ㆍ정차된 차량에 흠집을 내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처벌<br/>기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ㆍ정차된 차량만 부서지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이 ‘도로 상’의 사고에만 적용되고 ‘도로 외’의 사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문으로 옆차를 흠집 내는 ‘문콕’은 운전에 의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br/>▲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br/>견인 비용도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운전자가 만취했거나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차량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견인조치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진 견인조치 시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경찰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경찰이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br/>▲특별교통 안전교육 대상도 확대<br/>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치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권장 대상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추가됐다. <br/><br/>◇중소기업<br/>▲소상공인 월 고용보험료 30% 정부 지원<br/>기준보수(154만원) 1등급인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 가까운 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 지원대상과 비율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br/>▲중소기업의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도 신설<br/>신산업ㆍ신기술 영위기업,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이 지원 대상으로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최대 70억원을 10년간, 운전자금으로 최대 10억원을 5년 간 2.3% 금리로 빌려준다. <br/>▲향후 5년간 지역스타기업 1,000개를 선정해 지원<br/>200개 글로벌 강소기업 및 양질의 일자리 6,000개 창출을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br/><br/>◇외교안보<br/>▲ 병사 봉급 및 예비군 훈련비 인상<br/>병장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88% 오른다. 이등병의 경우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3월 시작하는 예비군 훈련부터는 보상비가 하루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도 기존에는 훈련장까지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7,000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동 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추가 지급한다.<br/>▲ 전역시 '군 경력증명서' 발급<br/>격오지ㆍ접적 지역 근무 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 구체적인 군 복무 내용이 담긴 군 경력증명서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br/>▲ 유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br/>1월부터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생계 곤란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매월 33만5,000∼46만8,000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새해부터는 또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2017년까지는 감면율이 60%였다. <br/>▲ 2월부터 ‘해외안전지킴센터’도 설치<br/>외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등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재난 초기 대응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언론사: 한국일보-1-4.txt

제목: 강남 유명 치과의사 무허가 임플란트 11만개 제조ㆍ유통  
날짜: 20171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27050939002  
ID: 01101101.20171227050939002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유명 여가수 모델로 광고도<br/> 무허가 임플란트를 제조ㆍ판매한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br/>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나찬기)는 27일 보건당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플란트를 제조ㆍ판매하고,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동 S치과 원장 황모(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br/>황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10월까지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임플란트 11만개를 제조해 전국 125개 치과에 유통하고, 자신의 치과에서 환자 850명을 상대로 약 4,500개를 직접 시술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7월~2015년 3월 자신이 개발한 ‘원바디(일체형)’ 임플란트에 투자하면 월 매출을 보장하고 대출금은 대신 갚아주겠다며 치과개원의 10여명으로부터 28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는다.<br/> 황씨는 지난 5월부터 넉 달 동안 의료기기 제조공정 관련 서류 175건을 위조해 부산식약청장으로부터 GMP(의료기기 제조ㆍ품질 관리기준)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은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br/> 황씨는 ‘원바디 임플란트’를 홍보하기 위해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투바디(분리형) 임플란트’는 세균번식으로 암과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가 지난해 6월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근거 없이 국민 불안과 오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유명 여가수를 모델로 방송광고를 하고, 중앙 일간지 인터넷판에 광고성 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이런 내용의 홍보를 계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br/>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5.txt

제목: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老母의 가슴 저미는 유서 ‘14줄’  
날짜: 20171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27050920001  
ID: 01101101.20171227050920001  
카테고리: 지역>광주  
본문: 난소암 투병 중에도 ‘힘들다’ 내색 않던 어머니<br/>죽음 앞에서도 애틋한 자식사랑 글로 남겨<br/><br/> “<span class='quot0'>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span>”<br/> 광주의 70대 노모(老母)가 죽음을 앞두고 3남1녀 자식들에게 남긴 가슴 저미는 유서가 엄동설한 속에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고 있다.<br/> 난소암으로 1년 가량 투병하다가 이달 중순 세상을 떠난 나모(78)씨. 나씨는 더 이상 병원치료가 불가능한 암 말기 진단을 받고 결국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길 즈음 자신을 떠나 보내는 피붙이들 몰래 ‘감사의 글’을 작성했다.<br/> 나씨의 유서가 되어 버린 이 글은 단 14줄. 그러나 노모의 자식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애틋하고 숙연했다. 지난 19일 광주의 한 성당 장례미사에서 이 글이 낭독되자,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로 변했다. <br/>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줌이 고마웠네”라고 유서는 운을 뗐다. 어느덧 훌쩍 나이든 자식들에게는 ‘자네’라고 존대했다.<br/> 이어 노모는 장성한 자식들의 갓난 아이 적을 추억했다. “<span class='quot0'>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span>” <br/> 이어 “병들어 하느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라며 연신 자식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br/> 나씨는 4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하고 35년 간 수절하며 소천하는 그날까지 자식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br/> 그는 “지아비 잃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라며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라고 감사했다.<br/> 노모는 맏딸과 세 아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등을 두드리듯 위로했다.<br/> “딸 아이야, 맏며느리ㆍ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 애야, 맏이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곁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br/><br/> 노모는 출산의 기쁨과 사별의 아픔, 자식 위로로 생의 마지막 글을 남긴 뒤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2017년 12월 엄마가)”라고 약속했다.<br/> 한 유족은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안 한 깔끔한 분”이라며 “어머니의 한없는 자식사랑과 희생적인 삶에 가슴이 미어져 이 글을 올리게 됐다”고 전했다.<br/> 이 글을 받은 한 조문객은 “세상의 그 어떤 시보다고 아름답고, 효와 병들고 나이든 부모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커다란 교훈의 글”이라며 “위대한 어머니이자,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말했다.<br/> 고인은 전남 함평군 대동면 선산의 남편 묘소 옆에서 영면했다.<br/>광주=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6.txt

제목: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소득하위층, 치료비 부담 줄어든다  
날짜: 20171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27050853001  
ID: 01101101.2017122705085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보건복지ㆍ식품<br/>▲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br/>소득분위 하위계층(50%이하)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br/><br/>▲재난적의료비 지원, 모든 질환에 적용 <br/>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br/><br/>▲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br/>공중화장실에서 미관을 해치고 해충을 들끓게 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완전히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br/><br/>▲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확대 <br/>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 직군에만 의무화돼 있던 '신고의무 교육'이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br/><br/>▲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제한 <br/>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다. 2017년 12월 23일 전면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하는 수련을 받을 수 없게 된다. <br/><br/>▲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br/>내년 4월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된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포장된 물티슈, 일회용 컵과 숟가락, 젓가락, 포크, 기저귀 등 총 17개 종류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언론사: 한국일보-1-7.txt

제목: 대구한국일보 송년회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진성 디너쇼’ 성료  
날짜: 20171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27050839003  
ID: 01101101.20171227050839003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암투병 극복 가수 진성 출연<br/>화려한 무대매너로 관객 매료<br/><br/><br/><br/>지역 최고의 명품 송년회로 손꼽히는 대구한국일보사 송년회가 26일 성황리에 열렸다.<br/>‘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진성 디너쇼’로 열린 송년회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대구 북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조해녕, 김범일 전 시장과 김재수, 강은희 전 장관 등 지역 유명인사를 비롯해 7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버라이어티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송년회 주인공인 진성은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암투병을 극복하고 무대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불과 반년 전까지 암환자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시원한 목청과 화려한 무대로 참가자들을 매료시켰다. 그는 “안동역에서를 히트하면서 경상도가 제2의 고향이 되었다”며 “암을 털고 일어난 후 맞는 첫 대형무대인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 공연에 임했다. 고향에서 더 자주 불러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br/>송년회에 앞서 ‘미스코리아 베이비 키즈(미코베키)’ 선발대회 수상자들이 펼친 깜찍한 무대가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미스코리아 대구경북 수상자들과 함께 등장한 어린이들이 귀여운 포즈를 취할 때마다 객석에서는 환호와 함께 휴대폰 카메라 불빛이 번쩍였다. 1부의 막은 파파로티상을 수상한 여중생 김정윤양이 열었다. 김양은 ‘think of me’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어 지역 가수 이승수와 국악인 강세정, 강유정 자매가 우리 가락으로 흥을 돋우는 가운데 최수정 실크빔 한복패션쇼가 열렸다. 일반인 모델이 꾸민 무대는 지역 한복의 경쟁력을 과시한 자리였다. 좋은 국산 원단으로 예스러움과 세련미를 동시에 살린 한복이 하나씩 소개될 때마다 감탄과 박수가 쏟아졌다. 패션쇼 후에는 가까이에서 한복을 보고 싶어 굳이 무대 뒤로 달려가는 관객도 있었다. 송년회의 품격을 더한 패션쇼였다. 박병욱 대구한국일보 발전위원회장은 “<span class='quot0'>대구한국일보에서 꾸준히 한복 패션쇼를 해왔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한복은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 옷</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특히 국악 가락과 어우러져 모델들의 워킹이 훨씬 멋스러워 보인다</span>”고 말했다. <br/>패션쇼에 이어 트로트 한바탕이 펼쳐졌다. 막을 연 목소리는 지역에서 신예 트로트 신동으로 떠오른 여고생 김유빈양과 초등생 신서영양이었다. 지난 5월 ‘이미자 빅쇼’에 함께 선 경험이 있는 두 사람은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 등을 불렀다. 신양은 절정의 박자 감각을, 김양은 나이답지 않게 구성지게 꺾어지는 목소리로 단숨에 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1박2일’ 기상송으로 유명세를 얻은 가수 나상도가 등장했다. ‘벌떡 일어나’를 부르면서 목을 도마뱀처럼 좌우로 돌리는 댄스를 선보이자 객석에는 폭소가 터져 나왔다. 1절을 부르고 나자 곧장 떼창이 흘러나왔다. 그는 “<span class='quot0'>2018년은 노랫말처럼 모두가 벌떡 일어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내년에는 나상도 디너쇼를 대구에서 열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span>”는 포부를 밝혀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br/>다음은 미스코리아 빅쇼였다. 미스코리아 도유리를 비롯해 김지원, 박영선 등이 등장해 뮤지컬 ‘미스코리아’의 일부를 선보였고, 이승아, 김지원씨가 ‘축배의 노래’, ‘투나잇’ 등을 불렀다. 이어 인삼아가씨와 미스 대구 경북 수상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맞지’, ‘가시나’ 등의 음악에 맞춰 군무를 선보여 지역에서 좀체 보기 힘든 화려함과 규모를 선보였다. <br/>관객의 혼을 빼놓는 화려한 미스코리아 군무가 끝난 후 드디어 이날의 주인공 진성이 등장했다. 대형 화면에 비친 그의 얼굴을 얼마 전까지 암투병을 한 사람답지 않게 건강했고 목소리도 우렁우렁했다. 최근 내놓은 신곡 ‘보릿고개’를 시작으로 그의 이름을 알린 첫 히트곡 ‘태클을 걸지마’를 비롯해 ‘님의 등불’, ‘내가 바보야’, 그리고 불후의 명곡 ‘여자의 일생’ 등을 열창했다. 그의 출세곡 ‘안동역에서’를 부를 때는 객석에서 우렁찬 떼창이 터져 나왔다. 노랫말 속에 담긴 아쉬움과 아련한 그리움이 저무는 한해를 갈무리는 감상과 겹쳐 눈시울을 훔치는 관객도 적지 않았다. 진성은 “<span class='quot1'>안동역에서 무릎이 눈에 파묻히도록 누군가를 기다리고 선 그 남자가 바로 우리네 인생의 모습</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그래도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 내년에는 여러분 모두 오래 기다린 그 사람을 꼭 만나길 바란다</span>”는 덕담을 건넸다. 객석에서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어 트로트 메들리로 객석을 들었다 놨다 한바탕을 흥을 폭발시켰다. 진성의 골수팬으로 알려진 윤상철 윤상철그리포란 대표는 “진성씨가 ‘님의 등불’을 부르던 무명시절부터 그의 노래를 좋아했다”면서 “이번 송년회 디너쇼는 진성의 매력을 120% 보여준 최고의 쇼였다. 팬으로서 감격스럽기까지 하다”는 관람 소감을 밝혔다. <br/><br/>김광원기자 jang750107@hankookilbo.com<br/><br/>/그림 3유명상 대구한국일보 대표와 가수 진성이 무대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8.txt

제목: 세종시, 맞춤형 청년 정책 위한 ‘청년통계’ 작성  
날짜: 20171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27050808001  
ID: 01101101.20171227050808001  
카테고리: 경제>취업\_창업  
본문: 인구 9만4,071명으로 전체의 34.7%<br/>지표 보완해 자료 활용하고 2년마다 공표<br/><br/><br/> 세종시는 젊은 도시 세종의 중추인 청년(만 15~39세)의 맞춤형 정책을 위한 청년통계’를 자체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br/> 통계는 올해 9월 말 기준 주민등록, 재산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자료를 토대로 6개 부분으로 나눠 작성했다.<br/> 통계에 따르면 청년 인구는 9만4,071명으로 세종시 전체 인구의 34.7%를 차지했으며, 미혼이 많았다. 초혼 연령은 남성의 경우 30~40세, 여성은 25~29세가 주류를 이뤘다.<br/> 청년인구의 순이동자는 2만2,354명으로 대전과 수도권 전입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거주지역 및 주택 유형은 역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에 집중됐다. 건축물을 소유한 청년 671명, 토지 소유는 1,444명으로 파악됐다.<br/>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18.1%(787명)나 돼 청년 빈곤은 세종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청년 등록장애인은 1,378명이었다. 공적연금 가입자는 4만7,53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국민연금은 3만7,289명, 공무원연금은 1만112명, 사학연금은 130명 등이었다.<br/> 올해 청년 구직자는 5,735명으로, 여성(3,824명)이 남성(19,11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희망 월급여는 ‘150만~200만원’이었다.<br/> 청년 사업가는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이 많았고, 청년근로자는 제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이 대부분이었다.<br/> 청년 중증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이, 청년 만성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정신분열증 등의 순으로 많았고, 청년 암 환자는 유방암과 위암, 대장암을 많이 앓고 있었다.<br/> 선정호 시 정보통계담당관은 “젊은 도시 세종을 이끌 청년세대의 일자리와 결혼, 주거 등 전반을 파악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지표를 보완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2년마다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9.txt

제목: 월 450만원 버는 4인 가구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받는다  
날짜: 20171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26050944003  
ID: 01101101.20171226050944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중위소득 이하로 지원기준 완화<br/>지원액도 年 2000만원으로 늘려<br/><br/>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도 확대된다.<br/>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연간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가구에 복권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등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br/>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br/>내년 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인 중위소득 이하(1인 가구 167만2,000원 이하ㆍ4인 가구 451만9,000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었다. 또 지원 대상 질환이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 질환, 심장ㆍ뇌혈관 질환, 중증화상)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단, 입원 진료에만 이런 질환 확대가 적용되고 외래 진료는 지금처럼 4대 질환만 지원 된다. 비급여 의료비의 50%가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되는데 지원액 한도 또한 ‘평생 2,0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상 가구는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br/>단, 긴급의료지원이나 암 환자 의료비 지원과 같이 다른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나,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자는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br/>이번 시범사업 기간은 1~6월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통과되면 7월부터는 시범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본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br/>한편 보건복지부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후속조치로 신경인지기능검사에서 치매 전 단계로 의심되는 결과(경도인지장애)가 나온 60세 이상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br/>지금까지 치매 MRI 검사는 경증이나 중증 치매로 진단되는 때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치매 의심 단계에서 한 MRI 검사는 모두 비급여여서 검사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뇌 MRI 촬영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기본촬영은 7만~15만원, 정밀촬영은 15만~35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0.txt

제목: 대전 베이비부머세대 20만4,000여명…고령화로 의료비 부담 늘어  
날짜: 20171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26050901001  
ID: 01101101.2017122605090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전지역 베이비부머 세대가 20만4,000여명에 이르며, 고령화로 국민기초생활수급과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는 추세다. <br/>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전쟁 후 1955년부터 가족계획정책이 시행된 1963년 사이에 태어나서 1970년대 말~1980년대 초에 사회생활을 시작,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들은 경제활동에서 점차 은퇴하고 있지만 자녀세대들의 취업과 결혼이 늦어지고 노부모 부양 등으로 여전히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br/>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베이비부머는 시 전체 인구의 13.6%인 20만4,581명에 이른다. 이는 2년전 21만610명보다 2% 감소한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10만1,480명, 여성이 10만3,101명으로 여성이 1,621명 많다. <br/> 출생연도별로는 1961년생이 12.9%인 2만6,491명으로 가장 많고, 1955년생이 1만9,574명(9.6%)으로 가장 적었다. <br/> 복지측면에서 이들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베이비부머는 7,332명으로, 2015년(5,510명)보다 33.1%가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13.6%(19만9,497명)로 2년전보다 3.1% 떨어졌다. <br/> 고령화가 진행되며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늘고 있다. 1인당 평균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13만3,000원이며, 1955년생이 16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6만8,731명으로 2년전보다 10.9% 늘었으며, 암ㆍ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도 3만529명으로 2년전보다 17.3%가 늘었다. <br/> 현재까지 직장생활 등을 통해 소득을 벌고 있는 근로소득자는 전체의 47%인 9만6,137명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 2명 중 1명은 근로소득이 없는 셈이다. 상시종사자가 71.9%인 6만9,093명이며, 임시 및 일용근로자 2만1,090명, 자영업자 5,954명으로 집계됐다. <br/> 베이비부머 중 주택 소유자는 40.6%인 8만3,083명으로 10명 중 4명에 불과했다. 주택 종류는 아파트가 70.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 22.4%, 연립 및 다세대 11%, 기타 0.5% 등이다. <br/> 대전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와 고령화 등을 맞아 인구관리, 복지, 경제활동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 살기 좋은 복지대전을 구현하는 시책수립에 활용하겠다</span>”고 말했다.<br/>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1.txt

제목: [기고] 암도 극복할 수 있다  
날짜: 20171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26050900002  
ID: 01101101.20171226050900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2015년 암 등록 통계’를 발표했다. 갑상선암이 크게 줄고 위암과 대장암 등도 감소하면서 전체 암 발생은 전년도에 비해 4,253명 줄었다. 하지만 유방암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암으로 진단 받은 사람이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70.7%로 나타났다. 암환자 10명 중 7명은 병을 이겨내고 일반인처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국가 암 검진 대상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생존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암을 경험한 사람, 즉 암을 치료 중이거나 암이 완치된 사람은 2015년 기준으로 160만 명을 넘어섰다<br/>그런데도 암은 지난해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다. 국가 암 관리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1996년부터 두 차례의 10개년 암 정복 계획과 2016년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암 생존율은 10년 전(2001～2005년, 54.0%)에 비해 16.7%포인트 높아졌다.<br/>그 동안의 국가 암 관리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 관리 정책은 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즉 금연, 금주, 타거나 짠 음식 피하기 등 건강한 생활습관 중심의 암 예방 수칙을 만들고, 5개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국가암검진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저소득층 대상 암환자 의료비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br/>제3차 종합계획부터 암 생존자에 주목해 대책을 마련했다. 한번 암이 발생하면 치료 후에도 재발과 후유증 위험이 커지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고통도 상당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나 심리상담 등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국립암센터와 6개 지역암센터에서 암 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도 새로 개발할 예정이다.<br/>호스피스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암환자를 대상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환자 등 3개 질환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환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가정이나 일반병실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ㆍ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서 한국형 호스피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갈 것이다.<br/>폐암 조기검진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폐암은 많이 나타나고 사망률도 높은데, 조기에 발견할수록 생존율이 높지만 효과적 검진방법이 제시되지 못했다. 올 4월부터 폐암검진을 국가 암 검진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시범사업을 시작, 국립암센터를 포함한 전국 14개 기관에서 만 55~74세 사이 매일 1갑씩 30년 이상 흡연한 경우 등 고위험군에게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활용한 검진을 실시한다. 2018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서 2019년부터 본사업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대장암 사망률이 위암을 앞지르면서 대장암검진 본인부담을 없애는 등 대장암 조기발견 정책도 강화한다.<br/>이 밖에도 암 발병과 치료법 등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암 데이터베이스 및 지역별 암 발병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암 관리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br/>다만 이런 정책만으로 국민 건강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국민 각자가 암도 예방할 수 있음을 인식해 일상생활에서 암 예방수칙에 따르고, 주기적으로 암 검진을 받는 등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암 정복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br/>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언론사: 한국일보-1-12.txt

제목: [2017 가슴으로 쓴 편지] “행복하지 않다고요?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 느껴보세요”  
날짜: 20171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26051001001  
ID: 01101101.20171226051001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한국선 소유 성취가 행복의 조건<br/>월세집 살며 대중교통 이용해도<br/>일상의 소소한 기쁨서 행복 느껴<br/>새해엔 다같이 한국 사랑하길 <br/><br/>내가 사랑하는 한국 국민에게 <br/> 저는 덴마크에서 온 에밀 라우센이라고 해요. 행복도 1위의 나라, 특히 휘게(hygge)가 소개되면서 올해는 더 많은 한국사람들이 덴마크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왜 그 좋은 곳 놔두고 한국땅에서 사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 저는 한국은 정말 멋지고 훌륭한 나라이며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답니다. <br/>제가 한국땅을 처음 찾은 것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년 동안 봉사를 하고 덴마크로 돌아갔으나 한국이 곧 그리워졌고 다시 한국에 와서 학부와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2009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한국인 유민을 만나 2012년 ‘살수록 더 좋은 결혼’에 골인하여 남편이 되었고, 오랜 기다림의 결실로 올해 11월 예쁜 공주님 리나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 대신 프리랜서의 삶을 선택했고 코딱지만한 집 월세를 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삶, 한국의 기준에서는 행복과 동떨어진 조건이지만 저는 매일매일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br/>물론 한국에서의 삶은 쉽지만은 않았고 지금도 매일 시험대에 오릅니다. 한국에 산 지 14년이 되어감에도 여전히 ‘키 큰 외쿡인’이라는 주홍글씨가 선명합니다. 아내와 저를 빤히 바라보는 시선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은 “어 외국인이다! 헬로 헬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야 가서 영어 해봐”, 어르신들은 무조건 “미국에서 왔소?” 합니다. 하지만 악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며 마음을 열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구수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때론 거칠지만 저는 한국의 정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치관과 의식과 문화를 존중합니다. <br/> 저는 행복에 대해 말할 때 ‘선택’을 강조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덴마크에 있으면 키 크다는 말 안 들어도 되고 이방인 취급도 안 받아도 되고 에밀이라는 존재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저를 통해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한국에서 살아갑니다. <br/><br/><br/>한국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너무나 큰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소유와 성취가 행복의 조건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고요. 한국인들도 일상의 소소한 행복의 가치를 알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는 것, 이 나라, 나의 가족, 내 존재를 귀하게 여기며 누군가의 노력과 희생으로 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가꾸며 살아가기로 매순간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사회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br/> 저는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청년기에 걸쳐 암과 종양으로 여러 번 사선을 넘었고 시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으며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한 아이에게 심한 학대를 받았으며 십대 시절 심한 우울증으로 10년을 매일 자살충동에 시달렸습니다. 행복의 나라 덴마크에서 저의 삶은 마냥 행복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또 다른 누군가를 웃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br/> 제가 워낙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택시를 타도 시장에 가도 길거리에서도 대화를 나눕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고충과 애환을 듣습니다. 물론 저는 그 심정을 알고 이해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덴마크의 강점과 한국의 강점을 잘 살려서 한국을 조금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br/>한국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덴마크도 싫은 나라로 만들고 돌아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한국을 사랑하고 강점을 아는 분들은 덴마크의 의식을 배워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한국에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초원인데 막상 가까이서 보면 양 똥이 수북한 것처럼 덴마크도 완벽한 파라다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덴마크인들이 행복하다고 답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함께 행복해야 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고 모두 함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세금도 기쁜 마음으로 소득의 60% 넘게 낼 수 있는 것이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를 생각하는 나라. 그래서 행복한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행복한 나라가 된 덴마크처럼 한국도 함께 행복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br/> 휘게는 돈으로 누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곳,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또 나 혼자서라도 내게 있는 것의 가치를 알고 기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경쟁과 비교에서 쟁취한 우월감, 특권의식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소소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나 자신의 귀함을 알고 다른 사람 또한 귀하게 여기며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며 내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행복이 찾아와 있을 것입니다. <br/>한국땅 모든 이의 마음에 한국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더 멋진 나라 행복한 나라로 바꾸는 데 저와 함께 힘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의 가치를 알고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이룬 매일 매일의 노력이 작고 소소할지라도 잘 했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들을 기념하고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br/> 한국은 배울 것이 많고 멋지고 훌륭한 나라예요. 역사를 알수록 더 멋지고 훌륭하게 느껴졌어요. 더 따뜻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다사다난했던 2017년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다가오는 2018년 함께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요. <br/><br/>-한국을 사랑하는 덴마크인 에밀 라우센

언론사: 한국일보-1-13.txt

제목: 적당히 비만하면 노인의 장수에 도움된다?  
날짜: 20171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25051014001  
ID: 01101101.2017122505101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주상연 여의도성모병원 교수팀, 60세 이상 5만7,000여명 분석결과<br/><br/>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고령인에게 적당한 비만은 수명 연장에 도움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주상연 여의도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준영 고려대 의학통계학과 교수팀은 미국ㆍ유럽ㆍ아시아 등 11개국에서 발표된 20여편의 전향적 관찰연구 대상 중 60세 이상이면서 대사증후군을 가진 5만7,202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br/>이번 연구결과는 의료분야 최고의 국제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학술지인 '메디슨(MEDICINE)'에 실렸다.<br/>대사증후군은 허리둘레, 혈중 중성지방, 고밀도(HDL)콜레스테롤, 혈압, 공복혈당 등 5가지 주요 건강지표 중 세 가지가 기준치를 넘거나 경계치에 머무는 상태를 말한다.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된 성인은 심혈관질환ㆍ암 발병률과 사망률이 정상인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br/>연구팀에 따르면 대사증후군 요인 중에서 혈당이 100㎎/dL 이상으로 높으면 사망률이 19% 증가했다.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남성은 40㎎/dL 이하, 여성은 50㎎/dL 이하일 때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8% 늘었다.<br/>반면 복부비만이 있거나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으로 비만한 고령층에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전체 사망률은 6% 줄었다.<br/>주 교수는 “<span class='quot0'>비만으로 유발된 심뇌혈관 질환이 젊은 성인 사망률을 늘릴 수 있겠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체중으로 인한 노쇠를 예방하는 것이 노인 사망률을 줄이는 데 중요한 인자</span>”라며 “<span class='quot0'>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전체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는 노화과정에서 일어나는 근육감소와 저체중 관리가 필요하다</span>”고 했다.<br/>그는 “<span class='quot0'>적절한 식단과 고른 영양섭취, 운동 습관화를 통해 혈당 관리과 HDL콜레스테롤 같은 좋은 콜레스테롤 올리는 등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pan>”고 덧붙였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1-14.txt

제목: “모든 사람을 도덕으로 평가하는 나라, 그곳은 한국”  
날짜: 20171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25050859001  
ID: 01101101.20171225050859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오구라 기조 교토대 교수<br/>‘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발간<br/> 도덕적 완벽 ‘理’에 대한 갈망에<br/> 다이내믹하면서도 투쟁적<br/><br/>“한국 사회는 사람들이 화려한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하나의 거대한 극장이다.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과 흥분은 항상 여기에서 유래한다.”<br/>오구라 기조(58) 교토대 교수가 최근 발간된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모시는사람들)에서 내놓은 진단이다. 조선시대 형성돼 지금까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유교적 전통에 대한 해석은 늘 ‘제 논에 물대기’였다. ‘유교 자본주의’가 한 예다. ‘동아시아 4마리 용’ 시절에는 한국인의 저력,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자랑스러움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스탠더드 시절엔 혈연ㆍ지연ㆍ학연으로 짜고 치는 적폐가 되어버렸다. 결과적으로 좋을 때는 ‘덕분’이고, 나쁠 때는 ‘탓’이다. 오구라 교수는 8년 동안 서울대에 머물면서 한국철학을 공부한 지한파 지식인. 이 책에는 오랜 공부와 관찰 끝에 그가 정리한 ‘한국, 한국인론’이 오롯이 담겨 있다. 명과 암, 두 개의 얼굴이다.<br/>오구라 교수가 보기에 한국에서 성리학, 주자학은 그냥 옛 이론이 아니다. 한국은 “사회 전체가 주자학”이고 “<span class='quot0'>한국인의 일거수 일투족이 주자학</span>”인 곳이다. 이유는 단 하나다. 오직 하나의 완전 무결한 도덕, ‘이(理)’로 모든 것이 수렴된다는 원칙이 여전히 작동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주한미대사를 지낸 그레고리 헨더슨이 ‘소용돌이의 한국정치’에서 한국사회를 두고 자율적 부문 없이 그저 중앙정치권력으로 모든 게 휘감겨 돌아가는 소용돌이 사회라 평했다면, 오구라 교수는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이(理)가 있다고 말하는 셈이다.<br/>한국 사회는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의 이(理) 함유량, 곧 ‘도덕 함유량’에 따라 평가한다. 도덕의 영역과 무관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예외 없다. 뛰어난 운동선수나 가수라 해도 “<span class='quot1'>경기 성적이나 노래 실력만으로는 평가받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인가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킨 후에야 비로소 스타가 될 수 있는</span>” 사회다. 누가 먼저 더 높은 도덕적인 위치를 차지하느냐의 싸움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올바르다ㆍ제대로ㆍ바람직하다와 같은 질서를 지향하는 말들이 난무하고 대량으로 소비”되는 사회다. 이런 이(理)의 사회는 이(理)의 함유량으로 1등에서 꼴찌까지 한 줄로 사람들을 쭉 늘어 세울 수 있는, 철저하게 위계적인 사회다. 첫 만남 등에서 나이ㆍ지위ㆍ학력ㆍ가문ㆍ고향ㆍ부(富) 등 상대방의 이(理)가 드러나는 지표를 단번에 파악하고 그에 맞게 잘 모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br/>동시에 극도로 반항적이며 혁명적인 사회이기도 하다. 오직 하나의 완전무결한 이(理)만이 대접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도덕적인가를 소리 높여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곳에서 권력 투쟁이란 곧 “도덕을 내세워 권력을 잡는 세력이 얼마나 도덕적이니 않은가를 폭로하는 싸움”이 된다. 상대의 도덕을 싸잡아 비난할수록 ‘훌륭한 선비’가 된다. 이승만ㆍ박정희ㆍ전두환ㆍ노태우ㆍ김영삼ㆍ김대중 등 그간 정권교체 때마다 ‘민족중흥’ ‘정의사회구현’ ‘보통사람의 시대’ ‘신한국 창조’ ‘제2건국’처럼 우리 정권이야 말로 이전 정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도덕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span class='quot2'>연속성이 아니라 단절성을 강조</span>”하는 정치적 슬로건들이 연달아 태어나는 이유다.<br/>오구라 교수가 보기에 이런 기질은 한국인에게 축복이자 저주다. 자신의 이(理) 함유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끊임없는 경쟁 속으로 스스로를 던져 넣는다. 자신의 출신 성분, 학력 등을 감안해 이 정도면 괜찮다며 적당히 체념하고 만족하고 사는 일본인, 혹은 서구인과 다르다. 한국인들은 나의 이(理) 함유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굳게 믿는다. 단적으로 일본의 천민집단 ‘부라쿠민’은 지금도 가끔 사회문제화되지만, 한국의 천민집단 ‘백정’은 이런 강렬한 상승욕구에 힘입어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국의 급성장은 이런 열망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한국인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살아가는 존재다. 한국인만의 독특한 정서라는 ‘한(恨)’이란 이 열망이 좌절됐을 때 생겨난다.<br/>오구라 교수는 이런 한국의 특성을 냉정하게 본다. 그의 시각은 제목 ‘하나의 철학’에 응축되어 있다. 강렬한 도덕적 열망으로 들끓기에 한국인은 모두 철학자다. 세세한 속세의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뜨겁게 쏟아낸다. 반면 그 철학은 ‘하나’이기에 격렬한 투쟁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의 가치관, 이념, 이데올로기, 종교 같은 것이 하나 밖에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다양해 보여도 도덕적 완벽성에 대한 강박, 그 강박 간의 투쟁이라는 기본구조는 똑같기 때문이다.<br/>첨단이라는 21세기 한국 사회도 변하지 않았을까. 탈민족주의, 세계화, 다문화주의에다 최근의 페미니즘까지, 다양한 가치가 비록 조금씩이라 해도 퍼져나가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오구라 교수는 단호하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 구조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 ‘이(理)’의 내용이 바뀌었을 뿐이다.” 누가 더 탈민족적이냐, 누가 더 다문화적이냐를 두고 경쟁을 벌일 뿐 경쟁 자체는 변함이 없다. 한국사회는 좋게 말해 다이내믹하고, 나쁘게 말해 투쟁적이다.<br/>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5.txt

제목: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해요”산타로 변한 군산대 교수ㆍ학생들  
날짜: 20171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21051110003  
ID: 01101101.20171221051110003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주종재 교수, 사재로 생필품 선물<br/>제자 20여명은 300세대에 배달<br/><br/>”<br/><br/><br/>“기부는 42.195㎞의 마라톤과 같습니다. 뛰어본 사람들만이 하이러너의 희열을 느낀다고 하지요. 기부는 받는 사람도 좋지만 주는 사람들은 더 행복합니다. 또 하면 할수록 그 행복의 쾌감이 더욱 커지는 것 같아요.” <br/>21일 전북 군산시 나운3동에서 산타클로스 활동을 펼친 주종재(61) 군산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기부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의 곳곳으로 더 멀리 퍼져 아름다운 중독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r/>주 교수는 이날 홀로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소년소녀 가장 등 300세대를 찾아 성탄 선물을 전달했다. 2,000여 만원의 사재를 털어 준비한 전기장판 100개, 행복꾸러미(15㎏) 200여개 등이다. <br/>특히 이날 행사에는 주 교수의 제자들이 동참해 사제동행의 의미를 더했다. 식품영양학과의 2~3학년생 20여명이 빨간 산타 모자를 쓰고 나와 선물박스를 일일이 배달했다. <br/><br/><br/>학생들은 전날도 밤늦게까지 주 교수와 함께 행복꾸러미를 챙겼다. 라면 5개와 부침가루(1㎏), 참치캔, 참기름, 미역, 김 등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박스를 꾸렸다.<br/>“‘사랑이 사랑을 낳는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1년 전 아버님의 유지를 실천한 게 제 기부 열정을 끌어 낸 것 같아요.”<br/>주 교수의 아버지는 2년 전 암 투병하다 지난해 초 숨졌다. 본인이 힘들어 하면서도 “나 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다”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했다. 그 뜻을 살려 주 교수는 지난해 9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여원을 쾌척했다. 군산지역의 7번째로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회원이다.<br/>이후 관심을 갖고 쳐다보니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응달 진 곳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주 교수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한 겨울에 온기 없는 방에서도 생활하고, 끼니를 제대로 못 잊는 분들도 적지 않다”며 “이들에게 밝고 따뜻한 웃음을 찾아주는 햇살처럼 작은 선행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br/>이날 행사에 참여한 오선경(3년) 학생은 “산타클로스가 돼 어려운 이웃에 선물을 전달하는 내 모습이 기특하고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기부 행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군산=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6.txt

제목: 거품 빠진 갑상선암 대신 위암 7년 만에 다시 1위  
날짜: 20171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21051047001  
ID: 01101101.2017122105104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5년 생존율 70% 돌파<br/> <br/>우리나라의 암 발생률이 4년 연속 감소했다. 과잉진단 논란을 빚은 갑상선암 환자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의학이 발전하고 조기 암 진단이 확대되면서 ‘암=불치병’이라는 공식도 점점 깨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인 82세까지 생존하는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3%로 여전히 높지만,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완치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5년 이상 생존’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2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5년 국가암등록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수는 21만4,701명으로 전년(21만8,954명)보다 4,253명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암발생은 275.8명으로 2012년(324.0명) 이후 연평균 6.1%씩 줄어들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연평균 3.6%씩 증가하던 암발생률은 2012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br/>암종별로 보면 위암(2만9,207명) 환자가 가장 많았고 대장암(2만6,790명), 갑상선암(2만5,029명), 폐암(2만4,267명), 유방암(1만9,219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09년 이후 줄곧 1위를 지켜오던 갑상선암이 3위로 내려앉으면서 위암이 7년 만에 다시 1위로 올라섰다. 갑상선암은 전년보다 19.5%(6,050명)나 줄어들면서 전체 암 발생률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의료계 안팎에서 과잉진단 논란이 불거진 후 갑상선 초음파 검사와 진단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당국은 현재 갑상선에 혹이 만져질 경우에만 적절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br/>갑상선암을 제외하면 2015년 신규 암환자는 18만9,672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1,797명 늘었다.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등이 증가세를 주도했는데, 특히 유방암은 2007년 이후 8년간 연평균 4.0%씩 늘어나는 추세다. <br/>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었고, 여성은 여전히 갑상선암이 가장 많은 가운데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이 뒤를 이었다. <br/>암환자의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2011~2015년)간 진단 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7%로 10년 전(2001~2005년) 54.0% 보다 16.7%포인트 올랐다. 상대생존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5년 생존율과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비교한 것인데, 상대생존율이 100%라면 건강한 일반인의 생존율과 같다는 의미다. 갑상선암(100.3%)은 일반인 생존율과 큰 차이가 없었고 전립선암(94.1%)과 유방암(92.3%)도 생존율이 상당히 높았다. 반면 췌장암은 생존율이 10.8%에 불과했고 폐암(26.7%)과 간암(33.6%)도 많이 낮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78.4%로 남성 62.8%보다 생존율이 높았다. <br/>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3%로 집계됐다. 남자(79세)는 5명 중 2명(37.9%), 여자(85세)는 3명 중 1명(32.0%)에서 암에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우리나라 암 발생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53.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70.3명보다 적다. 5년 상대생존율도 미국 69.2%(2007~2013년), 캐나다 60.0%(2006~2008년), 일본 62.1%(2006~2008년)보다 높았다. <br/>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7.txt

제목: 위암, 갑상선암 제치고 1위로  
날짜: 20171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21050936001  
ID: 01101101.2017122105093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2015 암등록 통계<br/>환자 10명 중 7명 5년 이상 생존<br/>유방암은 8년간 매년 4%씩 증가<br/><br/>‘과잉진단’ 논란 불거진 후<br/>갑상선암 3위로 내려앉아<br/><br/><br/><br/>지난 5년간 암발생률 1위를 기록하던 갑상선암 대신 위암이 1위로 올라섰다. 갑상선암 과잉진단 논란이 불거진 이후 검진대상자가 줄어든 탓이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암진단을 받은 환자의 생존률은 70%를 돌파했다. <br/>2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015년 국가암등록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에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1만4,701명으로 전년보다 4,253명(1.9%) 감소했다. 연령표준화(2000년 주민등록인구 비율 기준) 암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275.8명으로 2011년 325.4명, 2012년 324.0명, 2013년 315.1명, 2014년 291.5명에 이어 4년 내리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암발생률은 매년 6.1%씩 감소하는 추세다. <br/> 암종별로는 갑상선암 발생자 수가 전년보다 19.5%(6,050명) 감소해 암발생률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위암과 대장암도 각각 2.7%, 1.6% 줄었다. 반면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은 각각 4.3%, 3.5%, 5.7% 증가했다. 국가가 검진비를 지원하는 5대 주요 암(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가운데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암종은 유방암이 유일하다. 2007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4.0%였다.<br/>생존율은 올라가고 있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70.7%로 10년 전(2001∼2005년)보다 16.7%포인트나 높아졌다. 5년 상대생존율은 암환자 예후를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로 성별과 나이가 동일한 일반인 대비 암환자의 5년 뒤 생존 비율을 뜻한다. 100%이면 일반인과 생존율이 같다는 뜻이고, 100% 이상이면 암환자의 생존율이 더 높다는 의미다. 생존율이 높은 암종은 갑상선암(100.3%), 전립선암(94.1%), 유방암(92.3%)이었고, 낮은 암종은 간암(33.6%), 폐암(26.7%), 췌장암(10.8%)이었다. <br/> 한편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3%였으며, 남자(79세)는 5명 중 2명(37.9%), 여자(85세)는 3명 중 1명(32.0%)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53.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70.3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br/><br/><br/>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8.txt

제목: 故김주혁-샤이니 종현-최서인, 슬픔 가득한 2017년의 마지막  
날짜: 20171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9050918001  
ID: 01101101.20171219050918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슬픔이 가득한 2017년 겨울이다. 사람에 따라 목숨의 경중을 잴 수는 없지만 유독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이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br/><br/>故 배우 김주혁의 49재인 지난 17일에 이어 또 다른 이 두 명이 우리의 곁을 떠났다. 18일 그룹 샤이니 종현과 개그우먼 최서인이 한 날 목숨을 잃은 것.<br/><br/>이날 먼저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이날 저녁 7시께 종현이 서울 청담동 레지던스에서 갈탄을 피워놓고 정신을 잃은 채로 쓰러져 있다가 발견돼 서울 건대병원에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4시 42분경 친누나가 실종팀에 신고했으며 누나에게 유서로 예상되는 글을 남긴 것도 알려졌다.<br/><br/>종현은 2008년 그룹 샤이니로 데뷔한 9년차 아이돌 멤버로서 전 세계에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독보적인 노래 실력과 라디오 DJ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알았던 그였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은 더욱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하루 전날인 지난 17일 JTBC ‘밤도깨비’라는 예능프로그램의 예고편을 통해서도 멤버 민호와 함께 평소처럼 쾌활한 모습을 보인 바 있어 그의 생전 마지막 방송이 돼 버린 ‘밤도깨비’ 방송에 대한 관심도 모이고 있다. <br/><br/>또한 종현의 비보가 들린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개그우먼 최서인(본명 최호진)이 암 투병 끝에 이날 사망했다고 전해졌다. SBS 공채 10기 개그우먼 출신으로, 2011년부터 tvN 개그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서 ‘겟잇빈티’ ‘썸&쌈’ 등의 코너로 사랑받았던 그는 향년 35세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삶을 마무리 하게 됐다. 빈소는 서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발인은 20일 오전 10시, 장지는 미정이다.<br/><br/><br/><br/>이주희 기자 leejh@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9.txt

제목: 한소아, 소속사 대표 암투병에 "그저 죄송하다"  
날짜: 2017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8051609001  
ID: 01101101.20171218051609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가수 한소아가 자신의 소속사 대표가 암 투병 중이라고 고백했다<br/><br/>한소아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장 힘들지만 뿌듯한 시간을 (나와) 같이 한 대표님이 계신다. 중국에서 함께 고생도 했고 다시 돌아와서 함께 힘든 순간을 이겨 나가 주신 분"이라며 "그런 가족 같은 대표님이 지금 암 투병 중이다. 며칠 뒤 수술과 항암치료를 앞두고 계신다"라고 밝혔다.<br/><br/>한소아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OST 활동 시절부터 지금까지 음악을 해온지 벌써 10년이 넘어갔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참 올 한해는 저에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해인 것 같다"며 "(대표님은) 늘 부족한 저를 1등 가수처럼 대해주신 우리 대표님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br/><br/>한소아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과 걱정이 있었기에 이런 병을 얻으셨을까 생각하면 그저 제가 죄송할 따름이다"라며 "저는 음악을 할수있음에 감사하며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 대표님도 더 많은것을 못 해준 것에 미안해 하시지 마시고 건강히만 곁에서 함께 음악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함 마음을 보였다.<br/><br/>한소아는 마지막으로 "이 겨울 모두들 건강부터 챙기시고 물론 수술 잘 되겠지만 시간이 되실때 손 모아 마음을담은 기도한번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라고 부탁했다.?<br/><br/><br/><br/>김지원 기자 kjw8@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20.txt

제목: 개그우먼 최서인, 난소암 투병 중 사망...향년 35세  
날짜: 2017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8051540002  
ID: 01101101.20171218051540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개그우먼 최서인(본명 최호진)이 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br/><br/>최서인은 18일 난소암 재발로 투병 중 세상을 떠났다. 향년 35세다.<br/><br/>빈소는 서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발인은 20일 오전 10시, 장지는 미정이다.<br/><br/>최서인은 세종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했으며 SBS 공채 10기 개그우먼 출신이다. 지난 2011년부터 tvN 개그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서 활약했다.<br/><br/><br/><br/>차유진 기자 chayj@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21.txt

제목: “간암 복강경 절제술, 개복수술보다 합병증 적어”  
날짜: 2017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8051538002  
ID: 01101101.20171218051538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김기훈 서울아산병원 교수<br/>‘침묵의 장기’ 간에 혈관 많고<br/>절제수술 땐 범위 커 감염 잘 생겨<br/>복강경 이용하면 주변 손상 최소화<br/>흉터ㆍ통증 줄어 회복도 빨라<br/>악성 종양 제거하는 경우엔<br/>확실한 절제 위해 개복 수술<br/> 간은 ‘침묵의 장기’다. 간암을 발견했을 때 이미 수술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환자가 많아 국내 간암 환자 10명 가운데 4명 정도만 수술이 가능하다. 간암은 수술도 녹록하지 않다. 간에는 혈관이 많이 분포돼 있고 절제 수술을 할 때 범위가 넓어 출혈과 상처감염 등이 잘 생기기 때문이다. <br/>그래서 간암 수술을 할 때 되도록 가슴을 여는 개복보다 복강경 수술이 권장된다. ‘복강경 수술은 환자에게는 기쁨이지만 의사에게는 고통’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환자에게는 좋은 수술이지만 의사에게는 무척 까다로운 수술이기 때문이다.<br/> 서울아산병원 복강경로봇간절제수술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김기훈(51) 간이식간담도외과 교수는 간세포암(간 내부에서 생긴 암으로 전체 간암의 60~70%정도)을 복강경으로 가장 많이 수술한 의사다. 2007년 7월부터 지금까지 450례 넘게 시행했다. 지난 10월 ‘제5회 대웅의료상-이승규 간이식 임상ㆍ연구상’을 받은 것도 이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복강경을 이용한 간세포암 절제술은 간 주위 조직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고, 흉터와 통증 감소로 빠른 조기 보행과 미용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종양학적으로도 개복 수술과 비교해 문제가 없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span>”고 했다.<br/><br/>-복강경을 이용한 간세포암 절제술을 설명하자면.<br/> “배에 지름 1㎝정도의 작은 구멍 다섯 개를 뚫어 복강경 기구를 뱃속에 넣고 암이 있는 구역을 잘라내는 수술이다. 수술시간은 개복 수술과 비교해 약간 더 걸리거나 비슷하다. 하지만 합병증이 적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 복강경을 이용한 간세포암 절제술은 출혈 위험이 크고 어려운 수술이다. 산부인과나 대장항문, 갑상선 영역 등에 비해 도입이 늦었다. <br/>수술 초기에는 논쟁도 많았다. 간세포암은 재발을 낮추기 위해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암으로 가는 혈류를 구역에 맞게 정확히 잘라내야 하는데 복강경으로 하면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개복 수술에 경험이 많은 외과 의사들이 암으로 가는 구역의 혈관을 제대로 파악하고 간의 해부학적으로 잘라내는 수술법과 종양학적인 임상연구결과가 많이 파악돼 최근에는 학계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br/><br/>-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나.<br/> “복강경 기구로만 수술하기에 적용되는 환자의 기준이 있다. 지름 7㎝ 미만인 종양이 하나만 있는 환자가 주된 대상이다. 물론 종양이 다소 크거나 개수가 한 개 이상이더라도 간의 한쪽 엽(葉)에 위치해 있으면 복강경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다. 종양 위치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간문부나 주요 간정맥에 근접해 있거나, 간 구조물 즉, 혈관이나 담도에 변이가 생겼다면 개복 수술이 안전하다. 간은 혈관이 많아 출혈 가능성이 높고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장기이기에 복강경 간세포암 절제술은 모든 외과 영역에서도 가장 어려운 수술의 하나다. 간은 아무리 잘 잘라내도 남아 있는 간의 용적이 적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환자가 목숨을 잃기에 주의해야 한다.”<br/><br/>-수술 결과는 어떤지.<br/> “2007년부터 2016년까지 360건의 수술을 분석한 결과, 합병증이 생긴 환자는 다섯 명에 불과했다. 복강경 수술의 합병증 발생률이 1.5%인데 개복 수술(7.3%)보다 훨씬 적다. 이들도 대부분 심각한 합병증이 아니라 상처 등의 사소한 문제였다. 환자 1년 생존율은 98.7%, 5년 생존율은 86.4%로, 개복수술과 큰 차이가 없다.”<br/><br/>-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은.<br/> “간으로 가는 혈관과 담도의 40%정도는 변이가 있다. 외형적 기형이 아니더라도 혈관 모양이 다양하다. 담도 모양도 마찬가지다. 아픈 간만 보면 이 같은 구조를 잘 모를 가능성이 있다. 생체 간이식 수술이 많은 우리 병원의 경우 기증자의 건강한 간을 개복이나 복강경 수술로 떼내는 경험이 쌓이면서 간의 혈관 구조를 잘 알 수 있다. 복강경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경험과 감각이다. 복강경과 같이 난이도가 높은 수술도 개복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가 잘한다. 수술 경험이 많은 센터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br/><br/>-간암 환자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은.<br/> “간을 잘라내는 수술이 1차적인 치료다. 일반적으로 다른 비수술적 치료보다 매우 효과적이다. 간이식도 있지만 이는 암 진행상태, 해부병리학적 결과, 기증자 여건 등으로 인해 제한적이다. 최근 간의 좌외측엽에 국한된 간세포암 절제술은 이미 복강경 수술이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앞으로 더욱 넓은 범위의 간 수술이 복강경 수술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br/>다만 복강경 수술을 한다고 하면 쉬운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최소침습수술이어서 수술 부위 상처가 작고 빨리 퇴원하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좁은 구멍으로 기구만 넣고 개복 수술과 똑같이 하는 것이라 절대 간단하거나 쉬운 수술은 아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렵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수술법이다. 특히 악성 종양 제거수술에서 종양을 정확하고 확실히 잘라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 조건이 안 된다면 개복 수술을 하는 게 맞다. 간암 수술할 때에는 간 절제술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아 상담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안전한 방법으로 수술 받기를 권한다.<br/>아울러 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도 잦은 음주 등으로 간질환 유병률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복부 초음파검사를 받기를 권한다. 간의 ‘침묵의 장기’라 질환이 생겨도 전혀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1-22.txt

제목: 펜싱 오상욱, 세계선수권·올림픽 챔피언 꺾고 그랑프리 우승  
날짜: 2017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8051530001  
ID: 01101101.20171218051530001  
카테고리: 스포츠>스포츠일반  
본문: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의 막내 오상욱(21·대전대)이 국제펜싱연맹(FIE) 국제그랑프리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상욱은 18일(한국시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남자 사브르 국제그랑프리 개인전 결승에서 아론 실라지(헝가리)를 15-14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상욱은 이달 초 월드컵 개인전에서 1년 만에 우승을 맛봤고, 그랑프리에서도 첫 정상에 오르며 구본길, 김정환(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은 남자 사브르의 새로운 간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대한펜싱협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남자 사브르 세계랭킹 6위인 그는 8강에서 루카 쿠라톨리(이탈리아)를 15-12로 물리쳤고, 준결승에서는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안드라스 사트마리(헝가리)를 15-1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2012 런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연속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한 실라지와의 결승전에서는 역전과 재역전을 거듭하는 접전 끝에 우승을 확정했다. 현재 남자 사브르 세계랭킹 1위인 구본길은 준결승에서 실라지에 13-15로 패해 동메달을 따냈다.<br/><br/>하뉴, 일 피겨 선발전 불참…메드베데바는 러 선수권 출전<br/><br/><br/>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피겨 킹' 하뉴 유즈루(일본)가 자국 선수권대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18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빙상연맹은 하뉴가 오는 21일 열리는 일본피겨선수권대회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21∼24일 열리는 일본선수권대회는 평창동계올림픽 최종 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대회지만, 세계랭킹 1위인 하뉴는 규정에 따라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도 대표로 선발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올림픽을 50일 가량 남겨놓은 상태에서 여전히 빙판 훈련을 재개하지 못하면서 타이틀 방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뉴는 이날 "<span class='quot0'>치료와 재활에 노력했으나 대회 출전을 단념할 수밖에 없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하루빨리 최상의 상태로 연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br/>반면 역시 부상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러시아 출전금지 징계로 출전이 불투명했던 러시아 여자 싱글의 예브게니야 메드베데바는 러시아피겨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메드베데바는 러시아피겨스케이팅연맹이 발표한 대회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러시아피겨선수권대회도 21∼24일 열린다. <br/><br/>'인기 폭발' 맥그리거 "<span class='quot1'>다음번 무대는 종합격투기</span>"<br/>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40?미국)와 '세기의 대결'을 벌인 코너 맥그리거(29·아일랜드)가 종합격투기 복귀를 선언했다. 맥그리거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스포츠 연예 전문매체 TMZ와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다음번 무대는 종합격투기</span>(MMA)가 될 것"이라며 "진짜 싸움을 원한다"고 말했다. 올해 8월 메이웨더와 '복싱 대결'에서 패한 맥그리거는 올해 최고의 화제 선수였다. 둘의 대결은 구글이 공개한 스포츠 부문 전 세계 검색 3위를 차지했고, 맥그리거는 '친정' UFC에 "<span class='quot1'>지분을 내놓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것</span>"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게다가 필리핀의 복싱 영웅 매니 파퀴아오(39)까지 내년 4월 맥그리거와 복싱 대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워낙 인기가 뜨겁다 보니, 미국 프로레슬링 WWE까지 맥그리거를 탐낸다. 그러나 취재 기자가 WWE에 관한 질문을 던지자 맥그리거는 욕설로 답했다. 맥그리거가 UFC에서 다음 경기를 치르겠다고 발표하면서, 공은 UFC에 넘어왔다.<br/><br/>오스트리아서 평창올림픽 홍보 클래식 갈라콘서트 열려<br/>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고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2018 평창올림픽 축하 특별 갈라 콘서트'가 지난 15일 저녁(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다. 세계 3대 콘서트홀 가운데 하나인 뮤직페어라인에서 개최한 콘서트에는 평창대관령음악제 예술감독인 첼리스트 정명화와 부감독인 피아니스트 손열음, 첼리스트 얀 포클러·홍은선, 바이올리니스트 비비아네 하그너·김수연, 비올리스트 라스 엔더스 톰터·이화윤, 하피스트 아넬린 레너아츠 등 국내외 정상 음악가들이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한국의 대표 작곡가 윤이상의 '첼로와 하프를 위한 듀오', 차이콥스키의 현악 6중주, 브람스의 피아노 트리오B장조 등을 완벽한 하모니로 선보여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br/>콘서트에는 칼 스토스 오스트리아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신동익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 미하일 슈바르칭어 주한오스트리아 대사, 박종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럽지역회의 부의장 등 외빈과 현지 관객·한인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강원도·한국국제교류재단·주오스트리아한국대사관이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문화예술기획사 WCN이 주관했다.<br/><br/>김마그너스, 크로스컨트리 월드컵 추적 70위...박제언 노르딕 복합 55위<br/>한국 크로스컨트리 스키 기대주 김마그너스(19)가 크로스컨트리 월드컵 70위에 머물렀다. 김마그너스는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도비야코에서 열린 2017~18 국제스키연맹(FIS) 크로스컨트리 월드컵 남자 15㎞ 추적 종목에서 36분17초4로 경기를 완주한 81명 가운데 70번째로 골인했다. 알렉세이 폴토라닌(카자흐스턴)이 32분47초3, 알렉산드르 베스메르트니흐(러시아)가 32분53초3, 요한스 클래보(노르웨이)가 32분55초9로 각각 금·은·동메달을 차지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경험을 쌓은 뒤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시상대에 오르는 게 목표인 김마그너스는 이번 시즌 출전한 월드컵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br/>오스트리아 람자우 암 다흐스타인에서 열린 FIS 월드컵 남자 노르딕 복합 노멀힐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한 대표 선수인 박제언(24)이 55위로 경기를 마쳤다. 박제언은 스키점프에서 79점을 얻었고, 10㎞ 크로스컨트리는 28분40초6에 마쳤다. 파비안 리슬(독일)이 26분12초5로 우승을 차지했다. 노르딕 복합은 크로스컨트리와 스키점프를 함께 치른 뒤 결과를 합산하는 종목이다.

언론사: 한국일보-1-23.txt

제목: [헬스 프리즘] 대사증후군, 정부가 직접 나서 관리하라  
날짜: 2017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8051505001  
ID: 01101101.2017121805150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비만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민건강보험이 지출한 총 진료비가 65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비만비용은 이의 14%에 가까운 수치다.<br/> 우리나라는 국민 입장에서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좋은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의료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br/> 비만은 이제 우리 지난 세대가 추구해 왔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뛰어 넘어 이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커다란 숙제로 등장하고 있다. 비만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각종 만성병-생활습관병의 증가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br/> 그 중에서도 복부비만은 더 큰 문제다. 복부비만으로 일어나는 대사증후군-인슐린저항성은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뇌혈관질환 등의 주 원인이 되며, 암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br/>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만성질환자는 1,439만명으로 전 국민의 28.5%에 이르렀으며, 진료비로 21조3,000억원을 썼다. 국민건강보험 진료비의 3분의 1이 만성질환진료에 쓰인 것이다.<br/> 이를 좀 더 세분화해 보면 고혈압 환자가 571만명으로 40%를 차지했고, 당뇨병 환자가 252만명으로 18%나 됐다. 대사증후군, 즉 인슐린저항성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만성질환이 전체 만성질환의 50%를 넘는 것이다.<br/> 대사증후군은 허리둘레가 남자의 경우 90㎝(여자는 85㎝)이상이고, 고혈압(130/80㎜Hg 이상)이 있으며, 혈중 중성지방이 150㎎/dL 이상, 고밀도(HDL)콜레스테롤이 40㎎/dL 이하, 공복혈당이 100㎎/dL 이상일 때 대사증후군이 있다고 보게 된다. <br/>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내장지방은 무엇이 문제인가? 내장지방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슐린에 대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작용, 즉 인슐린저항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br/> 인슐린은 우리 몸으로 흡수된 포도당을 에너지로 소비하게 하거나, 이를 지방 형태로 저장하게 하여 혈액 속의 포도당수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br/> 이러한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혈중의 포도당수치가 높아지는 당뇨병이 발생하고, 포도당을 제때에 지방 형태로 저장하지 못해 이상지질혈증, 죽상동맥경화증을 비롯한 여러 심장혈관질환과 고혈압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br/> 12월 첫 주는 ‘대사증후군주간’이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대사증후군포럼에서는 ‘뱃살에 들어있는 여러 장의 진단서’라는 주제로 100여명이 모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br/> 매년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비만과 대사증후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설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추구하는 차원에서도 이는 매우 좋은 아젠다가 아닐까 생각한다.<br/> 식습관 등 생활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권장하고, 금연ㆍ금주를 계몽하는 것이 국민의료비증가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라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정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언론사: 한국일보-1-24.txt

제목: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최지우, '눈물의 여왕' 입증  
날짜: 2017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8051332001  
ID: 01101101.20171218051332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눈물의 여왕’이란 수식어를 지닌 배우 최지우가 다시 한 번 그에 걸맞은 열연으로 자신의 진가를 증명했다.<br/><br/>tvN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지난 17일 4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br/><br/>‘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서 최지우는 평소 감정 표현에 조금 서툴지만 누구보다 가족과 엄마를 위하는 큰딸 연수 역을 맡아 호평을 받았다. 극 중 그는 인희(원미경 분)의 암 진단 사실을 알고, 가슴 먹먹한 이별을 준비하는 딸을 섬세하게 표현해 보는 이의 눈물을 훔치게 만들었다.<br/><br/>멜로극이 아닌 진한 가족애를 자아낸 눈물이기에 더욱 폭넓고 깊어진 최지우의 연기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었다.<br/><br/>특히 인희의 건강 상태를 가족들이 알게 된 드라마 중·후반, 내용이 절정에 달하면서 그의 존재감은 빛을 발했다. 인희와의 이별이 현실로 다가온 4화에서 연수는 그 동안 엄마에게 못해드린 걸 후회하며, 사랑을 되돌려주고자 노력했다. 엄마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진 동생 정수(최민호 분)에게는 따뜻하고 밝게 “울지 말자”, “우리 잘살자”라고 말하며 가족들의 버팀목이 되기도 했다.<br/><br/>연수와 인희의 마지막 대화 장면은 시청자의 심금을 울렸다. “<span class='quot0'>엄마가 연수 사랑하는 거 알지?</span>”라는 인희의 말에 그는 “나도 엄마 사랑해”라고 답했다. 애써 담담 하려던 연수는 인희의 포옹에 결국 눈물을 쏟아내 모두를 뭉클하게 했다.<br/><br/>한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21년만 명작 리메이크이자 화려한 캐스팅으로 시작 전부터 주목 받았던 작품이다. 최지우를 비롯해 내로라하는 배우들의 연기가 더해져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였다.<br/><br/><br/><br/>이주희 기자 leejh@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25.txt

제목: [TV엔딩]'세상에서' 원미경, 안방극장 제대로 울렸다  
날짜: 2017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8051323001  
ID: 01101101.20171218051323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배우 원미경의 연기로 안방극장이 눈물바다가 됐다.<br/><br/>지난 17일 tvN 토일드라마 'tvN 토일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극본 노희경/연출 홍종찬)이 4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br/><br/>'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노희경 작가의 동명의 작품을 리메이크했다. 치매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인희(원미경 분)이 말기암 진달을 받고 가족들과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렸다.<br/><br/>마지막회에서는 인희가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끼며 서툴게 이별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특히 치매걸린 시어머니(김영옥 분)을 두고 자신이 없으면 소홀해질 것을 염려하는 모습을 절절하게 담아냈다.?<br/><br/>이후 인희는 그토록 가고 싶었던 새집에서 정철(유동근 분)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정철의 품에서 잠들며 죽음을 맞이했다.<br/><br/>21년만에 리메이크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스토리로 여전히 안방극장을 울렸다. 특히 그 중심에는 원미경이 그려내는 생의 마지막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평범한 주부의 모습이 시청자들을 울게 만들었다.?<br/><br/>모두가 마음 속에 떠올리는 있는 가장 보편적인 엄마를 연기는 원미경의 연기는 섬세하면서도 사무쳤다. 매 장면마다 눈물을 쏟아내게 만드는 원미경의 연기에 21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만큼 공감대가 쌓였고, 유동근, 김영옥 등 과의 호흡 역시 몰입도를 높였다.?<br/><br/><br/><br/>명희숙 기자 aud66@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26.txt

제목: 질병의 사회적 비용, 한 해에만 148조원  
날짜: 2017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8051321002  
ID: 01101101.20171218051321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질병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한 해에 부담하는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148조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비용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의 영향으로 10년새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r/>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6년 82조4,630억원에서 2015년 148조2,514억원(국내총생산 대비 9.5%)으로 10년간 1.8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8%였다.<br/>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질병에 따른 직접적인 의료비에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 간병비, 교통비를 합친 것으로 건강의 사회적 가치를 분석할 때 이용한다. <br/> 비용별로 의료비가 75조8,479억원(51.2%), 미래소득 손실액 33조4,396억원(22.6%), 생산성 손실액 25조9,688억원(17.5%), 간병비 8조2,436억원(5.6%), 교통비 4조7,513억원(3.2%) 순으로 전체 비용의 절반 이상은 의료비였다. <br/> 전체 질병비용에서 50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3.3%로 40대(18.1%), 60대(14.7%)를 포함하면 질병비용의 56.1%는 장년층에서 발생했다. 70대의 손실 비중은 11.8%였다. <br/> 연평균 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80대 이상으로 21.2%를 기록했고, 70대(12.5%), 50대(8.9%), 60대(8.1%)도 전체 평균 6.8%보다 높았다. <br/> 암 등 한국인 10대 사망원인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5년 51조2,153억원으로 전체 질병비용의 34.6%를 차지했다.<br/> 이중 암(악성신생물)이 16조6,819억원으로 가장 컸고, 뇌혈관질환(6조9,283억원), 자살(6조4,480억원), 심장질환(4조8,316억원), 고혈압(4조3,910억원) 순이었다. <br/> 진료비 상위 질병군 중에서는 고혈압(4조993억원), 만성신장병(3조1,014억원), 알츠하이머성 치매(2조8,000억원), 등 통증(2조7,884억원), 간 및 간내담관의 암(2조7,399억원) 순으로 비용이 많았다. <br/> 노인성질환 중 연평균 손실증가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은 치매(28.0%), 파킨슨병(23.3%), 알츠하이머병(13.5%) 등과 같은 퇴행성질환이었다. <br/> 연구진은 "<span class='quot0'>고령인구 전단계에서의 질병비용은 고령인구에서 더 큰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건강증진사업의 연령 확대 등 노인 전단계부터 맞춤형 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pan>"고 강조했다.<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27.txt

제목: 연말 ‘웰메이드 무비’ 찾는다면…  
날짜: 20171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7050441001  
ID: 01101101.20171217050441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세 번째$’ ‘패터슨’ 해외작부터<br/>‘초행’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 등<br/> 촉망받는 국내 감독 작품 풍성<br/> 극장 점령한 블록버스터 영화속 <br/> 차별화된 매력ㆍ개성으로 눈길<br/>영화 ‘강철비’와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가 14일 개봉하면서 본격적으로 겨울 스크린 대전의 막이 올랐다. 20일 ‘신과 함께-죄와 벌’에 이어서 27일 ‘1987’까지 개봉하면 박스오피스는 블록버스터 영화들로 터져나갈 듯 꽉 들어차게 된다. 하지만 ‘빅4’의 육중한 그림자에 가려지기엔 아까운 작은 영화들도 많다. 차별화된 매력과 개성을 품은 웰메이드 영화들이 눈 밝은 관객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br/>세계적인 영화 거장의 신작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일본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한국 관객이 특히 사랑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세 번째 살인’으로 찾아왔다. 자신이 일하던 공장 사장을 살해한 남자 미스미(야쿠쇼 코지)와 그를 변론하게 된 변호사 시게모리(후쿠야마 마사하루)의 진실 공방을 그린다. ‘걸어도 걸어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태풍이 지나가고’ 등 이전 작품에서 가족이라는 소우주를 탐구하며 서늘한 세계관을 드러냈던 고레에다 감독은 ‘세 번째 살인’에서 시야를 사회로 확장해 진실과 사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14일 개봉해 사흘 만에 관객 1만명을 불러모았다. <br/>영화 ‘패터슨’으로 돌아온 ‘인디 영화의 거장’ 짐 자무쉬 감독은 미국 뉴저지주 소도시 패터슨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면서 시를 쓰는 남자 패터슨(애덤 드라이버)의 소소한 일상을 들여다보며 삶의 빛나는 순간을 포착한다.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시라는 메시지가 긴 여운을 남기는 영화다. 자무쉬 감독의 마법 같은 연출력이 스며든 시적인 대사와 영상미도 눈과 귀를 붙든다. 21일 개봉.<br/>촉망 받는 한국 독립영화 감독들의 신작도 놓치면 후회한다. 영화 ‘철원기행’으로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상을 수상한 김대환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 ‘초행’과 비범한 신인 임대형 감독의 장편 데뷔작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가 관객을 만나고 있다. 7일 개봉한 ‘초행’은 결혼을 앞둔 7년 된 커플 수현(조현철)과 지영(김새벽)이 양가 가족을 만나는 여정을 따라가며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청춘의 오늘을 보듬는다. 감독이 상황을 제시하고 두 배우가 즉흥 연기로 이야기를 채운 촬영 방식이 독특하다. <br/>‘초행’이 젊은 배우와 감독의 생기가 펄떡거리는 영화라면, 14일 개봉한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는 배우 기주봉의 관록이 빛나는 영화다. 암 선고를 받은 시골 이발사 모금산(기주봉)이 직접 쓴 시나리오로 아들 스데반(오정환), 그의 여자친구 예원(고원희)과 함께 채플린 영화를 닮은 무성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그린다. 생의 감각을 일깨우는 낭만과 위로가 보드라운 흑백 영상에 담겼다. <br/>7일 개봉한 중국 영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와 일본 영화 ‘은혼’은 20~30개 남짓한 스크린에서 상영되고 있지만 영화를 본 관객의 입소문을 타고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는 단짝 친구인 칠월(마쓰춘)과 안생(저우동위)의 14년 우정과 이별을 그리며 인생의 양면성과 관계의 한계를 성찰하는 영화다. 이 영화로 중국어권 영화를 대상으로 한 대만의 금마장영화제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공동 수상한 저우동위와 마쓰춘의 연기가 인상적이다. 반면, 동명 만화를 실사화한 ‘은혼’은 기상천외한 발상과 괴상한 유머로 마니아 관객의 지지를 얻고 있다. 신비의 검을 찾아 모험을 떠난 무사 3인방의 익살스러운 패러디와 과장된 액션이 만화를 보는 듯한 쾌감을 선사한다.<br/><br/>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28.txt

제목: [클린리더스]여성 암 환자 위한 다양한 활동 펼치는 ‘아모레’  
날짜: 20171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7050423003  
ID: 01101101.20171217050423003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span class='quot0'>잊었던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되찾게 해줘서 고맙습니다.</span>"<br/>지난 5월 아모레퍼시픽의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의 참가한 유방암 환자 박 모씨(50)는 화장을 한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비춰보며, 화장해 준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br/>이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심적 고통을 겪는 여성 암 환자들에게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뷰티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지난해 11월 유방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한 박 씨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메이크업이라는 것을 아예 잊고 살았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등 외모에 변화가 생기기도 했지만 화장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좀처럼 들지 않았다.<br/>하지만 이 캠페인에 참가한 후 생각이 바뀌었다. 박 씨는 "<span class='quot1'>메이크업은 암 환자들에게 스스로가 아름다운 여자라는 것을 다시 인식시켜 준다</span>"며 "<span class='quot1'>이 캠페인이 환자들에게 아름다움뿐 아니라 잊었던 자신감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 준 것 같다</span>"고 말했다.<br/>아모레는 이 캠페인을 10년 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캠페인은 방문판매를 하는 아모레 카운슬러와 교육 강사 등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여성암 환자들을 위한 활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모레는 올해도 상ㆍ하반기에 거쳐 전국 주요 36개 병원에서 약 1,5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캠페인을 진행했다.<br/>아모레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국내에서만 총 1만994명의 여성 암 환자와 4,033명의 아모레 카운슬러 자원봉사자가 이 행사에 참여했다며 "2011년에는 중국, 2015년에는 베트남, 2017년에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으로 지역을 확대해 지난 10년간 총 6개국 1만4,065명의 여성 암 환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br/>아모레는 또 지난 2001년부터 여성 유방건강 의식향상을 위한 핑크리본캠페인도 전개해오고 있다. 여성들에게 자기 몸에 대한 관심과 건강을 돌보는 습관형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핑크리본캠페인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러닝 축제인 ‘핑크런’이 있다.<br/>올해로 17년째를 맞는 핑크런 대회는 유방건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방암 환자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전국 5개 지역에서 열린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9만9,000여 명이 이 대회에 참가해 총 32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전달했다. <br/>올해 열린 핑크런 대회에도 모두 2만4,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참가비 1만원을 유방암 환자를 위해 기부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출발에 앞서 생활 속 유방 자가검진 슬로건 ‘아리따운 내 가슴애(愛) 333’을 다 함께 외치며 유방 자가검진 의지를 다졌다. 아리따운 내 가슴애(愛) 333은 매월 생리가 끝난 ‘3’일 후, ‘3’개의 손가락을 펴고, ‘3’개의 원을 그려 자가 검진을 실천하자는 운동이다.<br/>노동영 한국유방건강재단 이사장은 “<span class='quot2'>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조기 치료를 통해 완치할 수 있으므로 유방자가검진법 ‘아리따운 내 가슴애(愛) 333’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2'>한국유방건강재단은 앞으로도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여성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여성 건강 마라톤 ‘모리파오 (茉莉?, Jasmine Running)’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 개최된 이 대회는 국내 ‘핑크런’행사를 글로벌화한 것으로 여성 건강 의식을 높이기 위한 아모레의 해외 첫 활동이다.<br/>중국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임에도 3,200명이 행사에 참여해 여성 건강 증진에 뜻을 함께 모았다. 지난해 이어 올해 10월에는 상하이에서 열린 두 번째 모리파오행 사가 열렸다. 올해는 10km, 5km 코스 외에도 온 가족이 함께 뛸 수 있는 2km 코스를 신설돼 작년보다 많은 3,6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비 전액은 중국 내 낙후 지역 여성을 위한 암 검진 및 수술 후 회복 지원 프로그램에 쓰일 예정이다. <br/>아모레퍼시픽 중국법인은 지난해 2월, 중국의 여성 건강 및 복지 증진 관련 기관인 ‘중국부녀발전기금회’와 협력하여 ‘아모레퍼시픽 여성기금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br/>아모레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중국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여성 건강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글로벌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br/>아모레는 이밖에도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한 부모 여성의 자립을 지원해주는 희망가게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음식점 미장원 개인택시 매점 세차장 천연비누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지원해 모자가정이 생활안정을 이루도록 힘쓰는 희망가게는 2004년 1호점 개점 이후 100호점(2011년), 200호점(2013년)을 거쳐 현재까지 329개점이 문을 열었다.<br/>아모레 관계자는 “<span class='quot3'>희망가게 사업은 아모레퍼시픽의 창업자 서성환 선대회장 가족들이 기부한 유산인 ‘아름다운세상기금’을 바탕으로 시작됐다</span>”며 “<span class='quot3'>이 사업을 통해 자립에 성공한 가족 구성원은 자녀를 포함해 843명에 이르고 있다</span>”고 말했다.<br/>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29.txt

제목: [나를 키운 8할은] 강상중 "재일한국인 1세 아버지, 어떤 불운에도 굴하지 않으셨다"  
날짜: 20171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6050833001  
ID: 01101101.20171216050833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말기암 아픔 견디지 못하고<br/>"아프구나" 단 한번 약한 모습<br/>아버지의 침묵에서 인내 배우고<br/><br/>한국어도 일본어도 까막눈이었지만<br/>한국의 전통ㆍ풍습 고집스레 지켜<br/>어머니에게선 삶의 지혜 깨우쳐<br/><br/>영국의 계관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span class='quot0'>나는 지금까지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의 일부다.</span>”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할 때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다.<br/>내가 맨 처음 만난 이들, 나의 뼈가 되고 피가 된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다. 지금은 경남 마산시의 일부가 된, 그 옛날 가난하고 쓸쓸한 마을 소작인의 장남으로 태어난 아버지는 아직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와 도쿄, 나고야를 거쳐 규슈 구마모토에 자리를 잡았다. 해방이 되기 직전이었다. 해방 후에도 히로시마에 견줄 만한 군사 도시인 구마모토에 남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향의 땅에서 지냈고 결국에는 그 땅에 뼈를 묻었다.<br/>많은 ‘재일한국인 1세’가 그러하듯 과거 '제국'이었던 일본에서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험난한 고생길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인내심이 남달랐고 어떠한 불운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굳세고 강인한 사람이었다. 금욕적인 데다 불평불만을 입에 올리는 일이 없었고 검소한 생활을 고집했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말기 암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단 한 번, “아프구나”라며 약한 모습을 보이던 순간은 잊을 수가 없다. 망국의 백성으로 이향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결코 푸념하지 않았으며, 또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았던 아버지의 생애는 그저 묵묵히 살아온 ‘인고’의 삶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침묵에서 인내를 배웠다.<br/>어머니와의 만남은 아버지보다 덜 운명적이랴. 진해의 화창한 날씨와 바다 내음 속에서 자란 어머니는 어린 소녀 티가 가시기도 전에 고향을 뒤로하고 아버지가 있는 일본으로 건너왔다. 한국의 토속적인 생활 풍습과 전통 관례가 몸에 밴 어머니는 이국 땅에서도 고집스럽게 고향의 풍속과 먹거리의 전통을 지켰다. 모국어인 한국어도, 일본어도 읽고 쓰지 못한 어머니였으니 고향의 관례를 지키는 것만이 당신을 지탱하는 정체성의 근간이었으리라. 나는 그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나 정보보다 삶의 지혜야말로 인간을 살린다는 것을 어머니에게서 배웠다.<br/>60대 중반의 초로가 되어 돌이켜보니 아버지와 어머니야말로 나의 피와 뼈를 이룬 운명 같은 존재였음을 새삼 실감한다. <br/>부모 이외의 또 다른 이들을 들자면, 인생에서 가장 감수성이 풍부한 시기인 학창 시절에 운 좋게도 진정한 ‘스승’인 은사를 만났고 둘도 없는 ‘마음의 친구’를 얻었다. 정치학자였던 대학 시절의 은사는 일본의 고도성장이 끝날 무렵 기존의 환경윤리학과 리버럴리즘의 한계를 넘어선 정치철학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병마로 쓰러졌다. 그분을 통해 학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달았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에 기초한 정치와 사회의 구축이라는 커다란 문명사적 과제를 배웠다.<br/>은사보다 내게 더 큰 영향을 준 이는 나와 마찬가지로 재일한국인 2세로 살아가는 처지였던 ‘마음의 친구’였다. 그를 통해 ‘자이니치(在日)’로 산다는 것이 그저 일본 사회의 소수자(minority)로서의 삶일 뿐만 아니라, 분단된 조국과의 유대를 유지하면서도 경계를 넘나드는 디아스포라(Diaspora)의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배웠다.<br/>이 소중한 이들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아마도 ‘무(無)’에 가까운 존재였으리라. 그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만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의 삶과 뜻은 내 안에 살아 있다. 아니, 나의 피와 뼈 그리고 내 근육과 피부에 그들의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해야 할까. 그들이 내게 남기고 간 것들, 그들의 간절한 바람,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았다는 증거를 다음 시대에 전해주는 것이 내게 남겨진 책무임을 나는 알고 있다. 다음 세상에서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열심히 살았구나. 고생했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br/>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br/>번역 노수경

언론사: 한국일보-1-30.txt

제목: “암 환자의 따뜻한 임종 위해 의료진이 집으로 갑니다”  
날짜: 20171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5050747001  
ID: 01101101.2017121505074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충남대병원 가정호스피스팀<br/>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br/>올해 210명을 1859회 찾아가 <br/>음악ㆍ미술 활용한 심리치료까지<br/>정부는 보험수가 시범사업 지정<br/><br/><br/> “<span class='quot0'>생의 끝자락에 선 말기 환자를 원하는 곳에서 곁에서 지켜주고 보살펴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span>”<br/> 충남대병원 가정호스피스팀은 집에서 돌봄을 원하는 말기 암 환자를 직접 찾아가 그들의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덜어주고,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치료를 통해 행복한 임종을 맞도록 곁을 지키고 있다.<br/> 가정호스피스팀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완화의료 전문가가 한 팀을 이뤄 호스피스 병동에서 받는 서비스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한다. 이는 상당수의 암 환자들이 병동보다는 집에서 간호를 받으며 임종을 맞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절실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지난해 말기ㆍ진행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전시의 조사결과를 보면 75.9%가 가정에서 지내길 원했다.<br/> 가정호스피스팀은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직장암 말기로 집에서 가족들의 간호를 받고 있는 A(69)씨는 급격한 병세 악화에 대한 가족의 이해 부족 등으로 우울증세까지 보였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30대 아들은 경영이 악화돼 아버지 간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이중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다. 가정호스피스팀은 이런 A씨의 집을 찾아가 고통완화 등을 위한 의료 처치를 하고, 환자와 가족의 말벗이 돼 A씨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다.<br/> 충남대병원 윤석준 호스피스 완화의료부장은 “<span class='quot1'>누구나 다 죽음을 맞는 순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아늑한 장소에서 편안하길 바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가정 호스피스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span>”고 말했다.<br/><br/><br/> 충남대병원은 가정호스피스라는 말조차 생소했던 1995년부터 의료진을 중심으로 봉사 개념으로 이 활동을 시작했다. 전문적인 가정호스피스에 나선 것은 2008년 2월 완화의료전문병동을 마련하고 가정호스피스 간호사 1명을 배치하면서부터다. 2011년에는 대전시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를 개소하고, 전문 간호사를 3명으로 늘렸다.<br/> 올해는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미술 음악 아로마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호스피스 운영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충남대병원의 가정호스피스를 원하는 말기 암 환자도 지난해 149명에서 올해는 210명으로 크게 늘었고, 방문 횟수는 1,859건에 이른다.<br/> 충남대병원 최영심 가정호스피스 사업 책임간호사는 “<span class='quot2'>의사들은 신체검진과 투약 처방 등을, 간호사는 통증과 수면 등 신체 증상 관리, 심리적ㆍ영적 관리를 맡는다</span>”고 말했다. 최 간호사는 “<span class='quot3'>가족들은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에 대처를 못해 힘들어 하고, 직장과 병간호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아 환자는 물론, 가족 전체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고통을 겪는 게 현실</span>”이라고 말했다.<br/> 가정호스피스팀이 기본 의료서비스 외에 적극 진행하는 아로마와 음악ㆍ미술 치료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클래식 음악과 노래부르기, 악기 연주 등을 활용한 음악치료를 받은 말기 유방암 환자 B(40)씨는 “음악 안에서 가고 싶은 곳을 모두 돌아다닐 수 있어 좋았고, 어둠이 사라졌다”며 만족해 했다. 음악치료를 받는 동안 마음이 편안하고 통증이 많이 줄어든 느낌이었다고도 했다.<br/> 정부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전국적 모델로 떠오른 충남대병원의 가정 호스피스를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향후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있다. 현재 말기 암 환자의 가정호스피스 방문 진료비는 의사 5,900원, 간호사 3,810원, 사회복지사 2,400원으로 책정돼 있다. 교통비와 기타 처치비, 투약비 등도 전체의 5%만 내면 된다.<br/> 최영심 간호사는 “<span class='quot4'>가정호스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접근성이다</span>”라며 “<span class='quot4'>현재는 병원 중심이지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독립형 호스피스가 더 많이 생기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br/> 충남대병원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지역암센터 2층 의행홀에서 대전시 가정호스피스 사업 성과보고회를 갖고, 그 동안의 사업 경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책을 모색했다.<br/>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31.txt

제목: [메디컬 잉글리시] 자궁경부암 검사(Cervical cancer screening)  
날짜: 20171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5050842001  
ID: 01101101.2017121505084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자궁경부암 검사 (Cervical cancer screening)<br/><br/>(D = doctor 의사; P = patient 환자)<br/><br/>D: How may I help you today?<br/>의사: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나요?<br/><br/>P: I’m here for cervical screening.<br/>환자: 자궁경부암 검사하러 왔습니다.<br/><br/>D: All right. When was the last time you received an examination?<br/>의사: 언제 마지막으로 해 보셨나요?<br/><br/>P: Five years ago, and no examination ever since. How often should I come in for that kind of examination, doctor?<br/>환자: 5년 전에 하고 한번도 안 해 보았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br/><br/>D: Well, with no signs showing, once every two years will be just fine.<br/>의사: 보통 아무 이상이 없다면 2년에 한번 정도면 됩니다.<br/><br/>P: Until I get menopause?<br/>환자: 폐경 전까지만 하면 되나요?<br/><br/>D: We recommend cervical screening even for women past their menopause.<br/>의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경과 상관 없이 노인이 되어서도 권장을 합니다.<br/><br/>P: I see.<br/>환자: 그렇군요.<br/><br/>D: Did you find anything noteworthy five years ago?<br/>의사: 5년 전에 다른 이상은 없었나요?<br/><br/>P: I can’t remember so well. My gynecologist back then told me to come back for another look, but I got so busy and forgot about the appointment.<br/>환자: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보자고 했었는데 바쁘고 잊어버려서 그 동안 산부인과에 오지 않았었어요.<br/><br/>D: Well, now that you’re here, why don’t we give it another try?<br/>의사: 괜찮습니다. 오늘 검사하도록 하지요.<br/><br/>P: Is cervical cancer dangerous?<br/>환자: 자궁경부암이 위험한가요?<br/><br/>D: The cervix is located at the lower entry point of the uterus. Cervical cancer is the second most fatal cancer specific to women. A leading cause is the human papillomavirus (HPV) that is sexually transmitted and that infects the cervix. The HPV can alter the cellular structure in the cervix. <br/>의사: 자궁경부는 자궁의 아래쪽에 위치한 입구입니다. 자궁 경부암은 여성 암 중에 2위를 차지하고 있지요. 대표적인 원인으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성매개 감염은 자궁경부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의 세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br/><br/>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언론사: 한국일보-1-32.txt

제목: 문 대통령-시진핑, 미 군사옵션 겨냥 ‘한반도 평화’ 강조  
날짜: 20171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4050833003  
ID: 01101101.20171214050833003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문 대통령 “역지사지의 기회”<br/>시진핑 주석 “더 나은 길 닦아야”<br/>사드 뇌관 피하며 덕담 나눴지만<br/>시 주석, 적절한 처리 압박도<br/><br/><br/>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에선 북한 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와 관련해선 적절한 처리를 요구하는 중국 측의 압박은 계속됐다.<br/>양국 정상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4대 원칙에 합의한 것은 어느 정도의 성과로 평가된다. 한반도 비핵화나 북핵 평화적 해결 원칙은 앞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거듭 합의된 사항이라 특별할 것이 없지만, 전쟁 불용은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4대 원칙이 양국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북한의 거듭된 핵ㆍ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원칙과 입장을 재확인한 셈</span>”이라고 설명했다. <br/>확대정상회담부터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양 정상은 사드라는 말은 피한 채 덕담을 주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먼저 “<span class='quot1'>양국이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어떤 면에서는 역지사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그간의 골을 메우고 더 큰 산을 쌓아나가기 위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span>”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span class='quot2'>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 때문에 중한관계는 후퇴를 경험했다</span>”며 “<span class='quot2'>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상호 존경과 신뢰에 기초해 우리가 추구하는 더 나은 길을 닦아 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span>”고 말했다. 시 주석은 특히 전날 문 대통령이 난징(南京)대학살 80주년을 애도한 것을 언급하고 “<span class='quot1'>한국에서 그 행사(80주년 추도식)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주중대사를 참석시켜 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span>”고 화답했다. <br/>핵심인사들만 참석하는 소규모 정상회담에서는 시 주석이 사드를 직접 거론하고 중국 측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시 주석은 “<span class='quot2'>한국 측이 이를 계속해서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span>”고 강조하면서 “<span class='quot2'>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 나가자</span>”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시 주석이 10월 31일 양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말했다</span>”며 “<span class='quot3'>우리 입장에선 시 주석이 사드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했다고 본다</span>”고 평가했다. <br/>양 정상은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ㆍ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했다. 이밖에 ▦미세먼지 공동 저감 ▦암 관련 의료협력 등 환경ㆍ보건 협력 ▦교육ㆍ과학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지방정부 간 협력을 증진뿐 아니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드론,?전기자동차?등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추진해 나가기로 했다.<br/>이날 회담은 양 정상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당초 예정보다 1시간 늘어난 2시간 15분간 진행됐다. <br/><br/>베이징=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33.txt

제목: 대장암 국가 검진 내년부터 무료  
날짜: 20171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3050735003  
ID: 01101101.20171213050735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50세 이상… 본인부담금 폐지<br/><br/>내년부터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장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br/>1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 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br/>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의 본인부담금이 폐지된다. 현재 국가 암 검진은 5대 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이 대상이다. 자궁경부암은 무료지만, 나머지 4대 암은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하위 50%만 무료이다. 상위 50%는 검진비용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했다.<br/>만50세 이상은 해마다 대장암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1차로 대변검사인 ‘분별잠혈반응검사’를 하고서 피가 보이는 등 이상 소견이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2차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는 분별잠혈반응검사비용 3,500원 중 350원을, 대장내시경 검사비용 15만원 중 1만5,000원을 내야 했다. 이 비용이 없어지는 것이다. <br/>복지부는 또 대장암이나 간암으로 진료받는 환자의 경우, 암환자에 본인부담률을 5%만 적용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5년)이 끝나는 날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과 간암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게 했다. 만50세 이상이면 매년 대장암 검진을 받는 등의 불편과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에서다.<br/>이와 함께 국가 암 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결과 기록지에 판정의사의 의사면허번호와 성명을 기입하도록 했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34.txt

제목: [사설]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성숙한 보수야당 구축에 앞장서길  
날짜: 20171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2051041003  
ID: 01101101.20171212051041003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에 3선(서울 강서을)의 김성태 의원이 선출됐다. 바른정당 복당파로 친홍(홍준표 당 대표)계로 분류되는 김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친박 홍문종 의원, 중도파 한선교 의원 등과의 3자 대결에서 예상을 깨고 1차 투표에서 과반(55표)표를 얻어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는 당선 일성으로 “대여 투쟁을 강화해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전사로 서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br/>하지만 극심한 갈등 속에 당선된 김 신임 원내대표의 어깨는 매우 무겁다. 경선 과정에서 그를 전폭 지원한 홍 대표는 ‘바퀴벌레’ ‘고름’ ‘암 덩어리’같은 막말을 쏟아내면서 당내 갈등지수를 극한으로 높였다. 이런 당내 갈등을 덮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대여 투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친홍계, 복당파, 범박 중도파, 친박계로 어지럽게 갈라진 당의 단합을 이끌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 최소한의 인적 쇄신 작업을 병행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농후하다. 홍 대표와 호흡을 맞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지만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 이해 다툼이 큰 걸림돌이다. 여기에 홍 대표가 의욕을 보이고 있는 당협위원장 30%물갈이 작업은 또 하나의 불씨가 되고 있다.<br/>바른정당 잔류파와 국민의당 일부까지도 시야에 넣고 있는 보수통합 추진도 김 원내대표의정치적 역량을 필요로 한다. 보수통합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 차원에서 홍 대표가 공을 들이고 있기도 하다. 1차적으로 이번 임시국회 등 원내 전략에서 다른 야당들과 얼마나 쟁점사안 별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는 거의 전적으로 김 원내대표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br/>다른 한편으로 제1 야당이 사사건건 정부여당 반대투쟁에만 골몰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보수 진영을 포함한 다수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이 서울지역에서 바른정당에 2%포인트 뒤진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국민은 적어도 안보와 민생경제 문제 등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제1 야당의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김 원내대표는 중동 건설현장 노동자 출신으로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지내 노동자와 서민의 애환을 잘 아는 정치인이다. 그런 이력을 지닌 제1 야당의 새 원내대표가 반대와 투쟁일변도를 넘어 생산적 수권 야당의 성숙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언론사: 한국일보-1-35.txt

제목: “오메가3 보충제, 혈중 중성지방 떨어뜨리는 효과 없어”  
날짜: 20171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2051038003  
ID: 01101101.20171212051038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명승권 국립암센터 교수, 58편 국제 논문 메타분석 결과<br/>보충제 먹지 말고, 등푸른 생선ㆍ호두 아몬드 등 견과류 섭취를 <br/>혈중 중성지방이 높은 고중성지방혈증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의 효과에 대한 임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순환과 혈중 지질 개선 효과로 널리 알려진 불포화지방산이다. 항혈전ㆍ항부정맥ㆍ항동맥경화 등의 효과로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고, 고혈압ㆍ유방암ㆍ대장암ㆍ치매 등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의생명과학과 교수팀은 UCLA 보건대학원 남지나 대학원생과 함께 1988~2016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의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과를 알아본 58편의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 대조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br/>연구결과는 ‘유럽지질과학기술저널(European Journal of Lipid Science and Technology)’ 12월호에 실렸다.<br/>명 교수팀은 주요 의학데이터베이스인 펍메드(PubMed), 엠베이스(EMBASE) 및 코크란라이브러리(Cochrane Library)의 문헌검색으로 58편의 임상시험을 메타 분석했다. 그 결과,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위약(플라시보)보다 38.59㎎/dL 만큼 낮췄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LDL) 콜레스테롤은 3㎎/dL 증가했다.<br/>하지만 분석에 포함된 임상시험 간에 효과 차이가 심했고, 임상시험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번에 분석한 임상시험의 70%정도는 연구대상이 100명 미만으로 적어 오메가3 지방산의 이상지질혈증, 특히 고중성지방혈증 예방ㆍ치료에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br/>미국심장협회는 그 동안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된 대규모 관찰연구 결과에 근거해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1주일에 2회(1회에 100g내외-손바닥 크기 정도) 섭취를 권하고 있고, 섭취가 부족하면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를 권하고 있다.<br/>명 교수는 그러나 “<span class='quot0'>201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14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 기저(基底)질환자들에게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는 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가 없었고, 5건의 메타분석 논문에서도 결과가 같았다</span>”고 했다.<br/>명 교수는 “<span class='quot0'>분석결과,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혹은 약)가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데 임상적 근거가 부족했다</span>”며 “<span class='quot0'>고중성지방혈증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를 치료제로 쓰는데,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하다</span>”고 했다. <br/>그는 “<span class='quot0'>특히 우리나라에서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가 건강기능식품으로 고중성지방혈증 및 심혈관질환 예방ㆍ치료에 도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이가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를 구입해 먹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임상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등 푸른 생선 같은 음식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한다</span>”고 했다.<br/>오메가3 지방산의 하루 권장량은 500~2,000㎎이다. 오메가3의 EPA와 DHA 성분은 고등어 연어 참치 등 등푸른 생선과 호두, 아몬드 등의 견과류에 많이 들어 있다. 특히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고등어 2~3토막에는 하루 권장량에 육박하는 1,000~1,800㎎의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1-36.txt

제목: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손나은,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의 정석  
날짜: 20171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2051010002  
ID: 01101101.20171212051010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에이핑크 멤버 손나은이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의 매력을 과시했다. <br/><br/>12일 소속사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 측을 통해 공개된 tvN 토일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현장 스틸컷 속 손나은은 남자친구의 액세서리를 골라주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귀여운 웃음을 짓는 등 청순하고 풋풋한 모습으로 보는 남성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br/><br/>손나은은 극 중 철부지 아들인 정수(최민호 분)의 여자친구 재영 역을 맡아 연기를 펼치고 있다. <br/><br/>한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지난 1996년 MBC에서 방송된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 온 중년의 부인이 어느 날 말기 암 진단을 받고 가족들과 이별을 준비하는 내용을 그렸다.<br/><br/><br/><br/>박건욱 기자 kun1112@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37.txt

제목: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간암 발생률 약 17배 높아  
날짜: 20171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2050902003  
ID: 01101101.20171212050902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아산병원, 지방간 진단 2만5,000여명 추적관찰 결과<br/>남성 환자 대장암, 여성 환자 유방암 발생 가능성 2배 ↑<br/>비만,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과 관련돼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간암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 약 17배(16.7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12일 발표됐다.<br/>이한주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최재원ㆍ김기애 교수)이 2004~05년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2만5,947명을 대상으로 7.5년(평균)동안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암 발생 관련성을 추적 관찰한 결과다. 연구결과는 ‘유럽간학회지(Journal of Hepatology)’에 최근 게재됐다.<br/>연구결과, 남성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지방간이 없는 남성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2.01배 높았다. 여성 지방간 환자에게서 유방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방간이 없는 여성보다 1.92배 높았다. <br/>이한주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연구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중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8,700명(34%)으로 이중 남성 환자가 6,200명(71%)에 달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비알코올성 지방간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않거나 겉보기에 비만이 아니라도 발생할 수 있어 평소 지방간 여부를 꾸준히 체크하고 운동 및 식이요법으로 관리해야 한다</span>”고 당부했다.<br/><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38.txt

제목: “세계 최고 고난도 수술로 의료한류 선도”.. 해외의료진도 배우러 와  
날짜: 20171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1050847002  
ID: 01101101.20171211050847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연 6만건 고난도 수술 경험<br/>‘아랍인의 밤’ 열어 고향 음식으로 <br/>향수병 달래는 등 고객 경험 관리<br/><br/>#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온 알하탈리 야세르(57)씨는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2대 1 생체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야세르씨는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신부전과 중증 간질환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었다. 동생과 조카의 간을 떼어내 야세르씨에게 이식한 2대 1 생체간이식은 기증자의 간이 단독 이식할 정도로 크지 않을 때 시행하는 유일한 수술법이다. 야세르씨는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수술이 불가능해 수소문하다 미국이나 유럽보다 생체간이식 경험이 많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다. 야세르씨는 내년 4월 말이면 아랍에미리트로 돌아갈 예정이다.<br/><br/>야세르씨처럼 서울아산병원에는 올해 90여개국에서 온 1만5,000여 외국인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 2,700여 병상을 갖춘 국내 최대 서울아산병원이 규모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도 세계 유수 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br/> 의료한류를 만드는 데 앞장 서고 있는 김영탁(61) 서울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산부인과 교수)을 만났다. 김 소장은 “<span class='quot0'>우리 병원의 독보적인 치료성과나 수술결과가 해외에 알려지면서 러시아 중국 몽골 중둥 등에서 치료만 목적으로 입국하는 환자가 늘고 있고, 특히 중증 환자 비중이 높다</span>”며 “<span class='quot0'>2020년까지 해외 환자 100만명 유치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응해 외국인 환자 진료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span>”고 했다. 김 소장은 자궁근종, 자궁암, 난소암 등 부인암 치료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장이기도 하다. ‘권위적 자세를 버리고 국적, 인종, 성별,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진료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진료철학이다.<br/><br/>-외국인 환자가 서울아산병원을 찾는 이유는.<br/> “우리 병원이 세계 탑 클래스 병원이라는 걸 해외에서도 인정 받기 때문이다. 우리 병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연간 6만건 이상의 고난도 수술을 진행한다. 특히 국내 암수술만 1년에 2만건이 넘었다. 우리 암병원 수술 실적은 2013년 1만7,467건, 2014년 1만8,508건, 2015년 1만8,815건, 2016년 1만9,506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수술 실적도 세계 최고 수준을 넘었다. 미국 주간지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베스트 병원 랭킹 2016~2017’에 암 치료 분야 1위 병원에 선정된 MD앤더슨 암센터는 654병상 규모에 수술 건수 8,407건을, 2위 메모리얼슬로언케터링 암센터는 578병상 규모에 수술 건수 9,191건을 기록했다. <br/> 우리 암병원은 수술 난이도가 매우 높은 복강경 수술 등 암수술에서 세계 최고다. 복강경 위암 7,500례, 유방암 3만례, 대장암 2만8,000례를 시행하는 등 국내는 물론 세계 탑 클래스로 인정받으면 ‘4차 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br/> 특히 장기이식이 우리 병원에서 자랑할만한 분야다. 우리 병원에서 시행한 간이식 수술 생존율은 97%(1년), 89%(3년), 88.5%(5년)로 장기이식 선진국인 미국의 간이식 생존율 88.7%(1년), 82.7%(3년), 79.7%(5년)보다 훨씬 높다. 특히 외과 수술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생체 간이식, 2대 1 간이식, ABO혈액형 부적합 간이식 등은 세계 최다 수술을 기록하고 있다. 심장이식도 우리 병원에서 국내의 절반 이상 시행하고 있다. 1년 생존율이 95%로 미국의 86%를 크게 앞서며, 세계 최고 심장이식 기관인 스탠포드대와 텍사스심장센터와 비슷하다. 이밖에 신장과 췌장이식도 압도적이다. 지금까지 췌장이식은 380여건, 신장이식은 4,900여건을 시행해 왔다. 폐이식 생존율은 65.5%(5년 생존율)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44.8%)보다 월등히 높고, 국제심폐이식학회(61%)보다 높다.”<br/><br/><br/><br/>-외국인 환자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점은.<br/> “지난해 우리 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90여개국 1만5,000여명이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환자가 많았다. 아랍에미리트 환자는 2011년 18명에서 2016년 1,413명으로 무려 80배나 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환자도 2011년 63명에서 2015년 966명으로 증가했다.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다. 환자들이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좋은 치료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중동 환자는 음식부터 종교까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들의 종교를 위한 기도실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으며 중동 환자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무슬림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할랄’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랍인의 밤’ 행사를 열어 중동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을 함께 초대해 중동음식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향수를 달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환자의 마음까지 살피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br/><br/>-해외에 의술도 전파하고 있는데.<br/> “환자뿐만 아니라 해외 의료 신진국 의료진도 우리 병원을 찾아 첨단 의술을 배우고 가는 등 우리 병원의 의술은 세계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다. 지난 1955년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선진 의술을 알려준 미국 미네소타대병원이 2015년 우리 병원에 간이식 기술 전수와 줄기세포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을 요청해왔다. 과거 ‘스승’인 미네소타대병원 의료진이 이제는 ‘제자’였던 서울아산병원에서 생체 간이식 기술을 배우게 된 것이다. 우리 병원에는 미네소타대병원 외에도 매년 간이식 수술, 심장 스텐트 수술, 재건 성형 등 우리 병원의 다양한 의술을 배우러 50여 개국에서 400~500명의 의료진이 찾아오고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1-39.txt

제목: “과도한 야간 조명, 암 발생률 높여”  
날짜: 20171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1050833002  
ID: 01101101.20171211050833002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 현대인의 건강’ 심포지엄<br/>”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과도한 인공조명 노출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만 이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다.”<br/>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고 서울반도체 등이 후원해 1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빛 공해, 생체리듬과 현대인의 건강’ 심포지엄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인공조명의 위해성을 경고했다.<br/>제이미 제이저 미국 스탠포드대 수면의과학과 교수는 “천문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빛 공해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미국에서조차 대부분 존재하는지 모르고 있다”며 “과도한 야간조명은 암 발생률을 높이고, 당뇨나 비만 같은 대사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br/>사답 라만 하버드의대 교수는 “부적절한 시간에 빛에 노출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며 “낮 동안의 블루라이트(Blue Light)는 신체리듬을 유지하는데 중요하지만 밤에 쬐면 숙면을 취할 수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br/>이헌정 고려대 의대 교수도 시간대별 노출되는 빛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빛에 대한 영향에는 개인별 차이가 있는데 기분장애가 있는 경우 야간에 강한 광원에 노출되면 생체 리듬을 뒤로 밀어내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는 것은 광원을 눈으로 직접 보는 거라 책을 읽는 것과는 또 다르다”고 말했다.<br/>이은일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제도적 문제를 꼬집었다. 이 교수는 “환경부의 빛 공해 가이드라인은 외국보다 기준이 더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며 “적용하려면 지자체에서 조명관리구역을 정해야 하는데 서울시와 경기도 이외에는 거의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br/>전문가들은 빛 공해에 대한 정교한 연구와 함께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헌정 교수는 “밤에 인공조명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신체에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지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고, 제이미 교수는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들의 대국민 홍보 활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br/><br/>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40.txt

제목: 계명대 동산병원, 유전상담센터 개설  
날짜: 20171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1050747001  
ID: 01101101.20171211050747001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암 등 유전검사ㆍ정보 제공<br/>개인 맞춤형 의료상담 서비스 <br/><br/><br/>계명대 동산병원이 대구ㆍ경북 최초로 ‘유전상담센터’를 개설, 1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앞서 동산병원은 최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를 도입해 희소질환에 대한 진단율을 높이고 있다.<br/>유전상담센터는 유방 및 난소암을 포함한 유전성암과 선천성 유전질환자에게 정확한 유전정보를 제공하고, 신체적ㆍ심리적인 부분은 물론 사회적 요소까지 고려한 개인 맞춤형 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br/>유전검사를 앞둔 환자에게 검사목적과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검사 후에는 결과에 대한 자세한 해석과 치료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검사결과의 개인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가족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br/>동산병원 하정숙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유전검사기술의 발달과 함께 유전검사가 활발히 시행되면서 전문적인 유전상담을 요구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span>”며 “유전검사는 방법과 해석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검사 결과가 환자 한 명에 한정되지 않고 가족에게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전문적인 상담이 필수“라고 강조했다.<br/>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41.txt

제목: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울지않곤 못 배길걸  
날짜: 20171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1050731002  
ID: 01101101.20171211050731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주말 안방극장을 가족애로 물들였다.<br/><br/>지난 10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극본 노희경/연출 홍종찬)에서는 아내 인희(원미경 분)의 수술을 포기하는 정철(유동근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정철은 인희가 난소암 판정을 받자 현실을 부정했다. 재검사에서도 수술이 불가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지만 정철은 포기할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인희의 수술이 결정됐다.<br/><br/>인희는 자신의 몸 상태를 모른 채 새로 이사할 집을 보러 다니며 기뻐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김영옥 분)를 보살피고, 함께 미래도 계획했다. 정철은 답답한 속을 화로 터뜨렸다. 딸 연수(최지우 분)에게 인희의 상태를 알렸고, 인희 역시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됐다. 하지만 정철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수술만 하면 괜찮아 질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br/><br/>?<br/><br/>인희는 자신이 암이라는 것을 별 일 아니라는 듯 받아들였다. 그는 "내가 아프지, 당신이 아파? 나 죽으면 어떻게 살래?"라며 오히려 정철을 위로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인희는 미소를 지었고, 걱정하는 자식들을 향해 "괜히 우네. 괜찮다니까? 엄마는 강하다"고 말했다.<br/><br/>그러나 더 이상 손 쓸 수도 없이 상태가 악화되면서 수술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정철은 수술실에서 인희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결국 수술을 종료시켰다. "배 닫자"라는 덤덤한 한마디와 함께 무뚝뚝하던 정철이 끝내 눈물을 흘리는 엔딩은 보는 이들까지 먹먹하게 만들었다.<br/><br/>이어진 예고편에서는 인희가 가족들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엄마와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후회하는 자식들의 모습, 남편에게 아픔을 토해내는 인희의 모습 등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br/><br/>잔잔하지만 강력하게 스며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진가는 가족과 공감에 있었다. 늘 함께 있지만 무관심했던 가족에 대한 공감을 건드리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br/><br/>'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앞으로 2회 더 방송될 예정이다.<br/><br/><br/><br/>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42.txt

제목: 이용마 기자, 해직 5년만에 MBC 출근 "촛불시민 덕분"  
날짜: 20171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1050713001  
ID: 01101101.20171211050713001  
카테고리: 사회>미디어  
본문: 이용마 기자가 5년 9개월만에 MBC에 출근했다. <br/><br/>이용마 기자는 11일 오전 최승호 신임 사장과 함께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MBC에 출근했다. <br/><br/>현재 암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건 작년 엄동설한을 무릅쓰고 나와 줬던 촛불 시민들의 위대한 항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br/><br/>앞서 MBC는 지난 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170일간의 파업을 주도한 MBC노조의 정영하 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박성호 MBC 기자협회장, 노조위원장 출신인 박성제 기자와 최승호 PD(현재 사장)을 해고한 바 있다.<br/><br/>그러나 최승호 MBC 신임 사장이 지난 8일 MBC노조와 해직자 6명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br/><br/><br/><br/>차유진 기자 chayj@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43.txt

제목: '세상에서..." 유동근, 원미경 치료 포기했다 '체념'(종합)  
날짜: 20171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0050614002  
ID: 01101101.2017121005061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원미경이 수술을 했지만 가망이 없었다. 죽음이 가까워졌다.<br/><br/>10일 밤 9시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극본 노희경/연출 홍종찬) 2회에서 인희(원미경 분)는 난소암 판정을 받았다.<br/><br/>인희는 동생 근덕(유재명 분)의 집을 찾았다. 양순은 "그 인간 또 도박을 했다. 요즘은 여자 문제까지도 있다"며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다.<br/><br/>그때 근덕이 집에 왔고, 그는 누나 인희를 보자 "왜 왔냐. 인연 끊고 살자고 하지 않았냐. 당장 가라"라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인희는 눈물을 보이며 떠났다.<br/><br/>이후 인희는 남편 정철(유동근 분)이 불러 병원에 갔다. 정박사(맹상훈 분)은 "수술 못 한다. 너무 늦었다"고 정철에게 말했다. 정철은 "나는 이제 의사 그만둘거다"라고 했다. 정박사는 "수술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확언했다.?<br/><br/>정철은 인희의 수술날을 잡았다. 인희에게도 암이라는 사실을 밝혔지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연수(최지우 분)는 "아빠가 미리 알고있으면 말을 했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br/><br/>인희는 결국 수술을 했다. 하지만 이미 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고, 정철은 "배 닫자"며 체념했다.?<br/><br/><br/><br/>명희숙 기자 aud66@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44.txt

제목: [Hi#리뷰]'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세월 지나도 변함없는 명작의 울림  
날짜: 20171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10050500002  
ID: 01101101.20171210050500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명작이 주는 울림은 변하지 않았다. 리메이크로 돌아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안방극장에 진한 감동으로 첫 막을 열었다.?<br/><br/>지난 9일 첫 방송된 tvN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극본 노희경/연출 홍종찬)은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 온 중년 주부가 말기 암 진단을 받고 가족들과 이별을 준비하는 내용을 담았다.<br/><br/>'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노희경 작가의 대표작으로 21년 만에 리메이크로 탄생했다. 4부작 드라마지만 최지우, 샤이니 민호, 원미경, 유동근, 김영옥, 이희준 등 유명 배우들이 대거 출연을 결정지으며 화제가 됐다.<br/><br/>이미 시청자들이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탄탄한 극본과 배우들의 호연으로 신선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안겼다.<br/><br/>또한 최근 드라마에서는 보기 어려운 묵직한 스토리와 죽음에 대한 섬세한 고찰은 시간이 지나도 명작이 주는 매력에 대해 다시금 알 수 있는 시간이 됐다.<br/><br/><br/><br/>명희숙 기자 aud66@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45.txt

제목: 지구촌 뚱뚱한 청소년 1억2400만명... 한국도 '살과의 전쟁'  
날짜: 201712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08050653001  
ID: 01101101.2017120805065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세계인들이 갈수록 뚱뚱해지고 있습니다. 흔해진 고열량 음식, 탄수화물 섭취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과체중ㆍ비만 비율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ㆍ청소년들의 비만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416건의 통계자료를 통해 1975~2016년 세계 유ㆍ청소년(5~19세) 체질량지수(BMI)를 분석한 결과, 이 연령대 비만인구가 1,100만명에서 1억2,400만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각각 0.9%, 0.7%였던 남녀 유ㆍ청소년들의 비만 비중은 같은 기간 7.8%, 5.6%로 뛰었습니다. <br/>과거와 달리 비만은 부유한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975년 저개발국가의 비만 유ㆍ청소년은 0.7%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이 비율은 7%로 뛰었습니다. 2022년이 되면 저개발국가의 비만 유ㆍ청소년 비중은 저체중 유ㆍ청소년의 비중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WHO의 예측입니다. <br/>과체중ㆍ비만으로 인해 치러야할 비용도 막대합니다. 비만은 당뇨ㆍ간 손상ㆍ암ㆍ우울증ㆍ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2014년 치료비용으로 6,000억달러가 소요됐고, 적절한 대처가 없을 경우 이 비용은 2025년이면 1조2,000억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비만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보건당국 조사에 따르면 한국 30, 40대 남성의 경우 40% 이상이 비만(과체중 포함)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과 당국의 촘촘한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r/>기획=이왕구 기자ㆍ박혜인 인턴기자(중앙대 정치국제학과 4), 디자인=송정근 기자

언론사: 한국일보-1-46.txt

제목: 여성들이 마음 편히 일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날짜: 20171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07050954002  
ID: 01101101.20171207050954002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정기은 대구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인터뷰<br/><br/><br/>“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저게 가능할까 싶었구요.”<br/>정기은(54)대구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2000년 무렵 미국을 방문했다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디트로이트에서 길다스클럽을 방문했을 때였다. 길다스클럽은 암으로 사망한 유명 코미디언을 기려 만든 곳으로 암환자와 회복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세웠다. 정 회장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자원봉사자들이었다. 암을 극복한 이들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전문 분야에서 무료 봉사를 하고 있었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형태의 전문적 봉사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 결과적으로 가능했다. 정 회장이 이를 직접 증명했다. 그가 설립한 분홍빛으로 복지연구소와 힐링센터를 통해서다.<br/>정 회장의 남편은 대구에서 유방암 전문의다. 1999년, 정 회장에게 가슴을 절제한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서줄 것을 부탁했다. 대중목욕탕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일주일에 한번씩 대중 목욕탕을 빌려서 단체로 목욕을 했다. 2008년에는 아예 병원에 전용 목욕탕을 만들고 연구소를 세웠다. <br/>이후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조금씩 늘었다. 목욕을 비롯해 심리 치료, 웃음 치료, 미술ㆍ음악ㆍ독서 치료, 가곡교실, 기체조, 라인댄스, 에어로빅, 부종체조까지 힐링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봉사자는 모두 길다스클럽처럼 무료로 재능기부를 한다. 유방암을 겪은 봉사자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직업도 교수를 비롯해 전문직이 많지만 전적으로 환자를 위해 무료로 헌신하고 있다. <br/>“대구 여성들이 정말 대단하단 생각이 들어요. 길다스클럽이 여기에 재현되었으니까요. 의심했던 제가 다 미안할 정도입니다.”<br/>‘대구 여성’으로 국한하는 이유가 있다. 전용 목욕탕 지을 때 얼마 안 가 전국에 환자를 위한 목욕탕이 생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까지도 대구가 유일하다. 정 회장은 “<span class='quot0'>국채보상운동과 금모으기 운동 등 역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시민운동이 대구에서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다</span>”고 밝혔다. <br/>유방암 환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계기로 다양한 단체에서 손을 내밀었다. 특정인을 위한 봉사에서 봉사의 영역이 조금씩 넓어졌다. 2008년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대구지회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소비자교육중앙회 대구지회 이사, 중구회장, 핑크리본복지연구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시중구여성분과위원장, 대구 중구여성단체협의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그 사이 대구시장 표창, 대구중구청장 표창,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대구시목련상을 받으면서 지역 사회에 이름을 알렸다.<br/>다양한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3월 대구시여성단체협의회에 역대 최연소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여성단체협회의 회장은 마지막 명예로 인식되는 자리였고, 그렇다 보니 역대 회장들은 대부분 고령이었다. 정 회장은 단일후보로 출마해 33개 회원단체의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쟁쟁한 선배들이 있었지만, 젊은 회장을 뽑아서 여성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대의적 차원에서 출마를 포기했다. 기대에 부응해 취임 후 역동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br/>“여성단체의 이미지 개선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도 여성봉사단체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중구여성단체협의회장 등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생각이 확 바뀌었죠. 아무런 대가 없이 오로지 봉사정신 하나로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봉사단체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br/>단순 노동에 가까운 봉사 외에 핑크리본복지연구소처럼 전문분야 봉사, 혹은 뒤에서 따라가는 봉사가 아닌 앞장서서 흐름을 주도하는 봉사단체로 위상을 정립하려고 애썼다. 정 회장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5월17일부터 20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북아 관광학회 및 포럼에서 한국 대표로 나서 ‘대구의료관광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정 회장이 기조연설을 신청했고 학회에서 이를 수렴하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취임 후 첫 대외활동이었다.<br/>“러시아분들은 대구에 의료관광 기반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모르더군요. 서울과 비교해서 의료비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뿌듯했죠. 여성들이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도 얻었습니다.”<br/>당면 활동 목표는 일ㆍ가정 양립 확산 운동 참여다. 여성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 회장은 “<span class='quot0'>대구의 여성일하기센터에서 밝힌 취업 실적이 작년과 비교해 올해 54.5% 증가해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위 성적을 기록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보수적인 도시 분위기를 감안하면 놀라운 성적</span>”이라고 밝혔다. <br/>“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일ㆍ가정 양립 확산 운동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올해 직원 채용 공고를 낼 때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했어요. 시간이 자유로워 그랬는지 유능한 구직자들이 다수 몰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근무를 시켜보니 시간 조정이 업무에 큰 차질을 초래하지도 않더군요.”<br/>정 회장은 “<span class='quot0'>성평등 임금공시제, 근로환경 조성,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확산,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한 제도적 개선과 인식 변화 캠페인 등에 적극 동참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일조하겠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당장 이 세대에 모든 걸 이루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노력한 만큼 다음 세대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생각으로 멀리 보고 천천히, 그러나 내실 있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span>”고 밝혔다. <br/><br/>김광원기자 jang750107@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47.txt

제목: '썰전' 유시민 "비트코인 사회적 화폐기능 없다...도박판 돼"  
날짜: 20171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07050906001  
ID: 01101101.20171207050906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썰전' 유시민이 비트코인의 어두운 면에 대해 언급했다.<br/><br/>최근 진행된 JTBC ‘썰전’ 녹화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상화폐 열풍과 가상화폐의 명과 암에 대해 이야기했다.<br/><br/>김구라는 “위키리크스의 설립자가 5만퍼센트의 수익을 봤다는 소식을 들으니,(사람들이) ‘나도 해야 되는 건가?’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간단한 개념을 설명 해 달라“고 운을 뗐다.<br/><br/>그러자 유시민은 “새로운 것을 반기는 건 진취적인 태도지만,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진짜 손대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비트코인은 사회적 생산적 기능이 하나도 없는 화폐다. 사람들이 빠져드는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판이 되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br/><br/>이에 박형준은 “최근 ‘마이크 헌’이라는 초기 개발자가 비트코인은 실패했다고 밝혔다. 거기에 보면, ‘무정부주의적이어야 할 비트코인이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에 의해 장악됐다.‘고 쓰여 있다. 원래 취지하고 결과가 달라진 거다. 귤이 탱자가 됐다“라고 평가했다.<br/><br/>한편‘썰전’은 7일 밤 10시 50분 방송된다<br/><br/><br/><br/>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48.txt

제목: 존엄사 선택 3000명 넘었다  
날짜: 20171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07050715001  
ID: 01101101.20171207050715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암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에 회생할 가능성이 없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매달리기보다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br/>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3개월가량 진행되는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에 지난 4일 기준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3,000명을 넘어섰다. 시범사업 실시 43일 만이다.<br/>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작성ㆍ등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비영리 단체인 각당복지재단ㆍ대한웰다잉협회ㆍ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의료기관인 신촌세브란스병원ㆍ충남대병원으로 모두 5곳에 불과한데도 작성자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br/>이런 점에 비춰볼 때 시범사업이 끝나고 내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급격히 늘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br/>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기에 들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한 장짜리 서류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누구나 쓸 수 있다. 4가지 연명의료 중에서 원하는 항목만 '중단'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작성한 내용은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전산시스템에서 언제든지 변경, 철회할 수 있다. <br/>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역보건소와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 일반인의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조회할 수 있게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br/>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 5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연명의료 관련 홍보 및 관리기관 운영비 등을 증액해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사업예산으로 61억1,800만원을 확정했다. 애초 정부안(57억600만원)보다 4억1,200만원이 늘었다.<br/>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49.txt

제목: 실손ㆍ차보험도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꼭 챙기세요”  
날짜: 2017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06050924002  
ID: 01101101.20171206050924002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연 100만원 한도 13만원 혜택<br/><br/><br/>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절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절세 상품에 가입해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애초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대표적인 게 보험상품이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보장성보험 1~2개쯤은 가입했을 텐데 정작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 연말정산 때 지나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br/>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보험관련 절세 노하우’에 따르면 보장성보험 가입자는 연간 납입보험료(한도 100만원)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br/>세액공제란 연말정산 과정에서 각종 공제를 거쳐 ‘산출세액’이 정해지면 여기서 세액공제 금액만큼 깎아 본인이 내야 할 최종세금(결정세액)을 낮춰주는 걸 일컫는다. 이미 낸 세금(다달이 떼는 근로소득세)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 받는 구조다. 결정세액을 낮추는 게 절세의 지름길인 셈이다. <br/>보장성보험엔 종신보험(암보험 등),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이 해당한다. 연간 낸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총 13만2,000원의 세금을 깎을 수 있다. 만약 100만원 한도를 채우지 못한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합산할 수도 있다. <br/>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세제 혜택이 더 크다.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br/>연말정산을 위한 절세 상품을 찾는다면 은행에 가서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으로 구분되지만 모두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의 13.2(연소득 5,500만 초과)~16.5%(5,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결정세액을 낮추는 데 효과가 가장 큰 상품이다. 다만 5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br/>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이 제격이다. 일반 저축성보험은 가입기간 10년을 유지해야 이자와 배당소득에 붙는 15.4%의 세금을 면제받지만 이 상품은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50.txt

제목: 암세포 유형에 맞는 약물 표적 기술 개발  
날짜: 2017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06050811001  
ID: 01101101.20171206050811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KAIST 조광현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연구팀<br/>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판에 게재<br/>기존 약물 새로운 대상 찾는 핵심원천 기술이기도<br/><br/><br/> 국내 연구진이 암세포의 유형에 따라 최적의 약물 표적을 찾는 기술을 개발했다.<br/> 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따르면 바이오및뇌공학과 조광현 교수 연구팀은 시스템생물학을 이용해 암세포의 유전자변이가 반영된 분자네트워크의 동역학을 분석해 약물의 반응을 예측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연구 성과를 담은 논문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5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br/> 인간의 암세포에선 유전자 돌연변이, 유전체 단위의 반복적 변이 등 여러 형태의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다. 이는 같은 종류의 암에서도 암세포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 약물 반응도 다양하다.<br/> 이 때문에 암 연구자들은 특정 약물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유전자 변이를 찾고 있다. 하지만 단일 유전자변이의 발견이나 유전자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 분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암세포 내 다양한 유전자 및 단백질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되는 생물학적 특성과 약물반응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br/> 암세포의 유전자변이는 해당 유전자의 기능은 물론, 상호작용하는 다른 유전자, 단백질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분자네트워크의 동역학 특성에 변화를 유발하고, 항암제에 대한 암세포의 반응도 변화한다. 이로 인해 동역학 특성을 무시하고 소수 암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현재의 치료법은 일부 환자에게만 유용하고, 약물저항성을 갖는 대다수 환자에겐 효과적이지 않다.<br/> 연구진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슈퍼컴퓨팅을 이용한 대규모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세포 실험을 융합해 동역학 변화를 분석, 약물반응을 예측해 유형별 최적의 약물 표적을 발굴하는 기술을 찾아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폐암, 유방암, 골종양, 피부암, 신장암, 난소암 등 다양한 암세포주를 대상으로 약물 반응 실험도 진행해 비교 검증했다.<br/> 연구진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다양한 약물 반응 원인을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은 물론, 상호조절 작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약물 저항성 원인 사전 예측 및 억제 방안 개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약물의 새로운 적용대상을 찾는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br/>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암세포별 유전변이는 약물반응 다양성의 원인이지만 지금까지 총제적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시스템생물학을 통해 약물 반응의 근본적 원리를 파악하고, 새로운 개념의 최적 약물 타켓을 발굴할 수 있게 됐다</span>”고 말했다.<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지원으로 수행한 이 연구에는 최민수, 시 주(Shi Jue), 주 양팅(Zhu Yanting), 양 루젠(Yang Ruizhen)씨가 참여했다.<br/>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51.txt

제목: AI 의사 왓슨 도입 1년… 의료진과 암 치료법 56% 일치  
날짜: 20171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05050922003  
ID: 01101101.20171205050922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임상사례, 최신 연구자료 등 훑어<br/>7초 만에 ‘추천’ 치료법 제시 <br/>의견일치율 도입 전보다 7%P 올라<br/>한국서 많은 위암은 낮아 한계<br/><br/><br/>조태현(62)씨는 지난해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복강경수술을 받았다.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관건은 재발을 막기 위한 항암치료를 어떻게 진행하느냐는 것. 지난해 12월 5일, 조씨는 가천대길병원 인공지능(AI) 암센터에서 IBM의 암 치료용 AI 솔루션인 왓슨(Watson)에게서 진단을 받았다. 국내 최초였다. 의료진이 조씨의 조직검사,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를 입력한 결과 왓슨은 폴폭스(FOLFOX) 케이폭스(CapeOX) 등 최신 항암제를 이용한 약물요법을 추천했다. 의료진의 생각과도 일치했다. 정확히 1년이 지난 5일 조씨는 재발 없이 추적 관찰을 이어 가고 있다. <br/>국내에 ‘AI 의사’ 왓슨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가천대길병원을 시작으로 부산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도입 병원도 7곳으로 늘었다. 과연 왓슨은 그동안 얼마나 자리를 잡았을까. <br/>국내 최초로 왓슨을 도입한 가천대길병원은 5일 가천대 의과대학에서 ‘왓슨 도입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진료 성과 등을 공개했다. 지난 1년 동안 길병원에서 왓슨을 이용해 진단을 받은 환자는 총 557명이었다. 길병원이 이 중 대장암 환자 11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의료진이 생각한 치료법과 왓슨의 ‘강력 추천’으로 제시한 치료법의 일치율은 55.9%에 달했다. 왓슨 도입 이전(2009년 1월~2016년 12월) 병원에서 대장암 치료를 받은 656명 환자의 데이터를 사후적으로 왓슨에 입력한 결과 일치율은 48.9%에 불과했다. 왓슨 도입 후 7.0%포인트가 상승한 것이다. <br/>왓슨은 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과거 임상사례를 비롯해 선진 의료기관의 자체 제작문헌과 290종의 의학저널, 200종의 교과서, 1,200만쪽에 다하는 전문자료를 바탕으로 ‘강력추천’ ‘추천’ ‘비추천’으로 나눠 치료방법을 7초 만에 제시한다. 병원 측에서는 왓슨과 의료진의 의견 일치율 향상은 왓슨 도입 후 의료진이 왓슨이 제공한 치료방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암종별로는 ‘강력추천’과 ‘추천’을 포함한 의견일치율이 대장암(결장암)이 78.8%로 가장 높았고, 직장암(77.8%) 위암(72.7%) 순이었다. <br/>의료진과 왓슨의 의견일치율이 향상되고 있지만 미국 등 서양보다 환자가 많은 위암의 의견일치율이 낮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왓슨이 서양환자, 논문 등을 근간으로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위암처럼 한국에 특화된 암 치료에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백정흠 인공지능암센터 추진팀장(대장항문외과 교수)은 “<span class='quot0'>위암은 미국에서 10대 암에 포함되지 않는 암</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서구보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 환자가 많기 때문에 IMB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한국형 왓슨’ 현지화 작업을 추진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52.txt

제목: ‘연구를 연구하는 산업’으로 일자리 1만여개 창출한다  
날짜: 20171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05050901002  
ID: 01101101.20171205050901002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연구개발 활동 전반을 관리하고<br/>결과물로 새 부가가치 창출 등<br/>5년 동안 연구산업 집중 육성<br/>외국과 달리 국내는 걸음마단계<br/>2020년엔 시장규모 29조 기대<br/>충북 청주시 오창읍에서 2000년 창업한 바이오톡스텍은 국내외 제약사나 연구소에서 개발한 신약의 비(非)임상시험을 대신 수행하는 주문연구기업이다. 국제적 수준의 비임상시험기준(GLP) 인증을 받았고, 신종플루백신과 골관절염치료제 등이 세상에 나오는 데 기여했다. 바이오톡스텍은 2010년 주문연구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6명으로 출발한 직원은 지난해 말 200명으로 불었고 연 매출은 222억원까지 성장했다.<br/>주문연구처럼 연구개발(R&D)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이나 결과물에 연동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연구산업’이다. R&D 과정 전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연구관리와 첨단 연구장비 개발, 각종 시험ㆍ분석 서비스, 지식재산권(IP) 관리 등이 연구산업의 범주에 포함된다. 반도체 설계로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영국 암(ARM)이나 시험ㆍ검사로 6조9,000억원을 벌어들이는 스위스 SGS 등이 연구산업으로 성공한 대표적 기업들이다.<br/>국내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연구산업 육성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2,366억원을 투입해 개방형 혁신을 이루며 1만2,000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br/>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이런 내용과 가칭 연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포함한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연구산업 시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정책이 수립된 것은 처음이다.<br/>과기정통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은 ▦주문연구를 통한 R&D의 분업화ㆍ전문화 ▦연구관리 활성화 ▦연구개발 신서비스산업 발굴 및 육성 ▦연구장비 국산화 ▦제도적 기반 마련의 5대 전략과 그 아래 18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br/>주문연구 분야에서는 바이오와 나노 등 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연구관리 분야에선 R&D 전략과 IP 관리 서비스 등 10대 중점 서비스를 우선 지원한다.<br/>연구장비 국산화를 위해서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에 기반을 둔 기술창업, 연구자와 수요기업 밀집지역 중심으로 ‘연구장비 국산화 스테이션’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br/>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총 R&D 투자비용은 598억 달러로 세계 5위지만, 연구장비는 85%가 정도가 외국 제품이다. 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국내 연구장비 기업 327개사 중 임직원 50명 미만 기업이 75%일 정도로 규모도 작다.<br/>과기정통부는 연구산업을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키우면 2020년쯤 국내 연구산업 시장 규모가 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기업 숫자도 현재보다 1,200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span class='quot0'>연구산업은 국가 R&D가 고급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고, 우리 R&D 수준과 규모를 감안하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span>”고 전망했다.<br/>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53.txt

제목: 40세 남성 평균 40년, 여성은 46년 더 산다  
날짜: 20171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05050730001  
ID: 01101101.2017120505073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작년 한국 기대수명 79.3년<br/>OECD 평균보다 1.4년 높아<br/><br/>한국의 40세 남성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평균 40년5개월, 40세 여성은 평균 46년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82세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br/>통계청은 지난해 성ㆍ연령별 사망자수와 주민등록인구 등을 근거로 한 ‘2016년 생명표’를 5일 발표했다. 생명표(life?table)는 현재와 같은 사망 추세가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 지 보여주는 표를 말한다. 장래 인구추계 작성, 보험료율 책정, 연금 비율 산정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자료다.<br/>이번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평균 기대수명(0세 아이가 살 것으로 기대되는 햇수)은 82.4년으로 나타났다. 남자아이는 79.3년, 여자아이는 85.4년으로, 6.1년의 차이가 났다. 1980년의 출생아 기대수명은 66.1세(남 61.9, 여 70.4)였지만 2000년 76.1세(남 72.3, 여 79.7세)로 높아졌고, 2014년(82.4세) 처음으로 82세를 넘어섰다.<br/>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암에 걸려 사망할 확률은 남자 27.1%, 여자 16.4%로 집계됐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10.1%, 여자 13.0%였고, 뇌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8.0%, 여자 9.4%였다. 암 변수만 제거된다면 지난해 출생아의 경우 남자는 4.9년, 여자는 2.9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됐다.<br/>연령대별로 기대여명(특정 연령까지 생존한 사람이 앞으로 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 햇수)을 보면, 지난해 60세 남자는 22.5년, 60세 여자는 27.2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측됐다. 4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40.4년, 40세 여자는 46.2년으로 나타났다.<br/>지난해 기준 한국의 기대수명(79.3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7.9년보다 1.4년 높은 것이다. 특히 여자의 기대수명(85.4년)은 OECD 여자 평균(83.2년)보다 2.3년 더 높았다. 여자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중 4위, 남자 기대수명은 15위였다.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6.1년)도 OECD 평균(5.2년)보다 더 벌어졌다.<br/>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54.txt

제목: 갑상선암 재발한 고령 환자엔 고주파 치료 효과적  
날짜: 20171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04050950002  
ID: 01101101.20171204050950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수술하지 않고 고주파로 갑상선에 생긴 양성 ‘혹’을 제거하는 고주파 절제술이 악성인 갑상선 재발암에서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br/>백정환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팀은 2008년 9월~2012년 4월 수술 위험부담이 높은 고령 환자나 수술 자체가 어려운 부위에 발생한 61개의 갑상선 재발암을 고주파 절제술로 치료한 결과, 시술 후 종양 크기가 95% 이상 줄어 드는 등 치료 효과가 우수했다고 밝혔다.<br/> 갑상선 재발암의 고주파 절제술은 국소 마취한 상태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고주파 전극을 재발암에 정확히 삽입한 뒤 고주파 전류를 흐르게 하면 100도 정도의 마찰열이 발생하는데 이 마찰열로 종양 세포를 없애는 방법이다.<br/>갑상선암이 수술 부위나 경부(목)에 재발했지만 고령이거나 다른 질환 등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재수술이 어렵거나 환자가 외과 재수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발암 크기를 줄이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br/>특히 신경이나 혈관들이 밀집해 있는 갑상선 주변의 목에 발생한 갑상선 재발암에서 고주파 절제술은 갑상선암에만 국한된 양성 종양과는 달리 암조직만 효과적으로 파괴해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고난도의 치료 기술이 요구된다. <br/>‘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의 세계적인 대가’인 백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목의 림프절에 갑상선암이 재발한 환자 39명에서 고주파절제술을 이용해 병변을 제거했다.<br/>환자에 따라서 여러 개의 병변을 가지고 있어 치료한 총 종양의 개수는 61개였으며, 이들 종양은 치료 결과 종양의 크기가 평균 95% 감소했다.<br/>특히 최근에는 고령의 환자들이 수술에 대한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고주파나 에탄올 치료와 같은 영상중재시술이 갑상선 재발암에서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br/>이번 연구에서도 고주파 절제술로 갑상선 재발암을 치료받은 환자 중 최고령자는 92세로 수술을 받지 않고도 고주파 치료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었다.<br/>또한 갑상선암이 기관지를 침범해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목 밖으로 재발암이 튀어 나와 미용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등 갑상선암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을 조절하는 데도 효과적이었다.<br/>수술보다는 덜 침습적인 치료법이라 할지라도, 갑상선 주변에 지나가는 여러 주요 혈관, 신경과 같은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목소리 쉼’, ‘통증’과 같은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치료받은 모든 환자가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br/>백 교수는 “<span class='quot0'>갑상선 재발암에서 고주파의 효용성과 안전성이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선도적으로 검증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치료법이라 고령 환자나 다른 기저 질환으로 수술이 위험하거나, 재발한 환자는 이 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1-55.txt

제목: 유방암 수술 동시에 재건술 해도 암 재발 확률 높아지지 않아  
날짜: 20171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204050912001  
ID: 01101101.2017120405091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유방암 수술 3만건 수행<br/>5년 생존율은 92% 달해<br/>부분 절제 및 동시 복원술로<br/>10명 중 8명이 여성성 보존<br/><br/> ‘수술 잘하는 병원’하면 단연 서울아산병원이 꼽힌다. 우리나라 암 수술 중 10% 이상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만큼 가장 많은 환자가 믿고 찾는 병원이다. 서울아산병원 유방암센터가 최근 단일 의료기관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유방암 수술 3만례를 달성했다. 그 중심에 안세현(60) 유방외과 교수가 있다.<br/> 안 교수는 2004년 유방암 환자 모임인 ‘핑크리본회’ 설립을 주도하고, 유방암과 유방건강 국민캠페인에도 노력하고 있다. 매월 환자들과 찜질방에서 정기 모임을 갖는다. 한국 여성의 개인별 유방암 발생률 예측도구도 개발했다. 유방암 치료가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r/>‘유방암 수술 최고 권위자’ 안 교수는 2시간 가량 걸리는 유방암 수술을 올해에만 2,500여건 집도했다. 올해 신규 유방암 환자 2만명 가운데 12% 넘는 환자가 그에게 수술 받았다. 서울아산병원 3층 수술실에서 만난 안 교수는 “<span class='quot0'>유방암 5년 생존율이 92%나 될 정도로 치료가 잘 되고 있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일부 환자들이 민간요법에 의존해 제대로 된 치료를 거부해 안타깝다</span>”고 했다.<br/><br/>-국내 최초로 유방암 수술 3만례를 달성했는데.<br/> “수술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컨대 수술 전 통합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유방외과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관련 진료과가 한 자리에 모여 진단과 치료법을 논의한다. 수술할 때는 유방외과 성형외과 등 집도의뿐만 아니라 마취과 의료진과도 협업이 필수다. 수술 후에도 항암과 방사선 치료에 더해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과 합심해 치료가 성공을 거두도록 돕는다. 이런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이 바탕이 돼야 치료가 성공할 수 있고 그만큼 많은 환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br/><br/>-유방암 치료를 최근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br/> “유방을 살리는 유방보존술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특징이다. 유방암 치료는 수술이 필수적이다. 유방암 수술은 크게 암이 있는 쪽의 유방을 전부 잘라내는 유방전(全)절제술과 암 덩어리와 주위 조직 일부만 제거하는 유방보존술(부분절제술)로 나뉜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대부분 유방을 모두 잘라냈지만 요즘은 70% 이상은 유방을 살리는 유방보존술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에 57.8%의 환자가 0기나 1기 조기 유방암 환자일 정도로 조기 발견이 많아져 그렇지만 선행 항암ㆍ선행 항호르몬 치료로 암 크기를 줄여 수술로 제거하는 범위를 줄였기 때문이다. 최근 두드러진 변화는 유방 복원수술이 늘었다는 점이다. 1995년에는 전체 수술 환자 가운데 10.3%만 유방을 살리는 유방보존술을 받았지만, 이젠 70% 이상의 환자가 유방보존술을 받는다. 많은 연구결과, 재발이나 생존율 측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기(病期)가 많이 진행된 경우나 암이 여러 개 있는 다발성 유방암이나 암이 피부를 침범한 경우 등 반드시 유방 전체를 잘라내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유방을 살리는 유방보존술을 시행한다.”<br/><br/>-유방을 모두 잘라내야 하는 환자는 어떤 방법이 있나.<br/> “유방을 모두 잘라내는 전(全)절제술을 받을 때에도 동시복원술을 받는 비율이 늘고 있다. 동시복원술이란 수술과 동시에 유방재건술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일부 환자가 유방암 수술과 유방재건술을 같이 시행하면 재발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재발에 차이가 없었다. 우리 유방암센터에서도 동시복원술을 받는 환자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2005년에는 24%였지만 2014년에는 50%로 늘었다. 환자 가운데 10명 가운데 8명은 여성성을 보존하고 있는 셈이다.”<br/><br/>-유방암이 왜 생기나.<br/> “유방암 발병 원인이 아직 명확히 규명 안 됐다.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라 유방암 위험도를 높이는 몇 가지 위험인자가 있다. 먼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을 들 수 있다. 이른 초경이나 늦은 폐경, 출산하지 않았거나 30세 이후 고령 출산,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다. 폐경 후 여성은 비만도 위험인자다. 폐경 여성의 주된 에스트로겐 공급원은 지방조직이기 때문이다. 유전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가족력이 있거나 BRCA1이나 BRCA2 같은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정기 검진을 권한다.”<br/><br/>-국내에서는 서구와 달리 유방암이 늘고 있는데.<br/> “서구에서는 유방암 환자가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식습관 등 생활양식 서구화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서양에서는 폐경 이후 환자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도 전에는 50대 미만 유방암 환자가 많았다. 당시 고령층의 식습관 등이 서구화 영향을 비교적 덜 적게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50세 이상 유방암 환자도 늘어 2014년엔 54%나 됐다. 이와 함께 식생활ㆍ체형 변화 등으로 인한 이른 초경, 늦은 폐경 그리고 늦은 결혼과 저출산 등의 사회적 환경 변화로 여성호르몬에 대한 노출이 많아진 것도 원인으로 들 수 있다.”<br/><br/>-환자에게 조언을 한다면.<br/> “암환자는 암 자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도 재발이나 전이 두려움이 생긴다. 최근 유방암 5년 생존율이 95% 가까운 조기 유방암이 많아 장기 생존 환자가 늘었고, 그만큼 암 생존자의 건강한 일상 복귀가 중요해졌다. 따라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이해, 도움이 환자에게 중요하다. 환자도 의기소침하지 말고 적절히 일상활동도 하고, 특히 유방암 원인인 비만 관리를 잘해야 한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유방암 위험인자(미국암학회)<br/><상대위험도>는 특정 위험인자를 가진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얼마나 높은 지 나타내는 지표다. 상대위험도 4.0은 특정 위험인자가 없는 사람이 유방암에 1만명에 1명 정도 걸리는 반면 특정 위험인자가 있으면 4명의 환자가 생긴다는 뜻이다.

언론사: 한국일보-1-56.txt

제목: [36.5°] 무풍지대서 역풍만 기다리는 한국당  
날짜: 2017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30051047002  
ID: 01101101.20171130051047002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무풍지대에 범선 하나가 갇혀있다. 아무리 고함쳐도 들어줄 사람 하나 없는 죽음의 적막에 고립된 게 벌써 1년이다. 그 사이 이름도 바꾸고, 줄었던 몸집을 다시 불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꿈적도 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의 배다.<br/>꼭 1년 전인 지난해 11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다. “<span class='quot0'>나의 진퇴 여부를 국회가 정해달라.</span>” 비현실적 조건을 내건 ‘꼼수 담화’였다. 모두가 알아차린 그 속내를 새누리당만 몰랐다. 탄핵안 표결을 두고 그어졌던 당내 전선은 흐릿해졌고, 탄핵을 주도했던 비박계마저 혼란에 휩싸여 우왕좌왕했다. 되레 친박계가 “<span class='quot1'>대통령이 퇴진하겠다는데, 탄핵만이 답이겠느냐</span>”고 목소리를 높였다. 퇴진 아닌 퇴진 담화를 한 대통령의 의도에 걸려든 것이다. 무풍지대에 들어서는 순간이었다.<br/>1년이 지난 지금 한국당은 그 자리에서 단 1보도 전진하지 못했다.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국민에게 파면 당한 대통령의 당적을 뒤늦게 정리하고 대단한 혁신인양 추어올린다. 친박계는 일말의 반성 없이 태극기 민심에 ‘나는 탄핵에 반대했다’는 도장을 찍으려 부산하다.<br/>당 대표는 행동 대신 말을 앞세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망나니 칼춤”으로 몰아붙이고, 버티는 당내 친박 핵심들에게는 ‘바퀴벌레’, ‘고름’, ‘암 덩어리’라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막말을 퍼붓는다. 일단 질러놓고 사실과 다르면 말을 바꾸기를 손바닥 뒤집듯 한다. 1야당 대표로서의 품위와 신뢰는 찾기 어렵다.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대표 대신 10분의 1도 안 되는 의석을 가진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야권의 대표인물’로 꼽힌 이유가 다른 게 아니다.<br/>분명 고사 위기인데도 배 안의 사람들은 태연하다. 위기감이나 두려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현 정부의 도를 넘은 적폐청산 작업이 분명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은인자중하는 보수층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떨쳐 일어설 때가 올 거라는 ‘신념’이다. 그러한 거대한 시대적 역풍을 타고 자신들이 위풍당당하게 항구로 개선할 수 있을 거란 ‘신앙’이다. 그것도 모르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신문들은 그저 ‘찌라시’일 뿐이다.<br/>과연 그럴까. 제갈량의 제사에 응답한 동남풍이 과연 홍 대표 앞에서도 불어줄 것인지 말이다. 홍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제갈량은 북벌에 실패했지만 홍준표는 성공한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다. 하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몸집을 불리는 것 말고는 보수 유권자들이 바라는 개혁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정당에 하늘의 뜻이 내려앉기를 어떻게 기대하나.<br/>제갈량도 무작정 동남풍을 바라지는 않았다. 후세의 과학은 동지 무렵 중국 대륙 상공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최고로 발달해 북서풍이 거세게 불지만,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약해질 때 저기압이 형성돼 동남풍이 불 수 있다고 해석한다. 그런 사실을 제갈량은 오랜 공부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을 테다. 그 시기에 맞춰 군사를 동원하고 전쟁을 준비한 것이다. 진인사(盡人事) 후에 대천명(待天命)을 한 것이다.<br/>“<span class='quot0'>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촛불 시민만 국민인가</span>” 하는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한탄처럼, 현 정권의 태도에 실망하는 보수층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보수층을 ‘막말대잔치’로 부추겨 다음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다. 피부로 느끼는 보수개혁이 없다면 지금처럼 관망자로 돌아앉아있을 게 분명하다. 말보다 행동이 국민의 바람이자, 하늘의 뜻이다. 무풍지대에서 탈출할 수 있는 동남풍은 입으로 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그저 먼지만 일으킬 뿐이다.<br/>김지은 정치부 차장

언론사: 한국일보-1-57.txt

제목: [시승기] 가족을 위해 '탐나는' 미니밴, 오딧세이  
날짜: 20171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9050947001  
ID: 01101101.20171129050947001  
카테고리: 경제>자동차  
본문: 레저 인구의 증가와 함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판매가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RV차량(Recreational Vehicle)의 한 축을 이루는 미니밴 수요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다. <br/>'패밀리카'를 대변하는 미니밴 시장의 경우 2020년께 연간 10만대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덧 '국민 미니밴'의 입지를 굳건히 쌓아온 기아자동차 카니발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 수입차들이 경쟁모델로 속속 등장하는 추세다. <br/>특히 이들 중 혼다 오딧세이는 지난달 5세대 완전변경으로 거듭난 신모델이 출시되며 경쟁력을 더하는 모습. 최근 서울과 파주 일대를 오가며 신차의 상품성을 알아봤다. <br/><br/><br/>먼저 오딧세이의 외관은 이전에 비해 보다 매끄럽게 떨어지는 바디라인과 역동적인 전면부 디자인으로 깔끔했다. 플로팅 D필러에는 새롭게 랩 어라운드 크롬 트림이 적용되고 헤드램프와 안개등, 리어램프에는 LED를 넣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br/>또 측면은 돌출된 슬라이드 레일을 숨기는 히든 슬라이드 레일이 새롭게 적용돼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다. 후면부는 'C'자형 램프를 넣어 혼다 자동차의 새로운 패밀리룩을 상징하는 모습이다. <br/><br/>실내는 미니밴의 특성상 공간활용을 위주로 탑승 시 최대한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중점적인 변화가 이뤄졌다. 기존 대비 차체는 10mm 길어졌으나 3열 뒤 적재공간은 50mm 늘어나 여행용 캐리어를 4개 또는 유모차 등 대형 화물 등의 적재가 쉬어졌다. 또 간단한 동작으로 시트가 바닥으로 들어가는 3열 매직시트를 접고 2열 시트를 탈거할 경우, 실내에 2,400mm\*1,200mm의 공간이 생기는 등 사실상 다양한 형태의 짐을 수납할 충분한 공간이 생겼다. <br/>이 밖에도 기존 탈착식에서 고정식으로 변경된 1열 센터콘솔에는 스마트폰 무선충전장치 뿐 아니라 각종 다양한 물품이 수납 가능한 디자인으로 변경됐다. 차량 곳곳에 배치된 컵홀더는 총 15개에 달하는 등 넉넉하고 편안한 수납공간이 최대 변화된 부분이다. <br/>결과적으로 오딧세이의 가장 큰 장점은 패밀리카에 맞는 다양한 공간활용이 다시 강조된다. 최대 8인까지 탑승 가능한 시트는 배열의 다양성으로 다목적ㆍ다인승 차량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 시트의 추가 또는 접거나 분리하는 식의 간단한 조작으로 광활한 실내와 다양한 화물을 적재가 가능한 부분이 매력. 여기에 신모델로 출시되며 트렁크 부분에 청소기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등 만능 오딧세이의 매력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br/><br/><br/>5세대 완전변경로 거듭나며 파워트레인의 변화 또한 눈 여겨 볼 만하다. 오딧세이의 엔진은 앞서 출시된 파일럿의 것과 동일한 3.5리터 직분사 VCM 엔진이 탑재되고 여기에 혼다가 독자 개발한 10단 자동변속기가 맞물렸다. 이를 통해 최대 284마력의 출력과 36.2kg.m의 넉넉한 토크를 발휘한다. 특히 해당 엔진은 주행 환경에 따라 3, 6기통으로 변환하는 가변 실린더 제어 기술이 더해져 연료 효율성을 더했다. <br/>미니밴 최초로 들어간 10단 변속기의 성능은 실제도로에서 무단변속기(CVT)를 연상시키며 매끄러운 승차감을 이루어 냈다. 효율 면에서도 뛰어나 오딧세이의 국내 복합연비는 9.2km/ℓ의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치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기존 모델에 비해 큰 개선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량에 탑재된 다양한 시스템으로 인해 늘어난 무게를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 <br/>특히 해당 파워트레인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운전대 뒤쪽 패들 시프트를 이용한 변속에서 10단에서 8단, 6단으로 변속되는 더블다운 시프트가 제공되는 것으로 가속과 감속이 보다 용이하다. <br/>실제도로에서 신형 오딧세이는 저속과 중고속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유지되는 N.V.H. 성능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가속페달 반응에 따른 차체 움직임도 크기와 무게를 감안하면 만족스러운 수준. 또한 확 트인 직선구간에서 바닥까지 페달을 밟으면 꾸준하게 오르는 속도계 바늘과 이에 비해 꾸준하게 유지되는 실내 정숙성에서 가장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이때 앞뒤로 사용된 맥퍼슨 스트럿과 트레일링 암 서스펜션의 궁합 역시 승차감에 꽤 큰 도움을 주는 모습이다. <br/><br/><br/>신형 오딧세이에는 혼다의 첨단 안전 기술 패키지인 ‘혼다 센싱(Honda Sensing)’이 적용되며 안전성을 높였다. 혼다 센싱은 차간거리 유지, 차선 유지, 사고 방지, 충격 완화 등을 위한 적극적 안전 제어 시스템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회피할 수 있게 돕는다.<br/>또한 오딧세이는 차세대 ‘에이스 바디(ACE: Advanced Compatibility Engineering™ Body)’를 적용하고 최초로 적용된 조수석 무릎 에어백을 포함, 동급 최다인 8개의 에어백이 탑재되어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한다.<br/>이 밖에 신차에는 '캐빈와치'라 불리는 신기술이 탑재돼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는 천장의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센터페시아 8인치 디스플레이로 2열과 3열의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한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 된 모델의 경우 운전자는 무선 헤드폰으로 2, 3열 승객과 대화도 가능한 부분은 어린 자녀들과 장거리 이동 시 매우 유용한 기능으로 여겨진다. 혼다 오딧세이의 판매가격은 5,790만원이다.<br/>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58.txt

제목: [카드뉴스] "뚱뚱해도 건강하다" 사실일까요?  
날짜: 20171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9050852001  
ID: 01101101.2017112905085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뚱뚱해도 건강하다</span></span>" 90년대 이래 여러 연구에서 '과체중인 사람도 혈압만 정상이라면 건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살찐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건강하다는 '비만의 역설'입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잇따랐습니다. <br/>그런데 최근 영국 대규모 연구에서 ‘<span class='quot0'>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은 없다</span>’는 결과가 나오면서 비만의 역설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과체중일수록 혈압, 혈당 등이 정상이라도 심장병에 취약하고 대사 이상 발생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br/>그러나 여전히 '건강한 비만'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비만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비만의 역설 논쟁, 카드뉴스로 정리해봤습니다. <br/>송은미 기자 mysong@hankookilbo.com<br/><br/><br/>"<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뚱뚱해도 건강하다</span></span>" 사실일까요?<br/><br/>"<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뚱뚱해도 건강하다</span></span>(fat but fit)" 그간 여러 연구에서 '과체중도 혈압만 정상이라면 건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비만의 역설(obesity paradox)’입니다.<br/><br/>살찐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건강하다는 ‘비만의 역설’은 1990년대 서구에서 시작됐습니다. <br/><br/>2002~2013년 건강검진을 받은 16만명의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사망률 분석 결과, 저체중인 사람의 사망률이 정상체중보다 높았고, 과체중 또는 비만인 사람의 사망률은 정상체중보다 23% 낮았습니다.<br/><br/>질병에 의한 사망률도 비슷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저체중인 사람은 정상체중보다 심혈관질환 사망률은 34%, 암 사망률은 21% 높았습니다. 저체중인 경우 영양 부족이나 근육량 감소를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br/><br/>적당한 비만은 심장병 환자의 예후를 좋게 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또 심부전 환자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과체중 또는 비만일 경우 정상 체중보다 각 19%, 40% 낮았습니다.<br/><br/>뇌졸중을 앓은 사람 중 고령자는 살찔수록 회복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졸중 환자 2000여명을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은 고도비만 그룹이 비만이나 과체중, 정상, 저체중 그룹보다 일상생활 능력을 빨리 회복했습니다<br/><br/>이들 결과에 대해 한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뚱뚱한 사람은 영양상태가 더 좋아 병에 걸려도 더 잘 견디기 때문에 '비만의 역설'은 크게 틀리지 않는다</span>”고 했습니다. 소모성 질환에 걸리면 체중이 감소하므로 과체중인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거죠.<br/><br/>“<span class='quot0'>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은 없다</span>”그러나 최근 영국에서 진행된 '역대급' 추적 조사에서 ‘<span class='quot0'>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은 없다</span>’는 결과가 나오면서 ‘비만의 역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br/><br/>영국 케임브리지대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이 '과체중' 또는 '비만'인 유럽인 52만명을 조사한 결과, 혈압ㆍ혈당ㆍ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어도, 심장병을 유발하는 관상동맥 관련 질병에 정상 체중에 비해 28%나 더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br/>연구를 주도한 카밀 라살 박사는 “<span class='quot2'>과체중은 심장병에 더 취약하다</span>”며 “건강한 비만은 환상일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함께 연구한 아이오나 촐라키 박사도 "뚱뚱하면서 건강한 사람은 아직 ‘건강하지 못한 대사 양상’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br/><br/>이와 관련 임수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도 “<span class='quot3'>건강한 비만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고도비만(BMI 30 이상)은 대부분 대사 이상이 있고, 비만(BMI 25 이상)도 상당수가 대사 이상이어서 실제적으로는 매우 드물다</span>”고 했습니다.<br/><br/>그러나 아직 '건강한 비만'을 옹호하는 입장도 만만찮습니다. 황희진 비만건강학회 이사는 “<span class='quot4'>최근 추이를 볼 때 ‘근육 없는 저체중보다 근육 많은 과체중이 낫다’는 게 결론</span>”이라고 말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잘 넘어지지 않고,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은 혈당 조절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죠.<br/><br/>일각에선 우리나라의 '비만의 역설' 결과는 비만 측정기준인 BMI(몸무게÷키의 제곱)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만 기준이 낮아서, 정상인 사람도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진단돼 생긴 착시현상이라는 주장입니다.<br/><br/>우리가 적용 중인 아시아ㆍ태평양 기준은 저체중(BMI 18.5 미만) 정상체중(18.5~22.9) 과체중(23~24.9) 비만(25~29.9) 고도 비만(30~)으로 'BMI 25 이상'은 비만입니다. 이를 OECD회원국(BMI 27.5 이상) 또는 미국(BMI 30 이상) 기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br/><br/>비만 진단에서 BMI 맹신을 경계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순집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은 “BMI는 비만 측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복부지방ㆍ내장지방ㆍ콜레스테롤 등 수치도 다각도로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죠.<br/><br/>"뚱뚱해도 건강할 수 있다"는 ‘비만의 역설’ 논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따라서 BMI를 맹신해 무조건 살을 빼기보다는, 복부지방 등 비만 관련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운동ㆍ식습관을 챙기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어떨까요<br/><br/>기사원문: 권대익 기자 / 제작: 송은미 기자 <br/>사진 출처 : 한국일보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언론사: 한국일보-1-59.txt

제목: 원자력연, 전립선 암세포 치료 기술 이전  
날짜: 20171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9050801001  
ID: 01101101.20171129050801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듀켐바이오에 ‘봄베신 유도체 화합물 제조 기술실시계약<br/>고령환자, 부작용 줄이고 안전한 진단ㆍ치료 기대<br/><br/><br/> 정부출연연구원이 개발한 전립선암 치료용 화합물 제조기술이 민간에 이전돼 본격적인 임상시험과 신약개발로 이어질 전망이다.<br/> 29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전날 ㈜듀켐바이오와 ‘전립선 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봄베신(전립선 암세포 막에 있는 단백질) 유도체 화합물 제조기술’을 이전하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했다.<br/> 원자력연 임재청 박사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전립선 암세포의 단백질에 결합하는 화합물에 하나로에서 생산된 방사성동위원소 Lu-177을 결합해 암세포에만 약물을 전달하는 것이다. 하나로는 원자력연에서 설계ㆍ건조한 연구용 원자로이며, 원자력연은 해당 기술로 국내 및 미국 특허등록까지 마쳤다.<br/> 기존의 전립선암 항암제는 암세포는 물론, 정상세포에도 흡수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고령의 환자에겐 부담이 컸다. 하지만 임 박사팀이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br/> 임 박사팀이 전립선암 동물모델 평가결과 암 부위에 성공적이 약물이 전달되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했으며, 암 성장속도도 2배 이상 지연시키는 등 항암효과도 있었다.<br/> 듀켐바이오는 계약에 따라 앞으로 원자력연과 공동연구와 임상시험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방사성의약품 치료 신약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br/> 임 박사는 “<span class='quot0'>원자력연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의료분야에 활용하는 연구에 노력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개발하는 방사성 신약 물질들을 기업과 병원에 이전해 국민 의료복지에 기여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60.txt

제목: “살 만큼 살았다는 말씀 자주...” 70대 암환자의 가족들 존엄사 선택  
날짜: 20171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9051224002  
ID: 01101101.2017112905122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시범사업 시행 후 7명이 존엄사<br/>5명은 본인이 아닌 가족이 선택<br/>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 증가<br/>작성자는 여성이 남성의 ‘2배’<br/><br/><br/><br/>갑작스런 체중 감소로 지난 9월 한 대학병원을 찾은 70대 남성 A씨는 암 진단을 받았다. 폐렴과 패혈증 증세가 동반했던 A씨는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 적극적인 항암 치료가 어려웠다.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을 오가던 A씨는 급기야 다발성 장기 부전 증세가 왔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지난달 29일 임종 단계에 접어 들었다는 의료진의 판단을 받았다. 주치의는 A씨 자녀들에게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며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에 대해 어렵게 말문을 뗐다. 가족 2명은 “아버지가 평소에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 살 만큼 살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말했다. 의료진의 확인을 거쳐 가족들은 연명의료의 하나인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는 서류를 작성했다. 사흘 후인 11월 1일 A씨는 혈압이 점차 내려가며 눈을 감았다. 인공호흡기는 착용한 상태였지만 심폐소생술은 시행하지 않았다. A씨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사망한 첫 환자로 기록됐다.<br/>지난 달 16일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7명이 연명의료를 중단(이미 받고 있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하거나 유보(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br/>복지부는 내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10개 병원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간 점검 결과,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오후 6시)까지 40일간 연명의료 중단ㆍ유보 결정으로 사망한 사람은 A씨를 비롯해 총 7명이었다. 남성 4명, 여성 3명이었고 연령대는 80대 2명, 70대 1명, 60대 1명, 50대 2명, 40대 1명이었다. 4명은 환자가족 2인의 진술로, 2명은 연명의료계획서 제출로, 1명은 환자가족 전원 합의로 존엄사를 선택했다. 의식이 있을 때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 중단ㆍ유보 의사를 밝힌 사람은 2명이고, 나머지 5명은 가족을 통해 환자 뜻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거나(환자 가족 2인 진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존엄사(가족 전원 합의)한 것이다. <br/>연명의료를 중단ㆍ유보 하려면 ▦건강할 때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 두거나 ▦말기 판정 이후 환자 본인이 담당 의사와 상의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가족 2명이 환자의 과거 뜻을 진술하거나(환자 의식이 없을 때) ▦가족 전원이 연명의료 유보ㆍ중단을 원해야(환자 의식이 없을 때) 한다. <br/>말기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담당 의사와 함께 앞으로 연명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기록하는 문서인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1건 작성됐다. 계획서 작성자는 남성 7명, 여성 4명이었다. 10명이 말기 암 환자였고, 1명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환자였다.<br/>‘임종기에 접어들면 연명의료를 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건강할 때 미리 밝혀두는 문서로 성인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4일까지 총 2,197건 작성됐다. 작성자는 여성(1,515명)이 남성(682명)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1주차에 203건만 접수됐지만 매주 접수 건수가 증가해 5주차에는 685건에 달했다.<br/>복지부는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1월 15일 이후부터 법 시행일인 내년 2월 4일 전까지 19일 동안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ㆍ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연명의료 중단ㆍ유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쓴 사람은 이 기간에도 연명의료 유보ㆍ중단이 가능하다. <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61.txt

제목: 김명수호 첫 대법관은 ‘非서울대ㆍ여성’  
날짜: 20171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8051140002  
ID: 01101101.20171128051140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br/>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청<br/> <br/> 대법관 구성 다양화 염두에 두고<br/>‘서울대ㆍ50대ㆍ남성’ 틀 뛰어넘어<br/><br/><br/>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안철상(60ㆍ사법연수원 15기) 대전지법원장과 민유숙(52ㆍ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28일 임명 제청했다.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를 거치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br/>대법원은 비(非)서울대 출신과 여성 법관 후보자를 발탁한 데 대해 “<span class='quot0'>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span>”고 강조했다.<br/>이번 대법관 인선은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인사권 행사여서 앞으로 6년간 단행될 김명수호 인사를 평가할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 회의에 앞서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대법원장 선택지는 대폭 줄었다. 23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9명 중 김 대법원장은 기존 '서울대, 50대, 남성' 틀을 깬 인선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br/>경남 합천 출신인 안 원장은 건국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로 임관해 부산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9년 이용훈 대법원장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고,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은 없다. 안 원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7년 암 수술 후 복무에 장애가 없음에도 비자발적인 전역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최초 판결을 내려 직업군인의 직업상 권리를 보장했다. 또 미얀마 출신 민주화 운동가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귀화 불허처분을 받은 재중동포 여성의 귀화를 인정하기도 했다. <br/>서울 출신인 민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인천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28년간 재직한 정통 법관이다. 서울가정법원·광주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남편은 문병호 국민의당 전 의원이다.<br/>민 부장판사는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책임을 인정해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사건에서는 학교 법인과 교사의 적극적인 책임 의무를 분명히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혼 시 부부간의 재산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등 논문을 쓰고 가족법학회 이사를 지내 가족법 이해가 깊다는 평을 받는다. <br/>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줄곧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회의 다양한 가치 반영을 위해 대법관 다양화를 예고해 왔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2명의 후보자를 포함해 앞으로 11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대법관 13명 제청권과 헌법재판관 3명 지명권 등 막강한 인사권을 쥔 만큼 향후 여러 각도에서 대법관 다양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br/>다만 이번에 순수 변호사 출신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유력하게 거론됐던 노동 전문 김선수 변호사는 지난 번에 이어 명단에 들지 못했다.<br/><br/>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62.txt

제목: 꼴찌의 반란, 한선교 “홍준표, 광기 어린 독재의 길 가고 있다”  
날짜: 20171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8051114001  
ID: 01101101.20171128051114001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원조친박’으로 알려진 4선의 한 의원은 홍준표 대표와 각을 세우며 범친박계와 중립지대에 지지를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br/>한 의원은 홍 대표를 저격하며 출마의 변을 시작했다. 그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젠 더 이상 못 들은 척할 수 없어서, 이제 더는 못 본 척 할 수 없어서, 저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span class='quot0'>계속 모른 척하고 넘기기엔 제가 속한 정당의 대표인 홍 대표의 언사가 도를 넘긴 지 오래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바퀴벌레로 시작해서 이젠 암 덩어리, 더 나아가 고름이란 막말까지 나오고 말았다</span>”고 비판했다. <br/>한 의원은 바른정당 복당파와 함께 홍 대표가 당을 사당화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당내 기반이 약한 홍 대표는 이미 복당파와의 손익 계산이 끝난 듯하다”며 “사무총장, 수석대변인에 이어 원내대표마저 복당파로 내세워 그만의 화룡점정을 찍으려 한다. 그가 부인하려 해도 감출 수 없는 홍 대표의 사당화”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홍 대표가 복당파인 김성태 의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span class='quot0'>홍 대표의 발언으로 이제 한국당이 광기 어린 1인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저의 가슴을 눌러 내렸다</span>”고 덧붙였다. <br/>한 의원은 이번 경선에서 친박과 비박 간 계파 갈등의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을 취했다. 한 의원은 “<span class='quot0'>정당의 여러 종류의 경선은 역사적으로나 역학적으로나 세력 구도 싸움의 반복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0'>1년여 전의 광경은 아직도 또렷하고 그것으로 당은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span>”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박과 친박계의 좌장격인 김무성ㆍ서청원 의원을 거론했다. 새누리당 시절 친박계와 비박계의 계파갈등으로 인해 결국 보수가 분열했다는 주장이다. <br/>한 의원은 출마 선언 말미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한 의원은 “<span class='quot0'>(지난해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저는 네 명의 후보 중에 꼴찌를 하고 말았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당일 체육관 현장 투표에서는 9,000여 명의 대의원 가운데 83표를 얻는 데 그쳤다</span>”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계파 갈등 속에 얻은 83표에 의미를 부여하며 “<span class='quot0'>이번에는 제게 어떤 미소가 올지 기대된다</span>”고 밝혔다. <br/>한 의원의 비판 대상이 된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홍 대표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span class='quot1'>박근혜 사당화 7년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만 홍준표 5개월을 사당화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니 참으로 가관</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당이 수렁에 빠질 때는 숨어 있다가 수렁에서 건져내니 이제 나타나 원내대표를 출마하면서 당 대표를 욕하면 의원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냐</span>”고 직격탄을 날렸다. <br/>사당화의 사례로 언급된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자신의 직을 던지며 한 의원에 항의했다. 그는 “한 의원의 말에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 맹세코 이 당직을 감투로 생각한 적이 없다”며 수석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br/>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63.txt

제목: 연명의료법 시범 한달 만에 7명 존엄사…첫 사망자 70대 남성  
날짜: 20171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8051009006  
ID: 01101101.20171128051009006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달 16일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7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첫 사망자는 70대 남성으로 이달 1일 숨졌다.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각각 11건, 2,179건 작성됐다.<br/>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br/>복지부는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16일부터 10개 기관(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은 5곳)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br/>중간 점검 결과,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오후 6시)까지 40일간 연명의료 유보ㆍ중단 결정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7명이었다. 첫 사망자는 이달 1일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70대 남성. 앞서 지난 10월29일 이 남성에 대해 임종 단계에 접어 들었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내려졌고, 환자 가족 2인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고 사망했다. <br/>사망자 7명은 남성 4명, 여성 3명이었고 연령대는 80대 2명, 70대 1명, 60대 1명, 50대 2명, 40대 1명이었다. 이중 4명은 환자가족 2인의 진술로, 2명은 연명의료계획서 제출로, 1명은 환자가족 전원 합의로 각각 사망했다. 6명은 연명의료 유보(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로 사망했고, 1명은 연명의료를 중단(이미 받고 있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숨졌는데 착용했던 인공호흡기를 뗐다고 한다. <br/>연명의료를 유보ㆍ중단 하려면 ▦평소 건강할 때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 두거나 ▦말기 판정 이후 환자 본인이 담당 의사와 상의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가족 2명이 환자의 과거 뜻을 진술하거나(환자 의식이 없을 때) ▦가족 전원이 연명의료 유보ㆍ중단을 원해야(환자 의식이 없을 때) 한다. 시범 사업 기간에는 가족 전원 합의로는 연명의료 유보만 가능하고 연명의료 중단은 할 수 없다.<br/>말기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기록하는 문서로, 임종기에 법적 효력을 지니는 연명의료계획서는 지난 24일까지 총 11건 작성됐다. 이 중 2명이 계획서 작성 이후 증세가 악화, 계획서에 쓴 대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사망했다. 2명은 시범사업 기간 중 사망자 7명에 포함된다. 계획서 작성자는 남성 7명, 여성 4명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70대는 2명, 80대는 1명 이었다. 10명이 말기 암 환자였고, 1명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환자였다.<br/>‘임종기에 접어들면 연명의료를 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건강할 때 미리 밝혀두는 문서로 성인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4일까지 총 2,197건이 작성됐다. 작성자는 여성(1,515명)이 남성(682명) 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지역 별로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순으로 많았다. 1주차(10월23일~27일)에 203건 접수됐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매주 접수 건수가 증가해 5주차(11월20일~24일)에는 685건에 이르고 있다.<br/>복지부는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1월 15일부터 법 시행일인 내년 2월 4일까지 21일 동안은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작성한 사람은 이 기간 중 연명의료 유보ㆍ중단이 가능하다. <br/>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span class='quot0'>연명의료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법률 개정과 교육, 홍보, 전달 체계 및 시스템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64.txt

제목: “울산에 국립병원 설치해주오”  
날짜: 20171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7050858002  
ID: 01101101.20171127050858002  
카테고리: 지역>울산  
본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유치위 발대<br/>5대 암 대진료권 충족률 50~60%<br/>“<span class='quot0'>건강지표, 전국 최하ㆍ위기 수준</span>”<br/>국공립병원이 없어 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울산에 국립병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br/>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임동호)은 최근 국립병원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10만 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br/>민주당 울산시당 등에 따르면 울산에는 뇌졸중, 심근경색, 대형외상 등 중증 및 고난이도 치료가 가능한 500병상 이상 보유 병원이 단 두 곳에 불과하다. 한 곳뿐인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병원은 위치가 외곽에 치우쳐 접근성이 제한되고, 촉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병원 수준의 척도가 되는 적정성 평가에서 병원 인정을 받은 곳 역시 2개에 불과하고, 전문의 수련이 가능한 병원은 한 곳뿐이다.<br/>아울러 5대암 대 진료권 자체 충족률은 50~60%에 불과, 대 진료권 사망률 격차가 타 특ㆍ광역시와 비교해 크다. 이는 암치료가 권역 내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br/>여기다 정부는 해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 1조1,000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립대, 지역거점병원, 보훈병원 등 매개체가 있는 타 도ㆍ광역시와 달리 보상적 성격의 국가 예산조차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br/>또한 타 특ㆍ광역시의 경우 지역 질병조사, 보건계획, 평가, 인력 훈련과 민간병원 협력을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의료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이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br/>이에 따라 울산은 국공립병원뿐 아니라 민간병원 시설조차 고난이, 중증질환을 치료할 병원이 열악,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500병상 이상의 국가책임형 국립병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br/>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경제를 지탱해온 울산이 병들어 회복 불능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울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까지 일고 있다는 것이다.<br/>이에 따라 더민주울산시당 국립병원 유치위는 이선호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중구의원 신성봉, 사회복지특별위원장 오세곤, 남구의원 박성진,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조강훈, 디지털소통위원장 황명필 등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유치활동에 나섰다.<br/>이선호 공동위원장은 “<span class='quot1'>지난 10년간 의료시설 확충 없이 전국 최하수준의 건강지표를 넘어 국가 위기 수준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산업수도 울산의 의료 현주소</span>”라며 “<span class='quot1'>최소 의료 안전망 확보와 의료자원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립병원의 유치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적극 촉구하는 한편 10만 유치 청원 운동을 전개하겠다</span>”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65.txt

제목: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비호감 싸움’  
날짜: 20171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7050853002  
ID: 01101101.20171127050853002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洪대표, 홍문종 등 친박 불가론<br/>복당파 김성태 노골적 지원하자<br/>초재선, 복당파 자숙론 강력 제기 <br/><br/><br/><br/>자유한국당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누가 덜 비호감이냐’의 싸움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이번 경선은 강성 친박 홍문종 의원과 복당파인 김성태 의원의 양강구도가 예상되나, ‘친박 원내대표 불가론’과 ‘복당파 자숙론’이 의원들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br/>친박 원내대표 불가론은 홍준표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홍 대표는 27일 당 홍보위원장 임명식에서 “<span class='quot0'>구체제의 잘못을 안고 가는 건 통합도, 화합도 아니다</span>”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박 핵심을 겨냥해 “암 덩어리도 안고 가자는 건 그냥 죽자는 소리”라고도 했다. 앞서 25, 26일 페이스북에선 “<span class='quot1'>박근혜 사당(私黨) 밑에서 고위 공직과 당 요직을 다 차지하면서 전횡하던 사람들</span>”, “<span class='quot1'>소신 없이 바람 앞에 수양버들처럼 흔들리던 사람들</span>”이라고 비판했다. 친박과 중도파 모두를 염두에 둔 말이었다. 범친박 혹은 중도 지대에선 이주영ㆍ한선교ㆍ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br/>홍 대표가 이처럼 노골적으로 김성태 의원을 지원하는 건 당내 기류가 심상치 않아서다. 애초 복당파를 주축으로 한 옛 비박계는 ‘이 시국에 친박 원내대표가 웬 말이냐’는 프레임으로 판세를 낙관했다. “<span class='quot2'>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보수당이 궤멸 위기인데, 1년도 안 돼 친박계가 다시 전면에 나서는 건 염치 없는 일</span>”이라는 주장이다.<br/>그러나 76명으로 당내 과반인 초ㆍ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복당파에 대한 반감이 만만치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한 초선 의원은 “<span class='quot3'>당을 나갔다 들어왔다 한 사람이 원내대표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여론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게다가 대표의 지원을 받고 원내대표가 되면 견제는 어떻게 하겠느냐</span>”고 말했다. 친박계 저변에는 복당파가 원내사령탑이 되면 서청원ㆍ최경환 의원의 제명 의결을 밀어붙이리란 위기감도 깔려있다. 결국 어느 후보가 비호감이 적으냐의 싸움이 된 모양새다.<br/>이 와중에 홍 대표와 범친박인 정우택 원내대표는 경선일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24일 의원총회를 마치면서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다음달 15일에 치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홍 대표 측은 “<span class='quot4'>당규 상 경선일 공고 권한이 있는 대표와 상의가 없었다</span>”며 다음달 7일을 주장한다. 한 당직자는 “<span class='quot5'>친박계가 당내 반감이 큰 홍문종 의원 대신 온건 성향의 후보로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5'>친박계는 시간 벌기를, 홍 대표는 속도전을 하고 싶은 것</span>”이라고 말했다.<br/>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br/>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66.txt

제목: 168대 1 경쟁률 뚫고 남극에 가는 4인  
날짜: 20171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7050806002  
ID: 01101101.20171127050806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168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일반인 4명이 내달 남극 세종과학기지로 극지 탐사를 떠난다. <br/>해양수산부는 28일 인천 송도 극지연구소에서 극지 체험단 발대식을 열고 체험단원으로 최종 선발된 공승규(34)씨, 전현정(44)씨, 정승훈(27)씨, 이소영(25)씨 등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27일 밝혔다. <br/>해수부는 세종과학기지 준공 30년(1988년 2월 17일)을 기념해 지난 7월 일반인 체험단을 공개 모집했다. 총 670명의 지원자는 서류심사, 프레젠테이션, 대국민 투표, 심층 면접 등을 거쳤다.<br/>체험단 면면도 다양하다. 공씨는 영상제작전문가이자 회사원이다. 전씨는 지구 환경과 관련된 동화를 그리는 동화작가다. 2012년부터 이어온 혈액암 투병 생활로 기후학자 꿈을 포기했던 정씨는 암 완치 후 남극 탐사의 꿈을 이루게 됐다. 이씨는 아마추어 인디밴드에서 활동했던 취업준비생이다. <br/>이들은 내달 9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11일 남극에 도착한다. 5박6일간 세종과학기지에 머물면서 과학기지 대원들과 남극 연구ㆍ기지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펭귄서식지와 인근 과학기지도 방문하다. 남극 킹조지섬에 위치한 세종과학기지에는 12월 초~2월 말 100여명의 연구원이 파견된다. 이들은 남극의 기후변화, 생물자원 등을 연구하고, 기상을 관측해 기상청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공유한다.<br/>체험단은 안전한 탐사를 위해 지난달 극지안전훈련과 남극환경보호관련 교육을 받았다. 탐사가 끝난 뒤에는 세종과학기지를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해 국민들과 공유한다. 공씨는 “노래와 영상 등 체험단의 재능을 적극 활용해 남극 연구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67.txt

제목: [이 상품 어때요] 삼성카드 코퍼레이트 글로벌 外  
날짜: 20171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7050721002  
ID: 01101101.20171127050721002  
카테고리: 경제>증권\_증시  
본문: 흥국화재 ‘무배당 더플러스 건강보험’ <br/>흥국화재는 당뇨병을 집중 보장하는 ‘무배당 더플러스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당뇨병진단비와 당뇨병으로 인한 수술ㆍ입원비는 물론 당뇨병 진단 후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의 진단시에도 추가 보장해준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시 상해입원비, 질병입원비에 상급종합병원 입원비를 추가 보장하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80% 이상 후유장해시에는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30세에서 최대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보험기간은 10ㆍ15ㆍ20년 만기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100세까지 자동갱신 된다.?<br/><br/>KTB투자 ‘글로벌4차산업목표전환형펀드’<br/>KTB투자증권은 29일까지 ‘KTB글로벌4차산업목표전환형펀드’ 가입자를 모집한다. 미국, 홍콩, 중국 본토 등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4차산업혁명 관련 주식을 최대 90%까지 편입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6개월 이전 누적수익률 6% 도달시 채권형으로 전환해 설정일로부터 1년 시점에 상환한다. 6개월 이후 달성하면 운용전환일로부터 6개월 후에 상환한다. 선취판매수수료는 1%, 보수는 최초 설정일부터 6개월까지 연 1.44%(A클래스 기준)이다. 상품 가입은 KTB투자증권 본사 영업부, 강남금융센터에서 할 수 있다.<br/><br/>삼성카드 법인용 ‘코퍼레이트 글로벌’<br/>삼성카드가 유니온페이와 협력해 해외출장이 많은 법인고객에게 특화된 ‘삼성카드 코퍼레이트 글로벌(CORPORATE GLOBAL)’을 출시했다. 전월 이용금액에 관계없이 국내 이용금액의 0.2%, 해외 이용금액의 0.6% 캐시백 혜택을 한도 없이 제공한다. 또한 법인 개별카드의 경우 사망사고시 5억원까지 보장되는 여행자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준다. 유니온페이 플래티넘 등급에 해당돼, 해외 출장자들은 인천공항 고속도로ㆍ리무진버스, 공항철도 직통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 데이터로밍과 국내외 공항 라운지 무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연회비는 없다.

언론사: 한국일보-1-68.txt

제목: [아침을 열며] 위기 후에 무엇이 왔나 ? 외환위기 20년  
날짜: 201711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6050538001  
ID: 01101101.20171126050538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20년 전 이맘때 추위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다. 외부로부터 구제금융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된 무력감은 사회전체를 압도하였다. 사회 초년병 딱지를 뗄 무렵, IMF 실사단에 제출할 서류뭉치를 들고 남산 어귀의 호텔로 내달리던 그 새벽의 공기는 단순한 차가움 이상이었다.<br/>2001년 8월, 불과 4년여 남짓 만에 우리는 IMF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대출프로그램을 졸업한 나라로 기록을 남긴다. 차입금의 마지막 상환분을 보내는 서류결재를 앞두고 당시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서명을 위해 국산만년필을 고집했다. 그간 온 나라가 겪었던 힘든 시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재를 지켜보는 내내 감격스러웠다. <br/>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 외환위기가 남긴 것은 기회로서의 명(明)과 상처로서의 암(暗) 모두였다. 긍정적 영향으로 경제체질의 개선과 사회전반의 투명성 향상을 들 수 있다. 부채비율은 눈에 띄게 줄었고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늘었다.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의사결정구조와 온정주의가 위기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반성은 투명성 제고를 제도개선의 주요과제로 삼게 하였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직장을 잃은 남편을 대신하여 많은 여성들이 취업에 나섰다. 당시는 단순일용직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양질의 전문영역으로 여성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br/>상처도 깊었다. 대표적인 것이 양극화다. 폭락하는 자산가격은 어떤 이에게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었으며, 중산층은 무너졌고 계층은 고착화되었다. 비정규직 문제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고용의 불안과 함께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은 여전히 양극화를 지속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br/>더 큰 문제는 사회적 연대감이 사라진 것이다. 극한의 생존의 위협을 경험한 사람들은 방어본능이 더욱 강해지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공동체적 가치보다 각자의 생존을 위한 준비에 집중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은 돈이 최고라는 믿음을 공고히 하였고, 이해의 충돌에서는 밀리면 죽는다는 강박을 낳았다. 공정하지 않더라도 이기거나 얻을 수 있다면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기 시작했다.<br/>2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며, 또 다른 하나는 다시 올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에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그 전제로 건전한 부의 축적은 존중하되, 사회적 약자의 아픔은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인식이 정립되어야 한다. 정치권도 양극단의 문제를 정치적 정체성의 기초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성숙한 시민들이 숙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데 노력해야 한다. <br/>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중국이라는 추격자에 비해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디지털혁명시대에 중국의 기세는 맹렬하고 일본은 정교해지고 있다. 여기에 국내적으로 가계부채는 임계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경제구조는 물론이며 교육 등 사회구조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일이다. <br/>외환위기가 그랬듯이 위기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자발적 의지와 계획에 의하지 않은 타율적인 급격한 변화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경제구조로 인해 일상이 위기일 수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지난 20년의 경험은 소중하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주는 경험을 통해 해야 할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임을 잊지 않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때이다.<br/>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사: 한국일보-1-69.txt

제목: [클린리더스] "잎담배 경작 농민들 건강검진까지 챙겨줘요"  
날짜: 201711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6050533003  
ID: 01101101.20171126050533003  
카테고리: 경제>취업\_창업  
본문: 경북 영덕군에서 40년 넘게 잎담배 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씨는 2년 전 KT&G가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전립선암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립선암의 경우 초기 자각증상이 없고 진단을 받았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이씨는 건강검진 덕분에 초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수술 후 완쾌한 이씨는 건강한 몸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br/>그는 “담배 농사로 자녀 셋을 결혼시키고, 아들은 대학원까지 공부를 시켰다”며 “잎담배를 사주는 것도 고마운데, 고급 건강검진까지 받게 해 목숨까지 살려줬다”고 KT&G에 고마움을 전했다. <br/>KT&G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잎담배 경작 농민의 건강검진비와 자녀 장학금에 12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모두 3,600여명의 경작인들이 수혜를 입었다. KT&G가 잎담배 농가 지원에 힘을 쏟는 건 단순히 잎담배 수확물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국내 담배 농가에서 생산되는 잎담배를 구매하는 담배회사는 KT&G가 유일하다. 민영화 이후 잎담배 구매 의무가 없고, 국산 잎담배 가격이 외산 대비 2～3배 높지만 사회공헌ㆍ상생경영 차원에서 전량을 구매하고 있다. <br/>KT&G가 잎담배 농가를 돕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지원 활동은 올해까지 11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잎담배 농사는 무더운 7, 8월에 수확이 집중되고, 기계화가 많이 이뤄진 여타 작물과 달리 잎을 따고 말리는 과정 대부분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뤄진다. 잎담배 농가들도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고충이 점점 커지고 있다. <br/>농가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KT&G는 수확철마다 임직원들이 직접 잎담배 수확부터 운반작업까지 봉사 활동을 진행해 왔다. 잎담배 농가들에 대한 KT&G의 지원 활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봄철 농가들이 겪는 영농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작인별로 잎담배 예정 판매대금의 30%를 4～6월에 현금으로 사전 지급하고 있다. 가뭄 등의 기상이변으로 잎담배 농가들의 피해가 컸던 2011년과 2012년에는 농가 생활안정을 위해 34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도 했다. <br/>KT&G는 잎담배 농가를 넘어 다른 협력사로도 동반성장의 폭을 넓혔다. KT&G는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에 대한 물품 대금을 보름 정도 앞당겨 지급했다. 이는 열흘간의 장기연휴로 인한 중소 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당시 조기집행 금액은 약 166억원에 달했다. <br/>KT&G는 또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협력사들의 사정을 고려해 매월 결제용 어음이 아닌 전액 현금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협력사의 고충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계약체결 후 90일 단위로 원재료 가격 상승 시 이를 반영해 구매계약 금액을 다시 조정하고 있다. 아울러 목표 원가제를 도입해 목표를 초과하는 성과에 대해서는 협력사와 이익을 함께 분배하는 방식으로 상생경영에 힘쓰고 있다.<br/>KT&G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앞으로도 농가와 협력사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을 지속해 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KT&G의 상생 손길은 청년실업 문제까지 뻗쳐있다. 청년 창업 지원, 일자리 나눔, 취업준비생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br/>지난 9월 사회연대은행, 언더독스 등과 ‘KT&G 상상 스타트업 캠프’ 업무협약(MOU)을 체결, 3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돕는 ‘소셜벤처’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br/>10월에는 10대 1의 경쟁률을 통해 선발된 45명의 예비 청년 창업가들이 내년 초까지 14주간의 창업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전ㆍ현직 창업가들의 팀별 전담 코칭과 분야별 전문 멘토링, 실전 사회혁신 스타트업 업무 시스템 등이 제공된다. 우수팀에게는 팀별 최대 3,000만원의 초기 사업비용 지원과 함께 해외 벤치마킹 기회, 사무실 입주비 등이 주어진다. <br/>2015년에는 기존 임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나눠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노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임직원들의 일자리를 십시일반으로 나눠 현재의 고용을 유지함과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신규 채용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br/>우선, 장기 연수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휴직제도 등을 신설하고, 연차 사용도 적극 권장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여성 인재의 육성 및 출산장려를 위해 기존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했다. <br/>KT&G는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상상옷장’ 프로그램을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이다. ‘상상옷장’은 면접을 앞둔 면접용 정장과 셔츠, 넥타이, 벨트, 구두 등 의류 일체를 재학 중인 취업준비생들에게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특히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은 KT&G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인 ‘상상펀드’를 활용해 마련됐다. 올해 8월까지 총 3,433명, 월평균 286명의 높은 대여실적을 기록할 만큼 대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br/><br/>이성원 선임기자 sungw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70.txt

제목: 창원대, 전립선 암세포만 작용 ‘나노입자시스템’ 개발 성공  
날짜: 20171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4050703002  
ID: 01101101.20171124050703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세계최초…화학과 BK21 나노바이오 연구팀 이용일 교수<br/>영국의 세계적 과학전문지 ‘사이언티픽리포트’에 게재<br/><br/>국립 창원대(총장 최해범)는 화학과 BK21 나노바이오연구팀(팀장 이용일 교수)이 전립선암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나노입자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br/>이용일 교수 연구팀은 용액상에서 단일스텝 열수법으로 고순도의 업컨버젼나노입자를 합성했으며, 이를 인산계면활성제로 도포해 다양한 세포실험을 수행했다.<br/>이를 통해 여러 가지 정상 세포 및 암세포 중에서 전립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메카니즘을 밝혀냈다.<br/>특히 개발된 나노입자는 적외선에 의해 녹색 발광을 나타내는 입자로 생체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어 외부에서 직접 암을 진단하고 암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수술 시에도 암세포만 녹색으로 나타나 정확한 식별이 가능한 시스템이다.<br/>이 연구는 현재 창원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미르코밀 샤리포브 학생에 의해 주된 연구가 수행됐다.<br/>샤리포브 학생은 프랑스 파리대학에서 생명과학과정을 졸업했으며, 현재 6편의 우수한 논문을 국제 저명학술지에 게재했다.<br/><br/>창원대 화학과 이용일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에 개발된 나노입자체는 전립선암에서 나타나는 효소인 포스포리파제(sPLA-2)에 특이하게 반응하는 새로운 인산 미셀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전립선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표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원천기술로서 전립선암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이어 "이번 연구결과는 기존의 암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연구 결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수술 시에도 녹색으로 발광하는 암 부위를 정확히 제거할 수 있어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br/><br/>이 같은 연구결과는 영국의 세계적 과학전문지 네이처가 발간하는 사이언티픽리포트(http://www.nature.com/srep)지난 23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으며, 현재 특허출원 중이다.<br/>한편 이 교수팀의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및 BK21플러스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이동렬 기자dyle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71.txt

제목: “연 매출 3000억원 넘으면 가업 상속공제 못받아...일부러 투자 안해요”  
날짜: 20171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3051214001  
ID: 01101101.20171123051214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까다로운 가업 승계 조건<br/>피상속인 최소 10년 이상 경영 등<br/>공제 혜택 심사 조건부터 난관<br/>승계 후에도 자산 20% 매각 금지<br/><br/>경쟁력 잃어가는 유망 기업<br/>많게는 수천억원 상속세 부과<br/>공제 받으면 업종 변경도 못해<br/>생존 패러다임에 한발 뒤쳐저<br/><br/>#1 생활ㆍ부엌 용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 A사는 2012년 창업주가 암 발병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세 문제에 휘말렸다. A사 연 매출은 2,000억원으로 원래 ‘가업상속공제 적용’(연 매출 3,000억원 미만) 대상 기업이었지만, 회사가 2003년 설립됐기 때문에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이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장남은 물려받은 지분 일부를 매각해서라도 수백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내고 가업을 이어가려 했으나 매수자가 ‘경영권을 담보하지 않는 일부 주식은 사지 않겠다’고 고집해 결국 모든 지분을 팔고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br/>#2 상속공제 혜택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아버지가 세운 중소기업(금속 가공업)을 물려받은 김 모 대표는 인천에서 가동 중인 공장을 시외 지역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그는 공장을 땅값이 싼 시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남는 돈으로 신규 투자를 할 계획이었지만, 가업 승계 후 10년간 회사 자산의 20%를 처분하면 안 된다는 사후관리 조건에 묶여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 김 대표는 “<span class='quot0'>상속공제 혜택을 받고 회사를 매각하지 말라는 법의 취지는 알겠지만, 신규 투자를 위한 회사자산 매각은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span>”며 “<span class='quot0'>현행 상속공제 혜택은 중소기업을 물려받아 키우지 말고 유지만 하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우리 경제 성장 동력인 중소ㆍ중견 기업들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가업 승계 여건에 발이 묶여 외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br/>22일 중견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연 매출 3,000억원 이상을 기록해 기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의 15.1%인 450개에 달한다. 매출 기준을 초과해 상속 공제 혜택을 못 받는 기업 수가 9년 후인 2026년에는 1,410개로 연평균 12%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br/>매출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를 받치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br/>이들 기업 중 해당 업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각각 73곳과 63곳에 달한다. 또 전체의 56%는 5위권에, 78%는 10위권에 포진해 있는 등 대부분 해당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가업 승계를 시도할 때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어, 회사 문을 닫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br/>경기도에서 건설자재 관련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이 모 대표는 “<span class='quot1'>상장이 안 된 기업의 가치는 직전 몇 년간의 매출 등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 기업 가치에 비해 상속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또 매출액 3,000억원을 넘으면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되니 그 선을 안 넘으려고 상속 전 투자를 일부러 안 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부산에서 대기업에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 모 대표도 “<span class='quot1'>업계를 주도할 수 있는 중견기업들이 상속세에 발목이 잡혀 제때 투자를 안 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도 엄청난 손해</span>”라며 “<span class='quot1'>가업 승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까 기업들의 에너지가 절세 방법을 찾는 등 다른 곳에 낭비되고 있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연 매출 3,000억원 미만의 기업이라고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 기업은 ‘피상속인 최소 10년 이상 경영’, ‘상속인 상속 받기 2년 전 기업 종사’ 등 여러 가지 엄격한 조건에 걸려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br/>정태련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부회장은 “<span class='quot2'>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몇십억원이 아니라 단 몇억원의 상속세도 내지 못해 쩔쩔매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2'>매각이라도 되면 다행이지만 중소기업은 창업주 신용을 보고 거래하는 곳이 많아, 유망기업이라도 창업주가 별세하면 기업 가치가 급락해 매각도 안돼 그대로 폐업 수순을 밟기도 한다</span>”고 말했다.<br/>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공제 혜택을 받아 상속을 무사히 마친 기업도 ‘업종 변경 제한’ 등의 엄격한 사후관리 조건 때문에 투자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자산 매각으로 기존 사업을 강화하려고 해도 ‘기업 자산 20% 매각금지’ 요건 때문에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하다. 제조업에서 IT 사업으로 업종 변경을 꾀하다 공제받은 상속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사실에 이를 포기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span class='quot3'>기술 발달로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는데 업종 변경을 제한하면 기업이 도산 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생존을 위한 업종 변경과 자산 매각 등은 융통성을 발휘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br/>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72.txt

제목: 용산에 K-뷰티를 대표하는 ‘미(美)의 전당’이 들어섰다  
날짜: 20171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2051155001  
ID: 01101101.20171122051155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용산에 K-뷰티를 대표하는 ‘미(美)의 전당’이 들어섰다. 1956년과 1976년에 이어 2017년까지 같은 장소에 세 번째 본사 건립에 나선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신본사가 3년여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준공을 완료한 것.<br/><br/>1945년 개성에서 창업한 아모레퍼시픽 창업자 서성환 선대회장은 1956년 현재 본사 부지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사업의 기틀을 세웠고, 사업 확장에 발맞춰 1976년 10층 규모의 신관을 준공하며 아모레퍼시픽그룹을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이끄는 대표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br/><br/>그리고 2017년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같은 장소에 창의와 소통을 추구하는 신본사를 건립, 글로벌 뷰티 시장을 향해 세 번째 용산 시대 개막을 예고했다.<br/><br/>국내 최대 규모 화장품 사옥<br/><br/>최근 공개 된 아모레퍼시픽그룹 신본사는 지하 7층, 지상 22층, 연면적 188,902.07㎡(약 57,150평) 규모로 7,000명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국내 화장품 역사상 가장 큰 사옥이다.<br/><br/>먼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공용 문화 공간으로 꾸며졌다. 1층 로비에 들어서면 1층부터 3층까지 이어진 대형 공간 ‘아트리움’을 맞이하게 된다. <br/><br/>노출 콘크리트로 마감된 아트리움은 상업 시설을 최소화하고 공익적인 문화 소통 공간을 조성해 개방성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저층부는 수익성을 고려해 상업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과 같이 공공 성격이 가능한 공간으로 비워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br/><br/>특히 1층 공간에 미술관, 전시도록 라이브러리 등을 두어 임직원과 방문하는 고객,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문화를 나누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 <br/><br/>2층에는 자녀가 있는 임직원들을 위해 9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내 어린이집(약 269평 규모)도 마련했다.<br/><br/>5층은 임직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공간으로 800여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직원식당과 카페, 최대 130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피트니스센터/GX룸, 그 외 휴게실, 힐링존(마사지룸) 등 복지 전용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br/><br/>6~21층은 사무 공간으로 열린 소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에 중점을 두었다. 많은 사람이 더욱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수평적이고 넓은 업무 공간을 갖추고 있다. <br/><br/>임직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무실 내 칸막이를 없앤 오픈형 데스크를 설치하고 곳곳에 상하층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내부 계단도 마련했으며, 회의실은 모두 투명한 유리벽으로 구성했다. <br/><br/>또한 개인 업무공간 외에 구성원 간 협업 시 활용하는 공용 공간을 확대하고 집중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1인용 워크 포커스 공간을 마련하는 등 업무의 성격, 개인의 필요에 따라 업무 공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제공한다. <br/><br/><br/>신본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건물 내에 자리 잡은 세 개의 정원, ‘루프 가든’이다. 5층과 11층, 17층에 5~6개 층을 비워내고 마련된 건물 속 정원을 통해 임직원들이 건물 내 어느 곳에서 근무하더라도 자연과 가깝게 호흡하고 계절의 변화를 잘 느끼며 편안하게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다. <br/><br/>새롭게 마련된 아모레퍼시픽그룹 신본사에는 지주회사인 아모레퍼시픽그룹을 비롯하여 아모레퍼시픽과 에뛰드, 이니스프리, 에스쁘아, 아모스프로페셔널, 에스트라 등 주요 뷰티 관계사 임직원 3,500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다.<br/><br/>세계적인 건축가와 만난 한국의 아름다움<br/><br/><br/>아모레퍼시픽 신본사는 영국의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가 설계를 맡아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 <br/><br/>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지금까지 100여 건의 건축 상을 수상하며 동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가 중 한 명으로 평가 받고 있다. <br/><br/>대표적으로 독일 마르바흐 암 네카 지역의 현대문학박물관 설계로 2007년 건축디자인계의 아카데미 상이라 불리는 ‘스털링 상(Stirling Prize)’을 수상했고 2010년 영국과 독일에서의 건축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기사 작위’를 부여 받았으며 2011년 한 해에만 영국왕립건축협회(RIBA)의 ‘로열 골드 메달(Royal Gold Medal)’, 유럽연합(EU)에서 우수한 현대 건축 작품에 수여하는 ‘미스 반 데어 로에 어워드(Mies van der Rohe Award)’를 수상했다.<br/><br/>현재는 런던, 베를린, 밀라노, 상하이 등 세계 경제 및 문화의 중심 도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스톡홀름의 노벨 센터(노벨 재단 관련 문화, 과학 활동을 위한 건물)를 비롯해 뉴욕, 런던, 취리히 등 세계 곳곳에서 3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br/><br/>데이비드 치퍼필드는 화려한 기교 없이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니면서도 편안하고 풍부한 느낌을 주는 백자 달항아리에서 영감을 얻어 아모레퍼시픽그룹 신본사를 단아하고 간결한 형태를 갖춘 하나의 커다란 달항아리로 표현했다. <br/><br/>특히 한옥의 중정을 연상시키는 건물 속 정원 등 한국의 전통 가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소들을 곳곳에 반영함으로써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도심 속에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건축물을 설계했다. <br/><br/>또한 아모레퍼시픽그룹은 한국의 젊은 건축가들과 협업해 신본사 주변을 설계하여 한국 건축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br/><br/>신본사와 연결되는 신용산역(4호선) 지하 공공보도는 stpmj(이승택, 임미정 건축가)가, 본사 뒤쪽에 위치한 공원관리실은 양수인 건축가가 맡아 디자인 설계를 진행했다. <br/><br/>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문화 공간<br/><br/><br/>아모레퍼시픽 신본사의 또 다른 특징은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br/><br/>서경배 회장은 설계 단계부터 신본사의 저층부는 퍼블릭한 공간으로, 직원들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선물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br/><br/>신본사 1층 로비에 들어서면 1층부터 3층까지 이어진 층고 15.9m의 대형 공간 ‘아트리움’을 맞이하게 된다. <br/><br/>일반적인 오피스 빌딩은 대부분 수익성을 고려해 이와 같은 저층부를 상업시설로 채우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신본사와 같이 저층부를 비운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br/><br/>아모레퍼시픽 신본사는 상업시설을 최소화하고 공익적인 성격의 공간, 문화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개방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고자 했다.<br/><br/>아트리움에는 외부 방문객이 접근 가능한 주요 공간들이 조성되어 있다. 1층에는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로비, 전시도록 라이브러리, 오설록 등이 자리 잡을 예정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작품과 전시도록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br/><br/>2층은 아모레퍼시픽 어린이집과 고객연구공간, 대강당(2~3층), 이니스프리 카페 등이 조성되며 아트리움의 발코니 부분과 일부 리테일 공간은 방문객에도 오픈될 예정이다. <br/>3층은 6~10인 규모가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컨퍼런스룸부터 100여명이 수용 가능한 대형 컨퍼런스룸 등 고객, 방문객과의 접견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br/><br/>대강당의 경우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무대와 객석 사이의 거리를 좁게 만들어 제일 뒷 자리에 있는 사람도 무대를 잘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창문을 열면 공원과 자연이 보일 수 있도록 배치했다. <br/><br/>자연을 생각하는 환경 공간<br/><br/><br/>아모레퍼시픽 신본사는 친환경 건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먼저 이곳은 무광택 알루미늄 핀과 커튼월로 충분한 자연 채광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였다.<br/><br/>빛을 부드럽게 여과시켜 건물 내부에 골고루 분산시키고 흐린 날에도 전체 공간의 75% 이상에 자연광을 제공해준다. 낮에는 직사광선으로 인한 실내온도 상승을 막아 냉방시설 가동을 줄이는 반면 밤에는 낮 동안의 열을 방출해 실내 온도를 높여주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br/><br/>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동작 및 빛 센서로 전등 스위치가 없는 자동제어 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극대화 제어 시스템도 갖추었다. <br/><br/>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를 통해 데스크 위에 설치된 전원에서 컴퓨터를 제거하고 대기모드로 변경하면 자동으로 대기전력이 차단된다. 동작센서는 8m마다 적용해 오피스 내 일정 시간 동안 동작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조명세기가 줄어들며 동작이 감지되면 다시 복귀되는 시스템이다. <br/><br/>빛 센서 또한 적용되어 자연채광도를 감지해 30%까지 실내 조명 세기를 자동으로 줄일 수 있다. <br/><br/>신재생 에너지인 지열, 태양광, 태양열을 적용한 것도 눈길을 끈다. 그 중 옥상 전체를 뒤덮는 태양광 판넬은 350KW(보통 25평 아파트 117세대를 커버할 수 있는 전력량)의 전기를 생산하여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br/><br/>또한 지하 주차장에는 완속 충전기 34대, 급속 충전기 2대의 전기차 충전시스템도 준비되어 있다. <br/><br/>이와 함께 임직원의 건강한 오피스 라이프를 지원하고자 자연 채광(natural light)에 최적화하여 설계되었다. 자연 채광은 에너지 절약의 기능과 더불어, 효율적인 업무와 건강한 오피스 라이프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br/><br/>우선 건물 내외부 파사드(창)의 알루미늄 핀 커튼월을 통해 직사광선으로 인한 눈부심은 막아주고 자연 채광을 내부 공간에 골고루 확산시켜 최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br/><br/>사계절 자연 채광 시뮬레이션을 통해 빛이 많은 면과 적은 면을 찾아내어 자연 채광의 차단 및 확산을 위해 핀의 크기, 굵기 및 간격을 결정해 배치했다. 따라서, 건물 외부의 파사드(창)과 3개 중정의 개구부를 통한 오피스 모든 층에 자연 채광이 가능하다. <br/><br/>또한 유리 외벽 옆 자연 채광이 가장 좋은 곳에 개인 업무 공간을 배치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천정고 3m를 기준으로 실내 공간에 자연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최적의 채광 범위는 8m임을 확인했다. 때문에 파사드(창)에서 최대 8m까지만 책상 등 오피스 공간을 두었다.<br/><br/>바깥 창에서도 8m, 건물 가운데의 내부 창에서도 8m까지 오피스 공간을 구성했다. 채광을 막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납 가구도 맨 위와 아래는 뚫려 있다. <br/><br/>실내조명은 외부 조도에 따라 자동 센서로 조정된다. 보통의 한국 오피스들은 조도가 500~800LUX에 맞춰져 있으나 아모레퍼시픽 신본사는 편안하고 건강한 눈을 위해 내부 전반의 조도를 낮추어 300LUX에 맞췄다. <br/><br/>개인 데스크 조명도 별도 설치하여 개인별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밝고 건강한 빛이 있는 사무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br/><br/>최지흥 객원 기자 jh9610434@beautyhankook.com

언론사: 한국일보-1-73.txt

제목: '또 만나요' 가수 오세은 천상으로 떠나다  
날짜: 20171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2050952001  
ID: 01101101.20171122050952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1970년대 히트곡 ‘또 만나요’를 작곡한 가수 오세은이 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69세. <br/>고인의 딸은 22일 “아버지가 올 초부터 폐암으로 투병하셨는데 추석 때쯤 뇌, 장기 등 몸 곳곳에 암이 전이돼 안 좋아지셨다”며 “21일 오후 4시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밝혔다. <br/>오세은은 1970년대 활동한 싱어송라이터로 그룹 딕훼밀리의 ‘또 만나요’를 작곡해 큰 사랑을 받았다. ‘또 만나요’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라는 가사로 당시 유흥업소와 식당 등의 폐장곡으로 애용됐다. 1974년 발매한 3집 앨범의 수록곡 ‘고아’가 시대상을 반영한 염세적 메시지로 금지곡에 지정되는 홍역을 치렀다. <br/>1980년대부터 국악을 접목시킨 실험적인 음악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했다. 이후 한동안 쉬다가 2004년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2012년 8집 앨범 ‘오 블루 코리아’에서 아리랑을 블루스 스타일로 재해석한 ‘블루 아리랑’을 선보이며 한국의 소리를 전파했다.<br/>유족으로는 TBC 탤런트 출신인 부인 이보임씨와 1남1녀가 있다. 빈소는 건강관리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9호실이다. 발인은 24일 오전 7시 30분, 장지는 경기 양평 하늘숲추모공원. 031-900-0444

언론사: 한국일보-1-74.txt

제목: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나왔다  
날짜: 20171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1051056001  
ID: 01101101.2017112105105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연명의료계획서 쓴 여성 암환자 사망<br/>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범 사업이 시작된 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가 처음으로 사망했다. 관련 법 절차를 밟아 ‘웰다잉’, 즉 존엄사를 선택한 첫 사례다.<br/>2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인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한 여성 암 환자가 최근 숨졌다. 이 환자는 앞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이 환자는 의사의 설명에 따라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4가지 연명의료 행위를 모두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span class='quot0'>심폐소생술거부(DNR) 동의서를 쓰고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사망하는 사람은 전국에서 300~400명에 이른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번 환자는 관련 법 시행 이후 법적 절차를 밟아 연명의료를 받지 않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pan>”라고 전했다.<br/>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진이 말기 환자에게 임종기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를 물어 그 결과를 기록하는 문서다. 이후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의사 표시를 대신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br/>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4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국 10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건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에 따르면 시범사업 병원 10곳 중 7곳에서 시행 이후 3주간 연명의료 작성 건수는 총 4건에 그쳤다. 이와 관련,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기ㆍ임종기 환자 뿐 아니라 몇 달 안에 임종 과정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게 다음달 초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75.txt

제목: 실패한 연구사례만 싣는 학술지 나온다  
날짜: 20171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1051038001  
ID: 01101101.2017112105103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모 대학 한의대는 암 환자에 대한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입 안에 염증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한약제를 개발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을 해 왔다. 착착 진행되던 연구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여파로 좌초됐다.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임상시험 피험자 모집이 어려워졌고, 그 결과 연구자가 정부와 약속한 임상시험 승인 기한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연구는 2년 만인 지난해 9월 강제 중단됐는데, 정부 예산 8억원이 투입된 2년간의 연구 내용 역시 사장될 수밖에 없었다.<br/>이렇게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에서 실패한 사례만 모아 싣는 정기 학술지가 나온다.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성공의 밑거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br/>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R&D 평가ㆍ관리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실패 사례 학술지가 만들어지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br/><br/><br/>복지부는 “<span class='quot0'>보건의료 R&D는 성공률이 낮고 장기간의 투자와 연구기간이 요구되는 분야로 가치 있는 ‘실패’를 인정하고 그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span>”이라고 이유를 밝혔다.<br/>실제로 최근 3년간 복지부 R&D 사업 중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한 R&D는 총 111건에 달하는데 담당 연구진 대다수는 정부 사업 참여가 일정 기간 제한되고 사업비도 일부 환수당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축적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 역시 거의 없었다. <br/>학술지는 내년 중 창간되며 연 1회 발간 예정이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R&D에 실패한 연구자가 실패 경험을 담은 보고서를 학술지에 게재하면 행정 제재를 면제하고 연구 재도전 기회를 주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편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회장과 편집위원회는 국내외 저명한 학자로 채울 예정</span>”이라고 전했다.<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76.txt

제목: 3층서 떨어진 아이 두 명을 맨손으로 받아 낸 소방관  
날짜: 20171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1051001001  
ID: 01101101.20171121051001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정인근 인천서부소방서 센터장<br/>불길 거세지자 “아저씨 믿어”<br/>암수술 2주 만에 현장 출동<br/><br/>“<span class='quot0'>고귀한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 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span>”<br/>불타는 화재 현장 속에서 어린 남매를 맨 손으로 받아 낸 정인근(54·소방경·사진) 인천서부소방서 원당119안전센터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br/>그는 지난 20일 오전 10시54분 발생한 인천 서구 한 다세대 빌라 화재 현장에서 3층에서 밑으로 던져진 아이 2명을 맨손으로 받아 냈다. 신장암 제거 수술을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자기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몸을 던졌다.<br/>신고를 접한 그는 직원들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다. 상황은 심각했다.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이 외벽을 타고 2~3층으로 번지고 있었다. 검은 연기가 2층 가정집과 유일한 출구인 빌라 가운데 계단을 타고 전 층으로 퍼진 상태였다. 건물 뒤쪽에서 “살려 달라”는 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어른 5명이 3층 계단 창문 앞에서 뛰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높이가 6m 정도 되어서 위험해 뛰어내리지 말라고 제지했다. 현장에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던 중 한 남성이 “그럼 아이들이라도 먼저 구해 달라”고 했다. A양(5)과 B군(3) 등 2명이었다. 검은 연기는 계속해서 뿜어져 나왔다.<br/>정 소방관은 “당시 아이를 본 순간 아이들은 연기를 마시면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체할 시간이 없어 내가 밑에서 받을 테니 내려보내 달라고 외쳤다”고 말했다. ‘하나, 둘, 셋’을 외치고 “와” 소리와 함께 떨어진 아이는 그의 품에 꼭 안겨 있었다. 암 수술로 몸무게가 56㎏로 줄어든 그가 4m 높이에서 떨어지는 15㎏의 여자아이를 받아낸 것이다. 두 번째 아이도 같은 방식으로 받아냈다.<br/>정 소방관은 5층에서 구조요청이 들어와 직원들과 함께 5층으로 달려가 8명을 무사히 구해 내기도 했다. 그는 1988년 소방사로 들어와 올해로 29년 차인 베테랑 소방관이다. 지난달 25일 신장암 수술을 받아 4주간의 요양이 필요했지만 그는 2주 만에 현장으로 복귀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br/>정 소방관은 “당시 그 자리에 다른 소방관이 있었더라도 맨손으로 받아 냈을 것”이라며 “더욱이 아이를 밑으로 내려 준 그 남성이 있기에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겸손해 했다.<br/> 송원영 기자 wysong@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77.txt

제목: 40대 넘으면… ‘건강 정상’ 절반도 안 된다  
날짜: 20171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1050943002  
ID: 01101101.20171121050943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작년 건강검진 1371만명 분석<br/>전체 검진자 10명 중 6명이<br/>질환 걸렸거나 질환 의심자<br/>5년 전보다 7.4%P 늘어나<br/>2차 검진 고혈압ㆍ당뇨 많아<br/><br/><br/>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중 60% 가까이는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상 연령대부터는 ‘정상’ 진단을 받은 비율이 50%에 못 미쳤다. <br/>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2016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1차 판정을 받은 사람 1,370만9,413명 가운데 ‘정상 A’(건강 양호)와 ‘정상 B’(건강 이상은 없지만 예방조치 필요) 진단을 받은 비율은 각각 7.4%, 34.6%로 합계 42.0%에 그쳤다. ‘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비율은 37.2%, ‘유(有) 질환자’ 판정 비율은 20.8%에 달했다. 질환에 걸려 있거나 질환의 의심되는 수검자가 10명 중 6명 꼴(58.0%)이다. 5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정상은 7.4%포인트 줄어들고 질환의심과 유질환자 비율은 각각 1.7%포인트, 5.7%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에 비해 정상 판정이 줄어든 것은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검진 대상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r/>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정상 판정 비율이 74.6%였고, 질환 의심과 유질환자는 각각 24.9%, 0.5%에 그쳤다. 30대도 정상 비율이 절반 이상(56.5%)이었다. 그러나 40대는 정상 비율이 47.0%로 절반에 못 미쳤고, 50대 34.6%, 60대 24.7%, 70대 16.5%, 80대 이상 12.3%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큰 폭으로 낮아졌다. <br/>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만 받는 2차 검진은 지난해 전체 수검 인원이 55만7,835명이었고, 그 중 21만2,821명이 당뇨병 검사를, 34만5,014명은 고혈압 검사를 각각 받았다. 당뇨병으로 판정된 사람은 50.5%인 10만7,471명이었다. 고혈압 판정 판정 비율은 52.1%(17만9,848명)였다. 2011년(당뇨병 41.3%ㆍ고혈압 47.8%)보다 각각 9.2%포인트, 4.3%포인트 증가했다.<br/>지난해 비만율은 전체 34.9%였으며 성별로는 남성 41.3%, 여성 27.6%였다. 남성은 30대 비만율이 46.0%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70대가 40.4%로 높았다.<br/>지난해 건강검진 문진에서 흡연율은 전체 22.1%로 남성 38.4%, 여성 3.4%였다. 흡연율은 2011년(25.6%)이후 꾸준히 낮아져 담뱃값 2,000원 인상이 있었던 2015년 21.9%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소폭 상승했다. <br/>지난해 5대 암 수검률은 49.2%였다. 간암(65.4%), 유방암(63.0%), 위암(59.4%), 자궁경부암(53.0%), 대장암(35.7%) 순으로 수검률이 높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국가 암 검진에 폐암 검진을 포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 14개 기관에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3,112명을 검진해 폐암 환자 8명을 발견, 현재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78.txt

제목: 고려대 세종,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원 선정  
날짜: 20171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1050830003  
ID: 01101101.20171121050830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가속기 관련 가족회사와 공동법인 연구 설립ㆍ운영<br/>국제적 수준 가속기 연구개발 산학협력 본격화<br/><br/><br/>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정부의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원사업에 선정돼 가족기업과 가속기 관련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br/> 고려대 세종은 이번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따라 가속기 관련 가족기업과 공동연구법인을 설립,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고려대 세종 가속기과학과는 참여기업과 함께 올해 준공한 가속기 ICT융합관에서 초전도 가속기 핵심 부품 산학연구개발을 진행해 국제적 수준의 가속기 개발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br/> 가속기과학과는 초전도 가속기, 암치료용 가속기 등의 개발을 위해 세종시, 가속기 가족회사 및 국내외 연구소들과 적극 교류하며 핵입자ㆍ양자빔ㆍ의료방사선 등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가속기 ICT융합관 내에 구축 중인 중이온 가속기에서 이온빔을 인출해 빔 활용 실험과 빔 진단장치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br/> 연구책임자인 가속기과학과 김은산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사업은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물론, 세종시의 연구개발 수준을 높이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 한편,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활용과 확산을 강화하고, 과학벨트 중소ㆍ중견기업의 신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해 기능지구의 공동연구법인 설립ㆍ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br/>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79.txt

제목: ‘착한 암’이라지만... “정기검진이 갑상선암엔 무엇보다 중요”  
날짜: 2017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0051119001  
ID: 01101101.2017112005111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정영호 분당서울대병원 교수<br/><br/>수술 후 5년 생존률 99.3%지만<br/>암 퍼지면 50%대까지 떨어지고<br/>재발 가능성도 최대 26% 달해<br/><br/>갑상선암 큰 원인은 방사능 노출<br/>내시경ㆍ로봇으로 상처 없이 수술<br/><br/><br/><br/>#직장에 다니는 이모(36ㆍ여)씨는 최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청천벽력이었다. 몸이 피곤하고 헛구역질이 계속 나왔지만 피곤한 직장생활 탓으로 여겼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직장생활 때문에 집 근처 이비인후과에만 1년 정도 다녔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심상치 않게 여겨 대학병원을 찾았다. 갑상선암이었다. 암 덩어리가 2㎝나 됐고, 이미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였다.<br/><br/>갑상선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이다. 1년에 진단받는 환자만도 4만명 정도다. 다행히 조기 발견과 치료법이 발달해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면 거의 생존할 수 있다.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99.3%나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착한 암’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암이 퍼지면 5년 생존율은 50~60%로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20년이 지나도 재발할 수 있어 치료 후 정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갑상선암 로봇수술 전문가’인 정영호(45) 분당서울대병원 암센터(이비인후과) 교수에게 갑상선암을 치료ㆍ관리법에 대해 들어봤다.<br/><br/>-한 해 갑상선암이 얼마나 생기나.<br/>“갑상선암 환자는 전체 암의 22.4%나 된다(국가암정보센터). 2014년 기준으로 암 발생률 전체 1위, 여성암 1위, 남성암 6위였다. 2014년에 발병한 암환자의 14% 정도가 갑상선암 환자였다. 한 해 진단되는 암의 14%가 갑상선암이지만 치료가 잘돼 1999년 이후 누적 암환자의 22.4%나 되는 것이다.<br/>갑상선암 수술 빈도를 보면, 2012년엔 10만 명당 100명이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2013년 갑상선암 과잉 진단ㆍ치료 논란을 거치며 2015년 10만 명당 54명으로 줄었고, 2016년엔 10만 명당 58명 정도였다. 최근엔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도 초기라면 수술보다 경과만 관찰하는 환자가 있어 갑상선암 발생은 줄지 않고 어느 정도 균형점에 온 것 같다.”<br/><br/>-암을 일으키는 원인과 증상을 꼽자면.<br/>“갑상선호르몬을 만드는 세포가 무한 증식하면서 주변 조직을 침투하고 전이를 일으키기에 암이라고 부른다. 자체적인 증상은 없고, 암 크기가 커지면 가운데 목 아래에 덩어리가 만져질 정도다. 암 조직이 주변을 침투해 목소리 이상이나 음식물을 삼키기 곤란하거나 또는 숨 쉬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br/>대부분의 암이 그렇듯이 암에 생기는 유전적 변이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생긴다. 그리고 가장 확실히 알려진 원인은 방사능 노출이다. 따라서 방사능 유출이 있었던 지역을 다니는 것을 삼가야 한다. 병원 검사 중에 X선 촬영 같은 일반촬영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컴퓨터단층촬영(CT)을 여러 번 해야 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게 좋다.” <br/><br/><br/><br/>-로봇수술이 갑상선암에도 도움되나.<br/> “갑상선암은 갑상선 부위 피부를 가로로 잘라 암이 생긴 한쪽이나 양쪽을 잘라내고 림프절로 퍼졌다면 림프절을 구획 절제하는 게 표준치료법이다. 이때 피부절개로 인한 상처가 4~10㎝ 정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수술이 싫다면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을 하면 된다. 로봇 수술은 목에 상처 없이 겨드랑이나 귀 뒤나 입 안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10배 확대된 3D 영상을 보면서 수술할 수 있어 신경이나 중요한 구조물을 확인하는 데 도움된다. 또한 최대 3개의 수술팔을 이용할 수 있어 많은 도구로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다. 내시경 수술은 로봇 수술보다 저렴하고 일반 절개수술보다 약간의 추가 비용으로 상처 없이 수술할 수 있다. 영상 확대는 3배 정도이며 2D 영상을 보면서 수술한다는 점이 단점일 수 있다. 또한 수술팔은 2개만 이용 가능하다.” <br/><br/>-갑상선암 치료를 늦추기도 한다는데.<br/>“암을 조기 진단하면 조기 치료해 치료를 줄이고 생존율도 높일 수 있다. 갑상선암처럼 예후가 좋은 암은 조기 진단으로 갑상선 한쪽만 잘라내고 완치도 가능하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두고 볼 경우 갑상선 전체를 잘라내는 수술이나 추가로 양쪽 목에 경부청소술, 그리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해야 완치할 수 있다.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거나 치료를 미루는 경우 5년 생존율로 말하는 예후는 여전히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초기 치료보다 완치 확률이나 수술 범위, 방사선 요오드 치료의 필요성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암이 갑상선 뒤쪽에 위치했다면 암이 커지면서 도돌이 후두신경을 침범할 가능성이 높아 신경마비 위험성이 있고, 수술 도중에도 신경보존을 위해 더 노력할 수밖에 없다.”<br/><br/>-갑상선암은 재발 위험이 높은데.<br/>“예후가 좋다는 갑상선 유두암을 기준으로 갑상선이 있던 자리에 5~6%, 양측 목 쪽에 8~9%, 폐나 뼈로 전이되는 원격전이가 4~11%가 있어 갑상선암 재발률은 17~26%나 된다. 보통 갑상선암을 보고 생존율이 높다고 말하는 것은 치료로 모든 문제가 완벽히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다. 재발되더라고 재수술이나 방사선 요오드 치료로 다시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치료가 불가능해도 진행속도가 느려 오랜 기간 유병생존이 가능하기에 생존율이 높은 것이다. 보통 위암이나 폐암은 5년 생존율로 완치를 따지고 그 이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갑상선암은 서서히 자라기에 10, 20년 후에 재발하기도 해 장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br/><br/>-갑상선암 과잉진단 논란이 있었는데.<br/>“건강검진 보편화와 함께 초음파검사가 광범위하게 보급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 건강검진을 하는 입장에서는 작은 문제라도 확인하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작은 갑상선암이 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따라 암발생률이 늘고 수술도 덩달아 늘었다. 국제 가이드라인과 국내 가이드라인도 최근 이런 문제를 인식해 갑상선의 진단적 검사를 좀 더 제한하고, 수술 범위도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br/><br/>-갑상선암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나.<br/>“2013년 갑상선암의 과잉 진단ㆍ치료 논란을 넘어 현재는 적정 진단과 적정 치료의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에 타이밍이 중요하다. 갑상선암 치료도 타이밍이 치료효과나 예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물론 다른 암보다 치료가 잘되고 예후가 좋은 암인 것은 분명해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방치해도 되는 암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암이 의심되거나 진단됐다면 전문의에게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아야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막을 수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1-80.txt

제목: “‘면역세포 사령관’ 수지상세포, 비소세포폐암에 효과”  
날짜: 2017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0051108001  
ID: 01101101.2017112005110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아베 박사,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 68% 효과 임상 결과 내놔<br/><br/>암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세포치료가 국제적인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수지상세포 암백신을 이용한 말기 폐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일본 도쿄 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阿部博幸) 박사팀은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열린 제23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로 말기 비소(非小)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지상세포 면역치료 임상 결과를 발표됐다.<br/>아베 박사는 ‘암과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에?도전하는?면역치료의 최전선’이라 제목의 발표에서 “<span class='quot0'>표준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말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 22명에게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2주 간격으로 5회 치료해 효과를 보았다</span>”고 밝혔다. <br/>아베 박사는 “<span class='quot0'>환자의 림프절에 수지상세포 암백신을 피하 주사한 결과, 15명(68.2%)에서 효과가 보였다</span>”고 했다. 완전 관해 2명(9.1%), 부분 관해 3명(13.6%), 장기 불변 10명(45.5%) 등의 치료효과를 거뒀다.<br/>폐암 환자의 생존일로 보면, 치료효과가 있는 그룹은 1,000일 이상, 치료효과가 없는 그룹은 388.5일이었다. 치료 2주일 후 효과가 있는 그룹에서는 항(抗)증식 작용과 면역조절을 하는 인터페론-감마와 면역조절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하는 인터루킨-4가 정상범위로 회복됐다고 아베 박사는 전했다.<br/>사람은 몸 속에서 암세포가 생기면 이를 공격해 없애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혈액 속에 있는 ‘면역세포 사령관’인 수지상세포가 부족하면 암을 제대로 공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몸 속 혈액을 채취해 혈액 속 수지상세포를 분리한 뒤 증식ㆍ배양해 림프절에 다시 피하 주사하면 면역시스템이 다시 가동해 암세포를 공격하게 된다.<br/>현재 암 치료의 표준 치료법인 수술과 항암제, 방사선 치료는 부작용이 많고 암세포를 없애도 평소와 다름없이 다시 생활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면역력도 떨어진다. 이로 인해 다른 병에 걸리거나 암이 재발ㆍ전이돼도 암과 싸울 기력마저 없어지기 마련이다.<br/>하지만 아베 박사가 개발한 ABE Vax 치료는 부작용도 적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ABE Vax 치료는 2주에 한 번씩 6회를 기본으로 한다. 입원할 필요도 없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게다가 25mL 정도의 소량 혈액만 뽑아 치료할 수 있어 환자 부담을 크게 줄였다. 장시간 성분 채혈 과정이 필요한 기존 수지상세포 치료를 크게 개선한 것이다.<br/>ABE Vax 치료는 또한 암세포 식별 능력을 높여 기존 수지상세포 백신 치료와 차별화했다. ABE Vax 치료에 쓰이는 암 항원은 10종 이상(NEW WT1, MUC1, CEA, CEA-4, HSP, MAGE-A3, NY-ES01, GV1001 등)으로, 기존 수지상세포 백신 치료에서 암항원을 1~2종류 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개선된 것이다.<br/>ABE Vax 치료는 환자별로 조직적 합성검사와 암 유전자와 항원 검사를 한 뒤 수지상세포 백신 치료에 최신 암항원을 4~6종 추가해 치료한다. 항암지속기간을 평균 6개월간 지속하도록 치료율도 높였다. <br/>ABE Vax 치료는 6개월간 항암작용이 지속되기에 1사이클 치료가 끝나고 3개월 지난 뒤에 영상과 종양표지자 검사 등으로 효과를 판단한다. 암이 병기가 많이 진행됐거나 전이ㆍ재발됐다면 수지상세포 암백신과 고활성 NK면역세포 치료를 같이 치료한다.<br/>아베종양내과는 일본, 미국, 유럽, 한국, 싱가포르 등에서 수지상세포 치료제의 제조특허를 취득했으며, 한국에서는 ‘ABe Vax’ 로 상표등록을 마쳤다.<br/>다양한 임상결과 발표로 국내외 관심이 재조명되고 있는 아베종양내과의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의 연구에는 ㈜선진바이오텍(대표이사 양동근)이 국내에서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그림 1아베 히로유키 박사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말기 비소(非小)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지상세포 면역치료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언론사: 한국일보-1-81.txt

제목: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하는 건강 Tip] 조기 대장암  
날짜: 2017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0051036001  
ID: 01101101.2017112005103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올가미절제술ㆍ박리 칼로 잘라낼 수 있어<br/><br/><br/>대장암이 크게 늘고 있다. 1980년 전체 암의 5.8%에 불과했는데 1990년 6.9%, 2000년 10.3%로 증가했다. 조기 대장암은 대장내시경 올가미절제술이나 각종 박리 칼을 이용해 절제가 가능하다. 조기 암 위치가 내시경 절제치료하기에 좋지 않거나 너무 커 내시경 절제치료에 어려워 천공이 생길 위험이 높으면 처음부터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br/><br/>Q. 조기 대장암이란.<br/>“대장은 안쪽부터 점막층, 점막하층, 근층, 장막층 등 4개 층으로 이뤄져 있다. 대장 가장 안쪽인 점막층에서 암이 생긴다. 암이 생기면 점차 바깥쪽으로 자라 점막하층, 근층, 장막층까지 퍼진다. 암이 점막층과 점막하층까지만 생긴 것을 조기 대장암이라고 한다.”<br/><br/>Q. 어떻게 진단하나.<br/>“일부 대장암은 간헐적으로 표면에서 출혈이 약간 생기므로, 대변 속에 혈액 여부를 확인하는 대변잠혈검사를 한다. 검사로 혈액이 발견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한다. 대장조영술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은 관장하거나 하제를 먹어 대장 내 대변을 비운 뒤 검사한다.”<br/><br/>Q. 치료방법은.<br/>“내시경 절제치료와 개복ㆍ복강경 수술로 나뉜다. 내시경 절제치료는 대장 안에 대장내시경을 넣어 조기 대장암만 잘라내는 치료다. 하지만 대장 밖에 있는 림프절은 잘라낼 수 없다. 주변 림프절로 대장암이 퍼졌다면 수술해야 한다.” <br/><br/>Q. 내시경 절제치료란.<br/>“크기가 작은 조기 대장암은 대장 폴립 절제법으로 흔히 이용되는 대장내시경 올가미절제술을 이용해 잘라낸다. 올가미절제술은 특수 올가미를 대장 내에 내시경을 통해 넣은 뒤 종양 아래 부분을 올가미로 죄어 잡고 전류를 흘려 종양에 전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목 없는 폴립 형태라면 올가미를 잡기 전 점막하층에 용액을 주입하는 점막절제술법을 시행하기도 한다. 크기가 큰 조기 대장암은 올가미 대신 박리 칼로 종양 아래 부위를 박리하는 내시경 점막하박리술을 한다.”<br/><br/>Q. 내시경 치료 후에는.<br/>“내시경 치료를 하면 드물지만 재발해 반드시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조기 대장암의 침윤 깊이나 내시경 절제치료 과정에 따라 추적 검사의 시기ㆍ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흉부 X선 촬영, 복부 CT, 대장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혈액검사를 통한 CEA(암 배아성 항원) 값을 정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도움말= 양동훈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언론사: 한국일보-1-82.txt

제목: 부산 배산성에 영남 최대 신라 원형집수지  
날짜: 2017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20050945001  
ID: 01101101.20171120050945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부산 최초 목간(木簡), 국내 최대 <br/>죽제(竹製) 발, 토기 등 다량 출토 <br/>부산박물관(관장 이원복) 문화재조사팀은 부산 연제구의 의뢰를 받아 지난 4월부터 배산성지 추정 북문지 일원과 지난해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집수지 2기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최대급 원형집수지 등 다수의 유물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br/>배산성지(부산시 기념물 제4호)는 배산(서봉 254m, 동봉 246m)의 두 봉우리와 7부 능선을 두르는 포곡식산성(包谷式山城)으로, 부산의 중심지가 대부분 조망되는 전략적 위치에 입지해 부산의 대표적 삼국시대 산성으로 알려져왔다.<br/>이번에 조사된 2기의 집수지(集水址)는 모두 원형으로 3단의 계단식 호안석축(護岸石築, 집수지 붕괴방지를 위해 쌓은 석축구조물)으로 둘러져 있다. 구조는 기장산성, 거제 둔덕기성, 남해 대국산성, 남해 임진성 등 남해안 일원에서 7세기대 신라가 축조한 산성에서 확인되는 집수지 구조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br/>배산성지에서 확인된 2기의 집수지 규모는 국내 원형집수지 중에서도 최대급. 1호 집수지의 경우 최상부 제3단 호안석축을 기준으로 직경 9.5m, 깊이 3.2m 규모이며, 2호 집수지의 경우 직경은 13m(굴광 범위 포함 16.5m), 깊이가 4.6m에 이른다. 2호 집수지의 경우 지금까지 영남지역에서 확인된 신라산성 집수지 중 최대 규모며, 국내에서는 충북 청원 양성산성 원형집수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br/>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집수지 축조 시 다양한 고대 토목기술이 적용됐음을 밝혀냈다. 먼저 호안석축은 ‘品’자형쌓기 수법을 적용해 정교하게 축조됐는데, 이런 축조수법은 신라 성곽에서 주로 확인되는 방식으로 잔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집수된 물의 유출을 방지하고 벽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호안석축과 굴광 사이를 잡석과 황갈색 점토를 1.5~2m 정도의 너비로 두텁게 다져서 뒷채움을 했다. 또한 집수지는 경사면에 위치하는데 저수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낮은 지대는 성토, 상부 호안석축과 높이를 맞춰 조성했다. <br/>1호 집수지는 2호 집수지와는 달리 바닥을 방사선상으로 구획한 뒤 판석을 깔았다. 판석 상부에서 출토된 상층유물은 기와와 토기편이 대부분이지만, 목기나 초본류(草本類)도 수습됐다. 그 중 바닥층에서 수습한 묵서(墨書)의 목간(木簡) 편은 2글자가 정도만 남아 있는데 부산에서 최초로 출토된 자료로, 차후 묵서가 판독되면 한국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대나무를 가늘게 엮어 만든 발은 길이 약 1.9m, 너비 약 0.9m, 정도 크기며, 표면에는 대나무를 엮었던 것으로 보이는 암갈색 유기물이 체크무늬 형상으로 눌러 붙어 있다. 이러한 발은 함께 출토된 새끼줄과 함께 국내에서 출토된 적 없는 희귀 유물로 평가된다. <br/>2호 집수지는 바닥을 여러 종류의 점토로 두껍게 층 다짐했는데, 점토층에는 상하 2차례에 걸쳐 낙엽을 두껍게 깔고 그 위에 돗자리를 얹어 다지는 ‘부엽공법’이 확인됐다. ‘부엽공법’은 고대부터 제방이나 저수지, 성곽 등 구조물의 기초 다짐토 사이에 낙엽이나 편물, 나무껍질 등을 두껍게 깐 뒤 다져 연약 지반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상층 돗자리는 부분적으로 결실된 것으로 보이나 하층에서 출토된 돗자리는 집수지 전면에 걸쳐 양호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돗자리가 출토된 사례는 국내에서 드문 경우로, 재료 분석를 통해 당시 식생복원이나 직조기술 등 관련 연구 자료 가치가 높다.<br/>1호와 2호 집수지 내부에서는 통일신라시대로 편년되는 그릇, 항아리 등 생활용 토기 등이 출토됐으며, 2호의 경우 집수지 인근 건물이 일시에 무너진 듯 포개진 토기그릇과 함께 암ㆍ수키와 수 백여점이 출토됐다. <br/>부산박물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삼국사기 지리지에 신라 경덕왕 16년(757) 12월에 거칠산군을 동래군으로 개명했다고 기록돼 있고, 배산성에서 출토된 대부분 유물이 7세기대가 중심이기 때문에 동래군이 설치되기 이전인 거칠산군의 치소성(治所城)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러나 집수지 배후 퇴적층과 주변에서는 7세기 이전의 유물들도 출토되고 있어 축성시기가 삼국시대로 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배산성 일대에 대한 연차적인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span>”라고 말했다.<br/>한편 박물관 측은 배산성지 발굴조사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유적조사 및 정비ㆍ복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1일 오전 11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학술자문위원회를 배산성 잔뫼정 인근 발굴조사 현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연제구와 부산박물관은 발굴조사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현장설명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현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24일까지 연제구 문화체육과(051-665-4062)에 신청하면 된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83.txt

제목: '더 패키지' 종영까지 1회, 이연희·정용화 운명적 재회 맞을까  
날짜: 2017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18050313002  
ID: 01101101.20171118050313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이별한 이연희와 정용화는 운명적으로 재회 할 수 있을까.<br/><br/>지난 17일 방송된 JTBC 금토드라마 '더 패키지'(극본 천성일, 연출 전창근) 11회에서는 윤소소(이연희 분)와 산마루(정용화 분)가 운명적 재회를 기약하며 천사의 발밑에서 헤어지는 모습이 그려졌다. 7주년 파티 중 사업 투자가 엎어진 김경재(최우식 분), 한소란(하시은 분) 커플과 처음으로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은 오갑수(정규수 분), 한복자(이지현 분) 부부의 눈물은 파리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에 안타까움을 더했다.<br/><br/>여행자들은 마지막 여행을 시작했다. 각자 파트너들끼리 사이는 멀어졌지만 소소와 소란은 드레스, 마루와 경재는 군대 이야기를 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다른 여행자들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감상하는 동안 둘만의 짧은 데이트를 즐긴 소소와 마루는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셀카를 남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br/><br/>파리의 중심인 뿌앙제로에서 소소는 여행자들에게 고마움이 담긴 인사를 전했다. 여행자들은 밟으면 다시 파리로 돌아온다는 전설이 있는 뿌앙제로에 모두 발을 올렸지만 시한부 복자만은 쉽게 발을 올려두지 못했다. 갑수의 손에 의해 복자 역시 발을 올리면서 모두 파리로 돌아올 것을 기약했다.<br/><br/>소소와 마루는 파리의 마지막 밤 단둘이 차를 타고 몽생미셸로 향했다. 소소가 "나 여기서 영원한 사랑을 만날 운명이래요. 그 사람이 나를 천사의 발 아래로 데려다 줄 거랬어요"라고 고백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가 운명임을 알게 됐다. 하지만 소소는 "운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나는 아직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채우려고 할 거다"며 이별을 고했다. 소소의 마음을 이해한 마루는 "사진 지우지 마요"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하며 이별을 받아들였다.<br/><br/>7주년 파티를 하던 경재와 소란에게는 사업 투자가 취소됐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투자를 받고 소란에게 청혼을 하려던 경재는 결국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고, 소란은 홀로 세느강으로 향했다. 갑수와 함께 유람선을 타러 온 복자는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미 알고 있었던 갑수는 처음으로 복자 앞에서 울음을 터트렸고, 복자는 오열하는 갑수를 안아주고 입맞춰주면서 깊은 마음을 전했다.?<br/><br/>'더 패키지'가 마지막회를 앞두면서 "우리가 만약 정말 운명처럼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무섭지 않을 거예요"라는 소소의 말처럼 소소와 마루가 다시 만나게 될지 여행 이후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br/><br/><br/><br/>권수빈 기자 ppb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84.txt

제목: 궐련형 전자담배 입법전쟁의 새 화두, "캡슐형 제재 어떻게 하나…"  
날짜: 2017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18050306003  
ID: 01101101.20171118050306003  
카테고리: 정치>정치일반  
본문: 궐련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입법 전쟁이 ‘캡슐 담배’라는 2차 전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앞서 90% 세율 적용을 두고 필사적인 대결을 벌였던 여야와 담배업계가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은 캡슐형 담배의 유해성 여부를 두고 재대결을 벌이는 양상이다.<br/>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권은 18일 “<span class='quot0'>캡슐 담배의 유해성이 입증된 만큼 빠른 법 규제가 필요하다</span>”고 주장했다. KT&G가 전자담배 시장 석권을 위해 캡슐 담배 형태의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입법전이 가열되는 분위기다.<br/>김 의원의 입장은 지난 3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캡슐 담배에 함유된 각종 가향물질들은 담배의 맛, 향 등을 좋게 하여 청소년, 여성 등의 흡연을 용이하게 하고, 향이 담배 냄새를 순화하면서 흡연자로 하여금 기호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며 “이런 이유로 현재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등 각국에서는 가향물질을 넣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향물질 캡슐 관련 규제는 담배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 표시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를 제조 및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가향물질 캡슐의 유해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br/>관련 기관 및 학계의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 “<span class='quot1'>가향 담배의 일종인 캡슐 담배의 가향 성분을 분석한 결과, 29종의 캡슐 담배에서 멘톨 등 총 128종의 물질을 검출했다</span>”고 밝혔다. 질본은 특히 “멘톨은 말단신경을 마비시켜 담배 연기를 흡입할 때 느껴지는 자극을 감소시켜, 흡연자가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등 유해물질을 더 많이 흡수하도록 해 중독 가능성과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br/>지난 9월 질본이 김희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캡슐형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경우 지금 현재도 흡연자일 확률이 일반 담배로 시작한 경우보다 1.4배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도 “멘톨 등 담배 제조에 사용 금지할 가향물질의 종류를 정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 상태다.<br/>야권과 학계에선 캡슐 담배 규제 얘기가 나오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 개정안이 이미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8월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으나, 복지부는 여전히 “<span class='quot2'>2018년부터 관련 규제를 하겠다</span>”는 계획만 내놓은 뒤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여당도 캡슐 담배에 대한 제재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아직까지 법안 통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모습이다.<br/>담배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3'>2018년에 예정대로 캡슐 제재 법안을 처리해도 유예 기간 등이 추가된다면 실제 적용은 2020년이나 돼야 현실화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3'>그 사이 캡슐 형태의 궐련형 전자담배로 신규 흡연인구가 폭발적으로 늘 수도 있어 올해 안에는 캡슐 담배 규제 법안의 입법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span>”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4'>특정 업체의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이익이 연관된 문제라, 여야가 신속함보다 신중함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4'>캡슐 담배 유해성 정도를 더 면밀히 파악한 뒤 제재를 해도 늦지 않다</span>”고 반박했다.<br/>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85.txt

제목: 무가베 독재의 클라이맥스 ‘구찌 그레이스’  
날짜: 20171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16050915001  
ID: 01101101.20171116050915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38년 세계 최장수ㆍ최고령 독재자의 철권통치를 끝낸 건 다름 아닌 아내의 끝없는 탐욕과 권력욕이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5일(현지시간) “<span class='quot0'>짐바브웨 쿠데타 위기의 중심에는 ‘구찌 그레이스’가 있다</span>”고 단언했다. 전날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사실상 권좌에서 물러난 로버트 무가베(93) 짐바브웨 대통령의 부인 그레이스 무가베(52)가 군부를 정치로 불러 낸 결정적 한방이라는 진단이다. 구찌 그레이스는 명품 쇼핑 등 향락을 일삼은 그레이스를 빗댄 별칭이다. <br/>실제 그레이스의 삶을 들여다 보면 그를 ‘권력의 화신’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196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난 그레이스는 유년 시절 짐바브웨 중부 치부의 농촌마을에서 선교사 학교에 다니는 등 비교적 평탄한 성장 과정을 거쳤다. 그의 운명이 뒤바뀐 건 80년대 후반 무가베의 비서(타자원)로 발탁되면서다. 최고 권력자의 눈에 띈 그레이스는 41년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무가베와 은밀한 만남을 시작했다. 그는 당시 공군 장교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도 한 명 뒀고, 무가베 역시 엄연한 퍼스트레이디, 샐리 여사가 있었다. 무가베는 첫 번째 아내를 내치지 못했다. 가나 출신의 샐리는 독립전쟁 당시 정치범 석방을 위해 싸운 혁명 영웅이었다. ‘어머니’라 불릴 정도로 국민의 신망은 대단했다. <br/>두 사람은 92년 샐리가 암으로 숨지자 4년 뒤 자칭 ‘세기의 혼인’으로 명명한 초호화 결혼식을 올렸다. 이미 불륜으로 자식 두 명까지 낳은 상태였다. 무가베는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을 결혼식에 초대하고, 호아킴 치사노 모잠비크 대통령에게 신랑 들러리를 서게 하는 등 정당성을 갖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비판 여론을 쉽게 잠재우지는 못했다. 싸늘한 시선을 느낀 그레이스는 대신 ‘치부(致富)’에 온 힘을 쏟았다. 그의 사치 행각을 보여주는 일화는 한 둘이 아니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span class='quot1'>2002년 프랑스 파리 여행 도중 한 번에 7만5,000파운드(1억870만원)어치를 쇼핑한 적도 있다</span>”고 소개했다. 남아공과 홍콩 등에 수백만달러짜리 호화 별장을 구입하는 등 해외 부동산 수집에도 열을 올렸다. ‘퍼스트 쇼퍼(First Shopper)’는 그레이스의 또 다른 별명이다.<br/>거친 성격 탓에 물의도 여러 차례 빚었다. 2009년 홍콩에서 영국 사진작가를 주먹으로 때렸고 이후에도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간간이 폭력 사건을 일으켜 외신을 장식했다. 급기야 올해 8월에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한 호텔에서 아들을 만난다는 이유로 20세 여성 모델을 폭행해 외교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자식들도 잘못 키워 그레이스의 두 아들은 불과 일주일 전 나이트클럽에서 6,60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과시하는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뭇매를 맞았다. 짐바브웨 국민은 하루 평균 2,900원 가량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 참전용사 단체 대표는 그레이스를 “<span class='quot2'>결혼증명서로 힘을 얻은 ‘미친 여자’</span>”라고까지 공격했다. <br/>막장 이미지는 그레이스의 겉모습일 뿐이었다. 그는 정신건강이 악화한 무가베를 뒤에서 조종하며 권모술수와 정치공작에 능한 야심가였다. 남편의 그림자에 머물던 그레이스는 2014년 집권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애국전선(ZANU-PF)’ 내에 파벌(G40)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냈다. 무가베의 혁명 동지인 조이스 무주루 전 부통령에게 대통령 암살 혐의를 씌워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등 정적 숙청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그 해 한 집회 연설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왜 안 되느냐. 나는 짐바브웨인이 아니냐”며 대권 야망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심지어 올해 2월엔 “무가베가 내년 대선 전 숨져도 입후보 자격을 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미국 CNN방송은 “<span class='quot3'>그레이스는 무가베가 없으면 정치적으로 단 하루도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최고 권력을 쥘 때까지 남편의 후광을 철저히 이용하려 했다</span>”고 분석했다. <br/>하지만 최후의 정적으로 삼았던 무가베의 40년 오른팔, 에머슨 음난가그와(75) 전 부통령을 6월 쿠데타 혐의로 해임한 뒤 군부가 끝내 등을 돌리면서 대권 가도는 실패로 막을 내렸다. 그레이스는 가택 연금 중인 남편과 달리 해외 도피설 등 정확한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음난가그와와 쿠데타를 주도한 콘스탄틴 치웬가(61) 장군이 무가베의 빈 자리를 채울 유력한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고 있다. <br/>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br/><br/>???

언론사: 한국일보-1-86.txt

제목: 천연기념물 ‘제주마’ 사세요  
날짜: 20171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16050822001  
ID: 01101101.20171116050822001  
카테고리: 경제>국제경제  
본문: 제주축산진흥원 75마리 공개 경매<br/>적정 사유두수 유지 위해 매각 <br/><br/><br/>천연기념물 제347호인 제주마가 공개 매각된다. <br/>제주도 축산진흥원은 진흥원 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사육 중인 제주마 중 75마리(암 42, 수 33)를 오는 21일 서귀포시 축협 가축시장을 통해 공개 경매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매 대상 제주마들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태어난 망아지들이다. <br/>이번 공개 경매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적정 사육두수인 150마리를 유지하기 해야 한다는 ‘제주마 관리지침’에 따른 것이다. <br/>이에 도축산진흥원은 현재 사육 중인 238마리 가운데 종축개량공급위원회 매각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관리할 제주마를 제외한 75마리를 공개 경매할 계획이다. <br/>경매 방법은 지나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상한가를 정하고, 최종 낙찰은 입찰 상한가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돌아간다. 다만 상한가 입찰자가 많으면 현장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정한다.<br/>경매 참여 자격은 제주도민에 한해 가능하며, 오는 21일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가축시장을 직접 방문해 경매에 참여하면 된다.<br/>제주마 상한가격은 지나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년도 평균 낙찰가격으로 정해졌다. 10~13개월된 육성말은 암컷의 경우 767만원, 수컷의 경우 424만원이다. 3~7개월된 새끼말 암컷은 400만6,000원, 수컷은 214만원이다.<br/>지난해 제주마 경매 결과 최고가격은 수컷이 1,433만원에 낙찰됐고, 최저가격은 자마 수컷 77만원이다. <br/>김대철 도축산진흥원 마필연구담당은 “<span class='quot0'>2013년부터 제주지역에서 실시되는 경마에 제주마만 출전할 수 있게 돼 제주마 경매에 대한 인기가 높다</span>”며 “<span class='quot0'>매각된 제주마는 경마용으로 조련되거나, 승마장 등에서 승마용으로 이용된다</span>”고 말했다.<br/>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87.txt

제목: [장정일 칼럼] ‘내로남불’ 시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날짜: 2017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15050919001  
ID: 01101101.20171115050919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올해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계란을 기피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커피숍의 일회용 컵 사용이 줄어들었다는 재미난 통계는 어디서도 찾아보지 못했다. 계란을 먹으면 금세 복통을 일으킬 듯이 호들갑을 떤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계란 한 알보다 더 심한 유해물질을 뿜는 일회용 컵으로 태연자약하게 커피를 마신 것이다. 이런 이중성을 비웃기는 쉽지만, 일관성에 집착하면 오히려 죽게 된다. 화학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11월 6일 KBS 뉴스는 일부 지역의 쌀에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살충제 성분이 허용 기준치의 14배나 초과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우리는 이중성도 일관성도 모두 나쁜 난관 앞에 서 있다.<br/>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젊었을 적의 반여성적 행각과 저술로 인해 사퇴해야 한다고는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만은 사퇴하는 게 옳았다고 본다. 진보는 사회든 인간이든 바뀔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탁 행정관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박 후보는 장관이라는 공직을 맡기에 부적당한 허황한 사술(‘창조과학’)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여성운동가들은 탁 행정관을 끌어내려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조급증에서, ‘바뀌는 모습을 전시하는 것’이 그보다 나은 본보기라는 것을 간과했다. 반성은 보이는 데서 해야지, 지리산에서 혼자 하게 해 봤자 사회에 돌아올 이득은 없다.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격은 물론 ‘무결점’일 테지만, 그렇다면 장관과 국회의원은 누가하나.<br/>나는 밥 딜런에게 노벨문학상을 준 게 천부당만부당했다. 이런 생각은 진보연양 하는 문인으로부터 ‘문학주의자’ 내지 ‘문학 기득권자(엘리트)’ 등으로 비난 받았다. 그런데 나를 비난했던 대부분의 인사들은 내가 무죄라고 두둔하는 조영남을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인다. 내가 ‘협소하고 전통적인 예술관’을 지지하는 일관성을 지녔다면 밥 딜런과 조영남 모두를 부정해야 했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술은 확장’이라는 일관된 관점에 섰다면 밥 딜런과 조영남 모두를 옹호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일관성을 가진 사람은 좀체 드물다.<br/>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박정희 재단)이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 정면에 4m 높이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이 박정희 동상에 반대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단지 신비로운 이들이 있다면, 서정주를 기리는 문학인들과 미당문학상과 관련된 시인ㆍ평론가들이다. 아마도 문학에는 문학의 논리가 따로 있을 테니, ‘친일과 독재자를 규탄한다’라는 일관성은 서정주와 박정희에게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br/>지난주 한국일보에서 김진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의 칼럼 ‘‘내로남불’, 자기의식의 몰락’을 읽었다. 김 교수는 지지 정권과 진영 논리에 따라 이중성(‘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불의’)을 드러내는 지식인과 전문가의 행태가 보통 사람들이 참조할 상식이나 관행을 파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은 어느새 타락해 버린 인간의 자기의식보다 훨씬 일관적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인공지능은 최소한 거짓말이나 빈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은 일관성이 문제다.<br/>‘내로남불 시대’는 ‘국민 스승’ 따위의 대타자는 없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가 일찍이 ‘지식인의 종언’(문예출판사, 1993)에 썼듯이, 지식인이 권능을 과시할 수 있는 조건이었던 “총체적 통일성 혹은 보편성”은 몰락한 지 오래다. 이제 대중들은 그 자신들이 모순인 지식인들이 제공하는 세트 메뉴(일관성)를 군말 없이 받아먹을 것이 아니다. 각자가 고민하며 지혜로워져야 하고, 일괄 판단이 아닌 사안별 판단을 해야 한다. 탁현민과 박성진, 밥 딜런과 조영남, 서정주와 박정희에 대해 당신이 그 어떤 상이한 판단을 내리든 그것은 더 이상 모순으로 불리지 않을 것이다. 리오타르는 보편적 이념과 총체적 고정관념이 사라진 시대에는 ‘날씬(sveltesse)’한 지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내로남불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br/>장정일 소설가

언론사: 한국일보-1-88.txt

제목: [Hi #이슈]한서희, 결국 발등 찍은 페미니즘 마케팅  
날짜: 20171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14050935002  
ID: 01101101.20171114050935002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했던 연습생 한서희가 결국 자승자박의 꼴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어설픈 페미니즘 마케팅이 불러온 결과다.<br/><br/>한서희는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퀴어포비아(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가 절대로 아닙니다"라며 "다만 트랜스젠더 분들만은 못 안고 가겠다는 겁니다. 트랜스젠더 분들을 포용 안 하는 게 모든 성소수자 분들을 혐오하는 건가요?"라는 발언을 했다.?<br/><br/>한서희의 글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는 여성이 아니며 이를 이분할 수 없다는 것. 이에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트랜스젠더인 하리수가 직접 나서며 "주민번호 2 맞다. 또 병 때문에 혹은 암에 걸려 자궁적출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저 글에 따르면 그 분들도 다 여자가 아닌 거냐"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br/><br/>이후 논란은 확산이 됐고, 하리수는 자궁적출 등의 단어를 쓴것에 대해 사과를 전하며 "<span class='quot0'>암에 걸리거나 병으로 자궁을 적출한 얘기를 한 이유는 자궁이 없으면 여자가 아니라는 대화 내용이 있었기에 얘기를 했던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절대 암환자분이나 병 때문에 자궁적출하신 분들을 비하한게 아니다</span>"라고 정정했다.<br/><br/>페미니즘은 억압받고 차별받는 여성에 대한 인식의 재고를 토대로 발전한 개념이다. 진보적인 사상으로 페미니즘 안에서 다양한 상-하위 개념이 나눠진다. 하지만 기본은 차별받음에 대한 표출이며 포용이다.<br/><br/>한서희는 페미니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여성이며 페미니스트라고 자부하면서, 결국 트랜스젠더에 대해 차별적인 시선으로 본다는 것은 자신의 논리를 뒤집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br/><br/>하리수는 자신의 글 중 차별이 될 수 있는 발언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했다. 하지만 한서희는 여전히 자신의 경솔한 말에 대한 사과없이 "잠적하고 싶다" 등, 어리광 섞인 글을 또 스스로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br/><br/>"나는 관종이 아니다"라며 페미니스트이기를 자부했던 한서희가, "페미니즘 마케팅"이 아니라고 했던 그는 정말 페미니스트인지, 관종이 아닌지를 스스로 되돌아봤으면 싶다. 논란을 자초할 시간에 페미니즘 개론서라도 읽는다면 적어도 "페미니즘 몇년차"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을텐데.?<br/><br/><br/><br/>명희숙 기자 aud66@hankookilbo.com<br/>[

언론사: 한국일보-1-89.txt

제목: 울산대, 새 항암면역치료법 발견  
날짜: 20171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14050759001  
ID: 01101101.2017111405075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권병석ㆍ조홍래 교수팀, 국제저널 게재<br/>면역효과 제고, 암 퇴치 효과 기대 <br/>암 치료법인 수술, 화학요법, 표적치료법 가운데 가장 각광받는 면역치료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 발견돼 인류 암 퇴치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br/>울산대는 생명과학부 권병석(53)ㆍ의예과 조홍래(60) 교수팀이 암에 대한 면역력을 무력화시키는 공동자극분자 CD137 리간드의 신호를 차단,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새로운 항암면역치료 경로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br/>연구 결과는 미국 암연구협회(AACR)가 발행하는 암 연구 분야 세계적 권위지 <캔서 리서치(Cancer Research)> 11월호에 게재됐다.<br/>지금까지의 면역치료법은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의 활성화에 주력했으나 최근에는 암환자의 면역시스템을 약화시키는 면역체크포인트(면역회피물질) 차단제가 각광받고 있다.<br/>암이 발생하는 초기에는 T세포에 의한 암세포 제거가 면역치료의 주된 작용원리이지만, 암이 진행되면 암조직은 면역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미래 면역치료 핵심은 암조직에서 면역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br/>이런 현실에서 울산대 연구팀은 T세포 활성화의 공동자극분자인 CD137 항체가 암 면역력을 무력화하는 CD137 리간드의 역신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기존 T세포 활성화법과 함께 암세포 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br/>연구팀은 CD137 리간드 신호를 차단하면 종양에서 제1형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를 통해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 분화를 촉진하고, 이 분화된 T세포가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CD137 리간드 신호를 차단하면 암세포에 대한 면역반응이 증폭되는 사이클이 가동돼 항암작용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br/>반면에 CD137 리간드 신호를 활성화하면 암 면역반응을 억제시키는 제2형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의 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밝혀냈다. 이는 신호를 차단할 때와는 달리 류마티스 관절염, 장염, 장기이식거부반응 등과 같은 질환 치료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br/>권병석 교수는 “<span class='quot0'>CD137 리간드 신호의 차단 또는 활성화를 통해 암과 염증성 면역질환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만큼, 이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90.txt

제목: [헬스 파일] 삼성서울병원, 대장암 복강경수술 1만건 달성  
날짜: 20171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13050939002  
ID: 01101101.20171113050939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삼성서울, 대장암 복강경수술 1만례<br/>삼성서울병원 대장암센터(센터장 이우용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최근 ‘대장암 복강경수술 1만례’를 달성했다. 2000년 3월 첫 대장암 복강경 수술을 시행한 이후 수술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2008년에는 전체 수술의 46%, 현재는 전체 수술의 82%를 복강경 수술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말 '국내 최고성적'인 1만례를 달성했다. 대장암 개복 수술은 15~20㎝ 정도의 큰 흉터가 생기지만 복강경 수술은 보통 3~4곳 정도에 3㎝ 내외만 절개하면 돼 개복수술보다 상처가 작아 통증이 덜하며 회복도 빠르다. 이 센터장은 "복강경 대장암수술 1만건 달성을 통해 더 많은 대장암 환자가 완치뿐만 아니라 통증과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약하고 발전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br/><br/>서울대병원, 간이식 건강강좌<br/>서울대병원이 15일 오후 1시 서울대 암병원 2층 서성환홀에서 간이식을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연다. 윤경철 장기이식센터 교수가 간암 치료법 중 하나인 간이식 수술법과 환자와 간 공여자 간 혈액형이 다른 혈액형 불일치 간이식 수술법 등을 소개한다.<br/><br/>JW중외, 요산 낮추는 통풍 신약 개발<br/>JW중외제약은 일본의 쥬가이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통풍 신약 후보물질 'URC102'의 임상시험 결과 혈중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확인했다. URC102는 요산이 체내에서 배출되지 않고 몸 속에 축적되는 배출저하형 통풍에 쓰는 신약 후보물질이다. 배출저하형 통풍은 전체 통풍의 90%를 차지한다. 회사 관계자는 “한양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국내 14개 병원에서 140명의 통풍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2a상에서는 약물을 투여한 용량에 따라 체내 요산 수치가 떨어지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했다.<br/><br/>부천성모병원, 당뇨병 건강강좌<br/>부천성모병원 당뇨병센터는 당뇨병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14일 오후 2시 부천성모병원 성요셉관 대강당에서 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합병증 없는 당뇨인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내분비내과 유순집 교수의 ‘비만, 당뇨병, 암 삼각편대’ ▦내분비내과 김성래 교수의 ’비만, 당뇨병, 심혈관질환 합병증’ ▦내분비내과 이성수 교수의 ‘당뇨병의 새로운 치료의 중심 - 인크레틴과 SGLT2 억제제’ ▦영양팀 유한나 영양사의 ‘당뇨인을 위한 식사요법’ 이라는 소주제 강의와 당뇨병에 관한 궁금증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강좌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당뇨병환자를 위한 건강도시락이 제공된다.

언론사: 한국일보-1-91.txt

제목: 한국인 당뇨병 입원율 OECD국가 중 2위  
날짜: 20171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13050927002  
ID: 01101101.20171113050927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천식도 평균치 2배 넘어<br/>‘강력 항생제’ 사용량 1위 여전<br/>암 생존율은 비교적 높아<br/>당뇨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성이 생길 위험이 큰 ‘광범위 항생제’ 사용량은 OECD 국가 1위였다. <br/>13일 OECD가 발표한 ‘2017 한 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을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br/>2015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당뇨병 입원 환자 수는 281.0명으로 통계가 있는 33개국 중 멕시코(291.8명)에 이어 2위였다. 이는 OECD 평균(137.2명)의 약 2배, 최하위인 이탈리아(39.7명)의 7배 수준이다.<br/>또 다른 만성질환인 천식과 만성폐색성폐질환(COPD) 입원율 역시 각각 인구 10만명당 94.5명, 214.2명으로 OECD평균(천식 46.7명ㆍ만성폐색성폐질환 189.8명)보다 높았다.<br/>복지부는 “<span class='quot0'>이런 만성 질환 입원율이 높다는 것은 1차 의료 단계의 관리 소홀로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입원 병상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span>”고 밝혔다.<br/>우리 정부는 항생제 처방 줄이기를 정책 목표로 잡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로 분류된다. 2015년 외래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은 하루에 인구 1,000명당 24.3명으로 OECD 30개국 평균인 20.6명보다 높았고, 최하위권인 네덜란드(10.0명)나 스웨덴(12.3명)보다 2배 가량 많았다. 특히 ‘광범위 항생제’ 퀴놀론과 세팔로스포린의 사용량은 한국이 인구 1,000명당 8.6명으로 OECD에서 가장 많았다. 전체 항생제 중 광범위 항생제 사용 비중(35.4%) 역시 OECD 1위였다. 광범위 항생제는 항생제 중에서도 내성이 생길 위험성이 커서 다른 항생제를 사용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것이 권고되는 강력한 항생제인데 국내에선 남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br/>반면 각종 암 환자의 생존율은 비교적 높았다. 암 환자가 진단 후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을 의미하는 ‘5년 순 생존율’은 우리나라가 대장암과 유방암 각각 71.6%, 86.3%로 OECD평균(63.0%ㆍ85.0%)보다 높았다. 직장암은 순 생존율이 71.0%로 조사 대상인 OECD 31개국 중 1위였다. <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92.txt

제목: “위ㆍ대장암 조기 발견하면 90% 완치... 내시경 정기 검사 받아야”  
날짜: 20171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13050814002  
ID: 01101101.2017111305081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장암, 폐ㆍ간암 이어 사망률 3위<br/>환경 요인 많아 식습관 조절해야<br/><br/>40세 이상은 2년마다 위내시경 <br/>대장내시경은 50세 이상 5년마다<br/><br/>조기 발견 땐 개복 수술 없이도<br/>용종 미리 제거해 암 예방 가능<br/><br/> “대장암 사망률이 위암 사망률을 추월할 정도로 대장암이 최근 크게 늘고 있어요. 하지만 대장암이 많이 발견되는 50대 이상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받기를 꺼려 조기 발견이 적은 게 안타깝습니다.”<br/> 김용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59ㆍ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span class='quot0'>1983년 암 사망률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지난해 대장암 사망자가 인구 10만명 당 16.5명으로 늘어나 처음으로 위암을 제치고 폐암, 간암에 이어 암 사망률 3위로 올라섰다</span>”며 이같이 말했다.<br/> 췌장 및 담낭ㆍ담도질환 분야의 명의(名醫)인 김 이사장은 올 6월부터 내시경 검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소화기 탐구생활 캠페인’을 진행해 ‘내시경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br/><br/>-내시경 검사가 왜 중요한가.<br/>“위암와 대장암을 조기 발견해 완치할 수 있는 간편하고 경제적인 검사법이다. 내시경 검사를 하면 암을 일으키는 용종 단계에서 조기 발견해 제거해 암을 예방할 수도 있다. 위ㆍ대장내시경을 통해 위암이나 대장암을 조기 발견하면 개복할 필요 없는 내시경점막하박리술(ESD) 등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90% 이상 완치할 수 있다. 암이 주변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 퍼지지 않은 단계인 조기(1ㆍ2기)에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은 96%(2010∼2014년 기준 위암 95.9%, 대장암 95.6%)였다. 하지만 암이 다른 장기에 퍼졌을 때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은 위암 6.3%, 대장암 19.3%로 급격히 떨어진다.<br/> 정부는 2002년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을 시작해 위암 예방을 위해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지원(본인 부담 10%)하고 있다. 대장암 예방을 위한 국가암검진사업도 2004년 시작돼 45∼80세에서 1년이나 2년 간격으로 분변잠혈검사를 하며 이상이 있으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br/>이처럼 위암과 대장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부쳐 위암의 조기(1ㆍ2기) 발견율은 60.3%로 크게 나아졌다. 반면 대장암의 조기 발견율은 아직 38.1%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위암이나 대장암은 초기에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을 땐 상당히 악화된 경우가 많아 증상이 없어도 위ㆍ대장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다.”<br/><br/>-내시경 검사가 번거롭고 힘들다는 인식이 강한데.<br/>“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지난 9월 건강검진을 받은 30~59세 93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30∼50대 5명 가운데 1명(20.1%)은 위ㆍ대장내시경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암 걱정해야 할 연령대인 40∼50대는 8명 가운데 1명꼴(12.6%)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 특히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비율과 인식이 낮았다. 위내시경 검사는 78.5%나 받았지만, 대장내시경 검사는 40.4%에 불과했다. 특히 별 증상이 없어도 5년마다 한 번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고하는 50대가 49.2%나 받지 않았다.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로 33.7%가 ‘고통스러울까 봐’를 꼽았고, 28.3%는 ‘나이가 어려서’, 25.7%는 ‘바빠서’, 20.9%는 ‘비용이 부담돼’라고 답했다. <br/>사실 내시경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위나 장에선 거의 느낌이 없다. 가장 힘든 것은 목으로 넘어갈 때다. 보통 긴장한 상태에서 검진을 받기에 힘이 들어가 불편해진다. 이렇게 되면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힘들어진다. 최대한 긴장을 푼 상태에서 받아야 한다. 대장내시경 검사할 때는 검사 전에 할 일이 많아 번거롭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전에는 검사 전날 장세척제를 4L나 마셨지만 요즘엔 2L로 줄었다. 그것도 전날 저녁에 절반, 검사 당일 아침에 절반으로 나눠 마신다. 장세척제 맛도 많이 좋아져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br/>검사하다 장에 구멍이 생기거나(천공), 출혈, 장세척제 과민반응 및 쇼크, 심혈관계 부작용이 생길 위험도 검사를 꺼리는 이유다. 학회는 이에 내시경시설이나 의료진숙련도(용종 등 병변발견율)를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병원에 ‘우수 내시경실 인증’(소화기내시경학회 홈페이지)을 하고 있다. 덧붙여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먹는 진정제가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br/><br/>-내시경 검사를 더 자주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br/>“한 해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8만명이나 되는데 이 가운데 소화기암 사망자는 50%나 된다. 이에 따라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위내시경 검사를 4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 대장내시경 검사는 50세 이상이면 5년에 한 번 검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위암이나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등 고위험군이라면 해당 연령이 되기 전이라도 전문의와 상담하고 필요하면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좋다. 위암 위험이 큰 만성(위축성) 위염 환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보균자, 흡연 및 음주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대장암은 가족력이 있으면 발병 위험이 3배나 된다. 따라서 가족의 대장암 진단 연령보다 10년 앞당겨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작해야 한다. 예컨대 부모 중 한 명이 45세에 대장암에 걸렸다면 35세부터 검사를 받으면 된다.”<br/><br/>-대장암 사망자가 위암보다 많은데 예방법은.<br/> “유전(5%)보다 환경 요인(95%)이 대장암 발병에 더 영향을 미친다. 육류를 많이 먹는 서양식 식습관도 대장암의 주요 원인이다. 섬유질이 적은 곡류, 붉은색 고기, 고지방 식이 또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으면 좋다. 과음과 흡연도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 1주일에 소주 기준으로 7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60%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 활동을 늘려야 한다. 매주 3회 이상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도움된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1-93.txt

제목: '한서희와 논란' 하리수, 사과 후 글 삭제 "자궁적출 비하 아냐"  
날짜: 20171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13050806001  
ID: 01101101.20171113050806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하리수가 가수 지망생 한서희의 글에 반박하면서 생긴 오해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글을 삭제했다.<br/><br/>하리수는 13일 SNS에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를 올렸다. 그와 함께 하리수는 "(한서희 관련)기사가 뜬 걸 보고 많이 속상했다"며 "그 친구의 페미니스트 활동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다. 다만 어느 트렌스젠더와 개인적으로 나눈 이야기 캡처와 본인 인스타에 남긴 글에 성기에 대한 글들 주민번호와 자궁에 대한 글들을 보면서 꼭 이렇게 까지 했어야 했나 하고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설명했다.<br/><br/>하리수는 "제가 한 발언에 화가 나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갑자기 의도와 다르게 악플들을 받다 보니 너무 감정이 격해서 글을 잘못 썼다"며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둥 자궁적출에 관한 이야기 등 제 스스로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감이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며 죄송하다는 말 드린다"고 사과했다.<br/><br/>하리수는 "<span class='quot0'>암에 걸리거나 병으로 자궁을 적출한 얘기를 한 이유는 자궁이 없으면 여자가 아니라는 대화 내용이 있었기에 얘기를 했던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절대 암환자분이나 병 때문에 자궁적출하신 분들을 비하한게 아니다</span>"라고 정정했다.?<br/><br/>마지막으로 하리수는 "<span class='quot0'>다시 한번 여성인권에 앞장 서시고 힘 쓰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span>"며 글을 맺었다.<br/><br/>이날 앞서 한서희는 '트렌스젠더는 여성이 아니다'라는 맥락의 글을 올리며 논란이 됐다. 그는 "<span class='quot0'>(트렌스젠더가) 여성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퇴보가 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span>"며 "성은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br/><br/>이에 대해 하리수는 "저 주민번호 2 맞다. 또 병 때문에 혹은 암에 걸려 자궁적출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저 글에 따르면 그 분들도 다 여자가 아닌 거냐. 페미니스트도 뭐도 아니고 논쟁도 하고 싶지 않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는 하리수의 모든 SNS글은 삭제된 상황이다.?<br/><br/>한편 한서희는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정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 받았다.?<br/><br/><br/><br/>강희정 기자 hjk0706@hankookilbo.com<br/>[

언론사: 한국일보-1-94.txt

제목: [이 상품 어때요] 신한카드 딥 비즈 外  
날짜: 20171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13050733003  
ID: 01101101.20171113050733003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신한카드, 사업자 특화 ‘딥 비즈’<br/>신한카드가 4대 보험료 할인 등 사업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카드 딥 비즈(Deep Biz)’를 출시했다. 딥 드림(Deep Dream) 카드에 이은 딥 시리즈 두 번째 카드다. 전월 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자동이체시 보험료의 5%를 월 최대 1만5,000원까지 캐시백 해준다. 또 음식점, 커피, 편의점 등 생활 친화 가맹점에서 건당 2만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 잔돈을 할인해 주는 코인 세이브 서비스가 월 10회 제공된다. 전원 실적에 상관 없이 국내외 일시불, 할부 사용액의 0.3%는 캐시백 된다.<br/><br/>하나생명, 1인가구 맞춤형 ‘싱글벙글건강보험’ <br/>하나생명이 월 3만원으로 암, 상해, 생활까지 보장하는 온라인 전용상품인 ‘(무)싱글(Single)벙글건강보험’을 출시했다. 고객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암, 상해, 생활보장 중 2개 이상의 보장을 지정해 가입할 수 있다. 암 보장은 암 진단시 진단비와 암 사망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해는 재해로 머리, 얼굴, 목 등에 상해를 입게 되면 입원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 생활보장은 충수염, 중이염, 위궤양 등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입원ㆍ수술비와, 강력범죄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한다. 만 20세부터 49세까지 성별, 연령 구분 없이 월 3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br/><br/>NH농협은행, 서비스 강화 ‘올원뱅크 2.0’ <br/>NH농협은행이 작년에 출시한 금융 모바일 플랫폼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세대별 맞춤형 서비스를 더한 ‘올원뱅크 2.0’을 출시했다. 우선 다른 농협금융 계열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은행, 카드, 증권, 보험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NH금융통합 서비스’를 강화했다. 골드바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고,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외화를 선물할 수 있는 ‘외화선물 보내기’ 기능도 탑재됐다. 50ㆍ60대 고객을 위해 자산관리 서비스는 물론 귀농ㆍ귀촌 관련 콘텐츠를 제공한다. 젊은 고객을 겨냥해 영업점 방문 없이 자동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NH 간편오토론’ 서비스도 담겼다.

언론사: 한국일보-1-95.txt

제목: 하리수 "자숙 중인 한서희 책임감 알길, 논쟁하고 싶지 않다"  
날짜: 20171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13050728002  
ID: 01101101.20171113050728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하리수가 한서희의 SNS 글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의견을 밝혔다.<br/><br/>하리수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 할수있는 자유가 있다. 하지만 본인이 공인이라는 연예인 지망생이라면 본인의 발언이 미칠 말의 무게가 얼마가 큰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냥 이 사람의 인성도 저지른 행동도 참으로 안타까울뿐.."이라는 글을 남겼다.<br/><br/>이는 앞서 한서희가 자신의 SNS에 "저는 트렌드젠더는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게재했던 글 때문이다.<br/><br/>하리수의 글이 기사화되자 그는 다시 한 번 "제가 한서희양 관련 글 올렸더니 인성을 모르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혹은 맞는 말인데 뭘 그러느냐 등 트렌스젠더 인권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둥 말들이 있으신데요!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인성이 어떻다 느껴질만한 대화 내용이다"라는 글을 올렸다.<br/><br/>하리수는 "그리고 주민번호 2 맞아요! 또 병 때문에 혹은 암에 걸려 자궁적출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저 글에 따르면 그 분들도 다 여자가 아닌 거죠? 저 페미니스트도 뭐도 아니고 논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본인이 지금 안 좋은 일을 해서 자숙을 해야하는 기간 아니던가요? 그 와중에 연예인 지망생이면 앞으로 공인이라는 타이틀을 말하는 건데 본인 말한마디 한마디가 얼만큼 책임감이 따른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논쟁이 하고 싶다면 다른 곳으로 가세요"라고 밝혔다.<br/><br/><br/><br/>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br/>[

언론사: 한국일보-1-96.txt

제목: '밤도깨비' 타이거JK "父와 추억에 기른 머리…이제 자를 것"  
날짜: 20171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12050503001  
ID: 01101101.20171112050503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타이거JK가 긴 헤어스타일을 고수한 이유를 밝혔다.<br/><br/>12일 저녁 6시30분 방송된 JTBC '밤도깨비' 서울 특집에서 멤버들과 타이거JK는 서울 상암동 JTBC 앞마당에서 밤을 새웠다.<br/><br/>멤버들은 타이거JK에게 "머리 일부러 그러는 거냐"고 물었다. 타이거JK는 "아버지가 4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며 "암 판정 받으시고 모든 걸 혼자 할 수 없으니 제가 함께 했다. 이후 남은 게 머리뿐이었다"고 설명했다.<br/><br/>타이거JK는 "이것만은 안 자르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머리카락이 상징적인 거지 꼭 가지고 있을 필요 없지 않냐 생각해서 자르려고 한다. 오늘 '밤도깨비'에서 힐링을 해서 오늘 머리를 자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br/><br/><br/><br/>강희정 기자 hjk0706@hankookilbo.com<br/>[

언론사: 한국일보-1-97.txt

제목: 폐암 신약, 환자 약값 월 280만원→8만원으로 낮아진다  
날짜: 20171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10050852001  
ID: 01101101.2017111005085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폐암 신약인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에 오는 1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한 달 약값 부담이 한 달에 280여만원에서 7만5,000원 수준으로 확 낮아진다. <br/>보건복지부는 10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올리타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br/>올리타정은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치료제로 기존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더는 쓸 치료제가 없는 환자에게 쓴다. 폐암은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나뉘는데, 비소세포폐암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리타정은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7번째 국산 신약으로 허가 받았다.<br/>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폐암 환자의 본인 부담이 97%넘게 줄어든다. 건보 적용 이전에는 400㎎ 한 알 가격이 4만6,400원이었고, 복용량이 하루 2알이어서 한 달(60알) 환자 부담이 278만4,000원이나 됐다. 보건당국과 이번 약가 협상 이후 1알당 가격이 2만5,000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여기에 암 환자 본인 부담 비율(5%)을 적용하면 한 달 약 값은 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나머지 95%인 142만5,000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다.<br/>복지부는 “<span class='quot0'>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항암 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br/>한편 올리타정과 경쟁 약물로 한 달 약값이 1,000만원에 달했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 신약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역시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3차 약가 협상을 마치고 약값을 확정 지었다. 복지부는 11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타그리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98.txt

제목: 친구 위해 보증 선 20대 청년의 잘못된 선택  
날짜: 20171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10050734002  
ID: 01101101.20171110050734002  
카테고리: 지역>전남  
본문: 전남 여수 모텔 욕실서 숨진 채 발견 <br/>친구 어머니 치료비 6000만원 떠안아<br/> <br/><br/>어머니의 암투병으로 힘들어 하는 친구를 위해 빚보증을 섰다가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은 2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br/>10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전남 여수의 한 모텔 욕실에 쓰러져 있는 A(28)씨와 B(25ㆍ여)씨가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전날 오후 6시쯤 모텔에 들어온 이들은 다음날 오후가 되도록 나오지 않고 인터폰도 받지 않자 모텔 종업원이 이상하게 여겨 신고했다. <br/>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져 있었고, B씨는 머리와 옆구리에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욕실에는 불에 탄 번개탄 2장과 연탄 1장, 휴대용 가스버너가 놓여 있었다. 이들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 된 후 지난 7일 부산에서 처음 만나서 여수로 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r/>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br/>울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어머니의 암 투병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의 일을 자기 일처럼 걱정하며 위로했고, 치료비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으려는 친구를 위해 보증까지 섰다.<br/>하지만 친구 어머니는 투병 끝에 숨졌고, 희망을 잃은 친구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때문에 A씨는 친구의 죽음과 함께 6천만원이라는 큰 빚마저 떠안게 됐다. 모아놓은 돈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빚의 절반 가량을 갚았지만 아직 남은 수천만원의 빚이 A씨를 괴롭혔다. 결국 빚 때문에 고민하던 A씨는 직장을 그만 둔 채 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 된 B씨와 함께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됐다. <br/>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99.txt

제목: 알투베, 2년 연속 선수들이 뽑은 최고 선수  
날짜: 20171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09050925001  
ID: 01101101.20171109050925001  
카테고리: 스포츠>축구>한국프로축구  
본문: 호세 알투베(27ㆍ휴스턴 애스트로스)가 2년 연속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뽑은 최고 선수로 등극했다. MLB네트워크는 9일(한국시간) 선수들의 투표로 정한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즈 결과를 공개했다. 양대리그 최고 선수의 영예는 휴스턴 2루수 알투베가 차지했다. 키 168cm의 단신 내야수인 알투베는 0.346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타율 1위에 올랐다. 아메리칸리그에서 유일하게 200안타(204개) 고지를 밟기도 했다. 수비에서도 적극적으로 몸을 던지며 휴스턴 내야진을 이끌었다. 지난해 생애 첫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즈 최고 선수상을 받은 알투베는 2년 연속 이 자리를 지켰다. 알투베는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상도 받아, 이날 두 개의 트로피를 수확했다. <br/><br/>고정운, FC안양 감독 선임…"4강 PO 진출 목표"<br/>'적토마' 고정운(51)이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 리그) FC안양의 새 감독으로 선임됐다. 고 신임 감독은 9일 경기 안양시청에서 구단주인 이필운 안양시장으로부터 감독 임명장을 받고 4대 감독으로 취임했다. 안양은 "<span class='quot0'>내년 시즌 시민들의 염원인 K리그 챌린지 4강 플레이오프 진출과 보다 공격적인 경기를 위해 고 감독을 선택했다</span>"고 설명했다. 선수 시절 '적토마'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고 신임 감독은 1989년 일화천마 축구단을 시작으로 일본 J리그 세레소 오사카, 포항 스틸러스 등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1994년 미국월드컵 등을 비롯해 10여 년간 대표팀 공격수로 활약하며 A매치 77경기에서 10골을 넣었다. 2001년 K리그 올스타전을 끝으로 은퇴한 이후에는 2003년 선문대 감독을 시작으로 지도자 경력을 쌓아 전남 드래곤즈와 FC서울 코치 등을 거쳤다. 이후 SPOTV 축구 해설위원과 호원대 체육학과 교수도 겸임했다. 고 감독은 "늘 그라운드가 목말랐다"며 "<span class='quot1'>최소한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이 목표</span>"라고 포부를 밝혔다.<br/><br/>이탈리아 레전드 칸나바로, 중 광저우 헝다 감독 복귀<br/>2006년 독일월드컵 당시 이탈리아 우승 주역 파비오 칸나바로(44)가 중국 축구 슈퍼리그 광저우 헝다 사령탑으로 돌아왔다. 광저우는 9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브라질출신 루이즈 펠리페 스콜라티 전 감독의 후임으로 칸나바로를 선임, 2020년까지 지휘봉을 맡긴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광저우 감독을 맡았던 칸나바로는 7차례나 중국리그 정상에 오른 명문클럽에 2년 4개월여 만에 복귀한 셈이다. 그는 광저우를 떠난 뒤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스르클럽 감독에 올랐다가 지난해 중반 텐진 콴잔으로 옮겨 팀을 '차이나 리그 1'(2부리그) 우승으로 이끌어 슈퍼리그에 승격시킨 뒤 최근 사령탑에서 물러났다. 칸나바로는 이탈리아 1부리그(세리에 A) 인터밀란과 유벤튜스, 나폴리,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 수비수로 활약하다 2011년 현역에서 은퇴했다. <br/><br/>MLB 보스턴 포수 유망주, 17세에 암으로 사망<br/>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포수 유망주 대니얼 플로레스(17ㆍ베네수엘라)가 암 치료 도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보스턴 구단이 9일(한국시간) 발표했다. 플로레스는 지난 7월 보스턴과 계약금 310만 달러(한화 약 34억5,000만원)에 계약을 맺을 정도로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선수였다. 그는 MLB닷컴이 선정한 보스턴 유망주 순위에서 곧바로 5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라운드에서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한 채 숨을 거뒀다. 메이저리그는 로이 할러데이의 비행기 추락사에 이어 유망주의 갑작스러운 병사까지 겹치며 충격에 빠졌다. 데이브 돔브로스키 보스턴 야구 부문 사장은 "팀 전원이 그의 비보를 접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선수가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떠나서 너무 슬프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에디 로메로 보스턴 부단장은 플로레스가 구단의 모든 사람이 사랑한 선수였으며, 그를 "천부적인 리더"나 "잠재력이 무한한 선수"라 불렀다며 기렸다.

언론사: 한국일보-1-100.txt

제목: [기고] 아이와 함께 꽃길만 걸으세요  
날짜: 20171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09050810002  
ID: 01101101.20171109050810002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저귀와 분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첫마디부터 나의 안부를 물어주는 고마운 민원인과 나는 기분 좋게 통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민원인은 보름 전 자녀가 태어났고, 출생신고를 위해서 동사무소에 갔다가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궁금해서 우리 보건복지콜센터에 처음 전화한 초보아빠였다.<br/>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로 2015년 10월 시작됐다. 기저귀와 분유가 영아 양육 가정에 필수물품이기에 출산가정 부모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br/>“네,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제분유의 경우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법정 한부모(부자가정)로 모유 수유가 불가한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br/>“그렇군요. 저희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다 보니 아내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금 출산휴가이고, 저는 아직 공부하는 학생인데, 기저귀만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br/>초보아빠는 일찍 찾아와 준 아기천사 덕분에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다. 먼저 직장생활을 시작한 아내가 출산휴가에 들어가면서 줄게 될 소득이 걱정이 돼 기저귀 지원을 꼭 받고 싶다고 했다. 상담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료가 3인 가족 기준에 적합했고 출산 후 바로 전화를 준 덕분에 24개월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br/>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지원 금액을 알려주고 6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추가 상담으로 양육수당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청각선별검사 등 출산가정에 출산지원시책을 모두 안내했다. 초보아빠는 주변에 최근 출산한 사람이 없다 보니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고 인터넷으로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잘 알 수 없었는데 오늘 전화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다고 기뻐했다. 거듭 고맙다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이 이따금 민원전화를 받고 어려웠던 내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며 다시 한 번 힘을 내게 하는 상담이 되었다.<br/>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꽃길만 걷게 해줄게”가 있다. 일찍 부모가 된다는 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겠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준 그 가정에, 그리고 건강하고 예쁘게 찾아와 준 아기천사에게 앞으로도 꽃길만 걷는 행복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br/>민원인은 긴급의료지원이라는 희망을 보고 전화를 하였는데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지만, 다행히 다른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어 또 다른 희망이 생겼다고 하면서 몹시 기뻐했다. 비록 처음에는 민원인이 잡고 있던 희망의 끈을 놓아 버려야 했지만,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끈을 연결해 줬다는 생각에 나 또한 기분 좋은 순간이었다. 희망을 갖고 전화 주시는 민원인들이 나의 상담을 통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란다.<br/><br/>이윤정 129 보건복지콜센터 인구아동정책상담팀 상담사

언론사: 한국일보-1-101.txt

제목: 세종시의회 의석 확대 ‘청신호’…지역정가 술렁  
날짜: 20171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08051009002  
ID: 01101101.20171108051009002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2석만 고집하던 행안부 7석 확대 동의 의견<br/>신도심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 의식한 움직임 감지<br/>민주당은 후보 풍년 속 움직임 활발<br/>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후보 기근 분위기<br/><br/><br/> 행정안전부의 부정적 태도로 주춤하던 세종시의회 의석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행안부가 시와 시의회가 제시한 규모의 의석수 확대를 최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의석수의 대규모 확대가 기정사실화하면서 내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재편과 맞물린 움직임이 감지되는 지역 정가는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br/> 8일 세종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해찬 의원이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를 현재 15명에서 22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아 대표 발의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이달 초 국회에 냈다.<br/> 행안부는 애초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예산, 인구 등을 거론하며 2석만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최근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 이번에 동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br/> 행안부가 동의 의견을 내고, 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아직까진 눈에 띄게 부정적인 분위기는 보이지 않아 시의회의 의석 확대는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다는 게 관계 기관의 관측이다.<br/> 이에 따라 시의회는 선출직이 13명에서 19명으로 6석, 비례는 2석에서 3석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인구가 급증한 신도심을 중심으로 지역구가 늘어나는 반면, 읍면 지역은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 정가와 관가는 조치원에선 최소 1석, 면지역에선 2석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br/> 이런 전망이 갈수록 두터워지면서 지역 정가에선 지역구나 소속 변경, 불출마 등 벌써부터 지방선거를 의식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러 인사들이 거론되며 후보 풍년 분위기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후보 기근에 시달리는 모양새다.<br/> 가장 활발한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은 민주당 출마 예상자들이다. 시의회 정준이(비례) 의원은 이미 같은 당 소속 김원식 의원의 지역구(조치원읍 죽림ㆍ번암) 출마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복수나 다수 공천 신청의 경우 당윤리위에서 1차로 거른 뒤 2,3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두 의원의 경쟁이 불가피하다.<br/> 민주당 박영송(조치원읍 신흥ㆍ봉산) 의원의 거취도 지역의 관심사다. 박 의원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미 신도심으로 이사하면서 새롬동 지역구 출마가 사실상 굳어지는 모양새다.<br/> 같은 당 윤형권(어진동) 의원의 행보도 주목 받고 있다. 신도심 확대에 따라 한솔동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면 자신의 지역구나 보람동에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br/> 지역 정가엔 구도심에서 신도심 종촌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자유한국당 김복렬(비례) 의원을 두고 신도심 출마를 위한 행보라는 설도 돌고 있다. 비례대표다 보니 구도심인 조치원읍에 최소 1석이 줄어들면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아예 신도심을 택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br/> 김정봉(부강) 의원은 그 동안 주변에 비공식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여러 번 피력했지만 무소속에서 민주당으로 복당하면서 출마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굳이 복당이라는 변화를 택한 것은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br/> 민주당 이태환ㆍ서금택ㆍ안찬영 의원, 자유한국당 이경대ㆍ장승업ㆍ이충열 의원은 이변이 없는 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확실시 된다.<br/> 자유한국당 김선무, 바른정당 임상전 의원은 출마 여부를 아직 가늠하기 힘들다. 김 의원은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임 의원은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판세를 꼼꼼히 따져본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br/> 지역 정가 한 인사는 “<span class='quot0'>신도심 확대에 따른 지역 정치 지형 변화를 놓고 지역 정가는 물론, 관가, 시민단체 등의 이목이 벌써 쏠리고 있다</span>”고 말했다.<br/>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02.txt

제목: ㈜민트인리치,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 나눔 협약 체결  
날짜: 20171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08050915001  
ID: 01101101.20171108050915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지난 3일 (사)한국혈액암협회 부설 희망정보교육센터에서 이승재 민트인리치 대표 겸 연구소장과 장태평 한국혈액암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관리 지원 협약이 체결됐다. <br/>이는 항암치료 또는 장기이식을 시행한 환우들에게 거주공간에 대한 공간멸균 스테라피(감염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br/>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매월 환우들의 신청을 받아 공정한 방법에 의거, 1곳의 가정을 선정하여 ▶월 1회 무상으로 공간멸균 스테라피(감염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선정되지 않은 환우 가족에게 적극적인 공간멸균 스테라피(감염관리) 서비스 지원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br/>㈜민트인리치 이승재 대표 겸 연구소장은 “<span class='quot0'>이번 협약을 통해 혈액질환 및 암 환우들이 공간멸균 스테라피 서비스로 감염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란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한국일보-1-103.txt

제목: [삶과 문화] 알몸의 귀향  
날짜: 20171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08050908002  
ID: 01101101.2017110805090800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다기에 서둘러 텃밭의 무를 뽑았다. 무를 다듬어 바람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로 포장해 창고에 집어넣은 뒤 오후에는 무청을 엮어 뒤란 처마 밑에 가지런히 매달았다. 저물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돌담 옆의 감나무, 가죽나무의 붉게 물든 이파리들이 우수수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나도 그렇지만, 나무들도 겨우살이를 준비하는 몸짓이리라.<br/>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만추의 낙엽을 보며 삶의 종말을 뜻하는 상징으로 치부했다. 그걸 거울삼아 존재의 쇠락과 늙음만을 반추했지, 존재의 성숙을 읽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에는 겉모습은 늙어 가도 번뜩이는 지혜와 슬기로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갖춘 잘 여물어 가는 인생도 있다. 내면의 뜰을 알뜰살뜰 가꾼 이들이다. 풋풋하던 잎사귀가 진액을 잃고 떨어지면 곧 알몸이 드러나지만 누가 그 당당한 알몸을 깔볼 수 있겠는가. 깔보기는커녕 부끄러움에 절로 머리가 숙여질 뿐이다.<br/>어느 날 늘그막의 붓다가 아난다와 함께 숲을 지나가고 있었다. 마침 마른 잎들이 떨어지고 있었고, 길 위에는 낙엽이 쌓여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를 내며 뒹굴었다. 그때 아난다가 스승에게 물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스승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우리에게 숨기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br/>붓다가 대답했다. “아난다야, 네가 보다시피 나의 손은 이렇게 펼쳐져 있다. 깨달은 자는 주먹을 쥐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이 숲을 보아라. 숨기는 것이 없다. 나는 이 숲처럼 열려 있다. 깨달은 자는 주먹이 없는 법이다.” 그러고 나서 붓다는 낙엽 몇 잎을 집어 손안에 넣고 주먹을 쥔 다음 말했다. “지금 나의 주먹은 닫혀 있다. 너는 그 낙엽을 볼 수 없다.” 다시 붓다는 주먹 쥔 손을 활짝 폈다. 낙엽들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흩날렸다. 붓다가 말했다. “깨달은 자의 손은 주먹과 같지 않다. 그는 열려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드러내었다. 만일 무언가 감추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너 자신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br/>이처럼 잘 여문 인생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통나무처럼 소박 단순하기 때문이다. 알몸의 귀향을 항상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 알몸에 거짓의 옷을 두르지 않는다. 보화가 안에 그득하여 광채를 뿜는데 무엇 때문에 겉을 꾸미겠는가. 곱게 물든 아름다운 낙엽의 빛깔이 나무 내부의 작용에서 비롯된 것이듯, 아름답게 여문 인생은 그 내면을 잘 가꾸었기 때문에 따로 장식이 필요치 않다. 인도의 고산지대에서 척박한 삶을 꾸려 온 라다크인들의 다음과 같은 짧은 경구는 누구나 가슴에 새겨 두고 자주 곱씹어도 좋으리라. “<span class='quot0'>호랑이의 줄무늬는 바깥에 있고 인간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span>” <br/>죽음이 임박한 중에도 큰 선물을 안겨주고 떠나가신 스승 한 분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원주의 예수로 불렸던 무위당(無爲堂) 장일순 선생. 그분은 인간의 줄무늬가 안에 있음을 당신 몸으로 증언하신 분이다.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분이 입원하고 있는 암병동을 찾아갔을 때, 몸은 바짝 마르셨지만 맑은 눈빛은 여전하셨다. 인사를 올리자 그분은 내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다. “지금 괜한 짓들을 하는구먼! 암(癌)도 내 몸인데 잘 모시고 가야지.” 깊이 여물지 않은 인생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이다. <br/>바람결에 낙엽을 흩날리는 나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지극한 몸짓으로 알몸의 귀향을 준비하는 나무들과 살아생전 선생의 얼굴이 겹쳐졌다. 문득 내 안에 큰 천둥소리가 들렸다. 늙지만 말고 잘 여물어 가시게! 나는 오늘의 큰 스승인 나무들에게 경배를 바치고 싶어졌다. 공손히 두 손을 모았다.<br/>고진하 목사ㆍ시인

언론사: 한국일보-1-104.txt

제목: 심근경색엔 혀 밑에 뿌리는 니트로글리세린이 즉효  
날짜: 20171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06051220002  
ID: 01101101.20171106051220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가슴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 오면<br/>움직이지 말고 119 불러 병원 가야<br/>하루 30분 유산소 운동이 예방법<br/><br/>대퇴동맥 중재술, 출혈 위험 높고<br/>입원 기간 길며 시술비 부담도 커<br/>요골동맥 중재술이 사망률 낮아<br/><br/> 심장은 잠시도 쉬지 않고 수축과 이완을 되풀이하면서 혈액을 내뿜어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려면 심장 자체도 혈액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왕관모양(冠狀)으로 심장을 감싸고 있는 3개의 혈관(관상동맥)이 혈액을 공급한다. 그런데 관상동맥이 경화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협심증이 생기고, 여기에 혈전(피떡)이 붙어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으로 악화돼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 심근경색은 재빨리 응급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된다.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면 병원에 오기 전에 20~30% 정도 사망하고,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10%나 목숨을 잃는다.<br/> 급성심근경색 치료에는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ㆍ이하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CABG)’를 받아야 한다. 최근 가슴을 여는 수술인 CABG보다 대퇴ㆍ요골동맥에 카테터(가는 관)를 넣어 스텐트(그물망)를 관상동맥에 장착하는 시술인 관상동맥중재술이 21배나 많이 시행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 기준). 관상동맥중재술도 이전에는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동맥에 카테터를 넣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엔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에 카테터를 넣는 방식이 더 많아졌다.<br/>손목에 있는 요골동맥을 통해 관상동맥중재술(이하 요골동맥 중재술)을 국내 첫 도입한 한규록(56)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심장혈관센터 심장혈관내과 교수를 만났다. 한 교수는 1998년 2월부터 요골동맥 중재술을 시행한 이래 시술 1만 건을 넘긴 ‘관상동맥중재술 달인’이다.<br/><br/>-급성심근경색 증상은.<br/> “가슴을 짓누르거나 쥐어짜는 듯한 아주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다고 얘기하거나 따갑다고 느끼는 환자도 있다. 식은 땀, 메스꺼움 등도 함께 생긴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가슴통증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통증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극심하다. 일부 환자에서는 식도역류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나 오인하기도 한다. 심장의 아랫부분(하벽)에서 심근경색이 생기면 배탈, 급체, 소화불량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br/>심근경색이라면 가능하면 움직이지 말고, 혀 밑에 넣거나 뿌리는 니트로글리세린이 있으면 즉시 사용한다. 신속히 119로 전화해 병원으로 간다. 발병 30분 이내 병원에 가야 심장의 괴사를 줄일 수 있으므로 늦어도 가능한 한 30분 이내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br/><br/>-손목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중재술이 좋은 이유는.<br/> “심장을 감싸고 있는 관상동맥의 이상을 알아내기 위해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다. 콜레스테롤과 같은 이물질 등으로 좁아진 정도를 진단하기 위한 방법이다. 대퇴동맥이나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에 가느다란 관(카테터)을 넣은 뒤 조영제를 주입해 이상 여부를 살핀다.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좁아진 혈관을 풍선이나 스텐트(그물망)로 넓히는 시술을 시행한다(관상동맥중재술). <br/> 관상동맥중재술 시행 시 이전에는 대부분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동맥을 이용했다. 대퇴동맥의 지름이 크고 혈관벽이 두꺼워 시술하기 쉽기 때문이다. <br/>하지만 대퇴동맥을 이용해 중재술을 시행하면 심각한 출혈의 위험이 높다. 혈관이 큰데다 깊은 곳에 위치해 지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술 후 8시간 정도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올리고 누워 있어야 한다. 중재시술 후에 출혈이 심각해지면 사망률이 높아진다.<br/> 반면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면 주요 장기나 신경을 건드릴 위험이 아주 적다. 예상치 못한 출혈이 생겨도 손가락만으로 지혈을 할 수 있으므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낮고, 사망률도 낮아진다. <br/>요골동맥을 이용하면 대퇴동맥보다 입원기간도 훨씬 줄일 수 있다. 시술비도 두 경우에서 차이가 난다. 대퇴동맥 중재술은 출혈 가능성이 높아 환자 안전을 위해 지혈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혈기구는 대부분 비급여라 중재 시술비만큼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기도 한다.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급하게 혈관을 뚫어야 하기에 혈관이 넓은 대퇴동맥을 이용하는 병원이 아직도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요골동맥을 이용한 시술이 사망률을 줄이므로 급성심근경색증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br/>대한심장학회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지난 2014년 92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4만4,967건을 분석한 결과, 요골동맥 중재술(56.1%)이 대퇴동맥 중재술(45.4%)보다 많았다. 과다출혈로 인한 수혈 여부는 요골동맥 1.4%, 대퇴동맥 2.8%였고 1년 사망률도 요골동맥 2.8%, 대퇴동맥 3.9%로 낮았다.”<br/><br/>-건강한 심장을 지키려면.<br/> “우선 금연해야 한다. 흡연은 동맥경화증과 암의 주 위험요인이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하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 피를 엉키게 한다. 피가 엉키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게 돼 심장질환을 일으킨다. 짜고 맵고 단 음식을 자제하는 게 좋다. 소금이나 설탕, 지방, 알코올 같이 열량이 높은 음식은 심장질환을 일으킨다. 이밖에 고기 섭취량은 하루 반근 이하, 버터나 치즈, 초콜릿도 좋지 않다. 국에는 나트륨이 많아 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게 좋다. 심혈관 질환은 무증상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회복이 어려운 장기 손상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정기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고 치료해야 한다. <br/> 최근 식생활 변화로 고열량 음식 섭취가 크게 늘었다. 반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었는데, 이렇게 운동하지 않고 고열량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관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액이 지나가는 길을 막는다. 따라서 하루 20~30분씩 조깅 줄넘기 수영 등산 등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술은 되도록 줄여 하루 맥주 1잔, 소주 1잔, 와인 1잔 정도를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이 늘고 혈액순환도 좋아진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1-105.txt

제목: “안면홍조 등 폐경기 증후군, 적극적인 호르몬 치료가 정답”  
날짜: 20171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06051158001  
ID: 01101101.20171106051158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11월 ‘폐경의 달’…건강식품으로는 예방ㆍ치료에 도움 안돼<br/>11월은 폐경의 달이다. 얼굴이 붉어지고 후끈거리고, 목, 상체가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느껴진다(안면홍조). 자다가 식은 땀을 흘리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하는 일도 없는데 피로하고, 별 거 아닌 일에도 남편과 아이들에게 갑자기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진다 등등.<br/>폐경이 다가오거나 폐경이 될 때 여성들이 많이 겪는 ‘폐경기 증후군’ 증상이다.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심장병, 골다공증, 치매, 요실금 등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진다.<br/>우리나라 여성은 평균 49.7세에 생리가 끝나는 것으로 조사돼 ‘100세 시대’에 인생의 절반을 폐경 상태로 지내게 된다. 빠른 고령화로 2030년에는 폐경 여성은 전체 여성의 43%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폐경 여성의 70% 정도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 호르몬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탓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결과, 적극적인 호르몬 치료가 폐경으로 인한 질환 예방을 위해 좋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br/><br/>“<span class='quot0'>폐경 여성 70%가 치료하지 않아</span>”<br/>대한폐경학회가 전국 45~65세 여성 2,330명에게 폐경 증상과 호르몬 치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 여성이 안면홍조, 야간 발한 등 폐경 증상을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70%는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지 않았다. 또한 폐경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폐경 여성이 가장 많이 선택한 치료법은 식이요법과 운동(36.5%)으로, 호르몬 치료(19.7%)와 건강기능식품 섭취(11.4%)를 앞섰다.<br/>그러나 실제 식이요법과 운동을 한 여성 가운데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었다고 답한 비율은 59.8%이었다. 반면, 병원 내원 및 상담 후 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아 개선 효과를 봤다고 답한 비율은 76.0%나 됐다. 즉, 폐경 증상 개선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식이요법 및 운동을 한 여성군보다 호르몬요법군이 16%포인트 더 높았다. 호르몬 치료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질(膣) 출혈, 몸무게 증가, 유방통과 같은 부작용과 암 발생 두려움(88%) 때문이었다.<br/>신정호 대한폐경학회 홍보이사(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많은 여성이 폐경이 돼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데 이는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유방암에 걸린다’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펴져 있기 때문</span>”이라고 했다. 신 이사는 “<span class='quot2'>한국 여성에게 유방암은 폐경 이전인 40대에 많이 발병하는데, 이 시기는 호르몬 치료와 관계없다</span>”며 “<span class='quot2'>반면 서구 여성들은 호르몬 치료를 받은 60대에 유방암을 가장 많이 걸리기에 우리 현실과 전혀 다르다</span>”고 했다. <br/>호르몬 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2002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을 병합한 여성호르몬 치료법이 유방암과 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미국 40개 기관에서 시행한 WHI(Women's Health Initiative) 연구결과로 호르몬 치료에 부정적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br/><br/>“<span class='quot6'>호르몬 치료가 가장 효과적</span>”<br/>폐경 증상 치료에 부족한 여성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일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안면홍조 같은 폐경 초기 증상에는 효과 있을지 모르지만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심장병, 골다공증, 치매, 요실금 등 각종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부작용도 우려된다.<br/>서석교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3'>폐경증후군에 효과 있다는 성분은 많지만 석류나 검은콩처럼 유행으로 지나간 경우가 많았다</span>”며 “<span class='quot3'>효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일반의약품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span>”고 했다. <br/>이윤재 자생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연구원장은 “한방에서 여성 폐경기 증상 완화를 위해 백수오를 처방하지 않는다”며 “최근 연구결과도 백수오에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물질이 발견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span class='quot4'>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이 백수오를 잘못 먹으면 맥이 빨리 뛰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span>”고 했다.<br/>대한폐경학회도 폐경에 호르몬 보충요법을 권장하는 지침을 내놨다. 호르몬 치료는 에스트로겐 단독요법, 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론 병용요법 등 다양한 방법이 쓰여져 왔다. 최근 기존 치료제 부작용을 줄인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SERM)’도 새로운 치료옵션이 되고 있다.<br/>학회는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고 폐경과 관련된 안면홍조 등 혈관운동증상, 비뇨생식계 위축증상, 폐경 후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호르몬요법을 쓸 수 있다”고 했다. 학회는 또한 “비뇨생식기 위축과 성기능 장애도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상피세포가 위축돼 나타나는 증상인 만큼 호르몬 요법이 필요하다”고 했다.<br/>논란거리였던 호르몬 요법과 유방암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의학협회지(JAMA)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호르몬제를 사용한 WHI 연구 대상자 가운데 50~80세 그룹을 18년간 추적한 결과 에스트로겐 단독 복용군에서 유방암 발생이 오히려 45% 줄었다. 전체 사망률, 암 사망률, 심혈관질환 사망률도 늘지 않았다. <br/>윤병구 대한폐경학회 회장(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span class='quot5'>60세 이하 여성이나 폐경 후 10년 이내라면 호르몬 치료가 득이 실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호르몬 치료하면 유방암 걸린다’는 오해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꺼리는 여성이 여전히 많다</span>”고 아쉬워했다. 윤 회장은 “올바른 폐경 치료법으로 <span class='quot6'>호르몬 치료가 가장 효과적</span>”이라며 “<span class='quot6'>건강기능식품은 폐경 예방과 치료에 별 도움 되지 않는다</span>”고 덧붙였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br/><br/><폐경기 호르몬 치료의 장점><br/>1. 뇌: 우울감 개선, 알츠하이머병 예방<br/>2. 유방: 유방암 감소(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일 때만)<br/>3. 심장: (59세 이전에만) 심혈관계 질환 위험 감소. (60세 이후에는 심혈관계 위험도가 증가하므로 주의)<br/>4. 뼈: 골다공증 예방<br/>5. 복부지방 감소<br/>6. 관절통 감소

언론사: 한국일보-1-106.txt

제목: 유상무 "김연지, 모든걸 포기하고 내옆에 있어준 사람"(전문)  
날짜: 20171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06050956002  
ID: 01101101.20171106050956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개그맨 유상무가 연인이자 작곡가인 김연지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드러냈다. <br/><br/>유상무는 6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날 만나서 늘 힘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사람. 아픈 건 난데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 무섭고 두려울 텐데 내색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글을 게재했다.<br/><br/>이어 “미안해. 미안해. 부디 나로 인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부디 나로 인해 네가 조금은 웃을 수 있기를. 부디”라고 덧붙였다.<br/><br/>함께 게재된 짧은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손을 애틋하게 마주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br/><br/>한편 유상무는 현재 암 투병 중이며, 6일 김연지와의 열애를 공식 인정했다.<br/><br/>이하 유상무가 공개한 글의 전문이다.<br/><br/>모든걸 포기하고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br/><br/>날 만나서 늘 힘든 시간만 보내고 있는...사람.<br/><br/>아픈건 난데..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br/><br/>무섭고 두려울텐데. 내색한번 하지 않는 사람.<br/><br/>미안해. 미안해..<br/><br/>부디 나로인해 더이상 상처받지 않기를..<br/><br/>부디 나로인해 너가 조금은 웃을 수 있기를..<br/><br/>부디...<br/><br/><br/><br/>차유진 기자 chayj@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07.txt

제목: 석면 해체 생활관서 닷새나 머문 의경들  
날짜: 20171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05050459002  
ID: 01101101.20171105050459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의정부경찰서 숙소 이전 안해<br/>군인권센터 “70여명이나 노출”<br/><br/> 경기 의정부경찰서가 공사 현장을 방치해 소속 의무경찰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서가 의경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예정이다.<br/> 5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올 5월 31일부터 약 3개월 동안 경찰서 건물 내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생활관 공사를 하는 닷새 동안 석면이 노출된 현장을 그대로 방치했다. 이로 인해 의경 70여명이 석면을 뜯어내기 위해 천장이 해체된 생활관에서 취침하는 등 전과 다름 없이 생활했다. <br/>센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주간에는 현장을 밀폐한 상태에서 공사가 이뤄졌으나 하루 공사를 마친 뒤에는 공사 현장이 모두 노출됐다고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의경들은 숙소 이전이나 간이숙소 배정 등의 조치 없이 공사 현장에서 계속 생활해야 했다</span>”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span class='quot1'>공사 관계자들은 마스크는 물론 신체 전체를 감싸는 작업복을 착용했지만 의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지금이라도 의경을 포함해 공사 당시 모든 근무자를 상대로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span>”고 덧붙였다. 석면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소량이라도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호흡기 질환은 물론 각종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br/> 이에 대해 의정부경찰서는 공사 기간 의경들이 생활관에서 지낸 점은 인정하면서도 “<span class='quot2'>다른 곳에 임시숙소를 마련했으나 해당 생활관에 대해 공사업체로부터 석면 기준치 이하 판정을 받은 이후에 생활관에서 취침하는 의경들이 일부 있었던 것</span>”이라고 해명했다.<br/>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08.txt

제목: [세계의 분쟁지역] 라카인족 “로힝야족이 성폭행” 혐오 확산  
날짜: 20171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03050914001  
ID: 01101101.20171103050914001  
카테고리: 국제>아시아  
본문: 미얀마ㆍ방글라 거주 불교계 종족<br/>소수민족 일괄휴전 서명하고도<br/>꾸준히 폭력사태 개입 의혹<br/><br/><br/>지난달 26일 방글라데시 대테러 특수부대인 ‘신속행동부대’는 다카 공항에서 미얀마로 출국하려던 우 칫 마웅(67)을 긴급 체포했다. 현재 테러리즘 혐의로 구금 중인 칫 마웅은 ‘라카인 개발재단’이라는 자선단체를 운영해 온 방글라데시 태생 라카인족이다. 라카인족은 로힝야 인종학살이 발생한 미얀마 북서부 라카인주(또는 아라칸주)의 주류 종족으로, 방글라데시 치타공 일대에도 20여만명이 살고 있다. 이들 라카인 대부분은 불교 신자들이다.<br/>방글라데시 당국에 따르면, 칫 마웅과 그의 아내 소우 므라 라자 린(58)은 정보를 수집해 미얀마 당국에 제공해 왔다. 미얀마 라카인족 출신인 므라 라자는 라카인족 반군무장단체인 ‘아라칸 해방당(ALP)’의 간부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칫 마웅의 노트북에서 므라 라자가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발견됐고, 남편의 자선단체(라카인 개발재단)가 아내의 무장단체(ALP)를 지원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br/>므라 라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미얀마에 체류 중인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을 든 그 사진은 30년 전에 찍은 것이다. 나는 지금 ALP에서 오로지 평화협상을 담당하면서 라카인 여성단체 일에만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편은 무장단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인종이나 종교에 대한 차별 없이 자선활동을 해 왔다는 것이다.<br/>이 같은 항변에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우선 그가 소속된 ALP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ALP는 2012년 4월 라카인 주정부와 휴전협정을 맺었다. 2015년 10월에는 미얀마 중앙정부가 20개 이상의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일괄휴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국 휴전’(NCA)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ALP는 2012년 6월 발생한 폭력사태를 비롯, 그 이후에도 로힝야족을 겨냥한 폭력 사태에 계속해서 개입한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 왔다. 현지 주민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은 꽤 구체적이다.<br/>ALP 조직원들은 ‘로힝야족 혐오’를 거침없이 표현해 왔다. 예컨대 므라 라자 본인도 2007년 4월 4일 BBC 버마어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벵갈리(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계 불법 이민자로 낮춰 부르는 말)들이 아라칸주로 (불법)이주해 수많은 라카인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바로 이 ‘성폭행 레토릭’은 구체적 사례 없이도 반복 재생산되면서 ‘로힝야 혐오 스피치’의 중심 콘텐츠가 됐다. 므라 라자는 그러나 이 인터뷰를 기억하지 못했다. 인종학살 과정에서 벌어진 라카인족의 로힝야 가옥 방화에 대해서도 그는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계속된 로힝야 가옥 방화, 살상 위협 현장에 라카인족들이 ‘가해자’로 등장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br/>지난해 12월 초에는 동부 카렌주에서 ALP 대원 3명이 서북부 라카인주로 AK-47 소총 19정과 탄약, 현금 6백만 �(한화 약 490만원)을 소지하고 이동하다 검문에 걸린 적이 있었다. 당시 ALP 협동사무처장인 카잉 아웅 소 탄은 미얀마 언론 ‘이라와디’와의 인터뷰에서 “칼라(‘검둥이’에 해당하는 인종주의적 표현으로, 로힝야족을 가리키는 말) 쪽에는 무기가 많다. 그래서 우리도 (로힝야족 주거주지인) 마웅도ㆍ부띠동 지역 ALP 진영에 무기를 공급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정부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우리의 최대 현안은 (로힝야족) 무슬림</span>”이라고도 덧붙였다. <br/>로힝야족에 대한 ALP 간부들의 적대감은 2013년 북부 카친주 반군 영토에서 만난 당시 사무총장 까잉 투 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span class='quot0'>벵갈리들이 지하드를 치르겠다고 라카인주로 계속 이주하고 있다</span>”면서 경계심과 혐오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그 무렵 94세 무슬림 여성이 라카인족 불교도에 의해 피살된 사건은 완강히 부인했다. 그 이후 까잉 뚜 까는 다른 라카인족 무장단체인 ‘아라칸 군(AA)’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 조직은 지난 8월 인도-미얀마 국경 근처에서 충돌하긴 했으나, 이런 경쟁관계가 로힝야 문제로까지 이어지진 않는다. 로힝야 혐오가 보편화한 라카인족 사회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AA의 최고 사령관인 트완 므랏 나잉 소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br/>“<span class='quot1'>벵갈리(로힝야족) 인구가 고작 5% 안팎이라고들 하지만, 5%든 1%든 자그마한 암덩어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치명적인 것과 같은 논리다.</span>”<br/>이유경 국제분쟁전문 저널리스트

언론사: 한국일보-1-109.txt

제목: [TV엔딩]‘병원선’,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던 '하지원의 고난'  
날짜: 20171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03050632001  
ID: 01101101.20171103050632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고난의 ‘병원선’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지만 시청자들에게 ‘병원선’은 아름다운 드라마로 기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br/><br/>지난 2일 밤 방송한 MBC 수목드라마 ‘병원선’ 마지막 회에서는 송은재(하지원 분)가 암인 골육종으로 고군분투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br/><br/>이날 송은재는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 있었고 앞만 보고 달렸다. 골육종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는 직접 수술대에 앉아 본인의 다리에 마취주사를 놓고 조직을 채취했다. 남에게 상처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송은재의 고집이 담긴 부분이었다. 이는 그가 과거 환자의 팔을 도끼로 내리치고 나서 봉합 수술을 했던 것만큼 잔인한 장면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자극적이었다.<br/><br/>앞서 ‘병원선’에서는 많은 시련이 있었다. 송은재가 잘 나가던 외과의사에서 ‘병원선’에 오게 된 것을 시작으로 거제제일병원 응급실에서마저 의사가운을 벗게 된 것까지, 송은재는 시련의 아이콘이었다. <br/><br/>내과의사 곽현(강민혁 분) 역시 조산한 산모를 무사히 보살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처리 미숙한 내과 의사’가 돼야 했다. 이로써 병원선은 운행 중지까지 당했고 공보의들과 간호사들은 많은 고생을 했다. 많은 시련 끝에 송은재의 진심이 밝혀지고 공보의들의 성장기가 그려졌지만, 마지막 날까지 시련이 닥쳐오면서 시청자들의 피로도를 높였다. <br/><br/>특히 마지막 회인 한 회 차만에 송은재의 암이 밝혀지고, 1년 만에 바로 낫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송은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한 무리수로밖에 볼 수 없는 요소다. 송은재는 이날 자신의 병을 알고 나서 “<span class='quot0'>죽지 않더라도 불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더라</span>”라고 말했으나 1년 후의 송은재는 예전처럼 병원선에 의사로 컴백했다. <br/><br/>물론 그동안 곽현이 송은재에게 차가운 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응원했고, 송은재 역시 ”의지하는 걸 부끄럽게 여긴 날이 있었다. 이제 난 휘청일 때마다 그가 날 잡아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번 길을 잃을 것이다. 그때, 부디 옆을 보아주시길“이라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는 모습을 보여주며 메시지를 전하기는 했다. 훈훈하게 마무리는 지었지만 그 과정은 의문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 <br/><br/>다만 그동안 ‘병원선’은 수목드라마 1위를 지켜냈다. 초반 최고 시청률 13%까지 올라가던 ‘병원선’은 막바지에 평균 7~8%를 기록하며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에 1위를 내어주기도 했으나 다시 1위를 되찾았다. <br/><br/>그 이유는 작품 자체보다는 주인공 하지원의 힘이었다. ‘하지원의 드라마’로도 불리던 ‘병원선’에서 그는 연기 인생 첫 의사 역할을 도전해 차가우면서도 “<span class='quot0'>목숨보다 감동적인 것은 없다</span>”라는 신념을 가진 외과의사를 제대로 소화했다. 그는 자존감 있는 모습과 엄마의 죽음에 슬퍼하는 모습, 사랑에 서툰 모습 등 다채로운 모습으로 극 전반을 이끌었다. <br/><br/>한편 ‘병원선’ 후속으로는 유승호, 채수빈, 엄기준, 강기영, 황승언 등이 출연하는 ‘로봇이 아니야’가 방송된다. 방송 날짜는 미정이다. <br/><br/><br/><br/>이주희 기자 leejh@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10.txt

제목: "암도 이긴 사랑"...하지원X강민혁 ‘병원선’ 해피엔딩(종합)  
날짜: 20171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02051005002  
ID: 01101101.20171102051005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병원선’ 강민혁의 사랑이 하지원의 암을 이겼다. <br/><br/>2일 밤 10시 방송한 MBC 수목드라마 ‘병원선’에서는 송은재(하지원 분)가 암의 한 종류인 골육종을 판정받는 모습이 그려졌다.<br/><br/>이날 송은재는 다리 고통을 호소하면서 사무장(김광규 분)에게 엑스레이를 받은 후 골육종임을 의심했다. 그는 동료에게 자신의 자료를 임상실험 대상자의 것인냥 가져가 진짜 골육종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검사 결과 골육종이었으며, 폐까지 전이됐으면 생존율은 절반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br/><br/>송은재는 암 치료를 위해 거제를 떠났다. 암인줄 몰랐던 곽현(강민혁 분)의 송은재가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안 되자 걱정했다. 곽현은 우연히 사무장의 컴퓨터를 확인하던 도중 송은재의 의료기록을 보고 그의 병을 알게 됐다. <br/><br/>송은재가 있는 병원을 알아낸 곽현은 곧바로 그를 찾아갔다. ‘면회사절’에 또 자신을 가두고 있는 송은재를 보면서 곽현은 안타까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잠에서 깨어난 송은재는 “못 본 걸로 해 달라. 이만 가 달라”고 소리쳤고, 곽현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며 서운해 하다가 상태가 급히 안 좋아진 송은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 곽현은 “원하는 대로 해줄테니까 거기서 나오기만 해라. 차가운 데서 그러지 말고”라고 이야기 했다.<br/><br/>이윽고 송은재가 문을 열었고, 곽현은 “고맙다. 잘 했다”라며 한 영상을 보여줬다. 그가 들고 온 영상에는 그동안 송은재가 치료했던 환자들의 진심어린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송은재에게 “돌아 와라.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곽현은 “돌아가서 같이 싸우자. 당신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 없으면 내가 안 되겠어. 당신 옆이 내 자리다. 여기서 밀어내지 말라. <br/><br/>결국 송은재는 의사로 병원선에 돌아왔다. 송은재는 “혼자라도 좋다고 생각한 시간이 있었다. 기대고 의지하는 걸 부끄럽게 여긴 날도 있었다. 이제 난 휘청일 때마다 그가 날 잡아주는 걸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번 길을 잃을 것이다. 그때, 부디 옆을 보아주시길. 흔들리는 당신을 꿋꿋이 지탱해줄 그가 있을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수 있다. 사랑의 힘을 믿고. 고작 사랑이지만 그래도 사랑이니까”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곽현의 어깨에 기댔다. <br/><br/><br/><br/>이주희 기자 leejh@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11.txt

제목: 암보험은 만능?…무조건 입원비 못 받아요  
날짜: 20171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02050808002  
ID: 01101101.20171102050808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보험료는 처음 그대로 쭉! 만기 없는 평생보장 암보험.’<br/>보험사들이 내건 암보험 광고는 하나같이 비슷하다. 한번 가입하면 평생 보장하겠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암보험 약관에 적힌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br/>2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암보험은 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암에 걸렸다고 해서 보험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암 진단비는 약관상 암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 현미경 소견’이 뒤따를 때만 암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다. 가령 건강검진 도중 위내시경에서 종양이 발견돼 절제하면 ‘C코드(악성신생물·암)’가 진단서에 기재된다. 보험가입자는 암 진단을 받았다고 판단해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사는 약관에 따른 방법으로 진단이 확정된 게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br/>암 입원비 역시 마찬가지다.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처럼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면 지급받지 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 치료 후 수술 부위의 통증 완화나 합병증 치룔 이유로 입원하면 입원비를 못 받는다는 법원 판례가 많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12.txt

제목: 유방암 신약 입랜스 건보 적용 부담금 500만원→15만원으로  
날짜: 2017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101051004002  
ID: 01101101.2017110105100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한 달 약값만 400만~5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유방암 신약 ‘입랜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금이 약 15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노인 환자는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외래 진료비가 1만5,000~2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 부담이 경감된다. <br/>보건복지부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방안을 의결했다. <br/>6일부터 한국화이자의 유방암 환자 표적 치료제 입랜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방암 환자들은 한 알에 21만~24만원, 한 달 21일(하루 한 알씩) 먹어야 하는 약값을 오롯이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보건당국은 화이자와 약가 협상으로 한 알당 가격을 14만1,280만원으로 낮춘 뒤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암 환자는 본인부담 비율이 5%이기 때문에 24만원 약을 한 달에 21일 복용한 환자는 본인 부담이 기존 504만원에서 14만8,344원으로 97% 이상 줄어들게 된다. <br/>노인외래정액제도 내년부터 개편된다. 65세 이상 환자가 동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내년 1월부터는 진료비 1만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대로 1,500원만 내고,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구간은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고,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구간은 20%로 인하한다. 2만5,000원 초과는 지금과 같이 30%다. <br/>약국은 지금까지 1만원 이하는 본인부담금을 1,200원 정액으로 받고 1만원 초과는 30%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 구간은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춘다. <br/>복지부는 “<span class='quot0'>중장기적으로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만성 경증 질환, 스케일링 등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출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br/>한편 복지부는 폐암 신약인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은 제약사와 협의를 통해 다음 번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기로 했다.<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13.txt

제목: 너무 마르거나, 과음하거나, 육식 좋아하는 여성… 폐암 발병 위험도 높아져  
날짜: 201710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30051113001  
ID: 01101101.20171030051113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대한폐암학회, 비흡연 여성 600만명 12년간 추적조사 결과<br/> 여성 가운데 너무 마르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육식을 즐기거나, 제대로 운동하지 않고, 다른 암에 걸린 적이 있으면 폐암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br/>대한폐암학회 연구위원회가 2003년∼2004년 일반건강검진을 수행한 비흡연 여성 600만명을 12년 간 추적 조사한 결과, 4만5,000명 정도가 폐암에 걸렸다. <br/>비흡연 여성이 폐암에 걸리는 주 위험인자로 고연령, 음주(주 2~3회 이상), 운동(주 3~4회 미만), 육식 위주 식습관, 기존 암 진단자, 낮은 체질량지수(BMI) 등이 꼽혔다.<br/>연령, BMI, 기존암 여부, 생활습관 등을 보정한 결과, 주 2∼3회 미만 음주자보다 주 2∼3회 이상 음주자의 폐암 발생 위험도가 24.7% 높아졌고, 운동을 주 3∼4회 미만 군이 3∼4회 이상 군보다 위험도가 2.6% 높았다.<br/>폐암학회 연구위원장 김승준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채식 위주 식생활군보다 육식 위주 식생활군에서 폐암 위험도가 6.7% 정도 높았고, 기존암 진단 여부는 암 진단을 받지 않은 군보다 폐암이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span>”고 했다. 김 교수는 또 “<span class='quot1'>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저체중군에서 폐암 발병 위험이 높았다</span>”고 덧붙였다.<br/>이계영 대한폐암학회 이사장은 "폐암 조기 검진율이 현재 15% 정도에 불과한데,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폐암 조기 진단이 가능하므로 이번에 조사한 폐암 위험인자가 있는 여성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고 했다.<br/>폐암연구위원회는 또한 전국 10개 대학병원에서 비흡연 여성 폐암환자 226명을 대상으로 70개 항목에 걸쳐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항목에는 육체ㆍ정신적 스트레스 정도, 간접 흡연, 평소 운동량 등 일반적인 건강을 측정하는 것 외에 주방환경, 취사연료, 요리 종류, 머리 퍼마와 염색 등 여성에게 익숙한 생활패턴도 포함됐다.<br/>비흡연 여성 폐암환자에서 육체ㆍ심리적으로 피곤하다고 느끼는 날이 많았으며, 운동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들은 대부분 집에서 직접 요리하고, 요리할 때 눈이 따가울 정도로 연기가 자욱한 환경에 많이 노출됐으며, 튀기거나 부침 요리 등의 기름을 많이 쓰는 요리를 했다.<br/>간접 흡연 설문에서 비흡연 여성 폐암환자는 가정ㆍ직장에서 간접 흡연에 노출된 적이 많았고 노출시기도 빨랐다. 조사에서 남편의 흡연 여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집안에서 흡연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밖에 부모 형제 중에 폐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던 비율은 6.8%였고 주로 어머니와 자매의 비율이 높았다.<br/>조석기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간접 흡연도 직접 흡연 못지 않게 폐암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도 간접 흡연의 노출이 많았고 노출 시기도 빨라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1-114.txt

제목: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하는 건강 Tip]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  
날짜: 201710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30051111003  
ID: 01101101.20171030051111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초기증상 거의 없지만 점차 소변 참기 힘들어<br/>50대 이상 남성이면 주기적 검진 필요<br/><br/>찬바람이 불면 유난히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을 참지 못해 병원을 찾는 이가 많다. 추위 때문일 수 있지만, 전립선질환이 원인일 때가 많다. 나이 들수록 전립선이 커져 50대의 50%, 60대의 60%, 80세 이후엔 80%의 남성이 전립선비대증을 앓는다. 따라서 증상이 없어도 50세 이상이면 직장손가락검사와 전립선특이항원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게 좋다.<br/><br/>Q.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 증상은.<br/>“전립선비대증은 초기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막아 소변보기 힘들어 지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 또한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으며, 소변이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힘을 줘야 소변을 볼 수 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참기도 힘들어진다. 전립선암도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 전립선암이 진행되면 요도가 막혀 전립선비대증처럼 배뇨장애가 생긴다. 전이암으로 진행되면 뼈 전이로 인한 통증과 골절, 척수압박에 의한 마비 등이 나타난다.”<br/><br/>Q. 진단은 어떻게 하나.<br/>“배뇨장애로 병원에 오면 전립선 크기, 모양, 경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장손가락검사를 한다. 비슷한 증상을 가진 다른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ㆍ혈액검사도 한다. 배뇨장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증상점수표, 배뇨일지 및 요속잔뇨검사가 포함된다. 전립선 크기를 정확히 재기 위해 경직장초음파촬영술이 시행된다.<br/>직장손가락검사에서 딱딱한 결절이 만져지면 전립선암을 의심해 조직검사를 한다. 또한, 혈액검사(전립선특이항원)에서 전립선암이 의심돼도 조직검사를 한다. 경직장초음파촬영술 도움을 받아 대개 12군데에서 균등하게 전립선 조직을 채취한다. 전립선조직검사는 전립선암을 확진하는 방법이다. 암 크기, 위치, 분화도 등의 정보도 얻을 수 있어 치료방침을 정하는데 도움된다.”<br/><br/>Q. 치료는 어떻게 하나.<br/>“전립선비대증은 비수술적 혹은 수술적 치료를 한다. 증상이 가볍다면 6개월~1년 간격으로 정기 검진하면서 배뇨습관 개선, 수분 섭취량 조절 및 식이요법 등을 시행한다. 중등도 이상이라면 약물치료를 우선한다. 하지만 급성 요폐, 요로감염, 혈뇨 등이 반복되거나 콩팥 기능 저하, 방광결석이 있다면 수술해야 한다. <br/>전립선암 치료는 집중 관찰하거나 적극적 감시, 수술, 방사선 치료, 남성호르몬 박탈요법 및 항암약물 치료 등을 단독 또는 병합해 시행한다. 병기(病期) 등 병 진행단계에 따라 치료법을 정한다. 환자 나이, 동반 질환, 후유증 치료 여부도 치료법을 정하는데 중요하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도움말= 유달산 서울아산병원 비뇨기과 교수>

언론사: 한국일보-1-115.txt

제목: 예후 나쁜 ‘염증성 유방암’은 어떻게 치료하나?  
날짜: 201710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30051111002  
ID: 01101101.20171030051111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유방피부 이상, 열감, 염증땐 즉시 검진받아야<br/>유방암은 국내 여성암 가운데 갑상선암 다음으로 많이 발병하면서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방암 치료 성적은 뛰어나다. 국내 유방암 5년 상대생존율(2010~2014년)이 92%로 주요 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을 비교했을 때 상위에 올라 있다. 미국 89.2%(2004~2010년), 캐나다 88%(2006~2008년), 일본 89.1%(2003~2005년)보다 생존율이 대체로 높다.<br/>하지만 모든 유방암의 생존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특히 '염증성 유방암'은 예후가 나쁘기로 악명 높다. 염증성 유방암은 진행성 유방암의 가장 치명적인 형태로, 암세포가 유방 피부에 직접적으로 광범위하게 침범한다. 염증이 생긴 것처럼 피부가 붉어지면서 귤 껍질처럼 변하고 부종과 온열감이 나타나는 것이 주 증상이다. 심하면 종양이 피부를 뚫고 나오기도 한다.<br/>염증성 유방암은 임상적으로 전체 유방암의 1~2%를 차지하고, 치료 성적도 나쁘다. 다만 국내의 경우 유방검진에 따른 조기 유방암 발견이 늘면서 발생률이 전체 유방암의 1%미만으로 보고되고 있다.<br/>하지만 최근 국제성모병원 맞춤형 암치유병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염증성 유방암 환자는 28명으로 전체 유방암 환자(315명)의 9%였다. 이는 임상적인 통계수치(1~2%)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br/>이학민 국제성모병원 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염증성 유방암은 최소 유방암 3기 이상에 해당하는 암종으로, 가슴 이상이 느꼈음에도 이를 방치해 많이 발병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같은 수치는 지역별로 유방암 검진율이나 건강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span>”고 했다.<br/>염증성 유방암은 재발률과 전신 전이율이 높아 예후가 나쁘고, 수술 전 항암치료 및 유방 전체를 잘라내는 유방 전(全)절제술을 시행하므로 환자 삶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치료과정이 일반 유방암 치료보다 까다롭고 복잡해 환자의 고통은 더 크다.<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1'>염증성 유방암의 가장 좋은 치료는 정기 검진</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특히 유방 피부의 이상, 열감, 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유방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span>”고 했다.<br/>한국유방암학회는 연령별 조기검진 권고안을 통해 ▦30세 이후는 매월 자가검진 ▦35세 이후는 2년 간격으로 의사를 통한 임상검진 ▦40세 이후는 1~2년 간격의 임상진찰과 유방 촬영 ▦고위험군은 의사 상담 등 여성의 정기적인 유방검진을 권고하고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br/><유방암 자가검진법><br/>1. 거울을 보며 평상시 유방의 모양이나 윤곽의 변화, 좌우 대칭 여부 등을 비교한다.<br/>2. 양손을 뒤로 깍지 끼고 팔에 힘을 주면서 앞으로 내밀어 피부의 함몰 여부를 관찰한다.<br/>3. 검진하는 유방 쪽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반대편 2, 3, 4번째 손가락의 첫 마디 바닥면을 이용해 유방의 바깥쪽 상단에서 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려 안쪽으로 검진한다. <br/>4. 쇄골의 위/아래 부위와 겨드랑이 하단에 멍울이 잡히는지 확인한다.<br/>5. 유두에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있는지 관찰한다.

언론사: 한국일보-1-116.txt

제목: 노벨상 석학들 “한의학 노화방지 효과 주목”  
날짜: 201710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30051037001  
ID: 01101101.20171030051037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과학자ㆍ학생 등 1300명 운집<br/>고령사회 주제로 소통의 시간<br/><br/>“한의학의 노화 방지 효과와 수천 년간 활용한 천연물 등을 무시할 수 없다. 분자 단위의 기능을 파악한다면 한의학의 효능을 더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988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단백질 연구의 대가 로버트 후버 독일 뮌헨공과대학 교수가 30일 서울에서 행한 강의에서 한의학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대목이다.<br/>이 강연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 노벨프라이즈 다이얼로그 서울’에서 각 분야 노벨상 수상자 5명이 ‘인류가 마주할 고령사회’를 주제로 나눈 토론의 일부다. 노벨상 시상식 주간에 스웨덴에서 개최되는 문화ㆍ학술행사 ‘노벨위크 다이얼로그’의 해외 특별행사로,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노벨재단 산하 노벨미디어가 개최한 행사에서 ‘양자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201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세르주 아로슈 콜레주드프랑스 명예교수는 “<span class='quot0'>양자컴퓨터가 언제 가능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인류가 얻을 것은 많다</span>”고 말했다. 아로슈 교수는 “<span class='quot1'>1947년 미국 물리학자가 개발한 핵자기공명 기술도 당시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자기공명영상(MRI) 기술로 발전해 지금 인류의 삶을 연장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실물경기 변동이론을 창시해 2004년 노벨경제학상을 거머쥔 핀 쉬들란 미국 카네기멜런대 교수는 “<span class='quot2'>고령사회를 정부 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span>”는 주장을 폈다. 그는 “<span class='quot2'>정년을 연장하거나 젊은 이민자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20, 30대 이민은 국가 예산에 플러스 요인이지만 어린이나 노인은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40년 넘게 노화 연구에 매달린 생물학자 톰 커크우드 덴마크 코펜하겐대 명예교수는 “<span class='quot0'>노화는 굉장히 복잡한 작용인 데다 알츠하이머나 암 등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질병은 물론 주변 환경 등과의 연관 관계도 연구가 더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인류의 수명 연장에 대한 질문에는 “수명 연장은 간발의 차이로 신기록이 작성되는 장거리 육상으로 생각하면 될 거 같다”며 “미래에는 지금보다야 늘어나겠지만 150세까지 살기 위해선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br/>국내에서 처음 열린 노벨상 석학들과의 대화에는 전국에서 신청한 과학자와 학생 등 1,300여명이 참가했다. 무료 온라인 참가신청이 3주 만에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br/>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17.txt

제목: 암 환자에 ‘굿·기도 값’ 10억원 받아 챙긴 60대 입건  
날짜: 201710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30050900003  
ID: 01101101.20171030050900003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암 투병 환자에게 굿과 기도를 해주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br/>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이모(61)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암환자인 50대 여성 A씨로부터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굿과 기도 값 명목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약 1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r/>경찰에 따르면 수년 전 자녀들의 가정교사를 맡았던 인연으로 A씨와 가깝게 지내왔던 이씨는 수시로 ‘좋은 꿈을 꿨으니 (꿈을) 사라’거나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굿을 한번 해야겠다’며 돈을 받아 왔다. 특히 이씨가 암 진단을 받은 뒤엔 ‘쾌유를 비는 기도’나 ‘제사상에 올릴 물품 값’ 등의 명목으로도 한 번에 수백 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br/>사건의 실체는 A씨가 지난해 4월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면서 드러났다. 남편이 아내 신변을 정리하던 중 A씨가 쓰던 은행계좌에서 수년간 거액이 이씨와 그의 남편·동생 등에게 송금된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span class='quot0'>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굿과 기도 값이었다</span>”며 “실제로 굿을 해줬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언제, 어디서 굿과 기도 등을 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이씨가 A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무속인이 굿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진 등을 A씨에 보냈지만, 실제 이씨를 위한 기도나 굿이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span>”고 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18.txt

제목: [Hi #리뷰]'더 패키지' 이쯤되니 궁금해지는 류승수·박유나 관계  
날짜: 201710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29050504002  
ID: 01101101.20171029050504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더 패키지' 여행자 류승수와 박유나의 이야기가 대기하고 있다.<br/><br/>지난 28일 방송된 JTBC '더 패키지'(극본 천성일, 연출 전창근) 7회에서는 윤소소(이연희 분)와 산마루(정용화 분)가 무인도에 갇힌 채 밤을 지새면서 키스를 하고 가까워지는 모습, 한소란(하시은 분)이 김경재(최우식 분)와의 7년 연애를 끝내려는 모습이 그려졌다.<br/><br/>산마루는 그가 다니는 제약회사의 내부고발자였다. 여자친구였던 오예비(채소영 분)는 마지막 남은 증거 자료까지 지워버렸고, 파일이 모두 삭제됐음에도 회사는 해고 절차를 밟으려 했다. 의문의 추적자의 정체는 윤소소의 남동생 윤수수(윤박 분)이며 프랑스로 훌쩍 떠난 뒤 소식이 끊긴 누나를 찾으러 왔다는 사연도 모두 공개됐다. 중년의 부부 오갑수(정규수 분)와 한복자(이지현 분) 사이에는 한복자의 암 투병이라는 사연이 있었다.<br/><br/>가이드인 윤소소와 패키지 여행자 대부분의 숨겨진 사연이 공개됐지만 정연성(류승수 분)과 나현(박유나 분)의 관계와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함께 여행을 온 사람들은 두 사람의 나이 차이로 인해 불륜 커플이라고 의심하고 있다.<br/><br/>정연성은 관광지에서 나현을 카메라로 찍어주기에 여념이 없고 항상 챙기면서 다정한 태도를 보였다. 나현은 정연성에 대해 "총각 행세하는 애 아빠다. 바람둥이 갑"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영락없는 커플인 것 같으면서도 비범함을 숨기고 있어 이들의 이야기는 언제쯤 풀릴지 궁금증을 모으고 있다.<br/><br/><br/><br/>권수빈 기자 ppb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19.txt

제목: 폴 뉴먼, 생전 시계 200억원 팔려... '나를 조심스럽게 운전해줘'  
날짜: 201710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29050454003  
ID: 01101101.20171029050454003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할리우드 배우 폴 뉴먼의 생전 시계 롤렉스 제품이 우리 돈으로 약 200억원에 경매로 팔렸다.<br/><br/>현지에 따르면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세기의 전설적인 시계들' 경매에서 뉴먼이 직접 착용했던 롤렉스 데이토나 손목시계는 1775만2500달러(약 200억원)에 판매됐다고 28일 전해졌다.<br/><br/>이는 손목시계 경매 사상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다.<br/><br/>이 시계는 뉴먼이 아내 조앤 우드워드로부터 받은 선물로, 시계의 뒷면에는 우드워드가 쓴 '나를 조심스럽게 운전해줘'라는 문구가 남겨져 있다. 뉴먼과 우드워드는 지난 1969년 카레이싱 영화 '위닝'에 함께 출연했다. <br/><br/>한편 폴 뉴먼은 ‘내일을 향해 쏴라’(1969), ‘스팅’(1973), ‘판결’(1982) 등에 출연했다. 지난 2008년 말기 암으로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br/><br/><br/><br/>이주희 기자 leejh@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20.txt

제목: “중증 건선 환자 삶 만족도 100점 만점에 42점 불과”  
날짜: 201710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26055819002  
ID: 01101101.20171026055819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한건선협회, 환자 200명 조사 결과<br/>국내 중등도 및 중증 건선 환자의 삶 만족도 점수가 100점 만점에 42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선 발병 이후 삶의 만족도를 0점이라고 평가한 환자가 전체 응답자 중 14%나 됐다.<br/>대한건선협회 선이나라(회장 김성기)가 ‘세계 건선의 날’(10월 29일)을 맞아 중등도 및 중증의 건선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건선 환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치료 기대치 및 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다. 이번 설문은 손바닥 하나 면적이 1%라는 가정 하에 3~10% 미만은 중등도, 10% 이상은 중증 건선 환자로 구분해 진행됐다.<br/>설문조사 결과, 중증 건선 환자에게 가장 큰 불편은 통증, 인설, 가려움, 변색된 피부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이었다. 특히 꼭 치료되길 바라는 건선의 신체적 증상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피부 변색, 얼룩덜룩한 피부, 붉은 반점(42%) 같은 피부 병변을 꼽았다. 각질이 떨어지는 현상, 인설(36%)과 가려움(19%)도 치료되길 원하는 증상으로 나타났다.<br/>피부 병변으로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한 환자들은 일상생활에서도 해당 증상으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피부 변색, 얼룩덜룩한 피부, 붉은 반점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복수응답 질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이 줄어든다고 답변한 환자들이 전체의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사람 시선이 부담돼 만남이나 외출을 자제한다(73%), 변색된 부위를 보며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느낀다(57%), 이성 관계나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48%)가 그 뒤를 이었다. <br/>김성기 회장은 “<span class='quot0'>과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 환자의 삶의 만족도는 49점, 당뇨병 환자는 52점으로 조사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진행된 조사의 중증 건선 환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이보다도 매우 낮은 점수였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중증 건선 환자들의 피부가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은 환자들의 큰 치료 목표이자 삶의 질 및 사회적 오해와 편견까지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span>”라고 덧붙였다.<br/>건선은 몸의 면역학적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세계적으로 3%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도 건선 환자 수는 2012년부터 꾸준히 늘어 2016년 16만 8,862명으로 집계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선은 피부 병변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의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데,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대사성 질환이 있다. 중증 건선 환자들은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불안증의 위험도가 높으며 이는 자살 충동으로 이어져, 자살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1-121.txt

제목: [북 리뷰] 우리는 진짜를 살고 있을까  
날짜: 201710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26055817002  
ID: 01101101.2017102605581700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친밀한 이방인 <br/>정한아 지음 <br/>문학동네 발행ㆍ256쪽ㆍ1만3,000원<br/><br/>미국 천재사기꾼 프랭크 애버그네일의 실화를 다룬 영화 ‘캐치미 이프 유 캔’의 ‘순소설 버전’을 보는 기분이랄까. 슬럼프에 빠진 소설가가 자신의 소설을 훔친 사기꾼을 추적하는 장편 ‘친밀한 이방인’ 얘기다. 문제의 인물은 합격하지 못한 대학에서 교지 편집기자로 활동했고, 음대 근처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자격증 없이 의사로 밥을 번다. 1960년대에 140만달러를 횡령했던 프랭크와는 ‘스케일’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지만 소설가까지 네 가지 직함을 통해 각기 다른 세 남자의 부인,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산 ‘결이 다른 이력’을 갖고 있다. <br/>“<span class='quot0'>지난 3월, 나는 신문을 읽다가 흥미로운 광고를 보았다.</span>” 7년간 소설을 쓰지 못한 작가 ‘나’는 ‘이 책을 쓴 사람을 찾습니다’란 문구와 함께 소설 일부가 실린 신문 광고를 읽고 충격에 빠진다. 작가가 데뷔 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공모전에 제출했던 장편이었던 것. 더 이상 광고를 싣지 말라고 신문사에 연락한 후 뜻밖의 여자, 진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온다. 6개월 전 실종된 남편 이유상을 찾고 있다는 진은 남편이 광고 속의 소설을 쓴 작가로 행세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덧붙인다. <br/>“그 사람의 본명은 이유미, 서른여섯 살의 여자예요. 내게 알려준 이름은 이유상이었고, 그전에는 이안나였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여자라는 사실까지 속였으니 이름이나 나이 따위 우습게 지어낼 수 있었겠죠. 그는 평생 수십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내게 이 책과 일기장을 남기고 육 개월 전에 사라져버렸죠.”<br/>나는 저 파란만장한 사기사(史)를 일기에 남긴 이유상, 아니 이유미를 추적하기 시작한다. 교지 편집기자, 음대 교수, 의사로 이안나를 만났던 주변인들의 회상과 작가의 일상이 씨실과 날실처럼 교차되며 화자가 소설을 쓸 수 없는 복잡다단한 사연도 소개된다. 여기서부터 추리물과 순소설이 갈리는 지점. 화자는 다분히 문어체적인 말투로 진에게 고백한다. “지난주에 당신을 만나고 나서, 일주일 내내 마치 뭔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 저는 그 사람의 반복된 거짓과 위증이 무엇에 기인하는지 그 시작과 끝을 알고 싶어요.”<br/>파란만장한 이유미의 삶에 비해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탄했던 화자는, 남편이 마련해준 작업실에서 외도를 하고 그 외도를 굳이 고백해 집안에 풍파를 일으킨다. 유일한 버팀목인 친정도 복잡하긴 마찬가지라서 암 말기 선고를 받은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간다. “아버지와 엄마. 나는 그들과 한집에서 이십 년간 함께 살았지만 두 사람의 진짜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 우리가 질서를 연기하는 한, 진짜 삶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그렇다면 진짜 삶은 어디 있는가?” <br/>반복된 거짓말에 끝없이 번민하고, 그러면서도 진심 어린 사랑을 바라는 이유미의 면면은 화자와 묘하게 겹친다. <br/>한데 이유미는 도대체 미발표 원고를 어떻게 찾아낸 걸까. 진은 정말 이유미가 여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걸까. ‘미끄러지듯 매혹되는 이야기’. 출판사의 홍보문구가 과장이 아니라는 듯 작가는 이야기의 끝에 반전을 심어둔다.<br/>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22.txt

제목: 매티스 美 국방 “모두가 평화적 해법을 위해 노력”  
날짜: 201710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26055622001  
ID: 01101101.20171026055622001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21일부터 필리핀, 태국, 한국 등 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 해법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br/>매티스 국방 장관은 25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에 참석한 후 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군사옵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나 동맹이 공격을 받는다면, 물론 군사적 옵션이 있다. 하지만 모두가 평화적 해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 국방부가 전했다.<br/>매티스 국방장관은 그러면서 “<span class='quot0'>누구도 전쟁을 재촉하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0'>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베이징에 보낸 것을 비롯해 우리는 워싱턴에서부터 줄곧 평화적 해법을 위해 노력하고 분명히 말해왔다</span>”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회의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많은 장관들이 외교적 노력이 효과가 있고, 제재가 북한의 노선을 변경시킬 수 있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함께 하면 할수록, 평화를 지속하는 더 큰 기회를 갖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며 “이 모든 것이 북한을 외교적 노선으로 들어서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br/>그는 앞서 21일 필리핀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또 우리 외교관들이 모든 국가들과 일하는 동안 어떻게 군사 경계 태세를 유지해 평화를 지속시킬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외교 우선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27일 한국을 방문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방문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28일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갖는다. <br/> 군사 옵션을 시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친 수사와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는 매티스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를 이끄는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저명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이날 ‘매티스 장군, 트럼프에 맞서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당신을 끌어내릴 것이다’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 중 매티스 장관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이성 윤리적 암(ethical cancer)에 감염되지 않았고, 그에게 여전히 일부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인사라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 진단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며 “쿠데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을 이끌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집단 사퇴할 것이라고 말하라”고 주문했다. <br/>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23.txt

제목: Q 환자 의식 없을 땐 연명치료 중단 어떻게? A 가족 전원 합의 필요  
날짜: 201710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26051058001  
ID: 01101101.2017102605105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사전의향서 쓴 후 마음 바뀌면?<br/>언제라도 내용 변경ㆍ철회 가능<br/>식물인간 연명치료 중단 가능한가?<br/>임종 임박 환자 아닐 땐 해당 안돼<br/><br/><br/><br/>임종기에 접어든 환자 본인이 원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내년 2월4일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3일부터 전국 10여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 등록 건수가 사흘 동안 59건에 달했다. 해당 기관에는 문의와 상담 전화가 빗발친다. 법이 길을 터주자 존엄사에 대한 내재돼 있던 관심이 수면 위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문재영 충남대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의 도움으로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해 환자나 가족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문답으로 살펴봤다. <br/>\_사전의향서를 작성하면 어떤 효력을 갖는가. <br/>“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지정된 기관에서 누구나 작성해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등록한 사전의향서는 향후 본인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의 근거로 쓸 수 있다. 사전의향서를 쓴 임종기 환자는 의식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본인 의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의식이 없다면 환자가 사전의향서 내용을 확인할 의사 능력이 없다는 의사 2명의 판정을 거치면 곧바로 연명의료가 중단된다.“<br/>\_연명의료계획서는 어떻게 다른가. <br/>“사전의향서가 주로 건강한 사람이 미래의 상황에 대비해 작성하는 거라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기록하는 문서다. 마찬가지로 임종기에 법적 효력을 지닌다.“ <br/>\_연명의료계획서는 정해진 질병 환자만 작성할 수 있다는데. <br/>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는 말기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4가지다. 그 밖의 질환이나 부상을 입었다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없다. 다만 이 환자가 사전의향서를 쓴다면 임종 과정에 들어갔을 때 본인 또는 의사 2인의 확인 절차를 거쳐 연명의료 중단ㆍ보류가 가능하다. 사전의향서를 쓰지 않았다 해도, 임종기 이후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 합의가 있으면 연명의료 중단ㆍ유보가 가능하다.“<br/>\_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썼다가 마음이 바뀌면. <br/>“생각이 달라지면 언제든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br/>\_호스피스에 들어간 환자도 연명의료결정법을 따라야 하나.<br/>“그렇다. 호스피스에 입원한 환자라도 임종 과정에 접어 들면 연명의료를 중단ㆍ유보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의 뜻을 확인하거나 가족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일반 환자와 마찬가지로 밟아야 한다.”<br/>\_임종 과정의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가족 구성원들의 입장이 엇갈린다면. <br/>“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뜻을 확인할 수 없다면,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연명의료 중단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을 의미하며, 이런 가족 구성원이 없다면 형제ㆍ자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라면 귀국해서 직접 합의서에 서명해야 한다.”<br/>\_환자 본인은 연명의료 중단ㆍ유보를 원하는데 가족이 반대한다면. <br/>“환자 본인의 뜻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다. 환자가 원하면 따라야 한다.”<br/>\_미성년자 환자는 성인과 연명의료 중단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br/>“19세 미만 미성년 환자는 본인보다는 친권자인 부모의 의사가 중요하다. 미성년자는 사전의향서 작성이 불가능하고, 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때도 친권자 동의가 필요하다. 환자의 뜻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하는 성인 환자와 달리, 미성년 환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만 동의 의사를 밝히면 연명의료를 중단ㆍ유보할 수 있다. 부모가 이혼했다면 친권이 있는 쪽만 동의하면 된다.” <br/>\_증상이 달라지지 않는 식물인간 상태 환자라면. <br/>“사전의향서를 썼더라도 증상이 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는 중단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의사 2명의 판단이 있어야만 중단할 수 있다.“ <br/>\_연명의료 중단ㆍ유보와 안락사의 차이는.<br/>“안락사는 독극물 등을 주사해 적극적으로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행위다. 반면 연명의료 중단ㆍ유보는 인위적으로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지 않고 자연사(自然死)의 단계를 따른다.”<br/>\_연명의료를 중단하면 환자가 고통스럽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br/>“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 부착,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혈액 투석 네 가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연명의료를 멈춰도 통증 완화 치료와 영양분ㆍ물ㆍ산소 공급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떼거나 혈액 투석을 멈추는 행위는 환자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서 연명의료 중단 시점은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24.txt

제목: 행복을 나누는 기업 - 아모레퍼시픽  
날짜: 201710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26051049003  
ID: 01101101.20171026051049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여성 암 환자들은 투병하는 동안 많은 것을 잊고 산다. 항암 치료를 거치면서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어둡고 거칠어진 피부, 탈모 등 외모 변화는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메이크업은 그런 환자들에게 스스로가 아름다운 여자라는 것을 다시 인식시켜 주고, 잊었던 자신감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 준다.” <br/>- 2017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 참가자 박인숙 씨(45)의 이야기<br/><br/>2008년부터 시작돼 올해 10주년을 맞은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AMOREPACIFIC Makeup Your Life)’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심적 고통을 겪는 여성 암 환자들에게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뷰티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일상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br/>2016년까지 국내에서만 총 10,994명의 여성 암 환자 및 4,033명의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또한 2011년에는 중국, 2015년에는 베트남, 2017년에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으로 지역을 확대해 2017년까지 10년간 총 6개국 14,065명의 여성 암 환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오고 있다. <br/>올해 국내 캠페인은 상·하반기(5~7월 /10~11월)로 나눠 전개되고 있다. 상반기에는 전국 20개 병원에서 850여 명의 환자를 만났으며 하반기에는 16개 병원에서 약 700여 명의 환자를 만날 예정이다. <br/>암 수술 후 2년 이내로 현재 방사선 또는 항암치료 중인 여성 환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헤라(HERA) 메이크업 제품과 프리메라(Primera) 스킨케어 제품,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브로셔로 특별 구성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키트’가 제공된다. <br/>㈜아모레퍼시픽 Luxury BU 이우동 전무는 “<span class='quot0'>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 카운셀러는 오랜 시간 누적된 ‘아름다움’이라는 자산을 사회와 나누기 위해 2008년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을 시작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여성 암 환자들이 병을 극복하고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확대하겠다</span>”고 밝혔다.<br/>자세한 정보 및 참가 방법은 2017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운영국(T. 02-515-6759 /makeupyourlife@nav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언론사: 한국일보-1-125.txt

제목: '대장암 투병' 유상무 "여러분은 항암제보다 귀한 존재"(전문)  
날짜: 201710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25050804001  
ID: 01101101.20171025050804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대장암 투병 중인 개그맨 유상무가 심경을 전했다.<br/><br/>유상무는 25일 새벽 자신의 SNS에서 “To. 소중한 내 사람들”으로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br/><br/>유상무는 “견디기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해주시는 말씀 듣고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입원 전까지 약 10일 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만난 건 사실 저를 위한 거였습니다”라고 말했다.<br/><br/>이어 “잠시나마 암에 걸렸단 사실을 잊을 수 있었고, 몇 기인지 알 수 없었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게 항암제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싸워서 이겨내 보려합니다”라고 이야기 했다.<br/><br/>한편 유상무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4월 일산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현재 상태가 호전된 상태로 알려졌다. <br/><br/>이하 유상무의 입장 전문이다. <br/><br/>To. 소중한 내사람들<br/><br/>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br/><br/>견디기 힘들때마다 여러분이 해주시는 말씀듣고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br/><br/>저 첨에 라이브방송으로 소통하다가, 암이란 사실을 알았을때 입원 전까지. 약 십일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만난건 사실 절 위함이었습니다.<br/><br/>여러분을 통해서 잠시나마 암에걸렸단 사실을 잊을 수 있었고 몇기일지 알 수 없었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br/><br/>언젠가 말씀드렸듯 여러분들은 제게 항암제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참 고맙습니다.<br/><br/>좀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싸워서 이겨내 보려합니다!<br/><br/>나를 위해서도 살고, 남을, 또 벗을 위해서도 살아가겠습니다!<br/><br/>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이란걸 알고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아야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br/><br/>어쩌면 내 삶이 얼마 길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삼십대 나이에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br/><br/>항암 치료 하러 병원에 갔을때 많은 어르신들을 보고<br/><br/>왜? 난 이 나이에 이렇게 아플까? 또 소아들을 보고.<br/><br/>어른인 나도이렇게 힘든데 저리 작은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 어쩌면 저 아이들의 부모님은 나보다 더 아프지 않을까.<br/><br/>새벽부터 각지에서 온 수 많은 아프신분들 암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온 딸의 눈물... 희귀암에 걸리셨음에도 제게 힘내라고 웃으며 말씀해주신 옆병실 아저씨 퇴원날 힘든 몸으로 편지를 전해주신 아주머니 그리고 수술후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한 우리 아이들.<br/><br/>내가 병원에 있는 이른 이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병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아파하고 있을까.<br/><br/>불과 세네시간 있는 동안에도 코드블루 라는 심정지 전문용어를 몇번씩 듣게되고. 그 병실의 가족들은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 어쩌면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으니.<br/><br/>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부디 그들이 치료라도 걱정없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br/><br/>아. 그냥 잠이 안오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맘을 전하고싶어서 몇자 적으려 했는데. 넘 길어졌네요. <br/><br/>참 하고싶은 말이 많았나봅니다.<br/><br/>2년이라는 시간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저를 나무라시는 분들 역시 많다는걸 알고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br/><br/>꼭 이겨내고! 더 건강해져서! <br/><br/>제가 가까이에서 봐온.<br/><br/>저보다 힘든.. 저보다 더 고통받는 저보다 힘없는<br/><br/>그런 분들께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br/><br/>그리고 저 역시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br/><br/>그것이 못난 저를 끝까지 응원해 주신것과<br/><br/>제가 병을 이겨낸 이유라 가슴에 새기겠습니다.<br/><br/>여러분.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있는 모든 일들<br/><br/>정말 감사합니다.<br/><br/><br/><br/>이주희 기자 leejh@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26.txt

제목: “스트레스에는 3분 복식호흡하며 ‘괜찮아’ 해보세요”  
날짜: 201710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24051003001  
ID: 01101101.20171024051003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스트레스 면역학자 변광호 박사<br/>‘E형 인간, 성격의 재발견’ 펴내<br/>“성격의 40%는 고칠 수 있어<br/> 정신적 맷집 센 E형이 돼야 ”<br/><br/><br/># 미국 유학 때 일생의 질문을 만났다. “<span class='quot0'>엄마가 사고로 죽었으며 영영 돌아오지 못 한다는 사실을 6세 아이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줄 겁니까.</span>” 소아과라면 아이들 특성에 맞게 주사 잘 놓고, 약 잘 지어주는 거라 생각했다. 그런 질문이라면 줄줄 대답할 수 있었다. 한번도 생각 안 해본 질문이었다. 그래서 전공을 바꿨다. 소아과에서 스트레스 면역학으로.<br/># 바쁜 시간 잘게 쪼개 쓰던 현역 시절을 지나 퇴직 뒤 전북 정읍시의 한 요양병원에 봉사하러 갔다.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다. 궁금증이 일었다.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이들 틈에서 그들보다 더한 고통에서도 잘 버텨내는 이들이 있었다. 고통을 어떻게 잘 통제하는가, 스트레스 면역학자로서 그 성격을 파고들기 시작했다.<br/>“이를 테면 ‘논리적 낙관주의’라는 겁니다. 자신의 성격 타입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 3분 정도 복식호흡을 하면서 스스로 제어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사람 성격 안 변한다는 데 가능한 얘기일까 “건강이라면 우리는 술ㆍ담배 끊고, 운동하고, 음식 뭐뭐를 먹으라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격입니다. 성격은 타고난 게 50%, 자라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게 10%라고 합니다. 나머지 40%는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br/>최근 ‘E형 인간: 성격의 재발견’(불광출판사)을 펴낸 변광호(75) 박사는 익혀야 할 그 성격 타입을 ‘E형’이라 불렀다. 스트레스 면역의학계에서 공인된 성격 유형은 4가지다. 완벽주의자라 이루는 건 많지만 심장계통 질병이 많은 A형, 만사태평이라 스트레스에는 강하지만 사회적 성취는 부족한 B형, 화를 속으로 삼키다 암 같은 병을 잘 얻는 C형, 냉소적이고 불평불만이 많아 40대 이후 동맥경화ㆍ당뇨ㆍ우울이 잦은 D형이다.<br/>변 박사에 따르면 E형은 스트레스 상황이 닥쳐왔을 때 ‘큰일 났네’가 아니라 ‘괜찮아, 어떻게 할 지 다시 생각해볼까’라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성격이다. 멘탈 훈련 혹은 정신적 맷집 키우기 훈련이다. 실제 요양병원에서 온갖 고통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들은 E형 성격을 알게 모르게 스스로 연마한 이들이었다. E형 성격의 경우 특히 종교와 관련성이 높다. 스트레스 면역학 입장에서 보자면 종교 때문에 잘 이겨냈다기보다, 종교로 인해 형성된 E형 성격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 것이다. 변 박사는 모교이자 교수로 재직한 가톨릭 의대와 함께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내년쯤 국제학계에 정식 논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책에는 성격 유형에 대한 자가진단법과 그에 맞춰 E형 성격을 훈련시키는 기법을 소개해뒀다.<br/>스트레스는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니다. 스트레스가 있기에 우리 정신과 몸이 긴장을 유지하면서 더 큰 활력을 누리기도 한다. 스트레스 반응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축 늘어져 늘 피곤한 만성피로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경우다. 이건 되레 더 큰 문제다.<br/>물론 이런 성격 유형 분류는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 싶을 때 확인해봐야 하는 작업이다. “유형 분석을 해봤더니 A, B, C, D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더라 싶으면 이 책은 그냥 덮어버려도 됩니다. 괜한 걱정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나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기자는 어떨까. “기자라는 직업군 전체”라는 전제를 붙이긴 했으나 대답은 확고부동했다. “D형.”<br/>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27.txt

제목: 연명의료법 석달 앞 “현실과 괴리” 목소리  
날짜: 201710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24050958001  
ID: 01101101.2017102405095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의료계 “호스피스 환자 이중규제”<br/>가족 전원 합의 조항도 논란<br/>시범사업 첫날 사전의향서 15건<br/>임종을 앞둔 환자 본인이 원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이 불과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현실과는 괴리됐거나 모호한 부분들이 많아 법 시행에 따른 상당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진다. 보건당국은 23일부터 전국 병원 10곳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남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 보인다. <br/>2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 2월4일 연명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분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다. 현재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거나 재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환자가 ‘말기’ 상태라는 의사 2명의 진단과 본인 또는 가족 동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연명의료법이 시행되면 호스피스 환자라 해도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뜻하는 임종기에 접어들면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환자의 뜻을 의사 2명(담당 의사 1명, 전문의 1명)이 확인하는 절차를 또 다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이중 규제라고 주장한다. 이명아 서울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미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호스피스 환자에게 또 다시 본인 동의를 거치는 것은 상처를 주는 불필요한 행위</span>”라며 “<span class='quot0'>말기와 임종기 구분도 임상적으로 쉽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span>”고 말했다. <br/>환자가 뜻을 밝힐 수 없을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ㆍ유보하려면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 역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등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당장 연락이 어려우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재영 충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서로 교류가 없는 해체된 가족이 적지 않고, 해외 체류자도 많아 전원 합의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br/>의료 현장에서 활용되는 심폐소생거부(DNR) 동의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DNR는 말기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서 형태로 ‘심폐소생이나 인공호흡기 부착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병원에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연명의료법은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말기 질환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4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다른 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말기 상황에 이른 환자에게 지금처럼 DNR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명아 교수는 “이 법으로 뇌경색이나 심정지 등 비(非) 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br/>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의원입법 등으로 나서볼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법 시행 이전에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구영모 한국생명윤리학회장(울산대 의대 교수)은 “섣불리 규제를 풀었다가 생명 경시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br/>한편,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시범시업 첫날인 이날 하루 동안 전국 5개 기관에 사전의향서 15건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사전의향서는 작성자가 향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임종기에 들어갔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br/><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28.txt

제목: “인공방광수술, 암치료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아”  
날짜: 201710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23050944001  
ID: 01101101.201710230509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인공방광수술 최고 권위자’ 이동현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교수 인터뷰<br/>수술시간 단축, 무수혈 수술로 고령 환자도 가능…35세 넘어 혈뇨 생기면 방광암 의심해야<br/><br/> “<span class='quot0'>방광에 퍼진 암 때문에 방광을 떼어내고 옆구리에 소변 주머니를 차야 합니다.</span>” 방광암 환자가 의료진에게 이런 말을 들게 되면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br/> 방광암에 걸리면 대부분 방광을 떼내고 요루(尿瘻ㆍ요관 대신 소변을 배출하는 길)를 배 안쪽(복벽)에 만들고 소변 주머니를 달아야 한다(요루형성술). 소변 주머니를 수시로 갈아야 하고, 대중목욕탕 이용도 힘들어진다. 게다가 여름이면 소변 냄새로 외출도 꺼리게 된다. 관리를 잘못하면 피부가 헐어 소변 주머니 부착도 힘들게 된다. 이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도 있다.<br/> 이 때문에 방광을 잘라낸 뒤 그 자리에 환자의 소장(小腸)으로 인공방광을 만들어 제거된 방광을 대체하는 인공방광수술은 환자들에게 그야말로 복음이다. ‘인공방광수술의 국내 최고 권위자’ 이동현(52)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교수를 만났다. 이 교수는 1996년 인공방광수술을 시작한 이래 최근 500건을 돌파해 이대목동병원 인광방광센터가 국내 최고의 인공방광 수술기관으로 자리잡게 했다.<br/><br/>-방광암 원인은 무엇인가.<br/>“오줌보라고 부르는 방광은 소변의 저장과 배출을 담당하는 속이 빈 주머니 같은 근육기관이다. 아래로는 요도, 위로는 요관과 연결돼 있다. 정상 성인은 400~500㏄정도까지 소변을 저장할 수 있다. <br/>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에서 암이 21만7,057건 발생했는데 방광암은 3,949건으로 암 발생의 1.8%를 차지했다. 방광암은 주변 조직에 침입한 침윤 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방광 점막과 그 하층에만 나타나는 표재성 방광암과 근육층까지 침범한 근침윤성 방광암이다. 표재성 방광암은 전체 방광암의 70%가 넘고 비교적 쉬운 수술(경요도절제술)로 종양을 잘라낼 수 있다. 표재성 방광암은 쉽게 퍼지지 않지만 수술해도 70%나 재발되고 근침유성 방광암으로 악화하는 경우도 40%나 된다. 근침윤성 방광암은 주위 조직으로 침윤하기 쉬워 전이가 잘된다. 이럴 때에는 경요도절제술로는 부족하며 종양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방광적출술 등을 시행해야 한다. <br/>방광암 원인으로는 흡연, 머리 염색약, 각종 화학약품 노출, 진통제 및 항암제, 감염 및 방광 결석,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가족력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흡연은 가장 큰 단일 위험인자다. 흡연자가 방광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의 2~7배나 된다. 남성의 경우 방광암의 50~65%, 여성은 20~30%가 흡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외 연구결과, 금연하면 위험성이 1~4년 내 40%가량, 25년 후에는 60%가량 줄어든다.”<br/><br/>-염색약이 방광암을 유발한다니….<br/> “염색약 성분 가운데 착색에 관여하는 아닐린계 염료는 방광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15년 이상 매월 염색약을 사용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방광암 위험이 2~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10년 이상 매일 염색약을 취급한 여성 미용사는 그렇지 않은 일반 여성보다 방광암에 걸릴 확률이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덧붙여 고무 등 석유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직업군에서도 방광암이 많이 걸린다.”<br/><br/>-방광암 증상은 있나.<br/> “대부분의 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방광암은 초기에 통증 없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다른 암과 달리 조기 발견이 쉬운 이유다. 물론 혈뇨가 나온다고 반드시 방광암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35세 이상에서 혈뇨가 나온다면 방광암을 의심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혈뇨인데도 방광암이 아니라고 판정돼도 16%정도가 암으로 악화하기에 2년 정도 추적검사를 하는 게 좋다.”<br/><br/>-최근 인공방광수술이 각광 받고 있는데.<br/> “예전에는 방광암에 걸리면 방광을 잘라내고 옆구리에 소변 주머니를 차야 하는 수술(요루형성술)을 주로 시행했다. 하지만 소변 주머니를 차게 되면 환자는 여러 가지 불편해진다. 때문에 환자의 소장(小腸)으로 인공 방광을 만들어 주는 무수혈 인공방광수술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br/>인공방광을 만들려면 소장을 잘라 쓰는데 이때 개복이 가장 바람직하다. 배꼽 아래쪽에 세로로 13~15㎝를 절개하면 수술하고 인공방광을 만드는 데 큰 지장이 없고 흉터도 크게 남지 않는다. 인공방광수술은 수술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 소변을 보는 기능을 살리려다 암을 완벽히 제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주 시도되지 않는다. 또 여성의 경우 방광을 떼어낼 때 자궁, 나팔관, 난소, 요도, 질(膣) 앞 부위까지 모두 제거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쓰인다. 이 경우 요도를 제거하기 때문에 인공방광수술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br/> ‘무엇이 환자를 위한 길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인공방광수술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의료진은 8시간 이상 걸리던 평균 수술시간을 4시간까지 줄이면서 무수혈 수술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요도 괄약근으로 가는 신경을 보존해주는 수술기법으로 요도와 요도 괄약근을 살리면서 70세 이상 고령환자는 물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도 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인공방광수술 시 병기(病期)에 따라 질을 보존할 수 있고, 남성도 발기 능력을 보존해 수술 후 정상적인 성생활도 가능하다. 물론 수술 후 대중목욕탕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등 종전처럼 일상생활도 할 수 있다. 아쉽게도 인공방광이 자신의 진짜 방광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인공방광에는 자연 수축기능이 없어 소변볼 때 배를 짜내 듯 눌러줘야 하는 정도의 번거로움은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1-129.txt

제목: [헬스 파일]  
날짜: 201710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23050942001  
ID: 01101101.2017102305094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폐암학회, 비흡연 여성폐암 캠페인<br/>대한폐암학회가 27일 오전 11시 건국대병원 대강당에서 '비흡연 여성폐암 캠페인'을 연다. 학회는 흡연에 고착돼 있는 폐암에 대한 인식을 전환, 비흡연 여성폐암도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캠페인을 연다고 밝혔다. 이계영 학회 이사장은 “<span class='quot0'>비흡연 여성폐암은 다행히 EGFR, ALK 같은 유전자 변이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표적항암제 치료 효과가 좋다</span>”고 했다.<br/>서울성모병원, 병동 스크린 도어 설치<br/>서울성모병원은 병원 방문객을 제한하고, 모든 병동 입구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했다. 환자ㆍ보호자(1명)는 입원 등록 시, 입원원무팀이 지급한 손목밴드형 출입증이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지정 시간에만 면회 가능하고, 외부물품 반입은 금지한다. 지정 시간 외에는 병동 휴게실에서 면회할 수 있다. 일반병동은 평일 오후 6~8시, 주말ㆍ공휴일 오전 10~12시, 오후 6~8시, 신생아중환자실은 낮 12시~오후 1시, 오후 7~8시에 면회할 수 있다. 중환자실은 환자 1인당 보호자 2인으로 제한된다.<br/>일동제약, B형 간염 치료제 ‘베시보’ 내놔<br/>일동제약은 첫 신약인 B형 간염 치료제 '베시보'를 내달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으로 내놨다. 베시보는 지난 5월 국내 개발 28번째 신약으로 허가 받았으나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처방이 이뤄지지 않았다. 베시보는 베시포비르디피복실말레산염을 주 성분으로 성인의 만성 B형 간염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임상시험 결과, 베시보는 B형 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 및 '비리어드(성분명 테노포비르)'와 비교해 대등한 수준의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br/>삼성서울병원, ‘암 치료 후 직장복귀’ 발행<br/>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가 무료 안내서인 ‘암 치료 후 직장복귀’를 발행했다. 암 치료에 전념하느라 일시 중단한 직장에 복귀해야 할 때 누구와 상의할지,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막막한 환자를 위해 복귀 시점, 신체기능 파악, 직무 분석을 통한 복귀 준비, 운동과 식습관 관리, 직장복귀 후 스트레스 극복 방법, 직장복귀 성공 사례 등을 수록했다. 센터 측은 매주 월요일 이 안내서를 활용한 ‘직장복귀’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br/><br/>질병관리본부, 결핵예방 백신 무료 접종<br/>질병관리본부는 내년 1월 15일까지 결핵 예방을 위한 경피용 BCG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무료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4주 이내 신생아이며 9월 중순 이후 태어난 신생아 및 생후 2개월 이내 미접종 영ㆍ유아 보호자에게 개별 휴대전화 알림 문자를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해당 영ㆍ유아 보호자는 접종 전 관할 보건소에 문의 또는 질병 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접종기관과 시작 시기를 확인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접종 기관을 확인하려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일반인 > 예방접종도우미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 접종가능 백신 : 결핵(BCG, 경피용)을 선택하면 된다.

언론사: 한국일보-1-130.txt

제목: “걷기의 건강효과, 달리기 못지 않다”  
날짜: 201710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23050940002  
ID: 01101101.20171023050940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가을이 짙어지면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걷기나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걷기와 달리기는 건강에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으로 꼽힌다. 심폐 기능이 향상되고, 근육이 강화되며 질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걷기는 몸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고 부상 위험 없이 더 없이 좋다.<br/>달리기가 걷기보다 운동 강도가 더 높아 효과도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두 운동의 효과는 비슷하다는 게 연구결과다(미국심장학회지). 걷기는 뇌를 자극해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하루 1만보씩 꾸준히 걸으면 여성은 4.6년, 남성은 4.1년이 더 젊어진다는 연구도 있다.<br/><br/>“<span class='quot0'>1주일 5회, 한번에 30분, 숨찰 정도로</span>”<br/>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미국심장학회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달리는 것 못지 않게 심장병 3대 위험요인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걷기 운동 조사 참가자 1만5,045명과 달리기 운동 건강조사 참가자 3만3,060명의 6년 이상에 걸친 조사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층은 18~80세로 40~50대가 대부분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위험 감소는 걷기 7.2%, 달리기 4.2%였다. 고지혈증 위험 감소는 걷기 7%, 달리기 4.3%였다. 심장병 위험 감소는 걷기 9.3%, 달리기 4.5%였다. <br/>강도가 덜한 운동인 걷기로 강도가 높은 운동인 달리기에 사용된 에너지의 양이 같으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위험도 비슷하게 줄어든다는 게 연구결과다. 즉 걷기를 통해 운동하려면 달리기보다 더 많이 걸어야 한다는 뜻이다.<br/>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2,000보 정도를 걷는 것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1'>하루 7,000보 이상 걸어야 건강에 도움될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br/>운동 강도는 자신이 느끼는 힘든 정도를 이용한 운동 자각인지도(RPE)와 심폐 체력 평가를 이용한 운동 강도 설정법으로 알 수 있다. 자각인지도를 사용할 경우 ‘약간 숨찰 정도’나 ‘약간 힘든 정도’를 권장한다. 박원하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2'>운동할 때 호흡이 짧아지며 10분 정도 운동하면 땀 날 정도이며,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span>”고 했다.<br/>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운동 강도를 알려면 맥박수를 이용한다. 운동할 때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최대 심박수(적당한 심박수는 1분에 보통 ‘(220-나이)x0.75로 계산할 수 있다. 50세라면 1분당 심박수를 120~130회로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3'>적당한 심박수로 1회 30~60분 운동하는 게 적당하다</span>”며 “<span class='quot3'>운동 빈도는 중강도는 5회 이상, 고강도는 3회, 중강도와 고강도를 병행하면 3~5회가 좋다</span>”고 했다.<br/> 따라서 걷기 운동을 할 때는 1주일에 5회 이상 한번에 30분 이상 가볍게 숨찬 정도로 하면 된다. 한종수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4'>1주일에 5회 이상 30분 즉 ‘1530’으로 걷거나 달리면 암도 예방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4'>하지만 고령인 가운데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가므로 달리기보다 걷기나 실내자전거를 권한다</span>”고 했다.<br/><br/>“<span class='quot0'>허리 펴고 고개를 세운 채 전방 주시를</span>”<br/> 걷기나 달리기할 때 자세가 좋지 않으면 등, 목, 어깨 등에 부담을 줘 쉽게 지치고 피곤하게 된다. 따라서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다. <br/>고개를 숙이고 걸으면 목과 어깨, 근육에 무리가 간다. 고개는 세운 채 시선은 전방을 응시하는 것이 좋다. 김원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5'>운동할 때 팔꿈치를 한 자세로 고정하고 걷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세는 등을 경직시키고 자연스런 움직임을 방해한다</span>”고 했다. 팔과 어깨의 긴장을 풀고 팔은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한다. 어깨를 움츠리고 걸으면 등이 굽고 숨쉬기도 곤란해진다. 어깨는 항상 엉덩이와 일직선이 되게 펴는 것이 좋다. 다만 곧게 펴는 데만 신경을 써 무리를 주는 것은 좋지 않으며 힘을 빼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br/>발을 딛는 요령은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게 하며 발 앞꿈치로 지면을 차듯이 전진하는 것을 반복하면 된다. 보폭은 평소보다 약간 넓게 하고 속도는 속보로 걷는 것이 체력증진이나 심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걷기는 속도에 따라 평보, 속보, 경보로 구분된다. 평보는 1시간에 4㎞ 정도(보폭 60~70㎝) 속도로 걷는 것이다. 속보는 1시간에 6㎞(보폭 80~90㎝), 경보는 1시간에 8㎞(보폭 100~120㎝)로 걷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보의 보폭은 자기 키에서 100을 빼면 된다. 박원하 교수는 “<span class='quot6'>걷기에 적합한 신발로는 발가락에 부담이 가지 않는 넉넉한 것으로 방수가 잘되고 땀 흡수가 양호한 재질을 선택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6'>밑창이 부드럽고 발등이 편한 가벼운 신발이 좋다</span>”고 했다.<br/>걷기나 달리기를 하면 부상 위험이 없지 않다. 따라서 걷기나 달리기를 하기 전에 하체 중심으로 스트레칭을 5~10분 정도 가볍게 하는 게 좋다. 운동을 끝낸 뒤에도 체조나 스트레칭으로 정리운동을 시행한다. 근력운동은 유산소운동만큼 자주 할 필요는 없고 2~3일 간격으로 1주일에 2~3회 정도하면 된다. 특히 고령인은 근육량이 줄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근력운동을 빼먹지 말아야 한다. 한종수 교수는 “<span class='quot7'>일교차가 심한 요즘이나 겨울철에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span>”며 “<span class='quot7'>걷기 등 운동을 하려면 모자를 쓰는 등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올바른 걷기 운동법]<br/>1. 어깨, 팔의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한다.<br/>2. 운동 중 고개를 숙이면 목, 어깨 근육에 무리가 되므로 시선은 전방을 향한다.<br/>3.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고, 굽이 있는 운동화는 피한다.<br/>4. 운동 시작 전 스트레칭을 5~10분 실시해 몸을 운동하기 알맞게 적응시킨다.<br/>5. 운동 후 느낄 수 있는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바로 운동을 멈추기보다 가볍게 걷거나 뛰도록 한다.

언론사: 한국일보-1-131.txt

제목: 내달 2~3일 오픈 카이스트 행사  
날짜: 201710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23050806001  
ID: 01101101.20171023050806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카이스트는 일반인과 청소년들이 학내 연구ㆍ실험실, 연구센터 등 연구현장을 둘러보고 각종 연구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오픈 카이스트 2017’ 행사를 11월 2~3일 대전본원 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br/> 올해 9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공과대학 주관으로 2년마다 개최되는 카이스트의 대표적인 과학문화 대중화 행사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채로운 과학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청소년들에게는 체험을 통해 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준다. <br/> 올해 행사에는 기계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등 20개 학과와 인공위성연구소 등 3개 연구센터, 홍보실 등이 참여한다. <br/> 행사참여 학과와 연구센터 등은 행사기간 연구실투어, 연구성과 전시회, 학과소개, 특별강연 등 4개분야서 모두 70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br/> 이번 행사에서는 12월 본선경기를 앞두고 ‘AI월드컵 2017’ 시범경기를 선보인다. 또 로봇과 드론, 로켓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시설을 방문해 체험할 수 있는 연구실 투어프로그램도 진행된다. <br/> 바이오 및 뇌공학과의 혈중암세포 선별 및 분석시스템, 수직이ㆍ착륙 드론, 인공지능 가상인체를 이용한 식ㆍ약품 발굴기술 등 최신 연구성과물도 전시된다.<br/>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꾸며진 교수들의 특별강연도 펼쳐진다. 학교 홍보관에서는 댄싱로봇 공연을 비롯해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과 이를 융합한 가상의 미래 스마트 홈ㆍ병원도 체험할 수 있다. <br/> 관람을 원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당일 안내소에서 배포하는 안내책자를 이용하 본인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 자율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br/> 김종환 공대학장은 “오픈 카이스트는 국민들이 실제 연구가 이루어지는 카이스트의 연구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카이스트는 앞으로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와 창의적, 선도형 융합연구에 역량을 집중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br/>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32.txt

제목: 한국MSㆍ삼성서울병원 ‘한국형 AI 의료시스템’ 구축 협약  
날짜: 201710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23050800002  
ID: 01101101.20171023050800002  
카테고리: IT\_과학>모바일  
본문: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삼성서울병원은 23일 인공지능(AI) 기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Azure)'로 한국형 정밀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br/>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MS는 의료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위한 에저를 IT 인프라에서 제공하며, 삼성서울병원은 이를 기반으로 유전체ㆍ영상ㆍ수면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파일럿 연구과제를 추진한다.<br/> 삼성서울병원은 우선 엑스레이 등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폐섬유화 진단의 정밀도를 높이는 딥러닝 학습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수면 무호흡증 예측에 적합한 데이터를 선별해 향후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암 발병과 관련된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딥러닝 개발도구(툴킷)도 개발한다. <br/> 한국MS와 삼성서울병원은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인프라를 활용해 한국인에 특화된 유전질환 진단, 암 질환 조기발견 및 정밀진단 등 차별화된 ‘인공지능 기반 정밀진단체제’ 를 구축할 방침이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33.txt

제목: 충수염, 방사선 노출 적은 저선량 CT로 진단 가능  
날짜: 201710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23050719003  
ID: 01101101.20171023050719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분당서울대병원 등 20개 주요 병원서 3,074명 조사결과<br/><br/>충수염(맹장염)을 방사선 노출이 적은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br/>CT는 X선이 발생하는 원통에 환자가 들어가 인체의 단면 사진을 얻는 검사이므로 방사선에 노출된다. 방사선 노출 우려로 방사선량이 작은 '저선량 CT(2 mSv)' 기법이 보급되고 있지만, 일반 선량 CT보다 화질이 다소 낮아 의료진이 사용을 주저한다.<br/>최근 분당서울대병원 등 20개 주요 병원의 연구자 177명이 2013년 12월~2016년 8월 각 병원 응급실을 찾은 3,074명의 충수염 의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했다. 그 결과, 일반선량 CT보다 저선량 CT의 임상결과(불필요한 충수절제율, 충수천공률) 및 진단율이 나쁘지 않았다.<br/>3,074명의 전체 환자는 무작위로 저선량 CT 혹은 일반선량 CT 검사를 받았다. 저선량 CT 검사를 한 환자 가운데 559명, 일반선량 CT 검사를 받은 환자 중 601명이 충수절제술을 받았다. 이 중 불필요한 충수절제율은 각 3.9%와 2.7%로, 두 집단이 비슷했다.<br/>또한, 충수천공률도 큰 차이가 없어, 저선량 CT가 일반선량을 대신할 수 있음이 입증됐다. <br/>이경호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우리나라에서 매년 9만명 가량이 충수절제술을 받고 있고, 충수염 의증으로 CT를 촬영하는 인구는 수술 인구의 2∼3배나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 병원에 저선량 CT 기법이 확립돼 방사선 노출에 의한 잠재적 암 발생의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span>”고 했다.<br/>대한영상의학회 임상연구네트워크(RINK-CR) 최병욱 의장(세브란스병원)은 "우리나라 의학 연구자의 수준 높은 개별 역량을 결집해 좋은 결실을 맺은 연구”라고 평했다.<br/>연구결과는 란셋 계열 학술지(The Lancet Gastroenterology & Hepatology)에 실렸다. <br/>연구에 참여한 병원은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중앙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원광대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강북삼성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강원대병원, 원광대 산본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이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1-134.txt

제목: [소방관, 헌신의 DNA] “1년에 부상 300명 순직 6명? 숨겨진 피해 훨씬 많다”  
날짜: 2017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21050759002  
ID: 01101101.20171021050759002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소방관 36% “공상 절차 복잡해<br/>다쳤어도 부상 신청 안 해”<br/>통계에 반영 못한 피해 많아<br/>유독물질 인한 순직자도 빠져<br/>“우리는 1년에 부상자 300명, 순직자 6명, 이런 숫자로 소방관들의 위험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접한 통계보다 실제로 위험에 노출돼 치료받지 못하는 소방관의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br/>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전국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맡아 했던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는 16일 소방관의 숨은 위험을 지적했다. 전국 소방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8,525명의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이 실태조사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고 물은 질문에 상당수가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는 것.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소방관들의 부상과 위험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소방관 부상은 어느 정도인가. <br/>“인권위 연구에서 다쳤는데도 공상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 이들이 응답자의 36.1%(2,436명)나 됐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다. 표면상 1년에 300명이라는 소방관 부상 비율은 미국, 영국의 5분의 1 정도로 낮지만 보고를 안 해 생기는 착시가 있는 것이다. 공상 소방관을 전담하는 직원도 없는 실정이다. 전담자를 정하고 최소한의 서류만 내면 바로 공상 심사 절차가 가능토록 제도화해야 한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br/><br/>-통계에 잡히지 않은 순직도 있나. <br/>“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들이마시게 되는 유독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암이나 만성질환은 최근까지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2016년에 처음으로 암 투병 소방관이 공상 승인을 받았다. 역으로 그동안 유독물질 흡입으로 인한 순직자가 통계에서 제외됐다는 뜻이다. 그래서 연구센터를 따로 두고 소방관 건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많지만, 신체 건강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적다. 외부 용역 연구는 주제와 기간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방관 건강을 장기 추적할 수 있는 소방조직 내 연구센터가 필요하다.”<br/><br/>-현장 소방관들에게는 어떤 치료 시스템이 필요한가.<br/>“한국이 병원 가기 어려운 나라는 아니다. 3일 이내 치료가 필요한 가벼운 부상의 경우 가까이 있는 민간 병원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가벼운 부상은 공상처리 없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데, 이때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없도록 해야 한다. 가까운 민간병원과 연계해 비용과 절차의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br/><br/>-소방관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또 있나.<br/>“현장 소방관의 목소리를 대변할 직장협의회 같은 대표기구가 필요하다. 소방조직은 조직 특성상 일선의 목소리가 상부로 전달되기 어려운 경직된 문화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장 소방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서는 이들의 건강과 근무환경, 복지제도를 개선할 수 없다. 현장에서도 원한다. 2015년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97.6%(7,854명)가 대표기구에 찬성했고, 반드시 가입하겠다고 밝힌 소방관도 응답자의 95%(7,662명)나 됐다.” <br/>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35.txt

제목: 최지우X최민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서 딸-아들 役 확정  
날짜: 2017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19050826003  
ID: 01101101.20171019050826003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배우 최지우와 최민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 함께 출연한다. <br/><br/>4부작 드라마 tvN 새 토일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극본 노희경)이 자식 세대 라인업을 19일 공개했다. <br/><br/>‘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노희경 작가의 대표적인 명작 중 하나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 온 중년의 부인이 어느 날 말기 암 진단을 받고, 가족들과 이별을 준비하는 내용을 그린 드라마다. 1996년 방송 당시 수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한 이 작품은 33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대상과 작품상을 거머쥔 수작 중의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가족의 의미가 퇴색된 요즘, tvN을 통해 21년 만에 리메이크가 전격 결정되며 안방극장에 또 한 번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br/><br/>앞서 원미경과 김영옥이 각각 엄마 역할과 시어머니 역할에 캐스팅된 데 이어 최지우와 최민호까지 합류하며 완벽한 신구 조합을 완성했다. <br/><br/>먼저 최지우는 극중 원미경의 딸 연수 역을 맡는다. 연수는 맹목적인 엄마의 사랑을 부끄러워했지만 ‘엄마 같은 아내’ ‘엄마 같은 엄마’를 꿈꾸며 살아가는 딸이다. <br/><br/>철부지 아들 정수 역으로는 최민호가 캐스팅됐다. 최민호는 철없는 모습으로 엄마의 속을 태우지만 지금껏 받기만 했던 사랑을 엄마에게 돌려줄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성장하는 아들의 모습을 연기하게 된다. <br/><br/>한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변혁의 사랑’ 후속으로 오는 12월 중 방송된다. <br/><br/><br/><br/>이주희 기자 leejh@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36.txt

제목: 호스피스 이용 늘지만... 완화의료 비율 세계 33위  
날짜: 2017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19050936002  
ID: 01101101.20171019050936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작년 암 사망자 이용 비율은 17%<br/>美 52%ㆍ英 46% 등에 크게 뒤져<br/>국내 호스피스 기관 수도권 몰려<br/>병상 부족함에도 가동률은 70%<br/><br/>박승호(62ㆍ가명)씨는 올해 초 소세포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에 박씨가 머무른 기간은 19일. 그는 슬하에 자녀 없이 평생 부인과 서로만 의지하고 살아온 터라 홀로 남을 부인에 대한 걱정이 컸지만, 준비할 시간이 주어진 덕에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노부부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추억을 반추하며 그간 서운하고 또 미안했던 일을 털어놨다. 박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부인은 평소 남편이 종종 선물하던 꽃다발을 이번엔 반대로 그에게 안겼다. 박씨의 부인은 의료진에게 “처음엔 눈 앞이 캄캄했는데, 점차 (죽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며 “고통스럽게 돌아가시지 않아 다행이다”라고 전했다.<br/>국내에서도 호스피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주요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진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암 사망자(7만8,194명) 중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한 비율은 17.5%(1만 3,662명)로 2008년(7.3%ㆍ5,046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미국(52.0%), 영국(46.6%), 캐나다(40.8%) 뿐 아니라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만(39/0%)에 비해서도 크게 뒤쳐진다. 이 때문에 2015년 ‘세계 죽음의 질 지수’에서 한국은 80개국 중 18위를 기록했고, 완화의료 비율은 33위에 불과했다.<br/>현재 국내 호스피스 병상은 1,321개(81개 기관)로 전체 말기 암 입원환자(1만3,622명)의 약 10% 정도만 차지한다. 선진국에 비해 호스피스 병상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정작 병상 가동률은 약 70% 수준. 최영심 호스피스전문기관 권역협의체 대표는 “<span class='quot0'>호스피스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퍼져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이나 일부 지역에만 몰려 접근성이 떨어진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당장 돈이 안 되고 가동률이 떨어져도 호스피스 병상을 지역 중심으로 늘려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br/>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비롯한 기존 보건의료 체계와의 연계 등 다각적인 서비스 활성화 전략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임종 장소로 자택이나 요양시설 등 병원이 아닌 장소의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br/>이를 위해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가(의사ㆍ간호사) 양성과 완화의료 도우미(간병인) 등의 인력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최윤선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은 “<span class='quot1'>비(非)암성 질환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은 확대됐지만, 관련 전문 인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부족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말기 암 대상 호스피스 전문가 양성에만 8년이 걸렸다</span>”고 말했다. <br/>호스피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해묵은 숙제다. 호스피스는 1960년대 종교단체 등의 선교 차원에서 민간에 도입됐으나, 관련법은 2003년에야 만들어져 ‘보편적 복지’로 자리잡지 못했다.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장은 “<span class='quot2'>환자나 보호자들은 호스피스 팀을 마치 저승사자 팀처럼 여긴다</span>”면서 “<span class='quot2'>호스피스 완화의료를 권했는데도 환자가 ‘나는 치료를 더 받겠다’고 거부하다가 다음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span>”고 전했다. 때문에 호스피스가 좀 더 질 높은 죽음을 준비하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관련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br/>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37.txt

제목: ‘호스피스 병동=치료 포기하고 죽으러 가는 곳’ 편견 깨다  
날짜: 2017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19050803001  
ID: 01101101.2017101905080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일반 병동서 통증 완화 치료<br/>원래 주치의 진료 그대로 받으며<br/>호스피스팀 매일 환자 찾아 평가<br/>원래 의료진에 진료방향 등 조언<br/>부담 적어 암환자 상담료 4800원 <br/> <br/>＊의사들 이해도 부족 등 한계도<br/>암 이외 질환은 아직도 호응 부족<br/>호스피스 병동에서만 제공되는<br/>미술ㆍ음악 치료 받는 것도 제한<br/><br/><br/>“<span class='quot0'>나를 이해해 주는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외롭지 않게, 가족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떠날 수 있어서요.</span>”<br/>17일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말기 신장암 환자 김선화(가명ㆍ57)씨는 일반 병동을 떠나 호스피스로 온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갑자기 마른 기침이 심해져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신장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신장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지만 암이 재발해 척추 등 온 몸으로 퍼졌다. 최근까지 방사선 치료와 척추 수술을 받기도 했지만 더 이상 항암 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의료진과 김씨의 공통된 견해다. 의료진이 보는 김씨의 기대 여명, 즉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남짓. 절망스러운 상황일 수 있지만 김씨는 차분했고 또 평온해 보였다. <br/>그가 이처럼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수월하게 받아들인 데는 ‘자문형 호스피스’도 한 몫 했다. 일반 병동에 머물다가 이날부터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 온 김씨는 전날까지 사흘간 일반 진료와 함께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병행해 받았다. 그러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거부감을 줄일 수 있었다.<br/>최근 도입된 자문형 호스피스가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호스피스 병동은 죽으러 가는 곳’ ‘호스피스에 가면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편견을 줄여주기 때문이다.<br/><br/><br/>18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시작된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시범 사업에 전국 상급종합병원 10곳과 종합병원 10곳 등 총 20곳이 참여하고 있다. <br/>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환자만 모인 별도 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에서 말기 질환을 담당하는 원래 주치의의 진료를 그대로 받으면서 추가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는 서비스이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호스피스팀이 매일 환자를 찾아 평가를 한다. 환자가 신체적 고통을 겪는지(신체적 평가), 병원비 문제나 가족 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심리ㆍ사회적 평가), 종교적 욕구는 충족됐는지(영적 평가) 등을 전인(全人)적으로 살핀다. 이들은 말기 질환을 담당하는 원래 의료진과 주기적으로 만나 진료 방향을 논의하며 적극적인 통증 완화 방안 등을 조언한다. 가족들과의 외출, 생일 파티 등 환자의 작은 소망을 이뤄주기도 하며 환자 가족이 준비된 이별을 맞을 수 있게 조언도 해준다.<br/>비용 부담도 크지 않다.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는 원래 진료비에 더해 주 1회 돌봄 상담료(초회 9만5,810원, 2회부터 6만4,510원ㆍ병원급 이상 기준) 등에서 본인 부담 분만 내면 된다. 본인 부담 비율은 암 5%, 에이즈 10%, 만성폐쇄성폐질환ㆍ간경화 20% 등이다. 즉 암환자는 초회 돌봄 상담료로 4,800원 정도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장은 “<span class='quot1'>호스피스팀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연명 치료를 줄이도록 의료진에 조언해줄 수 있어 전체 진료비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span>”고 말했다. <br/>자문형 호스피스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호스피스 전담 병동에 입원하는 ‘입원형’과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가정형’ 호스피스 두 가지만 있었다. 라정란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팀장은 “<span class='quot2'>호스피스 병동에 오기로 스스로 결심한 분들도 첫 날에는 의료진에게 인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낙담을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2'>누구든 초반에는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문형 서비스를 받으면 일반 병동에서 기존 치료는 그대로 받기 때문에 환자의 거부감이 상당히 줄어든다</span>”고 설명했다. 김씨 사례처럼 자문형이 입원형 호스피스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도 한다. <br/>백혈병 같은 혈액암이나 에이즈, 간경화 등처럼 의료진이 말기 판정을 내리기가 애매한 경우나 환자 상태가 급변해 함부로 병동을 옮기기 어려울 때도 활용된다. 2015년 11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올 8월 말기 판정을 받은 54세 남성 A씨는 면역력 악화로 폐렴이 와 호흡 곤란 증상 등을 보였다. 그럼에도 수혈과 같은 치료 겸 증상 완화 조치는 계속 필요했기에 기존 의료진은 A씨를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내는 대신 자문형 호스피스를 의뢰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사망하기 전까지 일반 병동에서 적극적인 통증 완화 치료와 같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았고, A씨 가족 역시 영정 사진 촬영과 장례식 준비 절차 등을 안내 받으며 좀 더 준비된 이별을 맞을 수 있었다. <br/>물론 한계도 있다. 호스피스팀이 진료 관련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입원형 호스피스와 달리,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 의료진이 최종 의사 결정을 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통증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호스피스팀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만 제공되는 미술ㆍ음악 치료와 같은 각종 서비스를 받는 것도 제한된다. 정부가 지난 8월부터 가정형과 자문형에 한해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기존의 암에서 에이즈,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화 등까지 넓혔지만 암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은 아직까지 호응이 크지 않은 것도 개선 과제다. 김대균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보험이사(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장)는 “<span class='quot3'>비(非)암성 질환을 담당하는 의사들은 자문형 호스피스가 뭔지도 잘 모르고 환자에게 말기 통보를 해본 경험도 부족한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3'>이들 의료진의 호스피스 이해도를 높여야 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span>”고 조언했다.<br/><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br/>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38.txt

제목: 최지우, 노희경 작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검토중(공식입장)  
날짜: 201710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18050730001  
ID: 01101101.20171018050730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배우 최지우가 노희경 작가의 새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검토 중이다.<br/><br/>tvN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18일 “<span class='quot0'>최지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출연을 제안 받고 논의 중이다</span>”라고 밝혔다. <br/><br/>‘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해온 중년의 부인이 어느 날 말기암 진단을 받고, 가족들과 이별을 준비하는 내용을 그린 드라마다.<br/><br/>앞서 1996년 MBC에서 4부작으로 방송된바 있으며 21년 만에 tvN에서 리메이크를 결정했다. <br/><br/>한편 최지우는 MBC ‘캐리어를 끄는 여자’ 이후 휴식 중이다.<br/><br/><br/><br/>이주희 기자 leejh@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39.txt

제목: '마이웨이' 임동진 "뇌경색으로 좌측 소뇌 30%만 정상적"  
날짜: 201710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18050634001  
ID: 01101101.20171018050634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배우 임동진이 몸 상태에 대해 밝힌다.<br/><br/>오는 19일 밤 10시 TV조선에서 방송되는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는 몸이 불편한 것에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온 임동진의 인생 스토리가 공개된다.<br/><br/>중, 고등학교 시절부터 배우가 되고 싶었던 임동진은 꾸준히 연극계의 문을 두드린 결과 1964년 연극 '생명'으로 데뷔해 이후 50여 년이 넘게 배우로서 필모그래피를 채워왔다.<br/><br/>전성기 시절에는 극성 팬들로 인한 에피소드가 무궁무진했다. 임동진은 "<span class='quot0'>어느 날 방송국 별관에 내가 본인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찾아와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span>"고 말했다. 아내 권미희씨는 "통금 시간이 있던 시절 남편이 밤 늦은 시간 낯선 여성과 함께 들어 오더라. 남편이 '이 사람이 팬이라고 하며 나를 쫓아왔으니 하룻밤 재워 줘라'라고 말해서 건넛방에 재워서 보낸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br/><br/>임동진은 2000년경 갑상선 암 수술 이후 연이어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며 건강에 위기가 찾아왔다. 집에서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진 임동진은 죽음을 직감하고 아내에게 "<span class='quot0'>거실에서 임종을 맞게 해달라</span>"라고 유언을 남겼다. 쓰러진 지 3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span class='quot0'>곧 장례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span>"는 의사의 소견을 받을 만큼 위험했지만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하지만 반신불수가 됐고, 이후 꾸준한 운동으로 두 발로 병원을 걸어 나갈 만큼 건강을 회복했다.<br/><br/>임동진은 아직도 병의 후유증이 있다며 "현재 좌측 소뇌의 30%만 정상적이다. 얼굴 반쪽에 화상을 입은 듯 한 작열감, 얼음을 얹어 놓은 듯한 감각 이상, 어지러움 증세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큰 병을 앓은 뒤 그는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2003년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뒤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고, 2015년 정년 퇴임을 하고 다시 배우로 돌아왔다.<br/><br/><br/><br/>권수빈 기자 ppb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40.txt

제목: [단독] 일자리 신문고 적시는 '비정규직 눈물'  
날짜: 201710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18051215002  
ID: 01101101.20171018051215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4개월간 민원 1만8000여건 접수<br/>4건 중 3건은 비정규직 문제 호소<br/>한시적 일자리, 일시ㆍ간헐적 업무 등<br/>정규직 전환 제외에 불만 폭주<br/><br/><br/>“서울 소재 공공도서관 야간 사서입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데 낮에 일하는 주간 사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고, 밤에 일한다는 이유로 야간 사서는 제외된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서울의 한 시립도서관 사서 A씨)<br/>“저는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인력으로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운영하는 사업이라 정규직 전환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한 노인인력개발센터 근로자 B씨)<br/>“대학의 연구원입니다. 학교가 연구소로 분류돼 정규직 전환 희망을 품은 제가 바보네요. 처음엔 모든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할 듯하더니 수탁연구과제 연구원은 제외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방 소재 대학교 기간제 연구원 C씨)<br/>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홈페이지 내에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라며 ‘일자리 신문고’를 설치(6월4일)한지 4개월여가 지났다.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1만8,644건(15일 기준), 휴일을 포함해도 하루 평균 140건의 민원이 신문고를 두드렸다. 특히 민원 4개 중 3개 이상은 이들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처우에 대한 호소였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이 해소되지 않아 곳곳에서 갈등과 마찰이 빚어지는 현실을 반영한다.<br/>17일 한국일보가 일자리 신문고 민원을 전수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관련 문제를 호소한 내용이 1만4,223건으로 전체의 76.3%에 달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 고충을 제기한 민원(12.1%ㆍ2,257건), 일자리 창출 (3.40%ㆍ634건), 근로조건(2.69%ㆍ503건) 등의 고충이 뒤를 이었다. <br/><br/><br/>특히 정부가 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일종의 ‘대원칙’만을 제시하면서 예외조항에 해당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일자리 신문고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우려가 큰 부분은 실업ㆍ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한시적 일자리, 즉 <br/>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는 점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부터 운영한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으로 채용된 공공도서관 야간연장인력(야간 사서)이나 노인복지 및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대표적이다. 실제 업무는 정규직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월급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br/>서울의 한 시립도서관에서 야간 사서로 근무하고 있는 오민나(32ㆍ가명)씨는 “<span class='quot0'>한시적 일자리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데, 실제로 현장에선 이를 엄연한 직업으로 여기고 계속 일하는 것이 보통</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벌써 10년 이상 관련사업이 진행됐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중단해도 계속 될 사업인데 어떻게 한시적 일자리라고 할 수 있냐</span>”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span class='quot1'>야간연장인력 중 사서 자격증을 가진 비율이 50% 정도라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자리 신문고에도 ‘사서 자격증 없는 비사서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민원도 올라와 제2의 기간제ㆍ정규직 교사 간 갈등으로 번질 소지도 있는 상황이다.<br/>또 다른 정규직 전환 제외사유인 ‘일시ㆍ간헐적 업무’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연구용역 인력이 많은 정부출연연구원(출연연)이 그 중심에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 출연연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예고해놓고도 수개월 째 미루면서 갈등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 출연연의 한 기간제 연구원은 “<span class='quot2'>출연연은 가이드라인 발표 전에는 비정규직을 아예 채용하지 않겠다는 입장</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2'>그 사이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직은 어떻게 될지 눈앞이 캄캄하다</span>”고 전했다. <br/>서류 상 업무와 실제 맡고 있는 업무가 달라 정규직 전환에서 빠지게 되는 사각지대도 있었다. 지방의 보건소 소속 기간제 간호사 D씨는 일자리 신문고에 “<span class='quot3'>노인 건강검진사업을 맡기로 하고 입사했으나 갑작스러운 업무변경 통보로 국가암검진사업을 맡게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3'>실제 업무와 달리 서류 상 소속인 노인 건강검진사업이 일시ㆍ간헐적 업무로 분류돼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span>”고 전했다. 지방 소재 대학의 기간제 연구원 C씨는 “<span class='quot2'>수탁연구과제 연구원이라고 해놓고 실제론 연구가 아닌 행정을 담당하는 연구원들이 많다</span>”면서 “<span class='quot2'>2년 동안 24개월을 쉬지 않고 일하지만 서류 상으론 11개월씩 계약하는 경우도 허다하다</span>”고 말했다.<br/>이처럼 쏟아지는 민원에도 일자리 신문고에서 이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4'>비정규직 전환 문제 등은 대부분 부처 소관사항이라 일자리 신문고에서는 관련 부처로 민원을 이동시키는 대처밖에 할 수 없다</span>”고 말했다. 정부는 금명간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전환 대상자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완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도 현장의 궁금증은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5'>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빨리 가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제대로 가는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5'>정부가 각 기관의 사정을 일일이 파악해 기준을 세워주는 것은 무리라고 하더라도 관련 문의사항을 묶어 자료를 배포해 어려움을 겪는 기관들을 돕는 등의 대처는 필요하다</span>”고 전했다.<br/>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41.txt

제목: 건보가입자 작년 94만원 내고 100만원 혜택  
날짜: 201710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17051012003  
ID: 01101101.20171017051012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진료 환자는 6.3% 늘어<br/><br/>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1인당 94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내고, 치료비로 100만원 가량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 진료 환자는 전년보다 6.3% 증가했고, 노인진료비는 13.5%나 늘어났다. <br/>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명이 낸 연간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포함)는 93만9,996원이었다. 1인당 연간 급여비(건강보험에서 지급한 검진ㆍ치료비)는 99만5,936원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은 1.06배였다. 납부한 보험료보다 건보 혜택을 본 의료비가 조금 더 많다는 뜻이다. <br/>지난해 암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143만5000명으로 전년(135만명)보다 6.3% 증가했다. 신규 암환자로 등록한 인원은 27만8,175명이었으며, 이들의 1년간 진료비는 2조7,100억원이었다. 지난해 기준 등록된 누적 암 환자는 총 186만2,532명이다. <br/>지난해 진료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본인부담 포함)는 398만원으로, 400만원에 육박했다. 총 25조2,692억원이 지출됐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이 13.5%에 달했다. 노인진료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2년 8.0%, 2013년 9.0%, 2014년 10.4%, 2015년 11.4% 등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br/>1인당 연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한 고액환자는 197만명으로 전체 진료인원 중 4.1%를 점유했다. 전체진료비 중 점유율은 41.2%에 이르렀다. <br/>이진희 기자 river@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42.txt

제목: [이제는 사람중심 경영이다] 잔업ㆍ해고 없는 ‘꿈의 직장’… 아이디어 춤 추게 하다  
날짜: 201710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17051048001  
ID: 01101101.20171017051048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정년 70세, 연 140일 휴가, 7시간15분 근무<br/>사장 몫 줄여 사원 임금 업계 최고 <br/>‘항상 생각하라’ 경영철학 강조<br/>사원 아이디어 年 2만건… 특허 3000개 <br/><br/><br/><br/>중소기업 ‘미라이(未來)공업’은 일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근무하고 싶어하는 ‘샐러리맨의 천국’으로 불린다. 도쿄(東京)에서 신칸센(新幹線)으로 2시간 거리 기후(岐阜)현 오가키(大垣)시의 건축용 전기부품 제조회사다. <br/>직원 850명인 이 회사엔 잔업이 없고 휴일근무도 없으며 비정규직은 물론 정리해고도 없다. 정년이 70세인 데다 휴가는 연간 140일. 육아휴직은 3년이고, 5년마다 단체로 해외여행을 간다. 하지만 올해(2017년 3월결산) 매출은 336억엔(3,360억원), 영업이익률은 8%에 달한다. ‘꿈의 직장’으로 알려진 미라이공업의 실체를 확인하러 지난 10일 현지를 방문했다.<br/>오후 4시 30분, 공장에서 전기스위치박스 조립작업을 하던 아사이 게이지(淺中敬二ㆍ68)씨가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15분만 지나면 무조건 퇴근합니다. 22세 때 입사해 지금까지 동료들과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불만은 거의 없지요.” <br/>4시 45분이 되자 ‘딩동댕’ 요란한 벨 소리가 울렸다. 회사생활에 만족하는 이유를 물으니 “다른 직장처럼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데다 업무 실적과 임금도 별로 연동되지 않는다”며 “하루 작업량을 스스로 결정해 무리하지 않아도 되니 당연히 안전사고도 없다”고 말했다.<br/><br/>“<span class='quot0'>잔업이 회사 이익을 갉아 먹는다.</span>”<br/>야마다 마사히로(山田雅裕ㆍ53) 사장은 창업주 야마다 아키오(山田昭男ㆍ1931~2014) 전 사장의 장남이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종신고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span class='quot0'>이익이나 매출만 중시하는 대기업들과 달리 일본의 지방 기업들은 아직 종신고용제가 많다</span>”고 말했다. 일본 맥도날드 등 일부 대기업도 실력주의나 성과주의가 일본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다시 연공서열제로 돌아서고 있다.<br/>야마다 사장은 잔업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 “<span class='quot1'>낮에 꾸벅꾸벅 졸면서 오후 5시쯤 ‘아,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일 좀 하자’는 식은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1'>근무시간 집중도를 높이려고 점심시간도 1시간 내로 제한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또 “잔업이 생길수록 회사 이익은 줄어든다”며 “1시간 잔업 해서 제품 1,000개를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잔업수당이 나가고 컴퓨터나 설비 전기료도 발생하니 회사이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셈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중 여러 차례 “잔업은 회사 이익을 갉아먹는 암적 존재”라고 강조했다.<br/>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 이 회사 근무시간은 당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다. 그러나 여성 직원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데려올 시간이 촉박하고, 퇴근 후 저녁 식사 준비 시간도 부족하다는 고충을 내놓자,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45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했다. 인터넷주문 처리 부서 나와타 유카리(49ㆍ여)씨는 “육아 부담이 큰 여성 직원들에겐 적절한 출퇴근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27년간 다녔는데, 사원요구가 신속하게 경영진까지 전달되는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br/><br/><br/><br/>영업능력보다 후배직원 키우는 능력 우대<br/>이 회사는 인센티브에 기반을 둔 성과주의도 없다. 개인의 적성에 주목해 인력배치를 적재적소에 하는 방식의 인사관리가 있을 뿐이다. 야마다 사장은 “<span class='quot1'>영업 능력이 뛰어나 회사매출을 올리는 직원은 당연히 우대된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하지만 그런 사람이 부하 직원을 키우는 능력은 떨어진다면, 우리 회사는 가장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 생각한다</span>”고 설명했다. “<span class='quot0'>일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상사가 후배직원에겐 제일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유능한 직원 한 사람으로서의 능력보다 상사로서 하급자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교육 능력이 더 중요한 덕목</span>”이라고 덧붙였다.<br/>그래서 기술직 급여체계가 다른 회사와 전혀 다르다. 숙련도가 높으면 더 높은 급여를 주는 체계가 미라이공업에는 없다. 숙련도가 높더라도 부하 직원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기술직에 남긴다. 반면 숙련도가 낮더라도 후배들을 잘 키우면 관리직으로 옮겨가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된다.<br/>자유로운 사풍(社風)이지만 유일하게 강조되는 부분은 “항상 생각하라”는 경영 철학이다. 일하는 분야에서 끊임없이 동기를 자극하라는 것이다. 1965년 창업한 미라이공업은 일본 경제 호황 속에 건축 관련 전기부품을 생산하면서 급성장했는데 여기에는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사원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1년에 2만4,000건씩 쏟아져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실용신안이 3,000여개가 넘는다. 회사 출입문에는 ‘열지 말고 지나가라’는 언뜻 보기에 이해하기 힘든 문구도 붙어있다. 몇 초라도 생각하게 만든다는 창업주의 기발한 발상의 흔적이 회사 곳곳에 남아있다.<br/> <br/><br/>“<span class='quot0'>사원 월급 많이, 사장 몫 축소가 창업주 자부심</span>”<br/>근무 조건이 좋고 승진 걱정도 안 하는 건 물론이고 임금수준도 동종 업계 최고다. 어떻게 유지될까. 야마다 사장은 “<span class='quot1'>한국은 어떨지 모르지만, 사장인 내가 급료를 거의 안 받기 때문</span>”이라고 말했다. “<span class='quot0'>우리 회사 평균 연봉은 610만엔(약 6,100만원)으로 일본 평균 연봉 420만엔(약 4,200만원ㆍ50명 이상 기준)보다 높지만, 내 월급은 100만엔(약 1,000만원ㆍ연봉 1억2,000만원)으로 다른 회사 사장보다 턱없이 적다</span>”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몫을 줄이고 사원 수입을 늘린다는 게 선대 창업주의 프라이드였다”며 “한때 공장 생산부장 임금이 회사 전체에서 가장 높았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가 낭떠러지에 처했을 때 사원들의 사기가 꺾이면 끝이지만 사원들이 열심히 일해주면 위기탈출이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br/>취재를 마치고 도쿄로 돌아오기 위해 인근 기후하시마(岐阜羽島) 역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더니, 택시 기사도 미라이공업을 훤히 꿰고 있었다. 그는 “매년 취업 시기가 되면 도쿄는 물론 홋카이도(北海道)와 오키나와(沖繩)에서도 면접을 보러 학생들이 몰려온다”며 “작년엔 20명 뽑는데 1,000명이 넘게 지원한 거로 안다”고 말했다.<br/>오가키시(일본 기후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43.txt

제목: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하는 건강 Tip] 조기 위암  
날짜: 2017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16051041002  
ID: 01101101.20171016051041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이다. 전체 암 환자의 21%(남자 25%, 여자 16%)를 차지한다. 최근에 건강 검진이 많아지면서 조기에 발견되는 위암이 많아지면서 완치율도 높아져 위암 사망률은 다소 줄어들고 있다.<br/><br/>Q. 위암 원인을 꼽자면.<br/>“다양한 원인 가운데 헬리코박터균, 식이 요인, 유전 요인 등이 중요하다. 훈제ㆍ염장음식 속 질산염이 변질되면서 생성되는 아질산염, 육류ㆍ생선 등을 구울 때 생기는 벤조피렌 등이 위험인자다. 음주, 흡연, 위암 가족력 등도 관련 있다.”<br/> <br/>Q. 어떻게 진단하나.<br/>“대부분 증상이 없어 증상만으로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위암이 많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위암 진단법으로는 위내시경 검사와 위장조영촬영술이 있다. 입으로 긴 관을 넣어야 하는 내시경이 두려워 조영촬영술을 택하는 사람이 많지만 위 내시경 검사가 위암, 특히 조기 위암 발견에 좋고, 사망률도 낮아 내시경 검사를 추천한다.”<br/><br/>Q. 조기 위암 치료법은.<br/>“내시경적 시술과 복강경 수술을 한다. 위암이 점막이나 점막 하층 일부에 국한되고, 주변 림프절 전이가 없으면 내시경적 시술이 가능하다. 내시경적 시술은 내시경으로 각종 도구(내시경용 칼, 올가미 등)를 넣은 뒤 암 부위만 완전히 잘라내는 치료하는 방법이다. 2~4일의 짧은 입원기간, 퇴원 직후 정상적으로 식사할 수 있어 일상으로 복귀가 빠른 게 장점이다.”<br/><br/>Q. 위염ㆍ위궤양이 위암으로 악화하나.<br/>“위염이나 위궤양이 오래돼 위암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헬리코박터균 등으로 만성 염증이 생기면 정상 위점막이 대장의 상피와 비슷한 조직학적 변형을 보이는 장상피화생이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장상피화생을 진단받았다면 위선종 또는 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최소한 1~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는 게 좋다. 위궤양은 양성 위궤양과 악성 위궤양으로 나뉜다. 활동기 위궤양은 정확한 감별이 어렵고, 염증세포도 많아 처음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섞여 있어도 조직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양성 위궤양으로 추정된다고 해도 조직검사를 반드시 하고, 위궤양 치료 후에도 내시경과 조직검사를 다시 하는 것이 좋다.”<br/><br/>Q. 위암 예방법은.<br/>“짜고 탄 음식을 피하고, 항산화제와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 채소나 과일을 섭취한다. 금주ㆍ금연은 필수다. 무엇보다 정기 위 내시경 검사로 위암을 빨리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 고위험군이라면 소화기내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도움말=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김도훈 교수>

언론사: 한국일보-1-144.txt

제목: [이 상품 어때요] 교보미리미리CI보험 外  
날짜: 2017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16050851002  
ID: 01101101.20171016050851002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교보미리미리CI보험<br/>교보생명은 작은 병부터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보미리미리CI보험’을 출시했다. 사망은 물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치매 등 중대 질병(CI)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CI 이전 단계의 질병과 합병증까지 보장을 확대했다. 특약을 통해 CI로 발전 가능성이 큰 중기 이상의 만성 간ㆍ폐ㆍ신장질환과 당뇨나 고혈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보장한다. 질병이 발생하기 전 노후에 자금이 필요하면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주는 ‘보험금 부분전환 서비스’도 도입됐다. 보험금을 감액해 발생한 해지환급금을 생활비로 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보험금 재원을 미리 받는 구조여서 해지환급금이 없어도 자금을 받을 수 있다.<br/><br/>신한인터넷당뇨엔두배받는건강보험<br/>신한생명이 지난 7월 출시한 ‘신한당뇨엔두배받는건강보험’의 인터넷 전용 상품인 ‘신한인터넷당뇨엔두배받는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순수보장형과 50% 환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점포운영비와 설계사 수수료가 없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당뇨병 진단 보장과 함께 합병증으로 발생 가능한 각종 질병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준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당뇨병 진단 확정시 진단급여금 50만원, 당뇨병으로 진단 후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2,000만원의 진단급여금을 지급한다. 애플리케이션 ‘혈당관리수첩’에서 매년 3회 이상 혈당을 측정해 입력하면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해 준다. <br/><br/>KB국민 탄탄대로 비즈 티타늄<br/>KB국민카드는 소상공인 특화 상품 ‘KB국민 탄탄대로 비즈 티타늄’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SK주유소와 GS칼텍스 주유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하고 전월 실적이 40만원 이상이면 이용금액 기준 월 20만원까지 리터당 110점이 포인트로 쌓인다.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사업 관련 출장시 유용한 공항 라운지 서비스(일 1회, 연 2회)와 인천공항 및 국내 주요 호텔 발레파킹 서비스(각각 월 3회, 연 12회)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환급대상 자동 분류 및 환급 예상액 조회 ▦국세청 세금신고용 전자파일 자동 생성 등 세무 지원 서비스는 전월 실적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연회비는 4만원이다.

언론사: 한국일보-1-145.txt

제목: [단독] 농진청, 발암 추정물질 포함 제초제를 업체 실험결과만 믿고 허용  
날짜: 2017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16050543001  
ID: 01101101.20171016050543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출하제한 해제 ‘글리포세이트’<br/> 프랑스는 단계적으로 금지키로<br/>“<span class='quot0'>위해성 지적 많아 철저 검사해야</span>”<br/><br/> <br/><br/>농촌진흥청이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한 제초제 성분(글리포세이트)에 대해 자체적인 검증 실험도 거치지 않은 채 출하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는 주로 경작지 주변에 뿌려져 인체 유입 위험이 있다.<br/>1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1월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열고 글리포세이트의 출하제한 처분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span class='quot1'>국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span>”고 해명했다. <br/>하지만 김현권 의원은 “<span class='quot2'>농진청이 자체 검증은 거치지도 않은 채, 제초제 제조사의 실험 결과를 재분석하는 등 해제에 유리한 정보만 취사선택했다</span>”고 지적했다. <br/>글리포세이트는 미국 몬산토가 1974년 개발한 제초제 ‘라운드업’에 함유된 성분이다. 세계적으로 8억톤 가량의 글로포세이트 함유 제초제가 쓰이는 걸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도 전체 제초제의 55%(2,235톤ㆍ2015년 기준)에 글리포세이트가 쓰이고 있다. <br/>문제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015년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하면서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IARC는 “<span class='quot3'>글리포세이트가 사람에게 폐암 등을 일으킨다는 제한적 증거가 있으며 동물 발암에는 증거가 확실하다</span>”고 설명했다. 반면 유엔 국제잔류농약전문가그룹(JMPR)은 지난해 5월 “<span class='quot4'>글리포세이트가 음식물 섭취로는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span>”고 발표했다. 국제기구의 다소 상반된 발표로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프랑스는 지난달 2022년까지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천명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지난 7월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물질로 분류하기로 했다. <br/>하지만 이런 움직임에도 농진청은 이미 지난 1월 글리포세이트 1,900톤의 출하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span class='quot0'>▦동물실험 ▦농약살포자 노출 실험 결과, 발암 위해성이 낮았다</span>”는 게 근거였는데, 두 실험은 모두 몬산토사와 국내 농약제조사 등 이해 당사자가 실시한 기존 실험을 농진청이 재평가한 결과였다. 농진청은 여기에 “<span class='quot1'>글리포세이트 제초제 가격(6,000원ㆍ500㎖ 기준)이 대체제인 글루포시네이트의 절반 수준이어서 사용이 막힐 경우 영농 비용이 증가하는 점도 고려했다</span>”고 해명했다. <br/>임영석 강원대 의생명융합학부 교수는 “<span class='quot5'>통상 관련 기업의 후원을 받는 연구들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5'>이미 많은 논문들의 글리포세이트의 위해성을 지적한 만큼 정부가 더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 <br/>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46.txt

제목: 화승,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돕기 또 ‘큰 나눔’  
날짜: 201710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14050234002  
ID: 01101101.20171014050234002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부산 어린이대공원서 걷기대회 <br/>임직원 모금, 물품 등 1억 후원 <br/>시민 1000여명 사랑나눔 ‘동참’<br/> <br/>화승이 후원하는 제9회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돕기 사랑나눔 걷기대회가 14일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렸다. <br/>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부산지회장 박동호)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 화승은 현금 및 임직원 모금, 물품 등 총 1억원을 후원했으며, 행사 곳곳에 이벤트 존을 설치해 걷기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먹거리 등 사랑나눔을 아끼지 않았다. <br/>화승은 2003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의 정식 개소부터 끊임없는 지원을 통해 사랑나눔을 실천해왔다. 특히 부산지회 개소와 함께 시작된 '사랑의 보금자리(쉼터)', ‘사랑나눔걷기대회’, ‘천사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후원 활동을 함께하며 환아와 가족들의 후원에 앞장섰다. <br/>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 후원 회장을 맡고 있는 현지호 화승 총괄부회장은 “<span class='quot0'>과거 30% 수준에 머물렀던 백혈병소아암 완치율이 현재 80~85%까지 성장한 것은 의술의 발전과 더불어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더욱 큰 사랑을 모아 환아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한편 부산 어린이대공원 일대 총 3.4㎞를 백혈병소아암 환아와 함께 걷는 이날 행사에는 서병수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화승 임직원 및 부산ㆍ경남 주민 1,0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47.txt

제목: tvN 측 "노희경 작품 '변혁' 후속...'디마프' 감독 연출"  
날짜: 201710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13050715001  
ID: 01101101.20171013050715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노희경 작가의 작품이 tvN 편성을 확정지었다.<br/><br/>tvN 측은 13일 "노희경 작가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변혁의 사랑' 후속으로 편성된다"고 밝혔다.<br/><br/>연출은 앞서 노희경 작가와 '디어 마이 프렌즈'를 함께 했던 홍종찬 감독이 하게 됐다.<br/><br/>'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와 무능한 의사 남편, 과년한 딸과 재수생 아들 등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해온 주부가 어느 날 말기암 진단을 받고 죽어가면서 가족들의 이해와 화합을 그린 작품. 1996년 방송됐고 리메이크로 다시 시청자들과 만나게 됐다.<br/><br/><br/><br/>명희숙 기자 aud66@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48.txt

제목: 연합뉴스 노조, 박노황 사장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날짜: 201710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11050931002  
ID: 01101101.20171011050931002  
카테고리: 사회>미디어  
본문: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연합뉴스 노조)가 11일 노조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을 고소했다.<br/>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 노조는 이날 "박 사장은 지속적으로 노조를 부정·폄훼하고 노조 현·전임 간부들을 부당 징계·보복성 지방발령 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br/>연합뉴스 노조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절차의 미준수, 남녀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박 사장이 노조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와 지방발령, 호봉승급 제한 등 불이익처분과 탄압 인사로 노조활동을 억압한 데 대해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br/>노조에 따르면 박 사장은 2012년 연합뉴스 103일 공정보도 쟁취 파업을 이끈 공병설 전 지부장과 2010년 노조 공정보도위 간사를 지낸 이주영 현 지부장 등을 2015년 5월 갑자기 지방으로 전보 발령했고, 2015년 11월 언론노조 본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당시 김성진 지부장에 대해 감봉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16년 4월에는 노조 간부를 지낸 조합원들을 포함한 24명을 취업규칙에 따라 관행적으로 인정되어온 근로조건인 매년 2호봉 승호 대상에서 제외했다.<br/>노조는 "이는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절차를 어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br/>노조는 또한 "박사장이 2015년 3월 취임 직후부터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노조 자체를 부정하고 극도로 비하·폄훼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심각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취임한 해 간부 워크숍에서 "노조는 언노련(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과 연결돼 있지 않나. 분명히 말하지만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r/>노조는 "박 사장의 이런 부당노동행위가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와 공정보도 시스템 파괴에 대한 노조의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에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박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책임지고 당장 사퇴할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br/>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49.txt

제목: 보육료 지원확대ㆍ주민세 감면… 또 복지정책 보따리 푼 인천시  
날짜: 201710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11050913001  
ID: 01101101.20171011050913001  
카테고리: 사회>장애인  
본문: 인천복지재단 설립 등도 발표<br/>“지방선거 앞둔 선심 행보” 시각<br/><br/><br/>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가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부터 사립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부담해온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 인천복지재단 설립 등도 추진한다.<br/>인천시는 11일 어르신과 여성, 장애인, 아동, 교통약자 등을 위한 내년 주요 정책들을 공개했다.<br/>우선 차상위계층과 80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12만6,000여명, 감면액은 연간 12억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지방세 감면 때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덜 받는 페널티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부담액은 24억5,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br/>시는 또 사회복지정책에 체계적인 연구ㆍ개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위해 인천복지재단을 내년에 설립할 예정이다.<br/>재정 위기로 축소했던 보훈, 여성,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고 저소득층 암 환자 치료 지원도 기존 6대 암 대상에서 모든 암 대상으로 확대한다. 기초수급자, 홀몸 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립장례식장을 인천가족공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한다.<br/>160인 규모의 노인 요양시설과 40인 규모의 주ㆍ야간 보호시설을 갖춘 시립치매전문종합센터,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이 밖에 치매안심센터를 기존 5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고령사회대응센터도 설립한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홀몸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 가정ㆍ성폭력 이동상담소 운영 등도 추진한다.<br/>시는 지난달 2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복지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데 잡음도 적지 않다.<br/>학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출산 축하금 지급 등은 기초자치단체와 재정 분담과 관련한 협의 없이 시행 계획부터 밝혀 논의 과정서 지뢰밭길이 예상된다. 시는 고교 무상급식 조기 시행도 검토 중인데 시교육청은 벌써부터 예산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민간 복지와의 기능 중복, 엉터리 경제타당성 분석 등을 이유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br/>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재정위기에서 벗어난 성과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군ㆍ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50.txt

제목: 역시 고등어 ‘노화방지 셀레늄 함량 가장 높아’  
날짜: 201710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10050810001  
ID: 01101101.20171010050810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경기보건연, 국민생선 대상 조사<br/>붉은살에 많아…우럭, 방어, 삼치 순<br/>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먹는 생선 가운데 고등어가 셀레늄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셀레늄은 노화속도를 지연시키는 항산화 효과가 높은 물질이다. <br/>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 1월부터 9월까지 국민생선인 삼치, 대구, 꽁치 등 13종 620여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등어의 셀레늄 함량이 0.66mg/kg으로 가장 높았다. <br/>고등어에 이어 우럭(0.54mg/kg) 방어(0.49mg/kg) 삼치(0.42mg/kg) 조기 (0.42mg/kg) 청어(0.39mg/kg) 가자미(0.36mg/kg) 대구(0.35mg/kg) 꽁치(0.34mg/kg) 아귀(0.33mg/kg) 순이었다. <br/>고등어는 껍질 안쪽 붉은살 부위의 셀레늄 함량이 평균 0.76mg/kg으로 흰살 부위 0.54 mg/kg보다 4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197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영양소로 지정한 셀레늄은 1일 섭취 권장량이 성인 기준 50~200㎍이다. 과산화질 분해제거와 활성산소 제거로 항산화, 심장기능 향상, 심근 퇴행성 질환과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고등어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납 0.05mg/kg, 카드뮴 0.01mg/kg 및 수은 0.04 mg/kg으로 허용기준치(납 0.5mg/kg, 카드뮴 0.2mg/kg, 수은 0.5mg/kg)를 모두 밑돌았다.<br/>연구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고등어는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뿐만 아니라 필수 미네랄인 셀레늄의 함량도 높아 노화를 방지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웰빙식품</span>”이라고 말했다.<br/>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51.txt

제목: 두근거림 같은 가벼운 증상이 급사하는 부정맥일 수도  
날짜: 201710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09050639001  
ID: 01101101.2017100905063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돌연사 주범’ 부정맥 환자 40만~50만명으로 추정<br/>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였다. 전체 사망자의 10% 정도가 심장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대표적인 심장질환으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과 심근경색,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혈액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는 심부전, 심장박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부정맥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부정맥은 전체 돌연사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돌연사의 주범이다. 부정맥은 50세 이후부터 급증하는데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한데다가, 증상을 알아채기 어려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보다 더욱 위협적이다. 부정맥 증가율은 협심증, 심근경색의 5배나 된다. 숨어있는 환자까지 포함하면 40만~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br/> 부정맥은 심장의 전기 자극이 잘 만들어지지 않거나 자극의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심장박동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 부정맥은 두근거림과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현기증이나 실신, 심한 경우에는 바로 심장마비나 급사로 이어지기도 하는 위험한 질환이다. <br/><br/>서맥, 빈맥, 세동으로 구분<br/>심장은 심장 안의 전기 전달 체계를 이용해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뛴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심장이 1분에 60~100번, 보통 70번 내외로 뛴다. 하지만 심장의 전기 전달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심장의 정상적 리듬이 깨져 부정맥이 된다. 1분에 60회 미만으로 뛰면 ‘서맥(느린맥)’, 100회 이상으로 규칙적으로 빨리 뛰면 ‘빈맥(빠른맥)’으로 구분한다.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아주 빠르게 뛰면 ‘세동(細動)’이라고 한다.<br/>서맥은 증상이 없으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어지럼증, 피곤함, 기운 없는 증상 등이 나타나면 치료해야 한다. 전기전달체계 이상으로 전기를 만들지 못하거나 전기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원인이라면 전기 자극을 만들어주거나 전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해 치료한다. <br/>인공심박동기 삽입술은 팔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 혈관을 통해 전극선을 심장 안에 넣어 이 전극선을 박동기에 연결한 뒤 왼쪽 쇄골 아래 가슴의 피부 밑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시술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다.<br/>빈맥은 심장의 윗부분인 심방과 아랫부분인 심실 중 어느 곳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분류된다. 심방에서 발생하는 빈맥을 심방성(상심실성) 빈맥, 아랫부분인 심실에서 발생하는 빈맥을 심실성 빈맥이라고 한다. 상심실성 빈맥 중 가장 흔한 부정맥이 심방세동이다.<br/>주 증상은 가슴이 심하게 뛰는 느낌,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체한 듯한 느낌, 어지럼증, 식은땀, 가슴통증이다. 심방에서 발생하는 빈맥은 약물로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를 하거나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RFCA)로 완치할 수 있다. 심실에서 발생하는 빈맥은 심실 기능 장애가 없으면 약물치료를 하거나 완치를 위해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한다. 심실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돌연사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를 삽입하는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약물 치료,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추가로 시행한다.<br/>세동은 심실에서 발생하는 경우(심실세동)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돌연사의 원인이므로 제세동기를 넣어 돌연사를 예방한다. 심방에서 생기는 세동(심방세동)은 심방에 병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확장되거나 폐정맥(폐에서 심방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혈관)이 심방으로 연결된 부위에서 비정상적인 전기현상이 발생해 심방이 300번 이상 뛰게 되는 현상이다. 맥박이 불규칙하게 되고 어지럼증, 두근거림, 흉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br/>약물치료로 규칙적인 정상맥으로 만들거나 맥박 횟수를 안정화하는 치료가 주된 치료법이었다. 약물치료로도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지만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반면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하면 거의 모든 빈맥이 완치될 수 있다. 난치성 질환인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에도 약물로 정상맥을 회복할 확률이 50% 미만에 불과해 증상 조절에 한계가 있으나 고주파 시술을 이용하는 경우 증상 조절에 효과적이다.<br/>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은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술이다. 전극도자들을 말초혈관을 통해 심장에 삽입한 후 X선 투시영상의 도움을 받아 심장 내 이상 부위를 절제하거나 괴사시켜 부정맥을 완치ㆍ조절한다. 하지만 X선 사용 시 방사선 노출로 인해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어, 최근 X선 없이 초음파만을 이용하는 제로(ZERO) 방사선 전극도자 절제술이 최신 치료법으로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다. 특히 심방세동과 같이 시술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므로 제로 방사선 전극도자 절제술이 필요하다.<br/><br/>금연, 절주, 운동, 만성질환 관리가 예방법<br/> 부정맥은 심장의 선천적 이상 외에 담배, 술, 카페인, 심근경색과 고혈압 등 다른 심장 질환 등이 유발 요인이다. 예방하려면 흡연과 음주를 줄이고, 유산소 운동을 1주일에 3~4회 이상, 1시간 정도 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아주 약하게 시작해 점점 강도를 높였다가 마무리할 때 서서히 낮추는 것이 좋다. <br/>최민석 유성선병원 심장부정맥센터장은 “<span class='quot0'>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심장질환은 일찍 치료를 받을수록 회복 가능성이 커 증상을 미리 숙지한 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span>”고 했다.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1-152.txt

제목: ‘심장질환의 종착역’ 심부전, 1년 내 30~40% 목숨 잃어  
날짜: 201710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09050637001  
ID: 01101101.2017100905063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환절기 발병 위험 증가…계단 이용ㆍ걷기 실천을<br/>일교차가 10도 이상인 요즘 같은 환절기엔 심혈관 질환이 급증한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인체가 적응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커지면 심장과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4%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br/>기온도 평소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면 혈압은 13㎜Hg 정도 높아진다. 혈압 상승은 뇌졸중, 심근경색증, 협심증, 대동맥박리, 심부전(심장 기능 상실) 등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환절기에 늘고 있는 심혈관 질환 가운데 ‘심장질환의 종착역’이라고 불리는 심부전(心不全)에 대해 알아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심부전 환자가 최근 5년 간 20% 가량 늘어났다. 사망률도 큰 폭으로 증가해 1년 전보다 사망자 수가 3배 이상 늘었다.<br/><br/>호흡곤란ㆍ부종ㆍ심한 피로감 등이 주 증상<br/>심부전은 심장 기능 이상으로 온 몸에 피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다. 고혈압ㆍ당뇨병 등 심장에 영향을 주는 질환에 걸리면 마지막 단계에 필연적으로 걸린다. 그래서 ‘심장질환의 종착역’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는 10명 가운데 4명에 불과하다.<br/>대표적인 심부전 증상은 호흡곤란이다. 처음에는 운동하거나 움직일 때 나타나지만 질병이 악화되면 밤에 자다가 갑자기 숨이 차 깨기도 한다. 가만히 쉬고 있어도 숨이 가빠진다. 또 심장이 신체기관에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명(쌕쌕거리는 호흡), 부종, 심한 피로감 등도 나타난다. <br/>심부전은 사망률과 재입원율이 매우 높다. 조사에 따르면 심부전으로 입원해 치료받고 퇴원한 뒤 18.8%가 90일 이내, 37.4%가 1년 이내 심장 때문에 다시 입원했다. 심부전 환자의 30~40%는 심부전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하고, 60~70%는 5년 이내 심부전 악화나 급성 발작으로 목숨을 잃는다. 이는 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과 심근경색보다 높은 수치다.<br/>게다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서 심부전 발병률이 높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주요 입원과 사망 원인이다. 국내 심부전 유병률은 1.5%(75만명)로 추정되고 있다. 2040년에는 환자가 2배 늘어나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은석 대한심장학회 산하 심부전연구회장(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은 “<span class='quot0'>우리나라에서도 80%세 이상에서 10% 이상 늘어나고 있다</span>”고 했다.<br/><br/>계단 이용하고 하루 20분 걷기 실천을 걸어야<br/>심부전을 예방하려면 비만과 당뇨병, 흡연, 혈압을 조절해야 한다.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평소 계단을 이용하고 하루 20~30분 걷기 등 꾸준한 운동과 함께 당분이나 나트륨(소금), 포화지방 섭취를 줄여야 한다.<br/>강시혁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심장 기능이 떨어진 심부전 환자는 독감이나 폐렴에 걸리면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므로 폐렴과 독감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심부전 진단에는 병력과 신체소견, 흉부 X선ㆍ심전도ㆍ심장부하검사 등을 병용하는 방법이 유용하다. 컴퓨터단층촬영(CT)과 심장초음파검사도 활용되고 있다.<br/>하지만 아직 심부전 환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논의가 미비하다. 정욱진 길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심부전은 완치 개념이 없고 일부 암보다 생존율이 낮은데다 반복적인 입원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많아 전 세계적인 공중 보건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반복되는 입원과 응급실행 등 심부전 환자는 질환에 따른 고통뿐만 아니라 2차적 고통도 크다”고 했다. 심부전 환자의 평균 재원일은 8일인데 이에 따른 입원비는 770만원이나 된다. 특히 이 중 본인부담금은 260만원이다. <br/>최진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심부전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인공심장이나 좌심실 보조장치는 기계 값만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br/><br/><심혈관질환 예방 위한 10계명>(대한심장학회)<br/>①금연하라= 하루 반 갑 흡연으로 심혈관질환 위험을 3배 늘린다. 간접흡연도 2배 높인다. <br/>②적절한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라= 복부비만은 내장지방 축적으로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리고, 탄수화물과 지방의 대사이상을 가져온다.<br/>③규칙적으로 운동하라= 운동은 혈압과 체중을 정상으로 복원시키며, ‘좋은’ 고밀도 지단백(HDL)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나쁜’ 저밀도 지단백(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인다.<br/>④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어라= 채소와 과일, 도정하지 않은 곡물(현미, 잡곡 등)와 콩류에는 복합 탄수화물, 섬유질, 칼륨, 비타민, 항산화제 등이 들어 있어 혈압을 낮추고 탄수화물과 지질대사를 호전시킨다.<br/>⑤염분, 단순 당, 붉은 고기, 트랜스지방을 주의하라= 짜게 먹는 식습관은 고혈압, 동맥경화증을 촉진한다. 김치, 찌개, 국, 젓갈, 라면, 마른 안주에도 염분이 많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br/>⑥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먹어라=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에는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EPAㆍDHA가 들어 있어 1주일에 2회(230g) 이상 섭취하라. 호두, 아몬드, 땅콩 등 견과류에도 불포화 지방산, 섬유소, 비타민E 등이 많아 LDL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뇌혈관질환과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이다.<br/>⑦과음을 피하고 술은 하루 2잔 이내로 하라= 지나친 음주는 심근 기능을 떨어뜨려 심부전을 유발하고, 관동맥 경련에 의한 협심증, 부정맥 및 급사도 일으킬 수 있다.<br/>⑧충분히 자고, 가족ㆍ친구와 다정하게 지내라= 수면은 심혈관 건강과 정신 건강,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준다. 하루 7시간 숙면하라. 지나친 일과 과중한 업무도 심혈관질환의 적이다.<br/>⑨자연과 가깝게 지내고 공해를 피하라= 미세먼지와 오존 등 각종 공해도 심혈관질환의 원인이다. <br/>⑩정기적으로 건강 검진하라= 건강한 심혈관을 유지하려면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등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증상이 없어도 정기 검진으로 위험요인을 조기 검진하면 좋다.

언론사: 한국일보-1-153.txt

제목: [헬스 프리즘] 나도 골다공증 치료를 받아야 하나?  
날짜: 201710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09050635002  
ID: 01101101.2017100905063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변동원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순천향대서울병원 내분비내과 교수)<br/><br/>나이 들면서 암ㆍ치매 못지 않게 예방해야 할 병이 통증과 보행장애를 초래하는 근골격계 질환이다. 65세가 넘으면 엉덩이관절(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내 골절과 관련해 사망할 확률이 20%이고, 80세 이후엔 40%가 넘는다. 이를 막으려면 뼈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뇨병ㆍ고혈압처럼 골다공증도 초기엔 별 증상이 없어 치료에 관심 없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골다공증 인지율은 여성 24%, 남성 10.6%로 매우 낮다. 그러나 실제론 고령인에게 골다공증 골절은 심장질환의 2배, 뇌졸중의 6배까지 많이 발생한다. 정부 차원에서 골다공증 골절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br/>‘나도 골다공증 치료를 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할 위험에 얼마나 노출됐는지에 달려 있다. 골다공증 골절 위험은 골밀도 측정만으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다른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성별, 나이, 골절 과거력, 스테로이드 같은 약 사용력, 류마티스관절염, 술, 담배, 운동부족 등이 중요시 된다.<br/>뼈가 약한 정도는 골밀도 측정으로 T-점수를 산출해 -1.0 이상이면 정상골밀도, -2.5~-1.0면 골감소증,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한다. 이 같은 골밀도 검사 결과로 치료 여부를 주로 결정하는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개인의 골절 발생 위험에 근거해 치료 여부를 정한다. 실제로 골다공증 골절 환자의 절반이 골밀도 수치로만 보면 골감소증 환자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치료 결정에 있어 골밀도 측정의 중요성이 줄어 들고 있다. 즉 50세의 골다공증 환자보다 80세의 골감소증 환자가 골절이 생길 위험이 더 높아 후자를 치료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br/>따라서 적절한 골절위험 평가를 위해 대한골대사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한국인의 골다공증골절 예측 프로그램’이 공단의 건강iN 홈페이지에 서비스하고 있어, 자신의 골다공증 골절위험도를 쉽게 계산해보고 조언을 얻을 수 있다.<br/>그런데 2016년 9월 미국골대사학회는 전세계적으로 발생된 골다공증 치료 위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 최근 골다공증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율, 진단율, 치료율이 모두 낮아지면서 미국에서 30년간 감소하던 엉덩이관절 골절률이 최근 몇 년간은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 추세로 바뀌어서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최근 발생한 골다공증 치료의 부작용으로 턱뼈괴사 및 부정형대퇴골골절 두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br/>미국골대사학회, 국제골다공증재단, 유럽골다공증학회 등 32개 유수의 학회들은 골절 예방을 위해 골다공증 진단과 치료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했다. 대한골대사학회도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자신이 골다공증골절 고위험군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체계적으로 골절 예방을 위해 관리ㆍ치료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언론사: 한국일보-1-154.txt

제목: [이 상품 어때요] 비자-케이뱅크 해외 겸용 체크카드 外  
날짜: 201710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09050507001  
ID: 01101101.2017100905050700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비자-케이뱅크, 해외 겸용 포인트 적립 체크카드<br/>비자카드가 케이뱅크와 함께 해외에서도 결제 가능한 포인트 적립형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해외 온ㆍ오프라인 결제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이 가능하다. 출시를 기념해 연말까지 해외 결제액에 대해 케이뱅크의 해외결제 이용 수수료가 면제된다. 케이뱅크 포인트 적립형 체크카드는 국내외 가맹점에서 월 24만원 이상 사용하면 당월 이용금액의 1%가 포인트로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해 케이뱅크 계좌로 입금된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또 GS리테일의 팝(POP) 서비스가 기본으로 탑재돼 있어 GS25와 GS슈퍼마켓 이용시 GS포인트 적립과 현장할인 등의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br/><br/>한화생명, 간편가입 생활비 받는 종신보험<br/>한화생명은 고령자와 유병자를 위한 종신보험인 ‘한화생명 간편가입 생활비 받는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고혈압ㆍ당뇨 환자도 고지항목 3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고지항목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ㆍ수술ㆍ추가 검사 의사 소견 ▦최근 2년 내 입원ㆍ수술 이력 ▦최근 5년 내 암으로 진단ㆍ입원ㆍ수술 이력 등이다. 최대 73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주계약은 비갱신형이며 특약은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고 100세까지 보장된다. 사망보장과 함께 생활비도 보장된다. 생활비 지급기간을 5, 10, 15, 20년 이상 중에서 선택해 사망보험금을 줄여 발생한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br/><br/>농협은행, NH 모바일 전세대출<br/>NH농협은행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NH모바일전세대출’을 출시했다. 모바일로 대출한도와 금리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으며 약정서 등 대출신청서류를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하면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자료가 자동 전송돼 별도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대상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5％ 이상 지급한 개인 고객이다. 농협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0.7％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언론사: 한국일보-1-155.txt

제목: [강소기업이 미래다] “유전체 진단, 질병 예측 넘어 건강ㆍ화장품까지 산업 확장”  
날짜: 201710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09050441002  
ID: 01101101.20171009050441002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2013년 인천 송도서 바이오벤처 설립<br/>게놈 연구ㆍ유전자 진단 세계적 수준<br/>국내 규제로 초기부터 해외 진출<br/>빅데이터 쌓일수록 활용도 배가<br/>다이어트ㆍ피부 등 맞춤형 관리서<br/>조상찾기 등 다양한 서비스로 진화 <br/>“유전체 진단의 시대가 바뀌고 있다. 희귀질환 등 유전적 질병을 찾기 위한 건 전체 유전체 분석의 1~2%밖에 되지 않는다. 대신 안젤리나 졸리로 유명해진 유전성 유방암 검사 같은 질병의 예측을 위한 검사가 크게 늘고 있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걸 알게 되면 생활 습관의 변화 등을 통해서 위험도를 낮추거나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유전체 분석의 쓰임새는 웰빙과 호기심인데 여기에 유전체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본다.”<br/>이민섭 박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는 이원의료재단과 미국의 다이애그노믹스란 바이오벤처가 합작해 2013년 인천 송도에 세운 회사다. 첨단 유전자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이다. <br/>이 대표는 게놈 연구, 유전자 진단 및 맞춤형 의학 관련 분야에선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전문가다. 2003년 미국 최초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감염된 소의 유전자 분석을 빠르게 수행해 캐나다 수입 소임을 밝혀냈고 그 공로로 미국 농무부에서 표창을 받기도 했다. <br/>이 대표와 EDGC가 최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일상으로 들어온 유전체 진단이다. 이 대표는 “<span class='quot0'>빅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며 이젠 유전자 정보를 통해 그 사람에겐 어떤 운동이 잘 맞고, 다이어트 방법은 뭐가 효과적이고, 잘 맞는 영양제는 어떤 종류인지를 알 수 있는 시대가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미각과 후각을 조절하는 데도 유전자의 역할이 큰데 각 개인에게 맞는 와인을 유전자 분석을 통해 추천할 수도 있다</span>”고 말했다. <br/>최근 화장품, 의약품 생산업체인 한국콜마홀딩스가 EDGC의 지분 10.76%를 인수하며 양 사는 전략적 관계를 맺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맞춤형 영양제나 화장품의 본격 개발을 위해 두 회사가 손을 잡은 것이다. EDGC는 최적의 와인 찾기 서비스를 준비 중으로 곧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br/>이렇게 유전체 진단이 의료기관을 넘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산업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는 “<span class='quot0'>미국의 경우 이미 유전 정보를 통해 자신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고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span>”며 “<span class='quot0'>타이레놀, 아스피린 등 두통약의 경우도 개인에 따라 잘 맞는 게 따로 있다</span>”고 말했다. <br/><br/>일반인들이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검사기관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ㆍ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 한국에서도 지난해 6월 30일 보건복지부의 법 개정 이후 가능해졌다. 단 서비스가 혈당ㆍ혈압, 콜레스테롤, 피부 노화나 탄력, 탈모 등 12가지 분야에만 한정됐다. 반면 DTC 시장이 먼저 열린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선 일명 ‘조상 찾기’로 불리는 가계 분석, 암ㆍ심근경색ㆍ뇌졸중이나 희귀유전적 질환 등에 대한 질병 예측, 약물에 대한 민감도 등 그 범위가 꽤 넓다. <br/>이 대표는 “<span class='quot0'>한국은 12가지만 하라는 거고, 미국은 문제 될만한 몇 가지만 하지 말라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규제에 있어 ‘이것 만 해’와 ‘이것만 하지 마’는 엄청난 차이</span>”라며 아쉬워했다. EDGC도 내국인용 DTC 검사 서비스인 ‘진투미’로는 12가지에 대해서만 결과를 제공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DTC 검사에선 100가지 넘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br/>EDGC는 세계적인 유전체 분석ㆍ장비기업인 미국 일루미나가 주도하는 글로벌 컨소시엄인 `GSA`에 아시아 유일 파트너사로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GSA는 일루미나가 전 세계 1,000만명의 유전체 데이터를 확보하는 프로젝트다. <br/>이 대표는 “<span class='quot0'>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노하우를 비밀로 하고 있지만 EDGC는 공유경제에 기반해 우리의 기술과 솔루션을 필요한 기업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금은 공유가 더 무서운 독점인 시대</span>”라고 말했다.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br/>그는 “<span class='quot0'>산모의 혈액에서 태아의 유전정보를 찾는 비침습산전진단 등의 기술이 발전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혈액을 통해 암세포를 조기 발견하는 암 스크리닝 서비스의 상업화가 본격화할 것</span>”으로 내다봤다.<br/>현재 EDGC의 직원은 50여 명. 회사 설립된 지 이제 4년째로 작년까지 매출은 10억~20억원에 머물렀지만 매출이 급속 신장하며 올해는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r/>EDGC는 국내의 엄격한 규제 탓에 초기부터 해외 진출을 적극 꾀해왔다. 현재 미국 중국 동남아 유럽 등지에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 예측을 위한 진단과 안과질환 특화 유전자 검사, 산모ㆍ아기를 위한 산전진단검사와 신생아 유전자 검사, 유전성 유방암 예측검사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DTC 유전자 검사로도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br/>이 대표는 “<span class='quot0'>이제까지 회사의 캐시카우는 산전진단검사였으나 최근엔 안과 질환 검사, DTC 유전자 검사, 조상찾기 등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이성원 기자 sungw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56.txt

제목: 한국 암 사망률 OECD ‘최하위’  
날짜: 201710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02050307002  
ID: 01101101.20171002050307002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암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인구 10만명당 암 사망률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확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br/>20일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망자 28만827명 가운데 사망원인이 암(악성신생물)이었던 이들은 7만8,194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10명 중 3명이 암으로 사망한 셈이다. <br/>하지만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암 사망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OECD 표준인구로 변환한 한국의 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지난해 165.2명이었다. 한국의 암 사망률은 2012년 183.3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2013년 178.9명 2014년 175.0명 2015년 168.4명에 이어 지난해 160명 중반대까지 떨어졌다. <br/>국가별로 집계시점이 다르나 가장 최신 자료로 보면 한국보다 암 사망률이 낮은 국가는 OECD 비교대상 34개국 중 멕시코(2014년 114.6명)뿐이다. 일본(2014년 176.6명) 프랑스(2013년 196.3명) 캐나다(2012년 207.3명) 이탈리아(2012년 205.4명) 독일(2014년 200.9명) 영국(2013년 221.9명) 미국(2014년 187.8명) 등 주요 7개국(G7) 국가 모두 한국보다 암 사망률이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의무 건강검진이 확대되고 진단이 잘 되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치사율을 떨어뜨렸다</span>”며 “<span class='quot0'>국립암센터에서 추진하는 암 정책도 암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span>”고 했다.<br/>반면, 운수사고(교통사고)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해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지난해 OECD 기준으로 변환한 한국의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10.0명을 기록했다. 한국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OECD 회원국은 멕시코(2014년 15.7명) 칠레(2014년 12.3명) 라트비아(2014년 11.9명) 터키(2013년 10.3명)뿐이었다. 영국(2013년 2.8명) 스웨덴(2015년 3.1명) 등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낮았다. <br/>다만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지난 1995년 4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 2006년에는 처음으로 10명대(19.9명)를 기록했다. 이어 2012년 13.9명 2013년 12.6명 2014년 11.6명 2015년 11.1명까지 감소했다. 지난 21년 사이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OECD 국가와 비교하면 낮지 않은 수준이나 과거와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한 시점부터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낮아졌다</span>”고 설명했다.<br/>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57.txt

제목: 민주당 “암덩어리 수술” 한국당 “신적폐 알릴 것” 국민당 “신구적폐 다 청산”  
날짜: 201710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1001050528002  
ID: 01101101.20171001050528002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여야, 추석 직후 국감 대비 ‘적폐청산’ 여론전<br/><br/>추석 연휴 직후 돌입하는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적폐청산 이슈를 놓고 치열하게 맞불을 전망이다. 여야는 연휴 기간에도 적폐청산 문제를 놓고 여론전을 이어가는 한편 내부적인 전략과 대응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br/>여야는 추석 연휴가 본격화된 주말에도 적폐청산 문제를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특히 연휴 직전부터 적폐청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고삐를 죄는 분위기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0일 “<span class='quot0'>암이 발견됐는데 이를 수술하지 않고 놔두는 건 대한민국을 병든 채 방치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번 국감은 적폐청산 국감으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span>”이라고 예고했다. <br/>민주당은 1일 국군의날을 맞아서는 국방 적폐까지 화두로 제시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튼튼한 안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 개혁 역시 필요하다”며 “국방 적폐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 이는 이적 행위나 다름 없다.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민주당은 이미 일반 국민들로부터 국감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열어 놓은 데 이어, 추석 연휴기간에도 상임위 별로 적폐청산을 위한 데이터 및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이어져 내려 온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각종 선거 개입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은 이번 국감을 통해 확실하게 털고 간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span class='quot1'>이번 국감은 전 정권의 실정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적기</span>”라며 “<span class='quot1'>신적폐니 하는 보수야당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우리는 보수 정권이 잘못한 흔적들을 객관적으로 짚고 제시하는 준비에 전력을 다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반면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 자유한국당은 그간의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공세 모드로 전환해 국감을 기점으로 민주당의 적폐청산 분위기에 제동을 걸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안보와 인사 문제 등을 ‘신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 든다는 전략이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span class='quot2'>이 정부 들어서서 미래의 희망에 관한 얘기를 국민들께 전혀 하지 못하고 전 정권을 넘어 전전 정권, 이승만 정권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보복에만 매달리는 정치를 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국감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한국당은 이와 함께 방송법 개정 문제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형 경제 정책, 탈원전 문제 등도 주요한 공격포인트로 잡고 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3'>공세 모드로 전환해 이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다 보면 자연스레 적폐청산 기류도 흐릿해 지지 않겠느냐</span>”고 말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번 국감이 현 정권보다는 전 정권 평가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한국당에 부담이다. <br/>국민의당은 적폐청산 기조에는 동의하되,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물타기식 분위기는 철저히 견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4'>보수정권의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서는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span>”이라며 “<span class='quot4'>다만 이런 흐름이 현 정권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br/>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58.txt

제목: 충청권 지자체 체육시설, 중금속 발암물질 투성이  
날짜: 201709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28050911001  
ID: 01101101.20170928050911001  
카테고리: 지역>대전  
본문: 대전ㆍ세종ㆍ충남ㆍ북 우레탄 납ㆍ발암물질 초과 70여곳 육박<br/>대전ㆍ충남 17곳 인조잔디서도 검출<br/><br/><br/> 대전ㆍ세종ㆍ충남ㆍ북도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가운데 70여곳의 우레탄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br/>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각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지자체 체육시설 우레탄 트랙 유해성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br/>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332곳의 체육시설 우레탄 트랙 가운데 62.7%에 이르는 835곳에서 납(Pb), 6가크롬 등 중금속과 발암물질 함유량이 법적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br/> 이 가운데 대전은 13곳, 세종은 8곳, 충남은 23곳, 충북은 24곳 등 총 68곳의 충청권 지자체 체육시설 우레탄 트랙에서 법적 기준치를 웃도는 중금속 및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충북 청주시의 청주체육관 농구장에선 납 함유량이 허용 기준치(90㎎/㎏)의 431배에 달하는 3만8,800㎎/㎏이 측정값으로 나왔다. 대전의 사정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도 측정값이 기준치보다 100배 이상 많은 1만767㎎/㎏이 나왔으며, 수은도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측정값이 나왔다. 대전은 또 전체 조사대상(15곳) 가운데 13곳이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왔다. 10곳 중 8.6곳의 우레탄 트렉이 유해하다는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해시설 비율이 가장 높았다.<br/> 세종에선 봉암리 족구장에서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9,363㎎/㎏이 나왔으며, 충남에선 오룡경기장(8,277㎎/㎏)에서 가장 높은 납 함유량을 보였다. <br/>대전과 충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내 인조잔디 운동장 17곳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문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자체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점검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은 4곳, 충남은 1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6가크롬 등 중금속 성분이 나왔다.<br/>대전에서 납 성분이 가장 많이 나온 인조잔디 운동장은 동구 노인종합복지관게이트볼장이었으며, 사정근린공원 축구장에선 기준치를 초과한 6가크롬 성분도 검출됐다. 충남에선 태조산 인조잔디구장, 풍세게이트볼장, 수신면체육공원, 쌍용1동 게이트볼장 등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 성분이 나왔다. 홍성군 광천생활체육공원 축구장에선 중금속이 나오지 않았지만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br/> 납은 인체에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심각한 중독 현상이 나타나 심할 경우 뇌와 신장이 소산돼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6가크롬은 다량 노출되면 기관지나 폐 등의 암 발생 위험이 커지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졌다.<br/> 김병욱 의원은 “<span class='quot0'>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을 돌보려 공공체육시설을 찾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시설별로 오염 정도를 정확히 알리고, 개보수 작업을 철저히 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체육시설로 거듭나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59.txt

제목: [화장품? 콜마에게 물어봐]“화장품 유해성분의 진실”  
날짜: 201709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28050903002  
ID: 01101101.20170928050903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최근 수많은 온라인 사이트를 비롯한 각종 매체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화장품 성분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유해 성분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몇가지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br/><br/>먼저 대표적인 유해 성분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계면활성제에 대해 알아보자. 계면활성제란 물과 기름같이 성질이 다른 두 가지 물질이 섞이게 해주는 물질로 클렌저, 샴푸, 치약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다. <br/><br/>계면활성제도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분류는 폴리옥시에틸렌이 부가된 계면활성제라 할 수 있다. 계면활성제의 주요 구성성분인 에틸렌옥사이드가 다른 화학성분에 첨가되는 과정에서 1,4-다이옥산이 발생되는데, 1,4-다이옥산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B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성분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내용물 내에서 100ppm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 제조사에서 기준을 가지고 인체에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br/><br/>가장 잘 알려진 또 다른 유해 성분으로는 파라벤을 들 수 있다. 파라벤은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죽이는 성질이 있어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에 폭 넓게 사용됐으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유전자변이 가능성 등을 담은 논문이 발표되면서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성분이다.<br/><br/>하지만 이에 대해 명확한 확증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반박하는 논문도 다수 발표되었기 때문에 파라벤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명한 것은 파라벤은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방부제 중 다방면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물질이란 점이다. <br/><br/>최근 방부제로 널리 쓰이던 파라벤의 위험성이 확대되면서 이를 대체 하는 성분으로 사용되는 페녹시에탄올 역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된 성분이다.<br/><br/>페녹시에탄올은 미국 FDA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허가되었고 유럽?일본 등지에서 안전한 화장품 방부제로 분류해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에서 자유롭지만은 않다.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전성분의 1%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br/><br/>미네랄오일도 있다. 미네랄 오일은 석유의 부산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느끼지만 화장품으로 사용되는 미네랄오일은 매우 잘 정제된 순도 높은 오일이다. <br/><br/>‘각종 알레르기 유발 및 암의 원인이 된다’, ‘피부트러블의 원인이다’라는 오해와 달리 미네랄오일은 안전하고 자극이 적은 오일이다. <br/><br/>물론 피부에 강력한 보습막을 형성해 어느 정도 피부의 공기 접촉은 차단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오일이 하는 역할이다. 단, 지성 피부라면 미네랄오일이 과도하게 유분막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br/><br/>마지막으로 한때 논란이 거셌던 석면이 있다. 석면은 섬유상으로 마그네슘이 많은 함수규산염 광물로 산업적으로 사용 범위가 매우 넓다. <br/><br/>하지만 1970년대 석면이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 인체 안전성과 관련해 많은 연구가 급진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다. <br/><br/>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베이비파우더, 데오드란트 등에 주로 사용되는 탈크 원료 일부에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함유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 이후 많은 제조사들이 탈크 프리 제품이나 석면 프리 제품을 만들고 있다. <br/><br/>가장 안전한 방법은 탈크 프리 제품을 적용하는 것이나,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무석면 인증을 받은 탈크 원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다.

언론사: 한국일보-1-160.txt

제목: [2017 디지털이노베이션대상] 피디젠  
날짜: 201709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28051142001  
ID: 01101101.20170928051142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피디젠(대표 안광성, www.pdxen.com)은 BT-IT(BIT) 융합기술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아웃소싱 사업과 솔루션 사업 중심의 BIT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r/>피디젠은 미세잔류암세포 분리기기, 혈중암세포 분리기기, 실시간세포추적 시스템, 유전체 분석 알고리즘 개발, 임상 적용을 위한 혈중암세포 기반 인체 유래 이종이식 모델, 임상정보 기반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 등 임상에 이용되는 다양한 기기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임상의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임상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br/>피디젠은 올해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혈액암 환자의 미세잔류암세포 분리 및 배양이 가능한 장비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8월에는 중국 하얼빈의 의료서비스기업과 ‘임상적용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을 체결하기도 했다.<br/>피디젠은 특히 암 환자의 양질의 삶을 위한 딥러닝 기반 재발 및 전이 예측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이로 인해 암의 진행(재발, 전이, 항암제 불응성)에 관여하는 악성 세포의 유전체 분석이 가능하고 악성세포를 선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언론사: 한국일보-1-161.txt

제목: [2017 디지털이노베이션대상] 제노텍  
날짜: 201709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27051110003  
ID: 01101101.20170927051110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제노텍(대표 김재종, www.genotech.co.kr)은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의약소재 개발 전문기업이다. <br/>제노텍은 1997년 창사한 이래 20여 년간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해온 바이오 융합기술 ‘GenCot®’을 기반으로 고품질의 원료의약품을 개발?생산하는 바이오 의약소재 사업과 유전자변이 고감도 진단기술인 ‘FenDel®’를 활용한 암진단, 대사질환 진단 키트를 상용화하는 분자진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br/>대전 대덕밸리에 위치한 본사에는 유전자 합성 및 분석센터와 부설연구소가 있으며 이곳에서 분자진단 및 의약소재 생산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보건신기술(NET)로 인증받은 글로벌 원천 분자진단 기술 ‘FenDel®’ 기술을 기반으로 암, 대사질환 관련 진단키트 등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br/>제천 바이오밸리에 위치한 GMP 플랜트에서는 미생물 발효 및 원료 의약품의 정제, 무균동결건조 등의 설비와 기술진을 구축해 고품질 원료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특히 항생제 내성 감염증의 치료제인 반코마이신, 테이코플라닌 등의 프리미엄 항생제를 생산하고 있다.

언론사: 한국일보-1-162.txt

제목: [겨를] 유산≠자식 몫… “열심히 산 나를 위해 쓰거나 기부”  
날짜: 201709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27051218002  
ID: 01101101.20170927051218002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자녀에게 상속 부채의식 벗어나<br/>세계 여행ㆍ취미 등에 쓰고 싶어<br/>반려동물도 상속 고려 대상으로<br/><br/> <br/>죽음 이후를 생각하다 보면, 어렵사리 모아 온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떠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따를 수밖에 없다. 나의 죽음을 가장 서글퍼할 자녀에게 남겨주며 부모의 역할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상식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유산에 대한 이 뿌리 깊은 고정관념도 서서히 변하고 있다. <br/>자영업자 이모(65)씨는 70세가 되는 5년 뒤 아내와 세계 일주를 떠나기로 했다. 한 두 달 동네 연습장을 다니며 손맛만 봤던 골프도 그때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곧 있을 두 아들의 결혼자금(각 5,000만원, 총 1억원)을 제외하고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는다는 게 이씨의 생각이다.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후회 없이 살아보자고 아내와 약속했어요. 큰 성공은 못했지만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주는 선물이랄까.”<br/>젊은 세대일수록 ‘유산은 곧 자녀의 몫’이란 관행에 고개를 젓는다. 이미 풍족함을 경험하며 자란 자녀들에게 죽으면서까지 부채의식을 갖긴 싫다는 생각이다. 회사원 문병희(39)씨도 그렇다. 은퇴 후 최고급 요양 시설에 들어가 여유를 즐기거나 꽃꽂이나 커피 수업 등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을 마음껏 즐기다가 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br/>자녀가 없는 경우 키우던 반려동물도 유산 상속의 고려 대상이 된다. 회사원 박선숙(48)씨 부부는 고양이 두 마리와 강아지 한 마리를 일찌감치 자식으로 품었다. 부부 사망 시 이들을 돌봐 줄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넘길 의향이 있단다. “사람이야 홀로 남겨져도 살아가지만 동물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들 딸이나 마찬가진데 먹고 살게끔 해줘야죠.” 실제로 일부 금융회사에선 주인 사망 시 미리 정한 보호자에게 사육비를 넘겨주는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br/>한국사회에서 아직 보편적인 문화는 아니지만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20년째 여성의류 판매업을 해 온 한모(67)씨는 올해 초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다. 한씨는 최근 ‘만약 내가 죽는다면 운영 중인 가게를 처분한 돈을 포함해 지금껏 모은 전 재산 약 1억 원을 난치병 어린이를 위해 쓰겠다’ 는 결심을 굳혔다. “<span class='quot0'>남을 돕고 살아본 적이 없다</span>”란 단순한 이유에서다. 그는 이 결심 후 병원 가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했다. <br/>1년 전 정년 퇴직한 강모(58)씨도 사망 시 1억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사회에 기부할 생각이다. 지난 8월 대구에서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전 재산 1,800만원을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별세한 90대 할아버지 소식을 접하고 내린 결정이다. 유언 공증 절차 등을 위해 법률 자문을 수소문 중이라는 강씨는 “<span class='quot1'>혹시라도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 기부 결심은 빠를수록 좋은 것 같다</span>”며 “<span class='quot1'>아이들이 ‘엄마 돈 엄마 마음대로 쓰는 건 당연하다’고 말해줘 마음이 한결 편하다</span>”고 웃었다.<br/>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2'>노후 걱정과 자녀와의 분쟁 소지 등 여전히 유산 기부를 망설이는 요인들이 많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2'>상담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인식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 <br/>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br/>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63.txt

제목: 장애인 아들 사망 6년간 숨긴 아버지  
날짜: 201709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26050935002  
ID: 01101101.20170926050935002  
카테고리: 사회>장애인  
본문: 몰래 묻은 뒤 사망 신고 안 하고 <br/>장애인 급여 등 1800만원 받아 <br/><br/>생활고에 시달린 아버지가 장애인 아들이 집에서 숨지자 시신을 몰래 묻었다가 적발됐다. 아들 앞으로 나오던 장애인 급여를 계속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br/>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지병을 앓던 장애인 아들(당시 38세)이 숨지자 하천부지에 몰래 묻은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장애인 급여를 계속 받아 온 혐의(사체 유기 등)로 A(73)씨를 구속했다.<br/>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쯤 집에서 잠자던 아들이 숨지자 금호강변 하천부지에 묻고, 아들 명의로 나오던 장애인급여 등을 210회에 걸쳐 1,80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썼다.<br/>경찰조사결과 숨진 아들은 정신지체장애 2급인데다 암수술과 심한 당뇨합병증까지 겹쳐 입퇴원을 반복했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 중장비 조종을 하던 A씨는 나이가 들고 불경기로 일감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자신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아들 명의의 장애인 급여 등 매달 130만 원 가량으로 생계를 꾸려왔다.<br/>이 같은 사실은 구청 장애인 담당 공무원이 아들 상태 확인을 위해 면담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이 방문할 경우 아들이 이미 숨진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그는 지난 15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 “두 달 전 함께 낚시를 간 아들이 과자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br/>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2개월 전에 실종했다는 아들이 수년째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본격 수사에 나서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A씨가 세들어 살던 집주인과 친인척 등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오래 전부터 숨진 아들을 본 사람이 없고, 병원 치료 기록도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br/>경찰은 A씨가 지목한 사체 유기장소 일대를 4일간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으며,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br/>20여년 전 아내와 사별한 A씨는 두 아들이 있지만, 다른 아들과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br/>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64.txt

제목: [헬스 파일] 아토피 전용 화장품 ‘바이더닥터 아토’ 출시  
날짜: 201709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25051213002  
ID: 01101101.20170925051213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아토피 전용 ‘바이더닥터 아토’ 내놔<br/>엘앤씨바이오는 제그(ZAG)펩타이드를 주 성분으로 한 아토피 피부염 전용 화장품인 ‘바이더닥터 아토’ 3종을 내놨다. 바이더닥터는 ‘아토피 명의’ 이광훈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기술을 이전 받아 개발한 제품이다. 이 교수는 피부 속 단백질인 ‘제그’가 아토피 피부염 예방에 도움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기존 아토피 제품에 주로 들어가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피부 수분손실을 막는 역할에 그치는 데 비해 제그는 피부 장벽 재건을 돕는다. 이환철 엘앤씨바이오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0'>지금까지 나온 아토피 전문 화장품 중 가장 보습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자신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아토피 치료제도 개발할 계획</span>”이라고 했다.<br/>스마트폰으로 임상시험 지원ㆍ모집 매칭<br/>㈜HBA 한국스마트임상센터(대표 이병일)는 임상시험 지원자-연구자 매칭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 ‘올리브C’ 서비스를 국내 처음으로 시작한다. 임상시험 지원ㆍ모집을 원스톱으로 구현한 올리브C는 안드로이드ㆍiOS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신약정보가 절박한 환자군(암, 희귀질환 등)에서 병원 밖 건강군 모집까지, 임상시험 대상자가 쉽게 국내 모든 임상시험 모집공고 정보를 찾아 임상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br/>세노비스 ‘키즈 프로폴리스’ 출시<br/>세노비스 키즈가 어린이 구강 항균에 도움을 주는 프로폴리스 제품인 ‘키즈 프로폴리스’를 출시했다. 키즈 프로폴리스는 아이의 입안에 직접 분사하는 스프레이 형태여서 간편하고 쉽게 아이의 구강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아이가 섭취하기에 좋도록 무알코올 추출방식을 사용한 수용성 형태의 호주산 프로폴리스 원료를 사용했다. <br/>조아제약 ‘조아포인트 플라스타’ 내놔<br/>조아제약이 작은 크기로 사용이 간편한 동전파스 ‘조아포인트 플라스타’를 내놨다. 조아포인트 플라스타는 진통ㆍ소염작용으로 통증 치료에 효과적인 살리실산메틸과 시원한 청량감으로 통증 및 열감을 개선하는 L-멘톨&박하유, 찜질 효과로 통증 부위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는 ‘노닐산바닐릴아미드’ 등이 들어 있다.

언론사: 한국일보-1-165.txt

제목: 김효명 고대의료원장, “3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한 고품질 맞춤형 치료로 승부수”  
날짜: 201709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25051212001  
ID: 01101101.2017092505121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고대의료원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 26일 첫 삽… 연면적 13만㎡로 2022년 건립<br/>“<span class='quot0'>2022년까지 3,500억원을 들여 새로 건립하는 고려대의료원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는 고난도 중증환자를 맞춤 치료하는 미래형 병원이자 세계적인 의료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span>”<br/>김효명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span class='quot1'>26일 고려대 안암병원 내에 세워지는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의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돌입한다</span>”며 이같이 밝혔다. <br/>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고대안암병원~안암역 부지에 13만㎡ 규모로 설립된다. 기존 병원(7만6,000㎡)보다 2.7배 가량 늘어난다. 하지만 병상 수는 1,051병실에서 1,200병실로 150병상 정도밖에 늘지 않는다.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일반 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 체제로 바꾸고 1인실ㆍ중환자실ㆍ수술실 확충, 첨단장비 도입, 특성화센터 신설 등으로 의료 서비스를 끌어 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br/>김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2'>앞으로는 병상 규모보다는 의료의 질이 병원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새 진료공간에 암ㆍ심장ㆍ뇌신경질환 등 3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센터를 중점 배치해 고품질 맞춤형 치료로 승부를 걸겠다</span>”고 했다.<br/>그는 또한 “<span class='quot2'>융복합의학센터에는 고려대의료원 산하 안암ㆍ구로ㆍ안산 3개 병원의 진료와 연구역량이 집약한 융복합R&D센터가 들어서 의료계 4차 산업혁명을 이끌겠다</span>”고 밝혔다. 고려대의료원은 올해 보건복지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정밀의료 국가전략 프로젝트 2건(5년간 국비 631억원 지원)을 따냈다. 유전자 맞춤형 표적항암제 임상시험과 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br/>김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2'>사물인터넷(IoT)ㆍ빅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중심의 통합진료안내,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 치료를 선보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겠다</span>”고 했다. 빅데이터 활용기술을 활용해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시행하고, 정밀의료를 암 치료뿐만 아니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에 적용해 치료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신약, 신 의료기기, 신 수술법 개발, 임상시험 등 연구개발에도 활용해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도 앞장 서겠다는 포부다.<br/>이기형 고대 안암병원장은 “<span class='quot3'>민족과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10년간 철저히 준비했다</span>”며 “<span class='quot3'>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는 고대 안암병원 진료수준의 업그레이드는 물론 미래의학 100년을 이끌어갈 핵심의료기관으로 성장할 것</span>”이라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1-166.txt

제목: 일교차 큰 가을, 당신의 심장이 위험하다  
날짜: 201709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25051211002  
ID: 01101101.20170925051211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리듬 깨지는 부정맥으로 인한<br/>돌연사 가능성 높아져 주의를<br/>29일은 세계심장연맹(WHF)이 정한 ‘세계 심장의 날’이다.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면서 장기 곳곳에 피를 전달하는 심장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해 제정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암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2위다(2015년 기준). 10년 전보다 사망률이 41.6%나 증가했다.<br/><br/>협심증, 돌연사의 주 원인<br/>수도관이 오래되면 이물질이 쌓이는 것처럼 혈관도 나이 들면서 지방이 축적된다. 이때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진다. 이런 증상이 관상동맥에 나타나면 심장에 혈관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아 협심증이 생긴다.<br/>협심증은 가슴 압박감이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주 증상이다. 목과 어깨까지 통증이 번지기도 한다. 흔히 운동할 때 통증이 오면 협심증, 쉴 때 통증이 생기면 협심증과 유사하지만 상태가 심하다면 심근경색일 수 있다.<br/>박준범 이대목동병원 심장혈관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0'>고지혈증, 흡연, 당뇨병이 위험 인자인 협심증은 가슴 통증이 10~20분 내 회복되는 증상이 반복되고, 빨리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흉부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좁아진 혈관을 건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혈관이 완전히 막혀 심장세포와 조직, 근육이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 죽는 심근경색으로 악화될 수 있다</span>”고 했다.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질환을 의심하고 병원을 빨리 찾아야 한다.<br/><br/>부정맥, 심장리듬 깨져 나타나<br/>심장은 하나의 리듬을 가지고 끊임없이 뛴다. 그런데 전기 전달체계에 변화나 이상으로 심장의 정상 리듬이 깨진 상태를 부정맥이라 한다.<br/>부정맥은 크게 1분에 60회 미만으로 심장이 뛰는 서맥성 부정맥, 100회 이상으로 뛰는 빈맥성 부정맥으로 나뉜다.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아주 빠르게 뛰면 심방세동이다.<br/>특별한 원인 없이 심장이 비이상적으로 뛰면 심장은 혈액을 배출하는 기능이 저하된다. 따라서 호흡 곤란이나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는데,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사라지기도 한다.<br/>그러나 심방세동과 같은 악성 부정맥이 생기면 심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평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오르며 심장 박동이나 맥박에 이상이 생기면 왼쪽 손목 한쪽의 맥을 짚어 분당 맥박수를 체크해 보고 증상이 심하거나 자주 나타날 때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1'>부정맥을 예방하려면 술, 담배, 카페인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1'>특히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부정맥으로 인한 돌연사 위험이 커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span>”고 했다.<br/><br/>심부전증, 노화증상과 비슷해<br/>심장 기능이 떨어져 온몸에 혈액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심부전증은 모든 심장 질환의 종착지다. 심부전증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다른 심장질환이 심장을 점차 해쳐 결국 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생기기 때문이다. <br/>심부전증이 생기면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뿜어내지 못하는 탓에 호흡곤란이 먼저 찾아온다. 초기에는 가벼운 운동 뒤에 호흡 곤란이 찾아오지만 질환이 악화되면 가만히 있어도 숨이 가쁘고,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피로감을 계속 느끼게 된다. 발목을 비롯해 온몸에 부종이 생기고 복수가 차기도 한다. <br/>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심부전증을 노화 과정으로 여기면 안 된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고 약물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증상이 호전되고 악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에 심장 근육의 탄력성에 도움 주는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좋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 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1'>부정맥을 예방하려면 심장 박동에 영향을 주는 술이나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금연하는 등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1'>특히 요즘 같이 아침ㆍ저녁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부정맥으로 인한 돌연사 위험이 커질 수 있다</span>”고 했다. 따라서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걷기나 계단 오르기 등과 같은 가벼운 운동이 권장된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br/><심장 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대한심장학회)<br/>-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br/>-술은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입니다.<br/>-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br/>-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br/>-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합니다.<br/>-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br/>-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측정합니다.<br/>-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br/>-심장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발병 즉시 병원에 갑니다.

언론사: 한국일보-1-167.txt

제목: “초기 전립선암, MRI와 초음파 영상 융합한 ‘브라키테라피 시술’로 치료”  
날짜: 201709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25051210002  
ID: 01101101.20170925051210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박동수 분당차병원 비뇨기과 교수, 초기 전립선암 치료에 새로운 장 열어<br/><br/>전립선암 초기라면 관찰요법, 적출수술(로봇수술), 외부방사선치료 등이 치료법으로 쓰인다. 그런데 최근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영상을 융합해 전립선암 부위에 치료물질을 넣는 방식의 ‘브라키테라피(MR FUSION Brachytherapy) 시술’이 초기 전립선암 치료의 새 장을 열고 있다. 브라키테라피 시술은 2017년 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도 전립선적출수술, 외부 방사선치료와 함께 3대 전립선암 치료법으로 추천됐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2월부터 50% 선별 급여하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었다. 분당차병원이 지난 2007년 이 시술을 국내 첫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400건 이상 시행하면서 국내 최대 시술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브라키테라피 시술의 국내 개척자인 박동수 분당차병원 비뇨기과 교수에게 이에 대해 들었다.<br/><br/>-전립선암이 급증하는 추세인데.<br/>“전립선암은 고령화와 식생활 서구화로 급증하는 대표적인 남성 암이다. 한국인 암 7위, 남성 암 5위일 정도로 크게 늘었다. 매년 1만명씩 전립선암이 새로 등록되고, 지난해에만 7만2,674명이나 치료했다. 특히 50세 이상 환자가 98.9%로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화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br/><br/>-전립선암이 생기는 원인을 꼽자면.<br/>“동물성 지방과 육류의 과다 섭취 등 서구식 식습관이 전립선암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비만이나 당뇨병 등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운동 등을 통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 비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립선암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음식으로는 브로콜리, 녹차, 강황, 석류, 토마토, 수박, 복분자 등을 추천한다. 전립선암을 예방하려면 붉은색 고기를 되도록 삼가고, 붉은 색 채소와 과일은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 햇빛도 가끔 쬐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된다.”<br/><br/>-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나.<br/>“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라는 간단한 혈액검사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조기 발견을 위해 50세가 넘었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PSA검사를 추천한다. 특히 가족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다면 고위험군이므로 반드시 PSA검사를 해야 한다. 초기 전립선암은 증상이 없다. 증상이 나타냈다면 이미 3, 4기로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소변 줄기가 가늘게 나오거나 소변이 자주 마려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노화 현상의 하나로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진단하는 게 좋다.<br/>일단 전립선암으로 진단됐다면 병기(病期), 나이, 몸 상태 등을 고려해 치료법을 정할 수 있다. 다른 암과 달리 전립선암은 진행이 느려 1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고 기대되면 완치를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초기 전립선암의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관찰요법, 적출수술(로봇수술), 외부방사선치료, 브라키테라피 등이 있다.”<br/><br/>-브라키테라피 시술이 최근 화제인데.<br/> “브라키테라피 시술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전립선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다.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많이 시행하고 있다. 브라키테라피 시술을 할 때에는 이전에 촬영했던 MRI 영상을 참고하고, 실시간으로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시행하게 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MRI 영상을 초음파 영상에 덮어 씌워 합성 영상을 만드는 기계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런 기계를 브라키테라피 시술에 적용하면 정확도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br/>브라키테라피 시술은 재발률과 생존율에서 전립선 적출수술과 동등하면서도 합병증이 적은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반면 전립선 적출수술은 전립선 전체를 제거해 요실금, 발기부전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외부 방사선 치료는 전립선과 골반에 넓게 방사선을 쬐기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관찰요법은 환자에게 정신적ㆍ경제적 부담을 준다.<br/>최근 저를 비롯한 분당차병원 의료진(신현수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김경아 영상의학과 교수)은 MRI와 초음파 영상의 융합기법을 이용한 브라키테라피 시술을 2명의 초기 전립선암 환자에게 성공했다. 앞으로 MRI와 초음파 영상 융합기법을 이용한 브라키테라피 수술이 초기 전립선암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1-168.txt

제목: 한국 노인, 자녀에 연 1000만원 준다  
날짜: 201709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24050639003  
ID: 01101101.20170924050639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용돈 등 평균 400만원 받아<br/>고혈압 유병률 40% 넘어<br/>퇴직 후 재취업 비율 26%<br/><br/><br/>65세 이상 노인 부모는 자녀에게 연 평균 1,000만원을 주고, 4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r/>24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 패널조사로 본 중고령 한국인의 모습’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부모가 자녀에게 연간 주는 돈은 평균 998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자녀에게서는 연 평균 390만원을 받았다. 노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금액이 한해 1,000만원 가량에 이르는 이유는 일부 자산가들의 사례가 평균 금액을 높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는 돈은 생활비나 용돈 용도로 추정된다. <br/>고용정보원은 2006년부터 45세 이상 중고령자 1만254명을 대상으로 2년 마다 노동시장 참여 현황과 소득ㆍ자산ㆍ가족ㆍ건강 등 기본 정보를 추적하는 고령화 연구 패널조사(KLoSA)를 진행해 왔다. 이번 연구 결과는 2006년 1차 조사부터 2014년 5차 조사까지 8년 간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br/>지난 8년간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임금은 71만7,000원에서 89만7,000원으로 18만원 가량 올랐으나 전체 패널(45세 이상)의 월 평균 임금(175만원)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br/>고령화로 인해 전체 패널 중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가진 비율도 8년 새 상당히 증가했다. 고혈압 유병률은 2006년 24.4%에서 2014년 40.5%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당뇨병 유병률은 10.5%에서 17.7%로, 암은 2.2%에서 5.4%로 각각 증가했다.<br/>중고령자가 10년 이상 근무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58.8세였고, 퇴직 전까지 3.8개의 일자리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 비율은 25.7% 였다. 전체 중고령자 고용률은 45.6%에서 44.9%로 떨어졌고, 임시 일용직 비율은 28.4%에서 37.4%로 올랐다. <br/>신종각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한국 중고령층은 이른 퇴직과 늦은 은퇴 연령, 그리고 고령 노동, 열악한 사회 안전망 등으로 힘든 노후를 맞고 있다</span>”고 말했다. 고용정보원은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이번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69.txt

제목: 치매 사망자 10년새 2배로…자살률은 10대만 유독 늘어  
날짜: 2017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22050844002  
ID: 01101101.2017092205084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28%가 암으로 사망 ‘최다’<br/>자살률 감소 불구 OECD 1위<br/>사망률 최고 증가는 ‘폐렴’<br/><br/>치매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10년 간 2배로 늘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체적으로는 자살률이 감소 추세인데도 유독 10대 자살률이 급등하고 있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br/>22일 통계청의 ‘2016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2015년보다 4,932명(1.8%) 늘어난 28만8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8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br/>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다. 전체 사망자의 27.8%(7만8,194명)가 암으로 목숨을 잃었다. 암의 사망률(10만 명당 사망자수)은 153.0명을 기록했다. 심장질환(58.2명) 뇌혈관 질환(45.8명) 폐렴(32.2명) 자살(25.6명) 당뇨병(19.2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암 중에서는 폐암(35.1명) 간암(21.5명) 대장암(16.5명) 위암(16.2명) 췌장암(11.0명)의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대장암이 위암을 앞지른 것도 눈길을 끌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span class='quot0'>대장암뿐 아니라 췌장암도 늘고 있는 추세</span>”라며 “<span class='quot0'>서구화한 식습관이 원인으로 분석된다</span>”고 설명했다. <br/>치매를 앓다 숨지는 사람도 늘고 있다. 지난해 치매로 사망한 이는 9,164명으로, 2006년(4,280명)과 비교할 때 114.1%나 늘었다. 사망률은 17.9명으로 아직 암이나 심장질환 등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꾸준한 증가 추세다. 이 과장은 “<span class='quot0'>치매 자체가 직접 사망을 유발하진 않지만 치매로 인해 뇌 기능이 손상되고 일상 생활이 어려워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치매 사망’으로 집계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통계청이 치매 사망 통계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치매국가 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br/>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만3,092명으로 전년보다 421명(3.1%) 줄었다. 자살로 인한 사망률도 25.6명으로, 2011년(31.7명)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압도적 1위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자살률은 12.0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br/>연령대별로는 70대 자살률이 전년보다 13.5% 줄었고, 60대(-6.1%)와 80대 이상(-6.6%)도 감소했다. 하지만 입시 지옥과 사상 초유의 청년실업 등의 여파에 10대와 20대 자살률은 각각 16.5%, 0.1%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기초노령연금 도입ㆍ확대 등 노인 복지가 확대되며 노년층의 자살률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지난 10년 간 사망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유형은 폐렴(2006년 9.3명→2016년 32.2명)이었다. 사망원인 순위가 지난 2006년 10위에서 지난해는 4위까지 올라섰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으로,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걸리기 쉽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70.txt

제목: 고령화에… 폐렴ㆍ치매로 인한 사망 크게 늘어  
날짜: 2017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22050814001  
ID: 01101101.2017092205081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통계청 2016년 사망원인 통계<br/>한국인 사망원인 1위는 ‘암’<br/><br/>/그림 1통계청 제공<br/><br/>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폐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로 인한 사망률은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r/>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통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1.8%(4,932명) 증가한 28만8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 <br/>10대 주요 사망원인은 암(인구 10만명 당 153.0명) 심장질환(58.2명) 뇌혈관질환(45.8명) 폐렴(32.2명) 자살(25.6명) 당뇨병(19.2명) 만성하기도질환(13.7명) 간질환(13.3명) 고혈압성질환(10.6명) 운수사고(10.1명) 순으로 나타났다.<br/>10년 전에 비해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 사망원인은 폐렴(9.3→32.2명) 심장질환(41.1→58.2명) 등이었다. 반면 운수사고(15.9→10.1명) 위암(21.9→16.2명) 뇌혈관질환(61.3→45.8명) 등은 줄었다. 폐렴은 노인들이 면역력이 약화됐을 때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2006년에는 사망원인 10위였지만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2015년 4위로 올라섰다. <br/>혈관성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사망 등 치매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9,164명으로 10년 전보다 1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률은 17.9명으로 암, 심장질환에 비해 높진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치매 사망률 성비는 남자(11.2명)가 여자(24.7명)의 절반 수준이지만 남자 사망률은 10년 전 대비 122.4%로, 여자(97.3%)보다 증가폭이 컸다. <br/>통계청은 치매로 인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올해 처음으로 치매로 인한 사망률을 따로 집계해 발표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치매 자체가 직접적으로 사망을 유발하는 건 아니지만 뇌 기능이 손상되고 일상적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고령 인구 증가로 치매로 인한 사망이 급격히 늘고 있고 향후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br/>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71.txt

제목: 슈주 동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위촉  
날짜: 2017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21051254001  
ID: 01101101.2017092105125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그룹 슈퍼주니어 동해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됐다.<br/><br/>동해는 21일 오후 12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서울나음소아암센터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 및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암 환아들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 <br/><br/>그는 이날 “많은 사람들이 소아암이란 질병과 그 질병이 가족에게 주는 어려움 등을 바로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소감을 전했다.<br/><br/>동해는 향후 소아암 홍보 포스터 사진 촬영과 명절 쉼터 방문을 비롯해 소아암 인식개선을 위한 다채로운 캠페인에 참여하며 적극적인 홍보대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br/><br/>한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소아암 어린이들이 의료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암 치료에 따른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을 이겨내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소아암 전문 단체다.<br/><br/><br/><br/>박건욱 기자 kun1112@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72.txt

제목: 기장군-과기부, 중입자가속기사업 추진 MOU  
날짜: 2017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21051130002  
ID: 01101101.20170921051130002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21일 오전 9시 정부 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의료용 중입자가속기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br/>이번 협약은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일반산업단지(동남권산단)에 들어오는 대형 국책사업 ‘중입자가속기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를 위해 진행됐다.<br/>의료용 중입자가속기는 정상 세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히 암세포만 파괴해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린다. 이날 체결식에는 과기부와 부산시, 기장군, 서울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이 참석, 사업 정상화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br/>기장군에 도입 예정인 중입자가속기개발사업은 동남권산단에 1,950억원(국비 700억, 지방비 500억, 원자력의학원 750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치료센터에서 상용화 치료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원자력의학원 측이 750억원의 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 표류하다 최근 참여병원 모집공고를 통해 서울대병원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br/>오규석 기장군수는 “<span class='quot0'>중입자가속기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가 구축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중입자가속기사업이 조속히 정상 추진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span>”고 밝혔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73.txt

제목: [사설] 치매 국가 지원 확대에 맞춰 이름 변경도 검토했으면  
날짜: 201709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19051008001  
ID: 01101101.2017091905100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실행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현재 20~60%에서 10%로 줄어든다. 치매를 앓지만 활동이 온전해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했던 경증 환자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올해 말까지 전문인력을 갖춘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2곳으로 대폭 늘리고, 치매 요양병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가 환자의 기저귀 비용 등도 지원한다.<br/>치매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환자가 갈수록 느는 대표적 질환이다. 벌써 노인 열 명 중 한 명이 치매 환자이고, 올해 70만명인 치매 인구는 10여년 뒤인 2030년께 12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치매는 암이나 당뇨병 등과 달리 주위에서 환자를 상시 돌봐야 하는 질환이어서 가족 등 주변인의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상담과 조기 검진, 의료ㆍ요양서비스 연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 확대는 절실한 과제였다. 중증 환자를 도맡아 치료하는 공립요양병원의 치매 병동, 치매요양병원 확충도 반갑다. <br/>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치매 대책이 여러 차례 발표된 터라 이번에는 지원 대상이나 지원 규모를 세부적으로 확정했어야 하는데도, 예를 들어 재가 환자 지원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등 보완할 대목이 있다. 새 정부 공약 내용이어서 조만간 구체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발표에서 치매 환자도 포함하는 장기요양보험의 본인 부담금 상한제 확정이 빠진 것도 아쉽다.<br/>치매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마당에 ‘치매’라는 용어를 이대로 계속 쓰는 것이 맞는지도 검토했으면 한다. ‘치매’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는 뜻의 영어 ‘dementia’를 일본에서 번역해 쓰던 말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2004년 노년의학회가 ‘바보’라는 의미를 담은 이 용어가 차별적ㆍ모멸적이라며 개정을 요구해 후생노동성이 여론 수렴을 거쳐 ‘인지증’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듬해에는 관련법에서도 용어를 ‘인지증’으로 통일했다. 영어권에서도 ‘dementia’보다는 노인성 치매를 처음 발견한 독일 의사의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로 부르는 게 일반적이다. 일본 사례를 따라야 할 이유는 없지만 나이 들어 인지 능력이 저하하면서 생기는 여러 증상을 대표하기에 ‘치매’라는 용어가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다. ‘인지저하증’ ‘인지실조증’ 등 증상을 올바로 나타내는 여러 용어를 검토해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언론사: 한국일보-1-174.txt

제목: [정리뉴스] ‘윗선’ 목 조여가는 국정원 여론조작 수사  
날짜: 201709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19050925002  
ID: 01101101.20170919050925002  
카테고리: 정치>행정\_자치  
본문: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와 검찰 수사로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된 댓글부대의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조사와 검찰 수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인터넷 여론 조작을 위해 편향된 정치적 댓글을 작성하는 인력을 조직적으로 운용했다. 이에 따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30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총괄 운영하며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19일 구속됐다.<br/><br/><br/><br/>포털ㆍSNS 댓글, 합성 사진, 시사만화로 여론조작<br/>국정원 TF는 과거 국정원에 민간인 여론조작팀인 사이버 외곽팀이 총 30개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3,500여개의 이용자번호(ID)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 게시판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론 조작성 댓글 등을 게시하거나 특정 인물을 비방할 목적으로 합성 사진을 만들어 올리기도 했다. 동화작가 송명훈씨는 지난달 팟캐스트 방송에서 2012년 제 18대 대선 당시 댓글부대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시사만화의 말풍선에 넣는 일을 했다고 밝혔다. 2011년 인터넷에 유포된 배우 김여진씨와 문성근씨의 음란성 합성사진도 국정원의 소행으로 드러났다.<br/><br/>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이전에 이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2009년 2월 취임 후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예술계 인사에 대해 압박을 지시하면서 82명에 이르는 좌파 연예인 명단을 만들었다. 국정원은 이들의 방송 출연을 막거나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도하고 이들을 광고모델로 기용한 기업에 항의 메일을 보내는 등 집요한 방해 공작을 벌였다.<br/><br/>댓글부대의 타겟들은 어떤 고통을 당했나<br/>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은 인터넷에서 악성 글로 공격당하고 아예 일감이 끊기는 등 여러가지 고통을 겪었다. 2008년 MBC PD수첩의 광우병 방송을 보고 SNS에 의견을 남겼던 배우 김민선씨는 방송 출연 등이 막혀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배우 문성근씨는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span class='quot0'>블랙리스트 명단에 함께 포함된 후배 배우 김민선이 최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0'>배우는 20대, 30대에 연기력을 키우고 이름을 알려야 하는데 김민선 배우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배제돼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봤다</span>”고 말했다.<br/>이들은 국정원 댓글부대에게만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다. 댓글부대의 공작 논리가 인터넷에 확산돼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비방과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문씨는 1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당시 공작조가 만들어낸 논리가 아직도 잔상으로 남아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번 블랙리스트 발표 후 (김민선씨가) 또 공격을 받았다</span>”고 주장했다.<br/>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소설가 이외수도 지난 18일 인스타그램에 “<span class='quot2'>블랙리스트를직접 봤다는 어떤 정부 고위직이 ‘당신은 암적 존재이므로 매장될 때까지 압박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span>”며 “<span class='quot2'>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span>”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br/><br/><br/>각계각층 보수인사에서 친MB 인사로<br/>대선 앞두고 확 바뀐 댓글부대 팀장들<br/>국정원 TF는 검찰에 총 48명에 이르는 국정원 댓글부대 민간인 외곽팀장들에 대한 수사를의뢰했다. 외곽팀장들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대폭 교체돼 언론계 종사자, 사립대 교수, 대기업 간부, 미디어 전문가, 대학생 등 사회 유력 인사나 일반인 등 다양한 직업, 계층으로 구성됐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해외에 한국을 널리 알린 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도 포함돼 있다.<br/>대선 기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ㆍ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오모(38)씨 등을 비롯해 보수ㆍ친MB 단체 회원 출신들 30명이 외곽팀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대선 기간에 친보수 성향의 일반인들이 신분상 이유 등으로 댓글 활동에 부담을 느껴 실적이 부진하자 이들보다 부담을 덜 느끼면서 보안 유지가 가능한 보수단체 사람들로 외곽팀장을 교체한 것으로 보고 있다.<br/><br/><br/>국민 세금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댓글부대 운영자금으로<br/>댓글부대 운영 자금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특수활동비는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이 허술해 ‘깜깜이 예산’으로 불린다. 올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4,930억원이다. <br/>국정원 TF는 대선이 있던 2012년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에 매달 2억5,000만원씩 연간 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냈다. 성과에 따라 댓글부대원 1인당 5만~100만원씩 지급됐다. 이 비용은 모두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br/><br/>국정원 특수활동비는 2010~2012년 군의 댓글공작에도 쓰였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김기현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3'>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로 매달 25만원씩 받았다</span>”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의혹도 전면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연히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결재권을 갖고 있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br/><br/><br/><br/><br/>국정원 댓글공작 수사의 끝은 MB<br/> 결국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수사는 당시 정부의 최고 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고소 고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2011년 11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해 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한 박 시장은 “<span class='quot4'>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고 민주정부 수립을 허사로 만들었다</span>”고 비판했다.<br/><br/>2010년 KBS 내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미화씨도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span class='quot5'>이 전 대통령이 부끄러움 없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현실이 정말 어이 상실이라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5'>이 전 대통령과 그 밑의 어느 범위까지 고소할지 변호사와 상의 중</span>”이라고 말했다. <br/><br/>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75.txt

제목: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하는 건강 Tip] 심부전  
날짜: 201709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18051004001  
ID: 01101101.2017091805100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심부전은 일반인에게 좀 낯선 병이다. 여러 심장질환으로 심장기능이 약해져 혈액순환이 제대로 못돼 숨이 찬 증상이 생긴 것이다. 심근경색, 판막질환, 심근병증, 심장근육 손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긴다.<br/>　<br/>Q. 심부전 증상은.<br/>“숨차는 게 가장 흔한 증상이다. 운동할 때 호흡곤란이 가장 많고, 누우면 숨이 차 앉아 있어야 한다. 숨찬 증상이 심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숨이 차 누울 수 없어 앉아서 자야 한다면 병원을 찾아 증상을 조절해야 한다. 또한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아 다리가 붓는데, 손가락으로 누를 때 누른 부위가 나오지 않는 함요부종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br/> <br/>Q. 심부전은 재발이 많다는데.<br/> “적절한 이뇨제와 심부전 약제를 쓰면 비교적 잘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심장기능은 여전히 나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재발한다. 엄밀히 말해 완치가 불가능하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br/> <br/>Q. 심부전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br/>“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숨이 차 움직일 수 없는 심한 호흡곤란이 발생된다. 폐에 물이 차서 눕지 못하고, 숨을 쉬지도 못하고, 콩팥ㆍ간 기능 등 장기 기능이 악화되기도 한다. 위장관 기능도 악화돼 소화도 잘 안 된다. 악화된 환자가 입원하면 병원 내 사망률이 6%이다. 결국 1년 이내 사망률은 18%, 3년 사망률이 35%로 암보다 경과가 좋지 않다. 만성 심부전으로 비교적 안정돼도 1년 사망률이 9% 정도로 높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br/> <br/>Q. 어떻게 치료하나.<br/>“심부전 치료는 약물치료, 운동ㆍ재활, 수술적 치료 등 다양하다.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체내 수분양이 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매일 체중을 재 체내 수분이 늘면 음식을 싱겁게 먹어야 한다. 감기 등 감염성 질환도 증상을 악화할 수 있으므로 독감 예방접종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br/>　<br/>Q. 예방법이 있다면.<br/>“1차적으로는 혈압관리, 당뇨관리, 고지혈증, 과체중 등 심장질환 발생 요인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2차적으로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면 심장내과 전문의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아 적극 치료해야 한다.”<br/><br/>Q. 심부전이면 모두 사망하나.<br/>“조기에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끈기있게 치료하면 경과가 좋은 경우도 많다. 또한 치료가 잘 되지 않더라도 최근 심장이식이나 좌심실보조장치와 같은 최신 치료법으로 말기 심부전으로 진행한 경우라도 치료할 수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도움말= 최진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언론사: 한국일보-1-176.txt

제목: “2019년 개원하는 이대서울병원을 ‘미래 지향적 스마트 병원’으로 만들 것”  
날짜: 201709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18051000001  
ID: 01101101.2017091805100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심봉석 이화의료원 의료원장, 강서구 마곡동 이대서울병원 성공에 매진<br/><br/>“2019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개원하는 이대서울병원을 ‘미래 지향적 스마트 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br/>지난 달 1일 취임한 심봉석(59) 신임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이화의료원장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br/>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건립 중인 이대서울병원은 2019년 2월 병실 3인실, 전 중환자실 1인실, 국제 감염관리 시스템을 갖춘 첨단 병원으로 우뚝 서게 된다. 병상 규모는 1,014실이다.<br/>심 의료원장은 "이대서울병원의 건축 공정률이 34.6%로, 2018년 9월 완공해 2019년 2월 개원한다”며 “<span class='quot1'>병원 안내, 예약, 입원 및 퇴원, 진료결과 확인 및 상담 등 모든 과정에 최신 정보기술(IT)을 적용한 ‘미래 지향적 스마트 병원’으로 만들겠다</span>”고 했다.<br/>이대서울병원은 병상을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2019년 개원 시에는 494병상, 2020년엔 750병상, 2021년엔 1,014병상으로 병상을 증설한다. 병상은 3인실 606병상, 2인실 72병상, 5.10인실(특수 병실: 준중환자실, 뇌졸중집중치료실) 60병상, 1인실 129병상, 특실(VIP실, VVIP실) 51병상, 중환자실 96병상 등으로 구성된다.<br/>심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1'>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문 케어'의 주 내용의 하나가 상급 병실료의 단계적 급여화여서 병원 개원 시점인 2019년에는 2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환자가 병실료 부담 없이 쾌적하게 진료를 받게 될 것</span>”이라고 했다.<br/>이대서울병원은 일반 병실의 병상당 면적을 10.29㎡로 높여 병실 환경도 개선했다. 이는 의료법상 1인실의 병상당 면적 기준인 6.5㎡보다 넓다. 2인실과 1인실 병상당 면적도 각각 15.43㎡, 20.72㎡로 높였다. 또 3인실은 1인실 2개로 변경이 가능한 가변적 구조로 돼 있어 개원 후 병상 가동률 추이 등을 고려해 일부는 1인실 전환도 계획하고 있다.<br/>이처럼 이대서울병원은 감염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급성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같은 감염질환에 대비해 공조 시스템이 분리된 호흡기내과 병동,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음압 격리 병동, 응급의료센터 내 음압 격리실 등을 갖췄다.<br/>심 의료원장은 "이대서울병원은 5대 암, 심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척추질환 등 고난이도 중증질환을 특화했다”며 “또 미래형 질환에 대한 산학연 공동연구 역량 강화, 첨단 국제진료센터와 프리미엄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병원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대서울병원이 의료관광특구인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위치해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 송도 국제 신도시 등과 인접한 것을 바탕 삼아 국제 허브병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했다. <br/>심 의료원장은 배뇨장애, 전립선질환, 요로생식기감염 분야에서 전문가로, 레이저 전립선 적출술, 비디오 전립선 절제술을 국내 최초로 시술한 바 있다. 또 이대동대문병원 기획실장과 이대동대문병원장을 역임하는 등 경영관리 능력도 인정받았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1-177.txt

제목: 영화창의도시 부산, 4차산업 만나 ‘진화’  
날짜: 201709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18050945002  
ID: 01101101.20170918050945002  
카테고리: 지역>부산  
본문: 과기부 정책 지정사업 부산시 선정…2020년까지 예산 매칭 매년 20억<br/>전국 최초, 시네마 로보틱스 구축…ICTㆍ로봇기술 융합 영상로봇 제어<br/>부산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예산을 매칭해 매년 20억원(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 총 60억원을 확보,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일부를 리모델링해 ‘시네마 로보틱스(Cinema Robotics)’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br/>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시네마로보틱스 구축사업은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자랑거리로, 자동차 제작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로봇 암(Robot Arm) 제어기술과 ICT 기술이 융합, 무인 방송시스템과 로봇암 원격제어를 통해 컴퓨터 그래픽 촬영 등에 사용되는 차세대 영상로봇제어시스템이다</span>”고 설명했다.<br/>해외에서는 영화 ‘그래비티(Gravity)’(2013)와 ‘원더 우먼(Wonder Woman)’(2017) 등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암살’(2015)과 ‘군함도’(2017)등 VFX 비중이 높은 영화들의 제작에 활용돼 왔다.<br/>특히 시네마 로보틱스 제작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CG(컴퓨터 그래픽)합성 오차를 최소화하고 제작기간을 단축함으로써 3Dㆍ버추얼 작업 시 보다 30%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r/>서병수 부산시장은 “<span class='quot1'>아시아 최초의 사전시각화 기반의 버추얼스튜디오 디지털베이가 시네마 로보틱스라는 인프라를 보강함으로써 버추얼 시네마 로보틱스 제작 원스톱 체계를 완성, 고부가가치 실감콘텐츠 시장을 선점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1'>국내 실감콘텐츠 제작과 국외 프로젝트 유치를 활성화해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span>”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br/>한편 부산시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1년부터 총 140억원(국비 70억원, 시비 70억원)을 마련, 부산영상위원회와 함께 ▦1단계(2011~2013년) ‘3Dㆍ버추얼 특수촬영스튜디오 인프라 구축’ ▦2단계(2014~2015년) ‘인프라 연계 3D에셋 아카이브 구축 및 상용화’ ▦3단계(2016~2017년) ‘버추얼 실감형 디지털제작시스템 인프라 구축’의 3단계에 걸쳐 아시아 최고의 3Dㆍ버추얼 촬영스튜디오 인프라를 갖춘 ‘3D프로덕션센터-디지털베이’를 조성한 바 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78.txt

제목: 블랙리스트 이외수 “탄압에 죽음 직전까지”  
날짜: 201709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18050908002  
ID: 01101101.20170918050908002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소설가 이외수가 고통을 털어놓았다. <br/>이외수는 18일 인스타그램 자신의 계정에 “<span class='quot0'>‘선생님은 암적 존재이므로 매장될 때까지 압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직접 보셨다는 고위직의 어떤 분께서 제게 귀띔해 주신 내용</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span>”고 그간의 고충을 전했다.<br/>그는 “이전 정부의 잔인하고 야비한 탄압 때문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적도 있다”며 “생각할수록 소름이다. 공포와 전율 때문에 날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br/>이외수는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크스포스(TF) 조사결과로 확인된 MB 정부 문화ㆍ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 82명에 포함돼 있다. 이외수 외에도 조정래 진중권 등 문화계 6명,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등 배우 8명,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 김미화 김구라 김제동 등 방송인 8명, 윤도현 신해철 김장훈 등 가수 8명이 명단에 올랐다.<br/>이윤주 기자 misslee@hankokilbo.com<br/><br/><이외수 블랙리스트 심경 전문><br/>'선생님은 암적 존재이므로 매장될 때까지 압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직접 보셨다는 고위직의 어떤 분께서 제게 귀뜸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분노를 주체할 길이 없어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다 의자 위로 쓰러지면서 옆구리에 극심한 타박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뜨끔거리서 숨을 쉴수조차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잔안하고 야비한 탄압 때문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 축내면서 생사람이나 잡는 기관이었군요.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칩니다. 현재의 제 심경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포와 전율 때문에 날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치료라도 받아야 할까요.

언론사: 한국일보-1-179.txt

제목: 4G 통신기술 기여 이광복 교수 등 6명 대한민국학술원상  
날짜: 201709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17050457001  
ID: 01101101.20170917050457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학술계에서 가장 오래된 상인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자로 이광복 서울대 교수 등 6명이 선정됐다.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은 18일 오후 학술원 대회의실에서 ‘62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br/>이 교수는 스마트폰으로 통신할 때 사용되는 이동통신 기술, 4세대 이동통신(4G)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올해 자연과학응용부문 수상자에 선정됐다.<br/>자연과학응용부문 또 다른 수상자인 강창율 서울대 교수는 암 치료 부문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면역항암제 GITR항체의 작용 원리를 밝혀 고효능 바이오 항암제 개발에 기여했다. <br/>자연과학기초부문에는 수십나노미터 이하 물질에서 생기는 스핀전류를 연구한 이현우 포항공대 교수와 북반구ㆍ남반구에서 기후변화가 반대로 나타나는 시소(seesaw) 효과의 원인 규명에 기여한 우경식 강원대 교수가 선정됐다. <br/>박성종 가톨릭관동대 명예교수는 한자를 빌려 우리 말을 표기하던 이두(吏讀) 관련 고문헌 연구를 국어학적 관점으로 분석ㆍ고찰한 공로로 인문학부문 수상을 하게 됐으며 김성국 부산대 명예교수는 무정부주의를 탈근대적인 지식 정보화 사회에 맞게 이론을 혁신한 공로로 사회과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br/>대한민국학술원상은 학술원이 세계 정상 수준의 우수하고 독창적인 연구업적을 이룬 학자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으로 1955년부터 현재까지 총 24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올해 수상자는 인문학부문 1명, 사회과학부문 1명, 자연과학기초부문 2명, 자연과학응용부문 2명 등 6명 이다. 학술원은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메달, 상금 5,000만원을 수여한다.<br/><br/>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80.txt

제목: [별점평가단] 한국당 친박 청산 “눈 가리고 아웅” “뿌리 자르기”  
날짜: 2017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16050920002  
ID: 01101101.20170916050920002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표와 서청원ㆍ최경환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br/><br/>●여의도 출근 4반세기 ★☆<br/>이미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제명이 무슨 혁신인가. 또 친박 중 고작 서청원ㆍ최경환 내보냈다고 인적 청산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조차 과연 실현될지 두고 봐야.<br/><br/>●국회실록 20년 집필중 ★★☆<br/>눈 가리고 아웅. 그것마저도 이뤄낼지 의구심이 든다. 보수대통합과 새 출발의 첫 단추는 권문세족 같은 친박 세력과의 완전한 절연이다. 암은 완전히 도려내야지, 반을 놔두면 또 퍼진다.<br/><br/>●여의도 택자(澤者) 0<br/>봉숭아학당이 따로 없다. 정정당당히 출당 조치를 하든 용광로 대통합을 하든 선택해야 한다. 지방선거 앞두고 ‘출당시키면 TK표 잃을까, 놔두면 수도권 참패할까’ 벌벌 떠는 한국당 네 모습이 처량하다.<br/><br/>●너섬 2001 ★<br/>자유한국당은 박근혜와 친박이 세운 친박정당임. 박근혜 출당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뿌리 자르기임. 꼬리나 잔가지를 자르면 꼼수일 수 있으나, 뿌리를 자르는 것은 망하는 수, '망(亡)’수임.<br/><br/>●보좌관은 미관말직 ☆<br/>혁신의 시작은 포부와 꿈, 그리고 비전이다. 하지만 3인의 자진출당 권유는 환부만 살짝 도려내자는 혁신안. 감초 처방으로 병을 낫게 할 수 없다. 제1야당의 원심력만 강화될 것.<br/><br/>●한때는 실세 ★★★<br/>만시지탄! 박근혜 지지층에 대한 미련으로 이미 끝난 국민의 정치적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꼴. 지금이라도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언론사: 한국일보-1-181.txt

제목: “태안, 기름유출 사고 이후 남성 전립선암 여성 백혈병 급증”  
날짜: 201709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15050857003  
ID: 01101101.20170915050857003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주민 건강영향 10년 추적조사 <br/><br/>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이후 태안 주민의 전립선암(남성), 백혈병(여성) 발병률이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br/>최경화 태안군 보건의료원 환경보건센터 정보관리팀장은 15일 오후 태안군 소원면 한양여대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10주년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의 ‘유류유출에 따른 태안주민 건강영향’이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r/>이번 조사는 국가통계포털과 중앙암등록본부 자료를 토대로 태안과 전국, 태안과 인구구조 및 지역 성격이 비슷한 군 지역, 태안군 내 유류유출 고노출 및 저노출 지역을 대조해 이뤄졌다.<br/>조사 결과, 모든 암 발생률은 태안이 전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태안과 성격이 비슷한 다른 군과 비교할 때 태안의 전립선암(남성)과 백혈병(여성)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립선암은 1999∼2003년 10만명 당 10.7명이 발생했으나 2004∼2008년에는 12.1명으로 13% 늘었고, 사고 이후인 2009∼2013년에는 30.7명으로 154%나 급증했다.<br/>백혈병은 1999∼2003년 10만명 당 5.1명에서 2004∼2008년 5.6명으로 10% 늘었고, 사고 이후인 2009∼2013년은 8.6명으로 54%나 증가했다.<br/>2009∼2013년 표준화 암 발생률(10만명 당)의 전국평균은 남성 전립선암이 26.5명, 여성 백혈병은 4.1명이었다.<br/>최 팀장은 “<span class='quot0'>노출에서 암 발생까지 최소 10∼20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조사로 기름유출 사고가 태안 주민의 특정 암 발병률을 높인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해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태안=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82.txt

제목: [지역경제 르네상스] 금산인삼엑스포  
날짜: 201709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15050913001  
ID: 01101101.20170915050913001  
카테고리: 지역>충남  
본문: ‘생명의 뿌리 인삼,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br/>인삼종주지 금산에서 22일 개막<br/>1500년 전통 ‘세계인의 보약 금산인삼’세계에 알려<br/>경제파급효과 6611억, 관람객 편의시설 완비<br/>세계인삼도시연맹 결성, 인삼 국제품질 규격화 유통확대 추진<br/>1,500여개 인삼 도소매점 전국 인삼 최대 80% 유통<br/><br/><br/> 1,5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하늘의 선물’ 금산인삼은 예로부터 인삼 중에도 최상품으로 꼽혀왔다. 사포닌 이외에는 약리성분을 적은 외국인삼과 달리 항암성분 등 약리활성이 우수한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사포닌 성분이 골고루 조화를 이뤄 모든 체질의 사람들에게 사용 가능해 각종 암, 성인병, 노화방지, 신종플루 예방 효과 등 가치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br/>금산의 1,500여개 인삼 도소매점은 전국 인삼의 70~80%를 유통하고 있다.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라는 속담처럼 국산 인삼 대부분이 금산을 거쳐 전국으로 퍼져 나간다.<br/>인삼시장은 수삼이 거래되는 수삼센타 수삼랜드 수삼시장과, 백삼거래가 주류를 이루는 국제인삼시장, 약초가 거래되는 약령시장으로 구분된다.<br/>끝자리가 2일과 7일인 날에 열리는 5일장에는 하루 평균 205톤, 73억원 어치가 거래된다. 연간 거래량만 1만4,755톤(5,221억원)에 이른다. 인삼 이외의 약초 거래도 428개 업소에서 연간 7,750톤(832억원)에 달해 금산경제의 70%를 견인하고 있다.<br/><br/><br/>올해는 특히 금산인삼의 효능과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거대한 유통시장이 마련돼, 금산 지역경제를 견인할 효자 노릇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충남도와 금산군이 주최하는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생명의 뿌리, 인삼’이라는 주제로 22일부터 국내 최대 인삼시장 금산군 인삼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10월 23일까지 32일간 전시연출과 이벤트, 체험행사, 국제학술 및 심포지엄, 교역전 등이 펼쳐진다.<br/>금산은 2006년 2011년 두 번의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국제인삼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인삼시장 시설을 현대화해 고려인삼종주지 위상을 갖춘 데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시장 공략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br/>엑스포가 열리는 주행사장은 55,000㎡의 터에 ▦주제관 ▦영상관 ▦금산인삼관 ▦생활문화관 ▦체험관 ▦식물관 ▦국제교역관 ▦인삼미래농업관 등 8개 전시관에서 인삼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br/>엑스포 기간 동안 관람객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한 세계인삼도시 공연과 충남도내 시 군의 날 운영, 한가위 맞이 전통놀이 한마당, 초청가수 및 인디밴드 공연 등 크고 작은 공연이 이어진다.<br/>관람객 편의를 위한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람서비스, 안전과 교통대책도 마무리 했다. 금산군을 비롯한 인근 6개 시 군에 객실 1만2,400개를 확보했다.<br/><br/><br/>이번 엑스포는 세계최고의 인삼관련 전문엑스포로 거듭나기 위해 인삼의 산업화, 브랜드화, 국제화, 과학화를 기본구상으로 삼았다.<br/>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는 인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스토리텔링화 했다. 또한 식품과 제약에 한정됐던 인삼을 패션,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에 접목시킨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br/>특히 엑스포 기간 국내인삼도시연맹과 세계인삼도시연맹이 결성된다. 국내연맹에는 국내 16개 주요 인삼재배 도시가 참여한다. 농민과 인삼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수출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세계인삼시장에서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br/>국내 16개 도시와 해외 6개 도시가 참여하는 세계인삼도시연맹은 세계인삼 생산 및 소비의 중심국가와 도시를 대상으로 정례적인 상호교류 촉진,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상품개발과 국제품질규격화 국제유통확대, 세계인삼 수급 및 가격결정시스템 도입 등 인삼산업의 지속발전과 협력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br/>연맹에 참가하는 관계자들은 엑스포 기간 창립총회, 심포지엄, 교역전 등을 통해 인삼업계의 역량결집과 글로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br/>조직위는 이번 엑스포를 통한 인삼산업의 수익창출 극대화에 나섰다.<br/>올해 행사에서 고용유발 3,500여명, 생산유발 2,004억원, 부가가치유발 1,058억원, 세수유발 200억원을 비롯, 모두 6,611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br/>이 같은 기대는‘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성과를 바탕으로 추산했다. 당시 4,614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br/><br/><br/>이와 함께 국내외 관람객을 300만명을 유치, 인삼농업이 관광자원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국내거주 외국인 6만2,000명, 해외거주 외국인 3만8,000명 등 1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계획을 세웠다.<br/>이를 위해 국내 외국인유학생과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엑스포 팸투어를 추진했다.<br/>엑스포장에는 외국인을 위한 인삼주제 전시연출과 인삼 밭에서 직접 수확하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br/>특히 엑스포기간 열리는 국제인삼수출상담회, 세계인삼도시연맹 창립총회 등에 참여하는 20개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인삼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br/>엑스포조직위 김시형 사무총장은 “<span class='quot0'>충남도와 금산군, 엑스포조직위는 범도민ㆍ범군민지원협의회와 민간조직이 힘을 모아 엑스포 준비를 순조롭게 마무리 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편안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관은 물론 주차장, 숙박, 교통, 안전대책 등 세심한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금산=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83.txt

제목: ‘9ㆍ11 아동’ 치아서 유해물질 나왔다  
날짜: 201709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13050919001  
ID: 01101101.20170913050919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테러현장 주변서 자란 청소년<br/>주석, 납, 신경독소 등 검출<br/>뇌, 척수 등 신경계에 치명적<br/>건물 잔해 등 오염물질에 노출<br/>등록된 암환자도 5441명 달해<br/><br/><br/><br/>2001년 9ㆍ11 테러 현장 주변지역에서 자란 미국 청소년들의 유치(乳齒ㆍbaby teeth)에서 주석과 납, 신경독소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직은 표본이 많지 않은 예비조사 결과여서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하긴 이르지만, 9ㆍ11 테러가 인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그 동안의 의심을 상당 부분 뒷받침하는 단서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br/>뉴스위크에 따르면 ‘9ㆍ11 테러 당시 대기로 방출된 오염물질이 인근 지역에서 성장한 어린이들의 장기(long-term) 건강에 미친 영향’을 수개월 간 연구해 온 뉴욕 소재 마운트 시나이 병원 과학자들은 최근 유의미한 중간 분석결과를 얻어냈다. 지금은 청소년이 된 조사대상 4명으로부터 확보한 유치 가운데 절반가량에서 주석과 납, 신경독소의 흔적을 찾아냈는데, 이는 뉴욕 맨해튼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 공격으로 무너진 현장인 ‘그라운드제로’에서도 발견됐던 물질이다. 연구에 참여한 매니쉬 아로라 박사는 ‘매우 특이한 화학적 패턴’이 발견됐다고 한 뒤, “<span class='quot0'>50, 60대 성인 치아에선 주석 등이 종종 보이지만, 어린이의 치아에서 본 적은 한 번도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게다가 납 성분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흔적도 있었다</span>”고 말했다. 이들‘9ㆍ11 아동’의 치아는 거의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형태였다는 것이다.<br/>특히 신경독소의 경우, 뇌와 척수 등 전체 신경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파괴적인 화합물로 불안증부터 비만에 이르기까지 많은 병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구팀을 이끄는 로베르토 루치니 박사는 “<span class='quot1'>신경독소는 호르몬과 행동, 뇌를 조절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전신반응을 낳을 수 있다</span>”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span class='quot1'>확실한 과학적 결론을 내리려면 9ㆍ11 당시 어린이였던 이들의 유치들을 더 많이 확보해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span>”고 덧붙였다.<br/>올해로 벌써 16년이나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미국인들은 9ㆍ11 테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질병통제센터(CDC)의 ‘세계무역센터 건강 프로그램’에 등록된 9ㆍ11 테러에 따른 암 발병환자는 모두 5,441명(지난해 6월 기준)에 달한다. CDC는 건물 잔해에서 쏟아져 나온 발암물질과 오염물질의 흡입을 발병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9ㆍ11의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어린이들은 심장질환 위험이 있다”는 뉴욕대의 연구결과도 나왔다. 2001년 9월 당시 11개월이었던 루씨 라고딕(16)은 “나는 9ㆍ11을 기억 못하지만 9ㆍ11은 항상 나의 일부였다”며 “(이번 치아 독소 발견은) 과학과 역사가 ‘과거와 미래’ 양쪽에 영향을 주면서 충돌하는 경우”라고 했다. 9ㆍ11 테러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br/>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84.txt

제목: ‘뚱뚱해도 건강하다’는 비만의 역설은 잘못?  
날짜: 201709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12051025001  
ID: 01101101.20170912051025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 없다’는 대규모 연구결과 나와<br/>‘비만의 역설’은 여전히 진행형 주장도 맞서<br/><br/>‘뚱뚱해도 건강하다(fat but fit)’. 그 동안 여러 연구에서 과체중인 사람이 혈압만 정상이라면, 건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많았다. 이 같은 ‘비만의 역설(obesity paradox)’은 의학계에서 뜨거운 감자다. <br/>최근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52만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span class='quot3'>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은 없다</span>’는 결과가 나오면서 비만의 역설이 힘을 잃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br/><br/>“살찌면 마른 사람보다 건강”<br/>살찐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건강하다는 ‘비만의 역설’은 1990년대부터 서구에서 시작됐다. 국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잇따랐다. 성기철 강북삼성병원 순환기내과 교수팀은 2002~2013년 건강검진을 받은 16만2,194명의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저체중인 사람의 사망률이 정상체중인 사람보다 53% 늘었고,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 사망률은 정상체중보다 23% 줄었다고 했다. 암, 심혈관질환과 같은 질병에 의한 사망률에서도 마찬가지였다.<br/>과체중인 사람이 암 수술 후 사망률이 낮고, 뇌졸중에 걸려도 회복력이 빠르며, 심부전에도 더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근육인데 근육 많은 과체중인 사람이 빼빼 마른 사람보다 건강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span>”고 했다.<br/>심장병 환자가 과체중이거나 가벼운 비만이라면 저체중보다 예후(병 치료 뒤 경과)가 좋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노정현 인제대 일산백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심혈관 환자의 비만 지표(BMI-체지방-허리둘레-중심비만 등)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예후가 더 좋았다</span>”고 했다.<br/>적당히 비만하면 심부전을 앓아도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한다. 2만8,209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선 정상 체중 심부전 환자보다 과체중-비만인 심부전 환자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각각 19%, 40% 낮았다.<br/> 65세 이상 고령인은 살찔수록 뇌졸중이 나타나도 회복력도 빨랐다. 김연희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교수팀이 급성 허혈성 뇌졸중을 진단 받은 2,057명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인 환자에서 고도비만그룹(37명)이 비만그룹(326명)이나 과체중그룹(316명), 정상그룹(391명), 저체중그룹(62명)보다 일상생활 능력이 빨리 회복했다.<br/>한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뚱뚱한 사람이 영양상태가 더 좋아 병에 걸려도 더 잘 견디기 때문에 비만의 역설은 가설에 불과하지만 크게 틀리지 않는다</span>”고 했다. 사망률이 높은 암, 폐결핵 등 소모성 질환(에너지를 많이 쓰는 질환)에 걸리면 체중이 줄어드는데 이 때문에 통계적으로 과체중인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이다.<br/><br/>“<span class='quot3'>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은 없다</span>”<br/> 그러나 최근 52만명의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추적 조사에서 ‘비만의 역설’이 부정되고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최신 공동 연구는 유럽 10개국의 과체중 혹은 비만인 52만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혈압ㆍ혈당ㆍ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라도, 정상 체중보다 28%나 심장마비를 초래하는 관상동맥 관련 질병에 더 노출됐다. ‘유럽 심장 저널(European Heart Journal)’ 최신호에 이 같은 연구결과가 발표됐다.<br/>연구를 주도한 임페리얼 칼리지의 카밀 라살 박사는 “<span class='quot4'>건강한 비만은 환상일 뿐, 건강해 보여도 과체중이면 심장병에 더 취약하다</span>”며 “<span class='quot4'>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 내에 있어도 과체중은 여전히 위험하다</span>”고 했다. 아미타바 배너지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교수는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은 없으며, 대사증후군이 없어도 비만하다면 심혈관질환 위험이 늘어난다”고 했다.<br/>임수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건강한 비만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BMI가 30 이상이라면 거의 대부분 대사 이상이 있고, BMI가 25 이상이어도 상당수가 대사 이상이어서 실제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했다.<br/>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비만의 역설 논문은 비만 측정 기준, 즉 BMI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보통 비만 기준으로 BMI가 쓰인다. BMI는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정상 체중(18.5~22.9), 과체중(23~24.9), 비만(25~29.9), 고도 비만(30 이상), 저체중(18.5 미만)으로 구분한다.<br/>우리나라 비만 기준이 낮아 실제로 정상인 사람이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진단되면서 생긴 착시현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국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전향적인 대규모 연구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은 BMI 구간이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ㆍ태평양 기준으로 과체중에 해당되는 BMI 22.5~25.0이라는 사실을 들어 비만 기준(BMI 25 이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사람의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키도 서구와 비슷하게 커져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아시아ㆍ태평양 비만 기준(BMI 25 이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비만 기준 정도(BMI 27.5 이상, 미국 비만 기준은 BMI 30 이상)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순집 대한비만학회 이사장(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도 “<span class='quot6'>BMI라는 숫자 하나로만 비만 진단하는 것은 위험하다</span>”며 “<span class='quot6'>비만 기준에 복부비만 등의 수치도 감안해야 한다</span>”고 했다.<br/>‘건강한 비만’은 결론 나지 않은 진행형이라는 주장도 있다. 황희진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비만건강학회 총무이사)는 “<span class='quot7'>최근 연구결과 추이를 볼 때 ‘근육 없는 저체중보다 근육 많은 과체중이 낫다’는 게 결론</span>”이라며 “<span class='quot7'>근육이 많으면 잘 넘어지지 않아 낙상을 당하지 않고, 혈당 조절에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이 크게 기여하기 때문</span>”이라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1-185.txt

제목: 심부전 앓으면 뇌졸중 발병 위험 4배 높아  
날짜: 201709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11051004001  
ID: 01101101.2017091105100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모든 심장질환의 '종착역'인 심부전이 생기면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정상인보다 4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뇌졸중은 단일 질환으로 국내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병이다.<br/> 강시혁ㆍ최동주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 코호트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국제심장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Cardiology) 최신호에 실렸다.<br/> 심근경색, 협심증 등 각종 심장질환으로 인해 심장이 많이 손상되면 결국 신체 조직에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인 심부전으로 악화한다. 한 번 발병한 뒤에는 완치가 어렵고 5년 내 사망률이 50%에 달해 대부분의 암보다 더 치명적인 병이다. <br/>대표적 증상인 호흡곤란과 부종, 피로감 등을 노화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다. 하지만 제때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후가 급격히 나빠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 <br/>연구팀은 2003~2013년 9만7,000명의 국민건강보험 코호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심부전 환자의 뇌졸중 위험은 연간 2.2%로 일반인(0.6%)보다 4배 가까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br/>같은 심부전 환자 중에서도 고령, 고혈압과 당뇨병, 뇌졸중 과거력이 뇌졸중 위험을 더욱 높이는 요소임이 확인됐다. 실제 65세 이상의 심부전 환자는 뇌졸중 발병 위험이 약 2배였고, 75세 이상 고령 환자의 경우 3배까지 발병 위험이 높아졌다.<br/> 고혈압이 있는 심부전 환자는 뇌졸중 위험이 1.41배, 당뇨병이 있으면 1.36배, 뇌졸중 과거력이 있으면 1.58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br/> 또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심방세동을 동반한 심부전 환자의 경우, 뇌졸중 위험이 특히 더 높았다.<br/>강 교수는 “<span class='quot0'>주로 노인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심부전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2040년에는 국내 심부전 환자가 1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span>”며 “<span class='quot0'>평소 심부전을 정확히 인지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뇌졸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1-186.txt

제목: [헬스 파일] 세브란스병원, ‘사각형 응급실’ 운영  
날짜: 201709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11051002002  
ID: 01101101.20170911051002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세브란스병원, ‘사각형 응급실’ 운영<br/>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최초로 ‘사각형 응급실’을 운영한다. 사각형 응급실은 의료진이 사각형 안쪽에 배치돼 환자 진료 구역, 처치 상황 등을 한눈에 실시간으로 살피고 확인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센터는 기존 1,520㎡(460평)에서 3,300㎡(1,000평)으로 2배 이상 넓어졌다. <br/>분당서울대병원, 시스템 러시아 진출<br/>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에서 러시아 현지 병원 진출을 위해 모스크바시 국제의료클러스터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분당서울대병원은 모스크바시 스콜코보 특구에 한국형 첨단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모스크바 스콜코보 특구는 대규모 과학기술혁신단지로 ‘러시아의 실리콘밸리’로 IBM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등이 입주해 있다. 전상훈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은 “<span class='quot0'>모스크바 스콜코보 메디 클러스터에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span>”고 했다.<br/><br/>고대의료원, 정밀의료사업단 열어<br/>고려대의료원이 국내 최초로 정밀의료사업단을 열고 지난 5일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고려대 염재호 총장과 김효명 의무부총장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세부 사업단으로는 김열홍 고대안암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이끄는 ‘정밀의료 기반 암 진단ㆍ치료법 개발 사업단(K-MASTER 사업단)’과 이상헌 고대안암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사업단’으로 구성됐다. 김 교수가 총 사업단장을 겸한다.<br/>동화약품, ‘활명수 120주년 기념판’ 공개<br/>동화약품은 올해 10월 출시될 예정인 쇼미더머니6 콜라보레이션 '활명수 120주년 기념판'을 공개했다. 활명수 120주년 기념판은 동화약품이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6'와 콜라보레이션한 브랜디드 컨텐츠의 완결판이다. 앞서 공개된 박재범 프로듀싱의 'REBORN' 음원과 뮤직비디오에 이은 것이다. <br/>JW중외, 생리식염수 ‘크린클’ 내놔<br/>JW중외제약은 약국 전용 멸균 생리식염수 ‘크린클’을 출시했다. 이는 ‘크린조’와 동일한 성분의 제품으로, 라벨과 용기 색상을 변경해 약국 전용 제품으로 새로 내놨다. 관류용이나 상처, 코 점막 세정, 양치, 의료용구 세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방부제 등 보존제가 함유되어 있지 않아 안심하고 비강 세척에 사용할 수 있다.

언론사: 한국일보-1-187.txt

제목: 비브리오 패혈증 걸리면 40~50% 목숨 잃어  
날짜: 201709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11051001002  
ID: 01101101.20170911051001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해수 온도 올라 비브리오 균 증식 활발…만성 질환자 주의해야<br/><br/>최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비브리오균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크게 늘고 있다. 해수 온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도 정도 웃돌면서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등 비브리오균이 증식하고 있어서다. 비브리오균은 해수 온도가 15도 이상이 되는 5월부터 생기기 시작해 수온이 높은 8~10월 가장 많이 발생한다. <br/> '비브리오 패혈증'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균(비브리오 패혈증균)에 감염되는 병이다. 이 균을 가지고 있는 어패류를 날 것이나 덜 익혀 먹거나 어패류나 바닷물, 갯벌에 들어 있는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균이 피부 상처에 접촉되면 감염된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잘 감염되며, 만성 간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면 치사율이 40~50%나 된다.<br/>비브리오균에 감염되면 2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피부 상처에 감염된 창상감염형은 해안에서 조개껍질이나 생선 지느러미에 긁혀서 생긴 상처를 통해 바닷물에 있던 균이 침입하여 상처 부위에 부종과 홍반(붉은 반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증상이 급격히 진행되며 대부분 수포(물집)성 괴사가 생긴다. 잠복기는 12시간이며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이 없는 사람은 항생제 투여와 외과적 치료로 대부분 회복된다.<br/>간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오염된 해산균을 익히지 않고, 날 것으로 먹었을 때 생기는 원발성 패혈증(비브리오 불니피쿠스 균 자체가 패혈증의 1차적인 원인)으로 갑작스러운 발열, 오한, 전신 쇠약감 등이 나타나고 구토와 설사가 동반되기도 한다. 잠복기는 16~24시간이며, 증상이 발생한 뒤 30여 시간 이내 피부에 병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팔 다리 특히 다리에서 부종, 발적, 반상 출혈(피부에 검보랏빛 얼룩점이 생기는 피하출혈, 멍), 수포형성, 궤양, 괴사(세포나 조직의 일부가 죽는 것) 등이 생긴다.<br/>김선빈 고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비브리오 패혈증의 증상이 심해지면 쇼크에 빠지기도 한다”며 “이 경우 회복이 매우 힘들며, 발병 후 48시간 이내 사망할 수 있다”고 했다.<br/>간질환, 알코올 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거나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이거나 암,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장기 이식, 면역결핍 환자는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리면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므로 예방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최근 1주일 이내 제대로 익히지 않은 해산물이나 어패류를 먹었거나, 바닷물에 접촉 또는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거나 어패류를 손질하는 중 상처가 난 뒤에 이상 증세가 발생했다면 당장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br/>-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는다.<br/>-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85도 이상 가열 처리한다.<br/>- 조개껍질이 열린 뒤 5분 간 더 끓인다.<br/>- 날생선과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br/>- 어패류를 장만할 때 조리장갑 착용, 조리할 땐 꼭 흐르는 수돗물 사용한다.

언론사: 한국일보-1-188.txt

제목: '87년 세대 진보적 건축'을 되돌아 보다  
날짜: 201709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10050506002  
ID: 01101101.20170910050506002  
카테고리: 문화>미술\_건축  
본문: 민중미술, 민중가요란 말은 있지만 민중건축이란 말은 없다. 민중예술이 정권과 체제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동안 건축은 뭘 하고 있었을까. <br/>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3, 4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종이와 콘크리트’는 1987년부터 1997년까지, 10년 간 이 땅에서 이뤄진 건축운동을 집중 조명한다. 전시를 기획한 정다영 학예연구사는 이 기간을 “<span class='quot0'>민주화 운동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던 때</span>”라고 설명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다른 예술 장르에선 진보적 예술가들의 활동을 조명하고 분석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반면 건축에선 아직 그런 시도가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건축의 가장 역동적인 시기를 조명한 최초의 기획전</span>”이라고 말했다. <br/>전시엔 청년건축인협의회(청건협), 수도권지역건축학도협의회(수건협), 건축운동연구회(건운연), 4.3그룹, 서울건축학교 등 10여개 건축집단과 건축매체가 소개된다. 당시 한국 사회는 88서울올림픽, 주택 200만호 건설, 분당ㆍ일산 등 1기 신도시의 탄생,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건설 시대의 명과 암이 모두 드리운 시기였다. 이에 시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건축 제도의 틀을 확립하기 위한 건축가들의 모임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br/>1987년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등장한 청건협은 젊은 건축인 300명 이상이 모여 만든 한국 최초의 진보적 건축집단이다. 건축가가 사회 참여와 무관한 장인처럼 취급 받던 시절에 이들은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찾고자 했다. 용산미군기지 활용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인천 철거민 집단 이주지를 설계했으며, 내부적으론 건축사 특별전형제도 폐지 운동을 벌였다. 전시에선 청건협의 창립총회 포스터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br/>1988년 결성된 수건협은 수도권지역 10여개 대학 건축학과의 진보적 소모임 협의체로, 가장 짧지만 가장 급진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들은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찾는 것을 넘어 건축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 가능성을 모색했다. ‘민중과 함께 하는 참건축’을 표방하며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무허가 주거지 철거에 반대하는 빈민운동에 참여했다. 전시에는 수건협이 80년대 후반 서울 빈민 지역에서의 활동을 정리한 자료집 등을 선보인다. ‘집이란 삶의 대상이지 소유의 대상은 아니다’란 자료집 제목에서 당시 대학생들이 열망한 건축의 유토피아를 짐작할 수 있다. <br/>내부적으로 건축의 질을 향상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1990년 결성된 4.3그룹은 건축가 14명이 모인 단체로, 이들은 서로의 작품을 발표하고 비평하며 자신들의 건축관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찾고자 했다. 조성룡, 승효상, 김인철 등 지금 한국 건축계의 원로들이 당시 4.3그룹의 회원이었다. 서구 근대건축과 건축이론을 공부하고 함께 일본, 유럽, 인도로 건축기행을 다녀오며 건축이 산업이 아닌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승효상의 건축철학인 ‘빈자의 미학’도 이때의 활동을 바탕으로 확립됐다. <br/>건축집단들의 활동이 대부분 출판물로만 남았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미술이나 음악처럼 작품에 직접 메시지를 새겨 넣을 수 없는 건축의 특징 때문일 것이다. 전시 기획자들은 역으로 이 점을 이용해 전시 방향을 종이와 콘크리트의 대비로 잡았다. ‘콘크리트’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복잡한 사회상을 상징한다면,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청년 건축가들의 짧지만 뜨거웠던 활동을 ‘종이’가 대변한다고 본 것이다. 원래 고려했던 제목은 ‘찌라시와 공구리’였다. <br/>전시가 열리는 9월 1일부터 2018년 2월 18일까지 포럼, 심포지엄 등 부대행사가 이어진다. 9월 23일엔 김성홍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등이 ‘1987년 이후 한국 건축운동의 두 흐름’을, 10월 25일엔 그래픽 디자이너 안상수, 성재혁 등이 ‘건축 안의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 강의한다. 자세한 일정은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br/>황수현 기자 sooh@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89.txt

제목: [글로벌 Biz 리더] ‘패스트 패션’을 일구다… 자라 창업주 아만시오 오르테가  
날짜: 201709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09050216001  
ID: 01101101.20170909050216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지난해 9월 미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부호 순위에서 의외의 인물이 1위에 올라 깜짝 화제가 됐다. 의류 브랜드 ‘자라’(ZARA)로 유명한 스페인 업체 ‘인디텍스’ 그룹의 창업주 아만시오 오르테가(81)가 그 주인공. 인디텍스 지분 59.29%를 보유한 그는 당시 자산 규모 795억달러(약 90조원)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립자(785억달러), 제프 베저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ㆍ676억달러), 워런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CEO(674억달러) 등을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꿰찼다. 지분 가치 하락으로 최근 순위가 4위로 내려 앉기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소매상이자 유럽 최고 부자다. <br/>그가 전 부인 로살리아 메라와 함께 1975년 만든 제조유통일괄형(SPA) 브랜드 자라는 현재 스웨덴 H&M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SPA 브랜드다. 자라는 현재 93개국에 약 2,200개 매장을 두고 있으며, 그 중 안방인 스페인 매장이 430여개로 가장 많다. 우리나라에는 2008년 처음으로 매장을 열었다. 지난 5월 기준 자라의 브랜드 가치는 113억달러(약 112조8,00억원)로, 종합 순위에서는 51위, 의류업체 중에는 나이키 루이뷔통 등에 이어 6위다. <br/><br/><br/>자라는 보통의 의류 업체가 최장 6개월에 한 번 새 제품을 내놓는 것과 달리 일주일에 두 번씩 신제품을 내놓는다. 옷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전 세계 매장에 뿌리기까지는 최소 14일, 평균 20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모든 상품은 제조된 지 48시간 안에 매장에 진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자라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매년 4억4,000개에 이른다.<br/>혁신적인 사업 모델의 비결은 디자인부터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을 직접 챙겨 비용과 생산 기간을 대폭 줄인 데 있다. 자라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아시아 등으로 공장을 옮기는 다른 업체들과 달리 여전히 전 제품의 약 60%를 스페인과 인근 국가에서 생산한다. 축구장 90개 크기의 초대형 물류기지도 스페인에 두고 있다. 한 곳에서 물건을 빠르게 만들어낸 다음 전 세계로 배달하는 시스템이다. 앤 크리츠로 소시에테 제네랄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자라의 제품은 다른 의류업체들이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소비자에게 전달된다</span>”고 말했다.<br/>세상은 자라에 ‘패스트 패션’(또는 인스턴트 패션)이라는 수식을 붙였다.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처럼 뚝딱 완성되고, 순식간에 판매된다는 뜻이다. 오르테가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다.<br/><br/><br/>일터에 뛰어들어야 했던 흙수저 소년<br/>오르테가는 1936년 스페인 레온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철도청 직원이었다. 오르테가는 시간을 칼같이 지키고 약속 어기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성향은 시간 엄수를 매우 중시하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한다.<br/>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오르테가는 13세가 되던 해 중학교를 자퇴해야 했다. 이듬해 아버지를 따라 이주한 코루냐에서 그는 ‘갈라’라는 이름의 셔츠 전문점에 취직해 옷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오르테가는 훗날 자라 성공의 초석이 될 아이디어를 얻는다. 당시 갈라는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옷을 파는 작은 가게였는데도 원단을 원단 생산업자에게 직접 사지 않고 중개상을 거치는 등 복잡한 생산ㆍ유통 방식을 갖고 있었다. 오르테가는 이런 방식을 단순화하면 더 빠르고 싸게 옷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br/>1972년 오르테가는 부인 메라(당시 약혼녀)와 함께 여성용 목욕가운을 만들어 파는 옷가게 ‘고아 콘펙시오네스’를 열었다. 고아는 그의 이름(Amancio Ortega Gaona)에서 앞글자만 따 뒤집어놓은 말이고, 콘펙시오네스는 스페인어로 의류를 뜻한다. 옷가게 주인이 된 오르테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중개상을 거치지 않고 원단업자에게 직접 원단을 구입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었다. 그는 이 외에도 불필요한 중간 과정을 찾아 걷어냈고, 이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남들보다 빨리 만들어내는 토대가 됐다. 다양한 신상품이 쏟아지면서 그의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었다.<br/><br/><br/><br/>유행하는 옷을 합리적 가격에<br/>첫 가게를 통해 성공의 가능성을 본 오르테가는 1975년 항구 도시인 라코루냐에 자라 1호점을 세웠다. 자라(ZARA)라는 이름은 그가 좋아하는 고전 영화 ‘희랍인 조르바’(Zorba the Greek)에서 직접 따왔다. 원래 그는 매장 간판을 ‘조르바’로 달았는데, 불과 두 블록 떨어진 곳에 같은 이름의 술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 글자를 재배치해 지금과 같은 이름을 만들었다.<br/>어부가 많은 곳이어서였을까, 오르테가는 ‘옷 장사는 생선장사와 같다’는 생각을 가졌다. 갓 잡은 생선처럼 옷도 신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유행이 지난 옷은 전날 잡은 생선과 같다고 여겼다. 그는 “<span class='quot0'>유행은 만드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다</span>”라고 늘 강조했다. 유행을 무리하게 예측하는 대신 순발력 있게 반영해 옷을 만드는 자라의 사업 모델은 이런 생각에서 탄생했다.<br/>오르테가가 고수한 철학은 또 하나 있다. 고객이 ‘살 수 있는 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품은 빛나지만 너무 비싸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는 “<span class='quot0'>다른 곳에서 100유로에 사야 하는 실크나 캐시미어 의류를 자라에서 30유로에 살 수 있다면 틀림없이 기쁘지 않겠느냐</span>”라고 묻는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자라는 지금도 마케팅을 거의 하지 않는다.<br/>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면서 자라는 성공적으로 스페인 시장에 안착했다. 1985년 오르테가는 불어나는 자라 매장과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디텍스라는 회사를 세웠다. 인디텍스는 1988년 인근 국가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자라를 해외로 가져나갔다. 1990년에는 엄마를 따라 매장에 들르는 아이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어린이용 의류만 판매하는 ‘자라 키즈’를 선보였고, 1991년부터는 풀앤베어 같은 브랜드를 새로 내놓거나 인수합병(M&A)했다. 현재 인디텍스 그룹 산하에는 자라뿐 아니라 마시모 두띠(Massimo Dutti), 버쉬카(Bershka), 오이소(Oysho) 등 8개 브랜드가 있다. 인디텍스가 93개국에서 운영하는 매장 수는 2,200여개의 자라 매장을 포함해 총 7,200개에 이른다.<br/><br/><br/>“<span class='quot1'>난 평범한 사람…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span>”<br/>인디텍스 설립 때부터 회장을 맡았던 오르테가는 2011년 부회장이자 CEO였던 파블로 이슬라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고 경영 일선을 떠났다. 그의 나이 75세 됐을 때다. <br/>현재 오르테가는 둘째 부인인 플로라 페레즈 마르코트(2001년 결혼)과 함께 첫 번째 자라 매장을 열었던 라코루냐에서 살고 있다. 그는 은퇴한 지금도 출근을 거의 거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항상 같은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회사에 나와 책상에 걸터앉은 채 직원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한다. 여가 시간은 자신이 운영하는 승마장에서 말을 타며 보낸다. 마르코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딸 마르타 오르테가 페레즈가 이슬라 회장 밑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br/><br/><br/>오르테가는 세계 각국에 비싼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 거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스페인 근대화의 상징이자 마드리드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인 43층짜리 ‘토레 피카소’를 2011년 5억3,600만달러(약 6,054억원)에 사들여 화제가 됐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고급 호텔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에픽 레지던스 앤 호텔’도 그의 소유다. 서울에는 자라 매장이 들어서 있는 명동 엠플라자(2015년 4,300억원에 매입)를 갖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신사동 H&M 건물도 325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br/>하지만 오르테가의 관심이 부를 축적하는 데만 있는 건 아니다. 그는 2012년 로마 가톨릭 구호 단체(카리타스 인터네셔날리스)에 2,000만유로(270억원)를 기부하는 등 통 큰 자선가로도 유명하다. 오르테가의 관심은 특히 건강에 있는 듯하다. 그는 2015년 스페인 갈리시아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 1,700만유로(230억원)를 쾌척했고, 지난해에는 암의 진단과 치료 등에 써달라는 뜻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자선 재단을 통해 3억2,000만유로(4,325억원)를 기부했다.<br/>이처럼 유명할 수밖에 없는 여러 요인을 지니고 있지만 오르테가는 사실 빌 게이츠 등 다른 부호에 비해 낯선 편이다. 이는 자라의 스페인 증시 상장을 앞둔 2001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했을 만큼 외부 노출을 꺼리는 그의 성향 때문이다. 1999년에야 오르테가의 얼굴 사진이 유출됐고, 지금껏 그와 인터뷰한 기자는 3명뿐이다. 이슬라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자리에도 그는 참석하지 않았다.<br/>오르테가가 고집스러울 정도로 은둔형 삶을 추구하는 건 그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는 “<span class='quot1'>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고, 앞으로도 계속 중산층 사고방식을 지니며 살고 싶다</span>”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자신의 엄청난 성공에 대해서도 오르테가는 이런 말을 남겼다. “노력과 헌신이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일 뿐이다.”<br/>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90.txt

제목: ‘2017백암한마음축제’ 9월23일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려  
날짜: 201709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07050932001  
ID: 01101101.20170907050932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사회복지법인 인천종합사회복지관(백암재단.이사장 윤국진)은 오는 2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남구 학익동(매소홀로 418번길 14-57) 인천종합사회복지관(남인천 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2017 백암한마음축제’를 개최한다. <br/>이날 축제에는 내·외빈 50여명과 1천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노래, 춤, 악기공연 등 어르신 장기자랑(문의 김상일 팀장 032-873-0541)을 진행하고 어르신들께 중식이 제공되며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퀴즈도 풀고 상품도 받아가는 ‘도전골든벨’(문의 이상미주임 032-873-0541)이 진행된다. 또한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는 주민 장기자랑(문의 한송이팀장 032-873-0541)이 열린다. 장기자랑 상품으로는 한우세트와 굴비세트, 과일세트가 준비되어 있다. 어르신 및 주민장기자랑은 이달부터 9월15일 오후 6시까지 각각 선착순으로 10개팀씩 접수를 받는다.이와 함께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떡복이, 부침개, 솜사탕 등 다양한 먹거리을 제공하는 먹거리 부스가 마련되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제기 만들어 차기, 비석치기, 투혼 던지기 등 체험부스가 진행된다체험부스에는 주민들이 직접 ‘플러스 친구가입하기’를 비롯해 ‘풍선아트로 만든 ‘예쁜 꽃 받아가기’. ‘가족 친구 이웃의 인사나누기’ ‘사진촬영 추억만들기’ ’소원팔기 만들기‘,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친환경 비누만들기’를 할수 있다. <br/> <br/>인천종합사회복지관이 매년 주최하는 ‘백암한마음축제’는 지역 어르신들을 비롯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수 있으며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

언론사: 한국일보-1-191.txt

제목: 레지오넬라증 신고 58%↑  
날짜: 201709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07050846001  
ID: 01101101.2017090705084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오염된 물 속 균에 의해 감염돼 발열과 기침 등을 유발하는 레지오넬라증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엄격한 환경관리를 당부했다.<br/>7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까지 레지오넬라증 신고 건수가 총 120건으로 전년 동기(76건)보다 57.9% 증가했다고 밝혔다. <br/>3군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샤워기, 수도꼭지, 분수대, 욕조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비말(날아 흩어지는 물방울)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인체에 들어오면서 발생하게 된다. 레지오넬라균은 25∼45도에서 번식하고 37∼42도에서 급증하는데 감염 시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레지오넬라 폐렴으로 발전하게 되면 치명률(환자수 대비 사망자수의 비율)이 10%에 이른다. <br/>질본은 50세 이상이거나 당뇨나 암 등 만성질환자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본이 2011∼2016년 레지오넬라증 사례 중 266건을 선정해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환자는 남성(71%), 50세 이상(82%), 당뇨ㆍ암ㆍ만성폐쇄성폐질환ㆍ자가면역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81%)가 대부분이었다. <br/>질본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건물 급수시설과 목욕탕 관리자는 냉수는 20도 이하, 온수는 50도 이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span>”라며 “<span class='quot0'>특히 레지오넬라증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 요양시설, 목욕탕 등은 정기적인 청소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span>”라고 말했다. <br/>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92.txt

제목: 금싸라기 땅에 서점 세우고 세계 첫 ‘교육보험’ 만들어  
날짜: 201709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06050913002  
ID: 01101101.20170906050913002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교보생명·문고 창립자<br/>대산 신용호 탄생 100주년<br/>일평생 ‘국민 교육’을 고민<br/>광화문 글판 아이디어도 제안<br/><br/>“사통발달 제일 좋은 목에 청소년을 위한 멍석을 깔아 줍시다. 와서 사람과 만나고, 책과 만나고, 지혜와 만나고, 희망과 만나게 합시다. 책을 읽은 청소년이 작가나 대학교수, 사업가, 대통령이 되고 노벨상도 탄다면 그 이상 나라를 위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br/>대산(大山) 신용호(1917~2003) 교보생명 창립자가 1981년 서울 광화문에 서점을 열겠다고 했을 때 임원들이 “<span class='quot0'>금싸라기 땅에 돈도 안 되는 서점을 들이는 건 말도 안 된다</span>”며 반대하자 한 말이다. 그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를 열었다. 신 창립자는 특히 사람들이 책을 훔쳐 가더라도 절대 망신 주지 말 것을 직원에게 신신당부했다. <br/>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신 창립자를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며 그의 삶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보험 불모지나 다름 없던 우리나라에서 생명보험업을 선도해 온 신 창립자는 사실 세계 최초로 교육 보험을 만든 선구자이기도 하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삶을 관통했던 단어는 바로 ‘국민교육’이었다. 그에게 교육은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자기계발과 인간성장을 평생 추구하는 것’이었다. 전남 영암의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난 신 창립자는 사실 잦은 병치레로 초등학교조차 나오지 못한 무학(無學)이었지만 항상 독서를 즐기고 민족의 장래를 걱정했다. 1958년 8월 설립한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교보생명의 전신)의 창립 이념도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형성’이었다.<br/>창립과 동시에 선보인 진학보험(현 교육보험)은 교육에 생명보험의 원리를 접목, 사람들에게 ‘매일 담배 한 갑 살 돈을 아끼면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줬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출시 후 30년간 300만명의 학생들이 학자금을 받아 학업을 이어 갔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런 인재들이 우리나라 경제개발 시대의 주역으로 활약하게 됐다</span>”고 설명했다.<br/><br/><br/>광화문 글판 아이디어도 제안<br/>7일 기념음악회를 시작으로<br/>심포·사진전 등 잇달아 열려<br/><br/>교육보험 외에도 신 창립자가 이룬 ‘최초’의 기록은 늘 한국 보험산업 발전에 한 획을 그었다. 그는 1977년 국내 최초로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을 개발해 퇴직연금시장을 선도했고, 80년 국내 최초 개발한 암보험으로 본격적인 보장성 보험 시대의 막을 열기도 했다. 이 같은 공로로 1983년 세계보험협회(IIS)로부터 보험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세계보험대상’도 한국인 최초로 수상했다. IIS는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7년 ‘신용호세계보험학술대상’까지 제정했고 매년 학자들을 수상하고 있다.<br/>교보생명 건물에 걸린 ‘광화문 글판’도 신 창립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1991년 1월 첫선을 보일 당시 문구는 ‘우리 모두 함께 뭉쳐 경제활력 다시 찾자’였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며 신 창립자는 “기업 홍보 대신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글판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고, 이후 여운과 감동을 주는 시 문구가 등장했다. 글판은 지난 4일 신경림 시인의 시 ‘별’로 83번째 옷을 갈아입었다.<br/><br/>교보생명은 신 창립자 탄생(음력 8월 11일·양력 9월 30일) 100주년을 맞아 7일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기념 음악회, 14일 ‘대산의 교육이념과 미래교육 방향’을 주제로 한 학술심포지엄을 연다. 또 28일까지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와 강남 교보타워에서 기념사진전도 연다. 교보문고도 백일독서캠페인, 심야책방, 북콘서트 등 다양한 캠페인을 운영한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93.txt

제목: “하느님이 내린 물, 암도 낫는다” 투자 사기장 된 기도원  
날짜: 201709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06050854001  
ID: 01101101.20170906050854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지난해 6월 강원 춘천시 소재 한 기도원. 목사 이모(75)씨가 기독교 신자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기적의 물’이란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 자리서 이 목사는 “<span class='quot0'>내가 자식으로 삼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적의 물’을 발견했다</span>”며 샘물사업가 최모(57)씨 등을 소개했다.<br/>목사의 소개를 받은 최씨는 “<span class='quot1'>내가 파는 유황샘물엔 게르마늄과 셀레늄 성분이 들어있어, 마시거나 몸에 바르면 아토피성 피부염은 물론 암도 나을 수 있다</span>”고 효능을 설명하면서 “<span class='quot1'>앞으로 콩나물이나 두부도 만들어 팔고, 유황온천도 지어 사업을 넓힐 것</span>”이라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1'>투자금(계좌당 550만원)을 내면, 그 금액의 세 배 수익이 날 때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배당금을 주겠다</span>”고도 약속했다.<br/>신자들은 열광했고, 그 뒤로 약 반년 간 이곳을 찾은 신도를 포함한 1,600여명 투자자가 선뜻 돈을 내놨다. 대부분은 안정된 노후를 바라보며 쌈짓돈을 내놓은 노인 또는 재테크를 고민하던 주부들이었다. 일부는 사채업자에 돈을 빌려 투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br/>하지만 최씨가 약속했던 배당금은 한 달 만에 끊겼고, 사기라고 확신한 투자자 중 일부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 일당은 해당 샘물을 마트 등에서 한 상자(2ℓ 6병)를 1만원에 판매하려 했으나, 호응이 없어 2주 만에 포기하고는 새 투자자들 돈을 모아 기존 투자자에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최씨 회사에 약 9,700만원을 투자했다는 피해자 박모(58)씨는 6일 “<span class='quot1'>피해금액도 크지만, 가족에 알리지 않고 돈을 빌려 투자한 사람도 많아 가정불화 등 2차 피해도 상당히 크다</span>”고 했다. <br/>서울 강동경찰서는 이 같은 수법으로 2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최씨를 구속하고 이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샘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유황 성분은 소량 검출됐지만 게르마늄이나 셀레늄은 극히 적은 양만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br/>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94.txt

제목: 배우 최여진ㆍ의사 양재진 등 암예방 홍보대사 위촉  
날짜: 201709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05050810001  
ID: 01101101.20170905050810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보건복지부는 배우 최여진, 정신과전문의 양재진, 웹툰작가 양경수, 요리사 장진우씨를 ‘암예방 4인 4색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br/><br/> 홍보대사는 건강한 식습관(장진우), 사내 금주문화(양경수), 운동(최여진), 암검진(양재진)을 주제로 암예방 인식 향상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방 수칙 실천을 유도하는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한다. 암예방 사이트(anti-cancer.kr)에는 건강체조, 건강식 조리법, 금주문화 확산을 위한 웹툰 등 홍보대사들이 소개하는 콘텐츠가 게시된다.<br/>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span class='quot0'>암은 사전 예방과 조기발견이 중요한 질환으로 암예방은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홍보대사들이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 최여진씨는 “<span class='quot1'>친근하고 재미있게 암예방 수칙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span>”고 소감을 밝혔다.<br/><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1-195.txt

제목: 자살을 부르는 요인? 남성은 암, 여성은 스트레스  
날짜: 2017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04050953001  
ID: 01101101.20170904050953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김덕원 연세대 교수팀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br/><br/>자살을 부르는 요인으로 남성은 암, 여성은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28.4명이 자살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의 오명을 쓰고 있다.<br/>김덕원 연세대 의대 의공학과 교수와 이완형 연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의학 박사는 자살 생각을 품다 실제 시도에까지 이룬 국내 20세 이상 남녀의 위험요소를 분석했다. <br/>김 교수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6년간(2007~2012년) 자료 상 5만여 명 중 자살 생각을 품고 있다고 답한 6,358명을 추적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군 남성 1,567명 중 106명(6.8%)이 실제 자살을 시도했으며, 여성은 3726명 중 188명(5%)으로 나타났다.<br/>연구팀은 자살생각을 품었던 이들을 실제 자살 시도로 이어지게 한 다양한 위험요소와 요소별 위험비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남녀 공통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증이 있을 경우 실제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았다.<br/>대학을 졸업한 남성과 여성보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남성과 여성의 경우 자살 시도의 확률이 각각 5.8배, 3.8배나 높았다. 우울증이 있는 남성과 여성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자살 시도의 확률이 각각 3.3배, 3.1배 높았다. <br/>이외 위험 요소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났다. 20세 이상의 남성의 경우 암(癌)이 있거나 발병 경험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 시도가 2.4배나 높았다. 반면 여성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이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는다고 답한 여성에 보다 자살시도가 3.6배나 됐다. 또한 홀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시도 확률이 1.8배였다. <br/>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행동 제한이 있어 거동이 불편한 여성이 대조군보다 자살시도가 1.6배나 높았다. 이어 남성과 달리 흡연도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흡연하는 여성이 흡연하지 않는 여성보다 자살시도 확률이 2.3배 높았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1-196.txt

제목: 콩 많이 먹으면 대장암 위험 크게 낮춰  
날짜: 2017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04050952001  
ID: 01101101.20170904050952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유근영 서울대 교수팀, 위암에 이어 대장암 예방 확인<br/><br/>콩이 대장암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콩에 들어 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 ‘이소플라본’ 때문이다. 이소플라본은 대부분 콩 섭취로 생성되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아시아 여성에서 대장암이 적은 이유 중 하나로 콩 섭취가 많기 때문일 것이라는 가설이 확인됐다.<br/>유근영(서울대 의대)ㆍ고광필(가천대 의대) 교수팀은 1993~2004년에 모집된 한국인 2만 여명 중 대장암이 발생한 환자 102명과 정상인 408명, 2003~2007년에 모집된 베트남 환자와 정상인 각각 222명과 206명을 대상으로 혈액에서 이소플라본 농도를 분석했다.<br/>한국인에서 혈중 이소플라본 농도가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보다 대장암 위험이 절반으로 낮아졌다. 혈중 이소플라본의 대장암 예방효과는 베트남인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관찰됐다. <br/>연구결과는 영양역학 분야의 저명한 전문 국제학술지 ‘임상영양(Clinical Nutrition)’ 최근호에 실렸다.<br/>연구진은 콩이 포함된 음식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암세포 증식, 혈관 신생, 지방산 합성을 억제하고 대변 배출을 촉진함으로써 대장암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설명했다.<br/>콩에 들어 있는 이소플라본이 위암에 이어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단 조리방식에 따라 콩이 들었어도 염분이 많이 든 음식의 경우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br/>유 교수는 “<span class='quot0'>콩 성분인 이소플라본의 대장암 예방효과는 성별 및 암 발생부위와도 상관없이 일관되게 확인됐으며 콩 섭취와 대장암 예방과의 관련성은 아시아인 공통으로 나타났다</span>”고 했다.<br/>고 교수는 “<span class='quot1'>서양에서는 콩 섭취가 암 예방에 도움 된다는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하였는데 콩 섭취량이 많은 아시아인에서는 서양과 달리 암 예방에 도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며 “<span class='quot1'>하지만 조리방식에 따라 염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오히려 발암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span>”고 했다.<br/>한편 연구진은 앞서 2010년과 2013년에 콩을 많이 섭취하면 위암도 직접 예방한다는 연구결과를 이미 내놔 위암 예방 전략수립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1-197.txt

제목: 아스피린 장기 복용 땐 심장병 예방?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날짜: 2017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04050952002  
ID: 01101101.20170904050952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아스피린 복용 노인 사망률<br/>비복용 노인보다 2배 높아<br/>“아스피린 득보다 실 클 수 있어<br/>약물복용에 신중해야” 지적<br/><br/>심장병과 뇌졸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을 장기간 꾸준히 복용한 노인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2배까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의 아스피린 복용기간이 길수록 사망률이 더 높았다. <br/>아스피린은 1897년 독일 화학자 펠릭스 호프만이 개발해 진통소염제ㆍ항(抗)혈소판제제로 널리 쓰이고 있다. 30여년 전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밝혀진 이래 많은 사람이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매일 꾸준히 먹고 있지만 심뇌혈관 질환 병력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예방 효과가 있는지 의견이 분분했다.<br/>윤종률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 받은 60세 이상 고령인 코호트 자료를 이용해 5년간(2003∼2007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 보유한 14만5,769명의 아스피린 복용 여부와 사망률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다. 연구결과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br/>5년간 아스피린을 전혀 복용하지 않은 노인은 13만3,046명, 1년 이하 복용은 1만21명, 1~3년 복용은 2,588명, 3~5년 복용은 114명이었다.<br/>아스피린을 먹지 않은 노인의 사망률은 9.8%였다. 아스피린을 1년 이하 복용한 노인의 사망률은 16.0%로,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는 노인의 1.5배였다. 1~3년 복용한 노인의 사망률은 17.7%(1.6배), 3~5년 복용한 노인의 사망률은 18.4%(2배)였다. 아스피린 복용 기간이 길수록 사망률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br/>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아스피린 복용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높았다. 대장암에 의한 사망률은 아스피린 복용과 비복용 노인에서 엇비슷했다. 심뇌혈관 질환과 암에 의한 사망을 제외한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률도 아스피린 복용 노인에서 더 높았다.<br/>윤 교수는 “<span class='quot0'>아스피린 복용 노인의 사망률이 더 높게 나온 것은 이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심혈관 질환 위험요소가 더 많았을 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span>”고 했다. <br/>개인 당 3가지 질병까지만 확인되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기본적 제한점 때문에 아스피린 복용 노인에서 파악되지 않은 다양한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요소가 더 많아 이런 요소들로 인해 사망률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br/>그는 “<span class='quot0'>아스피린에 의해 치명적인 출혈이 증가했을 수도 있다</span>”고 했다. 아스피린 복용한 노인에게 뇌출혈ㆍ위장관 출혈 등이 생겨 이들의 사망률이 높아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br/>그는 “<span class='quot0'>아스피린을 복용한 노인의 사망률, 심혈관ㆍ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높아졌다</span>”며 “<span class='quot0'>아스피린의 이득보다 위험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약물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span>”고 덧붙였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1-198.txt

제목: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하는 건강 Tip] 유전성 대장암  
날짜: 2017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04050950002  
ID: 01101101.20170904050950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대장암은 일반적으로 60~70대에 발병한다. 하지만 유전적 이유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유전성 대장암은 발병 원인부터 진단과정, 치료법, 추적관찰 등 많은 측면에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br/><br/>-유전성 대장암이란.<br/>“대부분은 유전적 요인이 관여하지 않지만 5% 정도는 원인 유전자가 알려져 있는 유전성 대장암에 해당한다. 가족성 용종증과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 대표적이다. APC유전자와 과오수정유전자군인 hMLH1, hMSH2등의 배선 돌연변이가 원인 유전자로 밝혀져 있다.”<br/><br/>-어떤 특징이 있나.<br/>“가족성 용종증은 수백~수천 개의 선종성 용종이 대장 점막에 생겨 설사, 혈변이 생길 수도 있다. 위십이지장에도 선종이 생길 수 있는데, 성인이 되면 100% 대장암으로 변한다.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은 가족성 용종증과 달리 대장 용종증을 잘 동반하지 않으며 대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80%나 된다. 산발성 대장암은 선종에서 암으로 되는 속도가 10~15년이다. 반면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은 3년 정도로 빠르다. 또한 동시성(대장암이 두 개 이상 동시 발생) 혹은 이시성(대장암 발생 후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난 후 2차 대장암이 발생) 대장암이 흔하고 자궁내막, 위, 비뇨기 등 다른 장기에 암이 생길 위험도 높아진다.”<br/><br/>-진단은 어떻게 하나.<br/>“가족성 용종증 환자의 자녀는 50% 정도 같은 병에 걸린다. 따라서 환자 자녀나 형제는 10대 때부터 1~2년에 한 번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 환자의 자녀나 형제는 20~25세부터 1~2년 간격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권한다.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으로 진단되면 산부인과 검진, 위내시경, 소변검사 등을 통해 다른 장기에 암이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한다.”<br/><br/>-치료는 어떻게 하나.<br/>“가족성 용종증 환자는 진단 당시 암이 아니어도 암이 될 확률이 100%이므로 미리 대장 전체를 잘라내야 한다. 소장 말단부인 회장을 J모양으로 접어 소장낭을 만들어 항문에 연결한다. 대개 30세 이전에 수술하는데 어릴 때 진단됐다면 10대 후반에 수술하는 게 바람직하다.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은 일반 대장암 수술처럼 대장을 부분 절제하면 50%에서 이시성 대장암이 생기므로 직장을 뺀 나머지 대장 부분을 모두 자르고 회장을 직장에 연결한다. 직장을 보존함으로써 배변기능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남은 직장에 암이 생길 가능성이 10~15%이므로 정기적으로 직장내시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직장암이 생겼다면 가족성 용종증 환자처럼 대장을 모두 잘라내야 한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도움말=박윤아 삼성서울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

언론사: 한국일보-1-199.txt

제목: [이 상품 어때요] 현대카드, 유류비 절감 경차전용카드 2종  
날짜: 2017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04050752001  
ID: 01101101.2017090405075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현대카드, 유류비 절감 경차전용카드 2종 <br/>현대카드가 유류비 절감에 유용한 서비스를 탑재한 ‘기아 레드 멤버스 경차전용카드’와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 를 출시했다. 경차 보급과 유류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경차전용카드는 1,000cc 미만의 승용차와 승합차에 유류세를 연간 20만원까지 돌려준다. 전국 주유소 및 LPG충전소 이용시 휘발유ㆍ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82원의 유류세가 자동으로 차감된다.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와 모든 LPG충전소에서 주유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전월 실적이 70만원 이상이면 리터당 400원(LPG는 200원), 30만~70만원이면 리터당 200원(LPG는 100원)이 청구할인된다.<br/><br/><br/>삼성화재, 자녀 심리 분석 ‘마이키즈 컨설팅앱’ <br/><br/>자녀의 신체와 심리상태를 분석해 성장 정보를 제공하는 삼성화재의 ‘마이키즈 컨설팅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녀 컨설팅에 초점을 맞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마음건강’과 ‘신체건강’ 두 가지 메뉴로 구성돼 있다. 마음건강 프로그램은 자녀의 성향과 사회성을 알아보는 검사로, 21개월부터 만 15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체건강 프로그램은 자녀와 부모의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바탕으로 현재 발달상태뿐 아니라 청소년기와 성년기의 질병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를 통해 체험과 상담이 가능하다.<br/><br/>라이프플래닛, 입원 25일까지 보장 ‘e입원비보험’<br/>인터넷 생명보험사 라이프플래닛이 입원비를 집중 보장하는 ‘(무)e입원비보험’을 출시했다. 8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보험료 변동 없이 입원비를 정액 보장한다. 질병재해로 2일 이상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 1일당 최대 9만원을, 연간 최대 25일까지 지급한다. 중증질환인 암이나 허혈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으로 입원시에는 특정질병재해 입원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에 가입한 60세 남성의 경우 암 치료를 목적으로 25일간 병원에 입원하면 특정 질병재해 입원보험금 150만원(일당 6만원x25일)에 질병재해 입원보험금 75만원(일당 3만원x25일)을 더해 연간 총 225만원의 입원보험금을 받는다.